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0807-10



이 연차보고서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Contents _ 목차

제1장 개요	1
제1절 배경 및 목적	3
1. 배경	3
2. 목적	4
제2절 내용 및 방법	5
1. 내용	5
1) 범위	5
2) 내용	5
2. 방법	7
제2장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환경 분석	9
제1절 문화다양성 개념 및 정책 대상	11
1. 문화다양성 개념	11
1) 문화다양성 개념의 발전 과정	11
2) 문화다양성의 개념	13
2. 문화다양성 정책 대상	16
제2절 국제사회의 문화다양성 정책 환경	19
1. 국제사회의 사회경제적 환경	19
1) 국제이주의 증가와 관련 이슈의 증가	19
2) 사회적 갈등과 정체성 문제 논의 증가	22
3) 국제 경제 분야에서 문화다양성의 중요도 증가	24
4) 창조적 문화영역에서 문화다양성 요구	28
5) 디지털 시대, 문화다양성 관점의 새로운 대응 방안 요구	30
2.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국 동향	32
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	32
2) 국가별 보고서 내용	33
제3절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 환경	43
1. 국내 사회경제적 환경	43
1) 체류 외국인·탈북민의 유입 등 인구구성의 다양화	43
2) 소수문화 등 문화주체의 다변화와 문화적 권리에 대한 요구 증가	46
3)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부족	48
4) 문화콘텐츠 분야의 공정성·다양성에 대한 요구 증대	48

5) 국가 정책에서 문화다양성의 중요성 증가	49
6) 지역문화와 전통문화 보호 노력 지속	50
2.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 현황	51
1) 문화다양성 법·제도 기반 조성	51

제3장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현황 55

제1절 2019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성과 분석 57

1.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조사 개요	57
2. 중앙부처의 정책 추진 현황 및 실태	59
1) 문화체육관광부	59
2) 고용노동부	81
3) 교육부	83
4) 국방부	85
5) 농림축산식품부	86
6) 방송통신위원회	87
7) 법무부	88
8) 보건복지부	89
9) 여성가족부	90
10) 외교부	92
11) 행정안전부	93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5
3.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현황 및 실태	97
1) 서울특별시	97
2) 부산광역시	103
3) 대구광역시	109
4) 인천광역시	114
5) 광주광역시	119
6) 대전광역시	126
7) 울산광역시	129
8) 세종특별자치시	132
9) 경기도	134
10) 강원도	143
11) 충청북도	149
12) 충청남도	154
13) 전라북도	161
14) 전라남도	166
15) 경상북도	171
16) 경상남도	176

17) 제주특별자치도	180
4. 2019년 문화다양성 정책성과 분석	184
1) 중앙부처의 문화다양성 정책	184
2)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	187
제2절 5년 간 문화다양성 정책 성과와 한계	189
1. 중앙부처의 문화다양성 정책성과 종합분석	189
2.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성과 종합분석	193
제4장 2019년도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사업 성과	199
제1절 문화다양성의 날 및 문화다양성 주간	201
제2절 무지개다리사업	204
1. 무지개다리사업 주요 내용 및 성과	204
2. 무지개다리사업 우수 사례	209
1) 문화다양성 기반 형성 영역	209
2) 문화다양성 가치 발굴 영역	212
3)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영역	214
제3절 문화예술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216
1. 유치원 및 초등 교원 대상 문화다양성교육	216
2. 문화다양성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217
3.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218
제4절 문화다양성 우수사례 및 콘텐츠 공모전	220
1. 문화다양성 증진과 가치 확산 문화콘텐츠 공모전 개요	220
2. 문화다양성 우수사례 공모전	221
제5절 문화다양성 관련 실태조사	223
1. 문화다양성 지자체 실태조사	223
1)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223
2) 김해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225
2. 2019년 미디어다양성 조사	227
1) 조사개요	227
2) 조사결과	228
제6절 국제협력	230
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230
2. 유네스코 협력 지원	231
3. 유네스코 협약 관련 국제 포럼 및 전문가토론회 개최	232

제5장 문화다양성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233

- 1. 문화다양성 보호·증진 기본계획 수립 235
- 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기반 조성 237
- 3. 문화다양성 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 및 추진 체계 마련 239
- 4. 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240

참고문헌 241

부록 245

- 1. 2019년 문화다양성 사업 목록 249
- 2. 2019년 문화다양성 주간 프로그램 소개 370
- 3. 「2019년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작성지침 374
- 4. 문화다양성 정책 관련 연구 연혁 382

Contents _ 표목차

〈표 1-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연차보고(제9조) 내용	3
〈표 1-2〉 2019년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유형 및 예시	6
〈표 1-3〉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연구체계	7
〈표 2-1〉 국제사회 문화다양성 논의 전개과정	12
〈표 2-2〉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의 법적 정의	14
〈표 2-3〉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정책 내용(자국 영토 내)	16
〈표 2-4〉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모니터링 내용	18
〈표 2-5〉 이주통합정책지수 2015 (MIPEX 2015)	20
〈표 2-6〉 한국 이민정책의 세부 분야별 점수	22
〈표 2-7〉 글로벌 기업의 '다양성과 포용성' 보고서	25
〈표 2-8〉 다문화와 문화다양성의 차이	44
〈표 2-9〉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 전개 과정	45
〈표 2-10〉 2015-2019년 실질개봉작 기준 여성 헤드 스태프 참여율	46
〈표 2-11〉 문화다양성법 구성	51
〈표 2-12〉 문화다양성 관련 조제 제정 현황	52
〈표 3-1〉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유형 및 예시	58
〈표 3-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59
〈표 3-3〉 국립중앙박물관 '문화다양성 사업' 교육 개요	63
〈표 3-4〉 국내 주요 영화제 협약 체결 현황	65
〈표 3-5〉 지자체 참여 및 지역문화콘텐츠 특성화사업(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66
〈표 3-6〉 2019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 활동 사진	67
〈표 3-7〉 2019년 문화동반자 연수 참여 현황	72
〈표 3-8〉 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사업	73
〈표 3-9〉 역대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현황	74
〈표 3-10〉 기초지자체 국제교류사업 추진 지원	74
〈표 3-11〉 고용노동부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81
〈표 3-12〉 〈근로자 문화예술제〉 근거 법령인 「근로복지법」 제91조	81
〈표 3-13〉 제40회 근로자 문화예술제 선정 기준 및 기간	82
〈표 3-14〉 교육부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83
〈표 3-15〉 〈전국 장애공감 사진 및 홍보 영상 공모전〉 오프라인 전시 개요	84
〈표 3-16〉 국방부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85
〈표 3-17〉 농림축산식품부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86
〈표 3-18〉 방송통신위원회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87
〈표 3-19〉 법무부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88
〈표 3-20〉 보건복지부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89
〈표 3-21〉 여성가족부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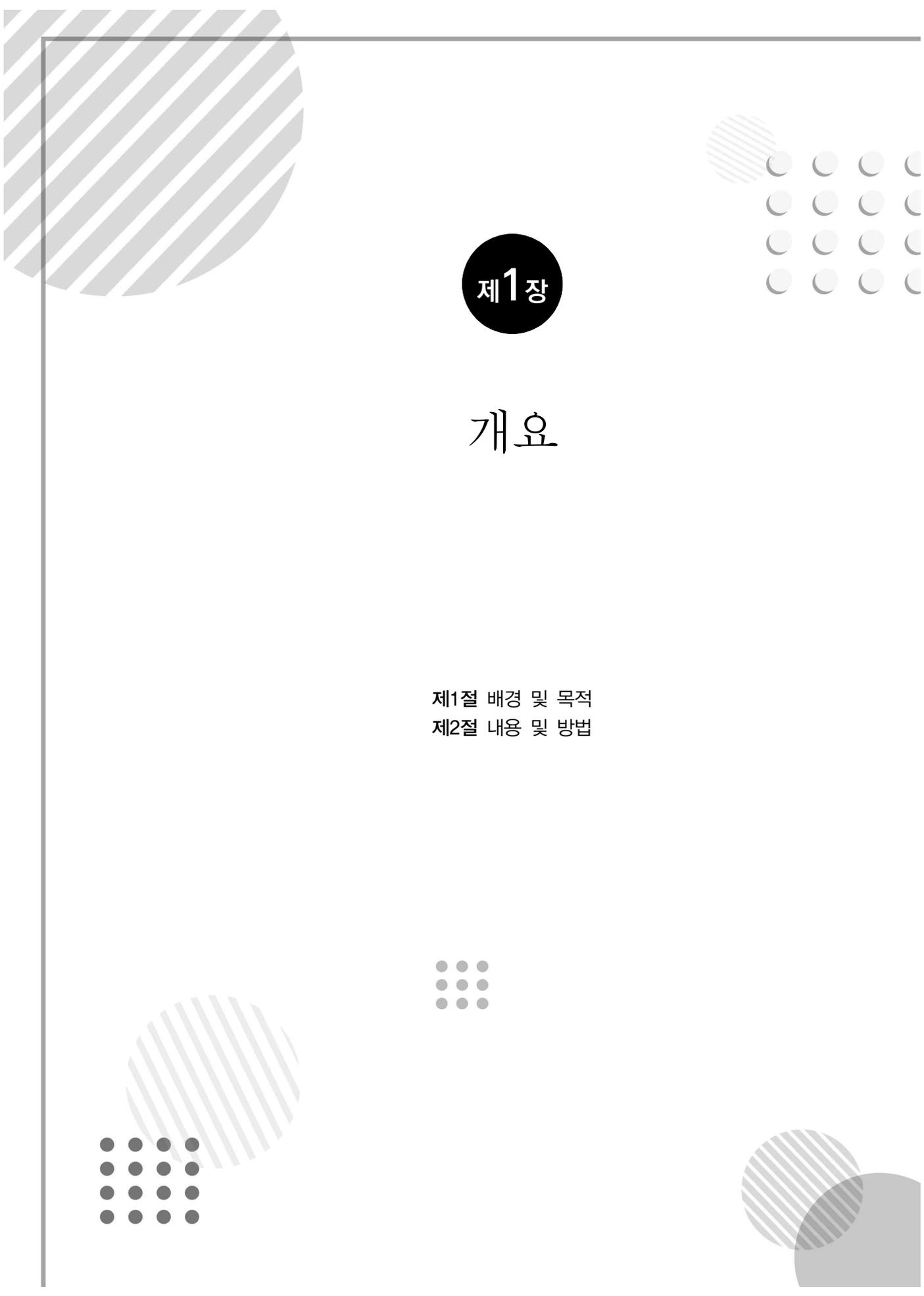
〈표 3-22〉 청소년 국제교류 세부 사업 내용	91
〈표 3-23〉 외교부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92
〈표 3-24〉 행정안전부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93
〈표 3-25〉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내용	94
〈표 3-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95
〈표 3-27〉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97
〈표 3-28〉 서울특별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 개요	98
〈표 3-29〉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103
〈표 3-30〉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정책 포럼 개요	106
〈표 3-31〉 대구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109
〈표 3-32〉 인천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114
〈표 3-33〉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119
〈표 3-34〉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126
〈표 3-35〉 울산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129
〈표 3-36〉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132
〈표 3-37〉 경기도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134
〈표 3-38〉 부천다양성다다 세부 프로그램 및 정책 유형 구분	134
〈표 3-39〉 '미디어다다' 제작 콘텐츠 목록	135
〈표 3-40〉 경기도 내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 개요	137
〈표 3-41〉 부천 문화다양성 협의회 내용	141
〈표 3-42〉 강원도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143
〈표 3-43〉 유니버설디자인 페어 세부 사업	144
〈표 3-44〉 제13회 장애인인권영화제 with 이지가지 FESTA 행사개요	148
〈표 3-45〉 충청북도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149
〈표 3-46〉 충청남도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154
〈표 3-47〉 충청남도의 〈세계시민교육〉 추진 현황	155
〈표 3-48〉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161
〈표 3-49〉 전라남도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166
〈표 3-50〉 경상북도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171
〈표 3-51〉 경상남도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176
〈표 3-52〉 어린이 문화다양성 '짜꿍' 세부행사	177
〈표 3-53〉 제주도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180
〈표 3-54〉 제주도 정책유형 3번 사업 목록	181
〈표 3-55〉 〈제주문화 국제교류 네트워크 사업〉 추진 일정	183
〈표 3-56〉 2019년 중앙부처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현황	184
〈표 3-57〉 2019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현황	187
〈표 3-58〉 2015~2019년 중앙부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수 추이	189
〈표 3-59〉 2015~2019 중앙부처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예산 추이	190
〈표 3-60〉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수 추이	193
〈표 3-61〉 2015~2019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예산 추이	194

〈표 4-1〉 2019년 문화다양성 주간 프로그램	202
〈표 4-2〉 무지개다리사업 주요 내용	204
〈표 4-3〉 문화간 상호교류 및 소통활성화(무지개다리사업) 추진 내용	205
〈표 4-4〉 2019년도 무지개다리사업 주관기관	205
〈표 4-5〉 연도별 주관기관의 변화	206
〈표 4-6〉 무지개다리사업 프로그램 수 연도별 변화	206
〈표 4-7〉 무지개다리사업 협력단체 수 연도별 변화	207
〈표 4-8〉 무지개다리사업 협력단체 수 연도별 변화	207
〈표 4-9〉 무지개다리사업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207
〈표 4-10〉 무지개다리사업 프로그램 만족 지점별 점수	208
〈표 4-11〉 각 구분별 문화다양성 관련 인식 변화	208
〈표 4-12〉 주제 기반 프로그램 사례: 구로문화재단	209
〈표 4-13〉 협력 기반 프로그램 사례: 김해문화재단	210
〈표 4-14〉 협력 기반 프로그램 사례: 세종시문화재단	210
〈표 4-15〉 인력 기반 프로그램 사례: 부산문화재단	211
〈표 4-16〉 소수문화 중점 프로그램 사례: 광주문화재단	212
〈표 4-17〉 문화교류 중점 프로그램 사례: 성북문화재단	213
〈표 4-18〉 공유 중점 프로그램 사례: 인천영상위원회	214
〈표 4-19〉 콘텐츠 중점 프로그램 사례: 완주문화재단	215
〈표 4-20〉 2기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현황	218
〈표 4-21〉 충북 음성 금왕유치원 연구학교 사례	219
〈표 4-22〉 문화다양성 우수사례 공모전: 김해문화재단	222
〈표 4-23〉 문화다양성 우수사례 공모전: 현곡초등학교	222
〈표 4-24〉 문화다양성 우수사례 공모전: 미디토리협동조합	222
〈표 4-25〉 2019 고양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분류체계	223
〈표 4-26〉 2019 김해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분류체계	225
〈표 4-27〉 2019 미디어다양성 조사 항목	227
〈표 5-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235

Contents _ 그림목차

[그림 1-1] 2019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목적	4
[그림 2-1] 한국 체류 외국인 현황	43
[그림 2-2]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44
[그림 3-1]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 (문화체육관광부)	62
[그림 3-2] 독립영화 아카이브 구축	65
[그림 3-3]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67
[그림 3-4] <인생나눔교실> (문화체육관광부)	68
[그림 3-5] 주민공감 정책사업 (문화재청)	69
[그림 3-6]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75
[그림 3-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 문화교류 관련 사업	76
[그림 3-8] 국립중앙박물관 <한국 속 세계문화>	76
[그림 3-9] 세종학당재단 <우수학습자 초청 한국어·한국문화 연수>	77
[그림 3-10] 언론인 국제교류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	78
[그림 3-11] 민주인권평화 가치나눔 프로그램 '어머니의 노래'	79
[그림 3-12] 청각·시각 장애인 작품 감상 지원 프로그램	79
[그림 3-13] 장애인체육 인터넷TV 중계 운영	80
[그림 3-14] 2019 책 체험버스 운영	80
[그림 3-15] 제40회 근로자 문화예술제-미술 분야 수상작	82
[그림 3-16]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88
[그림 3-17]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	89
[그림 3-18] 다문화 가족 자녀의 글로벌 인재육성/다문화가족의 맞춤형 서비스	91
[그림 3-19] 외국인주민 화합한마당	93
[그림 3-20] 지역연계형 예술교육 융합예술 아카데미 (서울특별시)	99
[그림 3-21] 예술놀이 LAB (서울특별시)	100
[그림 3-22]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서울특별시)	102
[그림 3-23] 2019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페스티벌 (부산광역시)	103
[그림 3-24] 아시아 문화다양성포럼 주간 및 커뮤니티 아트 교류 프로젝트 (부산광역시)	107
[그림 3-25]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 (대구광역시)	109
[그림 3-26] 장애인 전문체육·생활체육 육성 (대구광역시)	111
[그림 3-27] 수성 르네상스 프로젝트 (대구광역시)	111
[그림 3-28] 청년예술가 활동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115
[그림 3-29] 2019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사업 (인천광역시)	118
[그림 3-30] 무장애광산 만들기 (광주광역시)	120
[그림 3-31] 생활문화예술활동단체 및 동아리 지원 (광주광역시)	120
[그림 3-32]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광주광역시)	121
[그림 3-33] 청년참여위원회 운영 (광주광역시)	122
[그림 3-34] 아시아 문화포럼 (광주광역시)	123
[그림 3-35] 전통문화교류 (광주광역시)	123

[그림 3-36]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정책포럼 (광주광역시)	124
[그림 3-37] 문화예술교육 ODA 프로젝트 (광주광역시)	124
[그림 3-38] 미디어338 및 미디어아트 아카이브 (광주광역시)	125
[그림 3-39] 다문화 인식개선 강사 파견 사업 '등글게 등글게'	129
[그림 3-40] 수원평화통일영화제 (경기도)	135
[그림 3-41] 찾아가는 문화활동 (경기도)	137
[그림 3-42] 외국인주민 한국어 말하기 대회 (경기도)	138
[그림 3-43] 제16회 평창 대관령 음악제 (강원도)	143
[그림 3-44] 찾아가는 영화관 (강원도)	145
[그림 3-45] 평화 청춘 프린지 페스티벌 (강원도)	145
[그림 3-46] 저소득층 해외문화체험 연수지원 (강원도)	146
[그림 3-47] 문화예술교류지원-국제 레지던시 (강원도)	148
[그림 3-48] 학교 안 다양성 사업 (충청북도)	150
[그림 3-49] 마을공동체 사업 (충청북도)	151
[그림 3-50] 문화다양성 협의체 구성 (충청북도)	152
[그림 3-51] 문화다양성 정책 세미나 <정책데스크> (충남문화재단)	154
[그림 3-52] 문화다양성 렉처 콘서트 'Life 溫 music; 그녀에게' (충남문화재단)	156
[그림 3-53] 사이책방 (충남문화재단)	157
[그림 3-54] 도서관다문화 서비스	158
[그림 3-55] 국제 춤 대회 (충청남도)	160
[그림 3-56] 소식지 '마중'	164
[그림 3-57] 온라인소식지 '마중 뉴스레터'	164
[그림 3-58] '들어라 전라북도 산천은 노래다' 시선집 발간	165
[그림 3-59] 다문화가정 한마당 축제	166
[그림 3-60] 시니어 합창단 경연대회	167
[그림 3-61] 문화학교 운영지원	167
[그림 3-62] 제22회 함평나비대축제 미술대회	168
[그림 3-63] 시니어 합창단 경연대회	169
[그림 3-64] 다문화이해교육 (상주시)	171
[그림 3-65] 다문화가족 문화예술단 운영사업 (상주시)	172
[그림 3-66] 외국인근로자 축제 (경주시)	173
[그림 3-67] 지역우수문화교류 이탈리아 방문공연 (고령군)	174
[그림 3-68] 창작문화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고령군)	175
[그림 3-69] 어린이 문화다양성 '짜꿍' (경상남도)	177
[그림 3-70] 문화다양성 서포터즈 '말모이' (경상남도)	179
[그림 3-71] 제2회 UCLG 글로벌 청년문화포럼 (제주특별자치도)	182
[그림 3-72] UCLG ASPAC 제주-수라카르타 공동예술합작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182
[그림 4-1] 문화다양성 캠페인	203
[그림 4-2] 문화다양성 교육 교원 연수	216
[그림 4-3]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프로그램	217
[그림 4-4]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및 수상자 간담회	220
[그림 4-5] 고양시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224



제1장

개요

제1절 배경 및 목적
제2절 내용 및 방법

제1절

배경 및 목적

1. 배경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다양성법) 제9조에 따라 매년 한 해 동안의 문화다양성 정책성과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국적, 인종, 세대, 지역, 언어, 종교, 성별 등에 따른 다양한 소수자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창조를 위해 2014년 문화다양성 법이 제정됨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 및 세부 이행평가 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2016년부터(2015년 정책 분석) 매해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오고 있음

〈표 1-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연차보고(제9조)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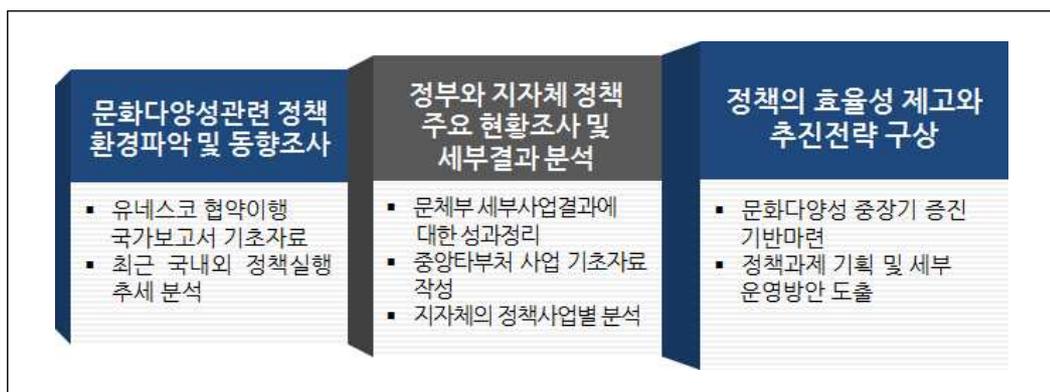
제9조 (연차보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에 따라 당사국은 4년을 주기로 자국 내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조치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보고는 국가보고서의 형태로, 자국 내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취한 조치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4년마다 유네스코에 제출하여야 함(제9조)
 - 한국은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내 이행사항에 대해 모니터링 한 국가보고서를 2014년과 2018년에 제출하였으며, 다음 보고서는 2022년 제출 예정임
 - 국가보고서의 내용은 연차보고서의 내용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작성됨

2. 목적

-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정책 추진 현황 및 세부 이행 결과와 그 평가에 대해 작성함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행실적을 분석해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연차보고서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실태 및 평가 결과,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함(문화다양성법 제9조)
 -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문화다양성 교육(제13조 및 제14조),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제12조), 문화다양성의 날 및 주간행사(제11조) 등정책사업의 현황을 분석함
- 정책사업의 평가·분석 및 국내외 문화다양성 관련 논의의 흐름을 파악해 향후 정책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의 근거로 활용함
 - 국내외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국내에서 추진 중인 정책사업의 실증적 진단을 기초로 문화다양성의 개념, 정책대상과 범위,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그림 1-1] 2019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목적

제2절 내용 및 방법

1. 내용

1) 범위

■ 시간적 범위

- (정책사업) 2019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추진된 정책 사업을 분석함
- (정책환경) 국내·외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환경은 최근 3~5년간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특히 국제 동향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글로벌 리포트가 발간된 2018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를 중점 분석함

■ 영역적 범위

- 18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17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함
- 특히, 문화다양성법에 근거한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함

2) 내용

- 국내·외 협약, 보고서, 연구 등에서 제시하는 문화다양성의 개념, 대상, 범위 등을 검토하여 문화다양성 정책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함

- 기존 연차보고서의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국내·외 문화다양성 논의 흐름 및 현황에 대해 보다 넓고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함

- 2019년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는 기 작성된 연차보고서의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 국제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논의 흐름 및 환경 분석, △ 지난 5년간의 정책 추진 현황의 통시적 분석, △ 문화다양성법에 근거한 세부 정책 사업의 현황 및 성과 분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기존 연차보고서의 정책사업 유형분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분석 고도화를 위해 사업 유형에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 분류 추가

〈표 1-2〉 2019년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유형 및 예시

번호	유형	예시
1	일반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및 가치 확산 사업	문화다양성 전문 인력 대상 교육,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캠페인, 홍보체계 구축, 토론회 등
2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기회확대 및 소수문화 기본권 신장 사업	소수문화 활동지원*, 다양성 관련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대상별 맞춤형 사업 운영, 다양한 계층의 이용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 지역고유문화 사업 등
3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사업	문화예술 상호교류 방안 및 프로그램 운영, 문화 간 협력 네트워크 기반 마련 등
4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 구축 사업	법적 제정과 제도적 기반마련, 정책예산 확보, 기구 설치(문화 다양성 전담 기구 등), 전문 인력 양성, 정책 협의체계 구축 등
5	문화다양성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사업	소수문화계층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정기적 평가제도 도입,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등
6	국제 문화교류 및 국외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국제기구와 교류협력, 민간차원의 국제 문화교류 활동 지원 등
7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 사업	미디어를 통한 문화다양성 활성화 사업, 미디어 상의 소수문화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사업, 지역 문화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업(작은 영화관 설립·운영 지원 등), 영상제작 지원 및 다양성 영화 제작 지원 사업,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등

* 결혼이주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여성, 장애인, 청소년, 노인 등 소수문화 활동 및 독립 문화예술, 대안 문화예술, 전통문화(예술), 지역문화 등 소수 장르 활동 지원 등

** 독립 문화예술: 상업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작품제작이 이루어지는 문화예술분야
ex) 독립영화제 지원 사업, 프리지페스티벌(독립문화) 축제지원, 인디음악 등

*** 대안문화예술: 연극, 영상, 미술, 문학 등 여러 가지 예술 분야가 혼합 및 융합된 탈장르적·실험적 예술분야
ex) 거리예술, 행위예술 등

■ 지난 5년간의 정책 사업 분석을 통해 향후 추진방향 정립의 근거로 활용함

- 법률 제정 후, 2015년부터 현재까지 수행 중인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에 대한 통시적 분석을 토대로, 한국 문화다양성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사업유형별 예산 증감률, 성과목표를 정리하고, 각 기관이 제출한 현황·실적에서 2015년~2018년 동일 단위과제에 대해 2019년 사업내용 또는 성과실적이 변경된 경우 비교·분석함

2. 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외 문화다양성 정책 환경을 분석함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및 글로벌 리포트, 관련 연구 및 정책보고서 분석을 통해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정책 범위 명확화
- 국제적 동향은 관련 국내·외 자료와 연구결과물을 활용하고, 문화다양성법에 따른 세부 사업성과는 사업 결과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정리

■ 2015년~2018년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정책 사업을 분석하고, 작성지침을 배포하여 2019년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조사를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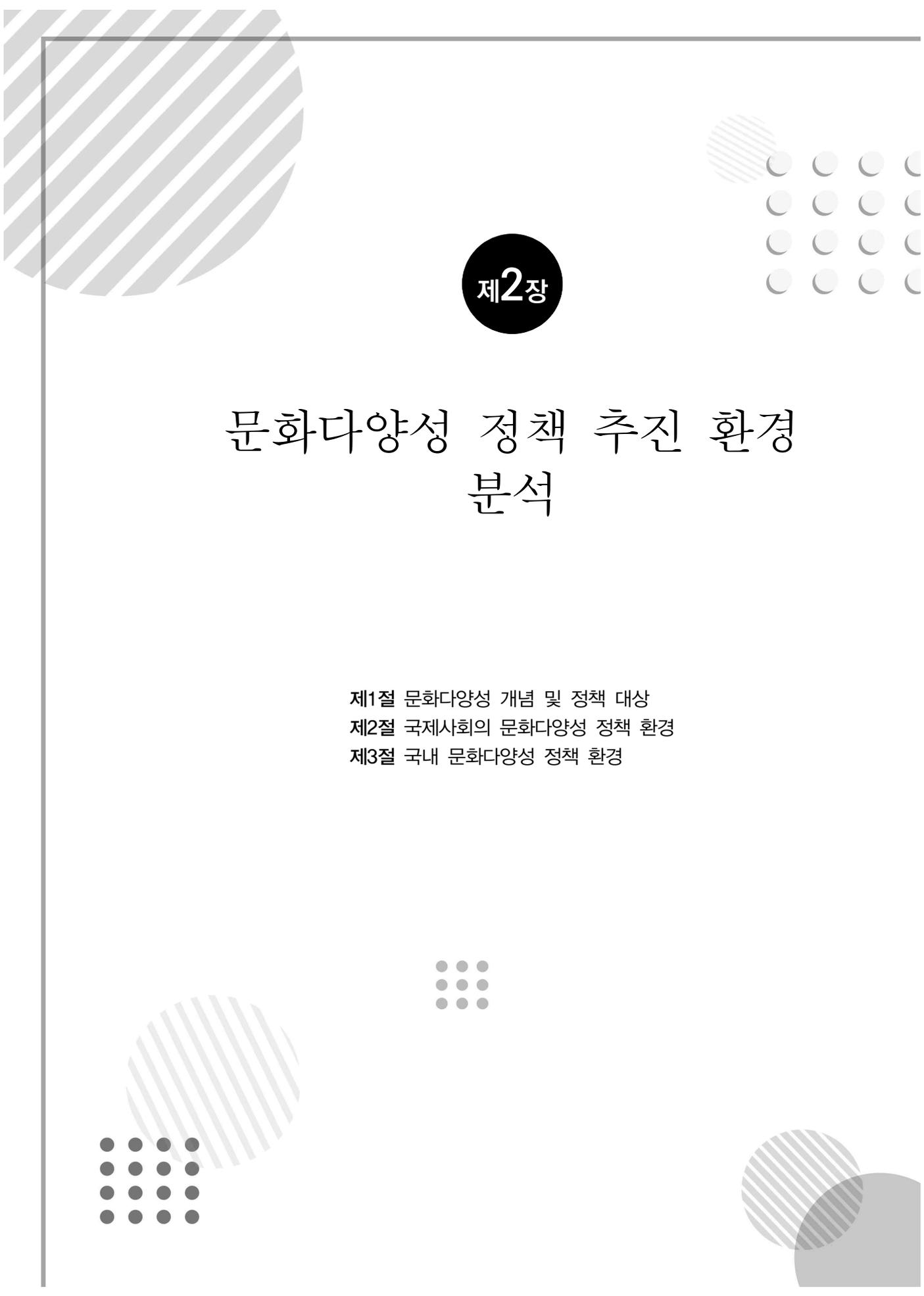
- 연차보고서 작성지침과 양식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취합
- 필요 시 개별 사업 자료집, 회의록 및 연구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정리

■ 조사 자료의 심층 분석을 통해 정책 구조와 연계성을 확인하고, 정책목표·집행·평가·환류 과정에 대한 평가를 시도함

■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현장 및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 조회 및 자문 수렴을 통해 정책적 제언을 도출함

〈표 1-3〉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연구체계

주요 연구내용	세부 연구내용	일정 및 진행상황
연차보고서 작성지침 마련	연구진-문체부 협의를 통한 작성지침 및 제출양식 작성	~2020.04
자료제출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중앙부처 및 광역 지자체에 공문 및 작성지침 발송	2020.04.20. 공문배포
자료 제출	각 중앙부처 및 광역 지자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료 제출	2020.04.20. ~05.29.
제출 자료 확인	제출 자료 취합 및 분석	2020.06
보고서 작성	보고서 초안 작성	2020.07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보고서 최종 수정 및 보완	2020.07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의견 조회, 최종 보고서 작성 후 국회 제출	2020.08



제2장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환경 분석

제1절 문화다양성 개념 및 정책 대상

제2절 국제사회의 문화다양성 정책 환경

제3절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 환경

제1절

문화다양성 개념 및 정책 대상

1. 문화다양성 개념

1) 문화다양성 개념의 발전 과정

■ 기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에서 출발한 문화다양성

-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제사회 최초의 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인종·민족적 정체성을 차별의 기준으로 삼아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한 집단적 반성에서 출발함.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논의가 점차 발전하여 문화다양성 개념으로 확장됨
 - 1948년 「세계 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간의 권리에선 개인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가 포함됨
- 세계대전 이후 신생독립국들의 등장과 함께 문화다양성은 문화정체성 개념과 연결되어 각국의 주권과 독립성을 정당화하는 내재적 힘으로 간주됨
 - 각 국가와 사회가 지닌 고유한 특징은 인류 문화의 공동 유산이자 각 국가 간 차별화된 가치의 원천으로 여겨짐
- 이후, 세계화로 인해 국제이주가 증가하면서 국가 내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게 되자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강조하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점차 확산됨

■ ‘문화주권’과 ‘문화적 예외’ 개념으로 이어진 문화다양성 논의

-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통합과 대중문화의 산업화에 따라 선진국 주류 문화의 문화 침범을 염려한 국가들이 자국 문화 보호를 위해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문화적 예외’로써 자유무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역설함
- 국가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 및 문화주권 보호의 필요성으로부터 문화적 다양성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2001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을 거쳐 2005년 문화다양성 협약의 체결로 이어짐
 - (문화의 본질적 다양성) 문화는 인류를 구성하는 집단과 사회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구현하는 것으로 시공간에 여러 형태로 나타남(세계문화다양성 선언 제1조)
 - (문화적 예외 관점에서 보호해야 할 문화) 순수예술, 독립예술을 포함하여 개인, 집단, 사회의 정체성이 표현된 소수문화와 소멸위기 문화를 포함함

〈표 2-1〉 국제사회 문화다양성 논의 전개과정

선언 및 규약		주요 내용
명칭	연도	
세계 인권선언	19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짐 • 모든 이는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화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국제규약 (ICESCR)	19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의 권리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적 진보향유 권리, 자신이 저자인 과학, 문화, 예술 활동의 결과로부터 나오는 도덕적 물질적 보호권리
시민, 정치적 권리의 국제규약 (ICCPR)	19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가 존재하는 국가에서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은 공동체내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를 고백하고 실천하며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을 권리
일반대중의 문화생활 참여 및 기여에 관한 권고	19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 개념을 집단과 개인의 생활양식 및 예술 활동 전체에서 문화의 창조성과 표현을 포함해야 한다고 확대 • 일반 대중의 문화생활 참여를 위한 정책에 대해 언급
인종과 인종차별적 편견에 대한 선언	19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차이가 인종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인류가 이룩한 서로 다른 성취는 각 민족의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에 기인하므로, 이러한 차이로 위계적 질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함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1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에 대한 접근권 보장과 예술가의 직업적 권리와 사회적 지위 보장, 고용 및 노동, 생활 여건의 보장, 문화정책을 통한 국가의 책무 등이 권고사항으로 채택됨 • 예술을 방송 분야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문화생산 활동으로 간주하며, 예술을 다양한 사회의 문화정체성과 정신적 유산을 반영, 보존, 풍요롭게 하고, 민족·문화·종교적 차이의 공통된 척도로서 표현과 소통의 보편적 양식이며, 모든 사람이 인류 공동체에 소속감을 갖게 해주는 것으로 규정함
소수자 권리에 관한 선언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해나 차별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를 고백하고 실천하며, 사적, 공적 장소에서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짐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을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규정 • 문화다양성 보호와 인간존엄성 존중 및 소수집단과 원주민의 자유와 인권보장 •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적 권리의 보호 • 창의성의 원천인 문화유산 보존 •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 인정 • 문화산업의 육성 및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공공협력 등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문화에 대한 동등한 존엄성 인정과 문화상호성 강화 • 소멸위기 문화의 보호와 예술가, 문화상품, 서비스의 자유롭고 공정한 이동 보장 •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강화 • 개발의 경제적·문화적 측면의 상보원칙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수 요소로 문화를 포함

■ 한국 사회 내 문화다양성 논의의 전개과정

- 한국에서 문화다양성 논의는 1998년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한국 영화의 보호 장치였던 ‘스크린 쿼터제’ 축소 요구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음
 - 선진국 문화로의 동질화 우려와 자유교역에 따른 국가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 보호 및 문화주권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포함함
- 2000년대 이후, 문화다양성 논의는 국내 이주민 증가 및 다문화정책의 수립과 맞물려 새롭게 부상함
 -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민 증가, 조선족·고려인 등의 증가,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로 인한 차별과 편견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다문화 정책’이 등장함
 - 초기 다문화정책은 이주민(특히, 결혼이주민)의 국내 통합을 목적으로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추진됨으로써 다양한 문화의 상호이해와 공존을 추구하는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비판적 견해가 나타남
- 정책용어로서 ‘다문화’가 이주민 대상 정책으로 이해되는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최근에는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해외 유입 타문화뿐만 아니라 국내 소수자 문화, 하위문화, 지역문화, 전통문화 등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과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2) 문화다양성의 개념

■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과 문화의 개념

- 유네스코 2001년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에서 ‘문화’는 사회와 사회 구성원의 특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예술 및 문학 형식 뿐 아니라 생활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 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됨(선언 전문)
 - 문화는 시공간에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집단과 사회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구현함
 - 문화는 정체성, 사회단결 및 발전에 대한 논의의 핵심을 이루며, 문화적 다양성, 관용, 대화 및 협력을 존중하는 것이 국제평화와 안전 보장의 핵심임

■ 문화다양성 협약과 법률을 통해 본 문화다양성의 개념

- 유네스코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문화다양성 개념(제4조)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양식의 예술 창작·생산, 보급·배포, 향유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다양성을 포함함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문화다양성 개념(제2조)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함

〈표 2-2〉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의 법적 정의

개념 정의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2005)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2014)
문화다양성	<p>(제4조(정의)의 1.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과 사회의 내부에서 그리고 집단과 사회 사이에서 전승된다.</p> <p>문화다양성은 인류의 문화유산이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통해 표현되고, 증대되며, 전승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용된 방법과 기술에 관계없이 다양한 양식의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p>	<p>(제2조(정의)의 1)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p>
문화적 표현	<p>(제4조(정의)의 3. 문화적 표현)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귀결되는 표현으로서 문화콘텐츠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p> <p>※ (제4조(정의)의 2. 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차원 및 문화적 가치를 말한다.</p>	<p>(제2조(정의)의 2)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p>

자료: 유네스코(201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문화다양성 협약과 법률의 성격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은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의 정신을 이어 받아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당사국 정부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과 의무 이행 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국제사회 문화다양성 논의의 준거가 됨. 국가 간의 문화적 자주권을 강조하고, 한 사회의 문화가 거대 주류 문화에 의해 획일화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함
- 한국의 문화다양성법은 국제 협약의 내용과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제정되었으며,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시민의 문화적 권리 보호에 방점을 둠

- 유네스코 협약에서는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 및 국가 간 문화의 존중과 보호 등 국제교류의 측면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언급된다면, 국내 문화다양성법은 개인의 문화권을 기초로 국민 상호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사회 통합적 측면을 강조함

■ 문화다양성 정책의 영역

- 문화다양성이란 각 집단과 사회의 고유한 문화-특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정체성)의 총체로 예술, 생활양식, 가치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이며, 문화다양성 정책은 이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총칭함
- 문화다양성 정책 영역은 ‘정체성’ 영역과 ‘문화적 표현의 독특성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정체성’이란 나이, 성별, 장애, 민족, 인종, 성적 지향, 종교 등에 따른 문화의 차이를 설명하는 개념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증진하는 정책으로는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계층의 문화적 권리 보호 및 활동 지원정책, 사회구성원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확장하고 문화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 등이 있음
 - ‘문화적 표현의 독특성’은 주류 문화의 지배로 인한 문화적 획일화 현상을 지양하고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개념임. 소멸 위기의 문화를 포함한 소수 혹은 비주류 문화의 가치와 고유성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독립예술·전통문화 등의 보호와 증진 정책, 문화의 언어적·지역적 다양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등이 있음

2. 문화다양성 정책 대상

■ 문화다양성 협약에서 제시하는 당사국 조치: 문화적 표현 보호와 증진

- 문화다양성 협약에는 문화적 표현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당사국이 취할 수 있는 세부 정책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국가적 수준의 조치) △법·제도 마련 등 문화정책 영역, △공적 재정 지원, △시설 및 기관 설립, △문화가치사슬 전반(창작·생산, 보급·배포, 향유)에 대한 보편적 기회의 제공, △언어다양성 지원, 독립예술 지원, △예술가에 대한 지원 및 예술가 양성, △창조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 △미디어 다양성 증진 등을 포함함
- (자국 내 문화적 표현의 보호·증진 조치) 국가 내 ‘사회적 소수집단’의 보호와 표현의 권리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창조·생산·보급·배포·접근, △국제교류, △예술가의 권리 보호, △소멸 위기 문화의 보호 등이 있음

〈표 2-3〉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정책 내용(자국 영토 내)

조항	주요내용	세부내용	정책 내용
국가적 수준에서의 당사국 권리 (제6조)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규제 조치	법·제도 마련
		나) 문화 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에 사용되는 언어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여, 자국 영토 내에서 국내 문화 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의 창작,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기회를 국내 문화 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서비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조치	언어다양성 지원 문화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보편적 기회 제공
		다) 비공식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독립 문화 산업과 활동이 문화 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 서비스의 생산, 보급 및 배포 수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독립예술 지원
		라) 공공 재정지원 제공을 위한 조치	공적 재정 지원
		마) 비영리 조직, 공공기관, 민간 기관, 그리고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전문가들이 생각, 문화적 표현, 문화 활동, 문화상품 및 문화 서비스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유통시킬 수 있도록 개발하고 증진하며, 또한 그들의 활동에 창의적이고 기업가적 정신을 고무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	예술가에 대한 지원, 창조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
		바) 적절한 경우,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	시설 및 기관 설립
		사) 예술가 및 그 밖의 문화적 표현의 창작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	예술가 양성 및 지원
		아) 공공 서비스 방송 활용을 포함한 매체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치	미디어 다양성 증진

조항	주요내용	세부내용	정책 내용
문화적 표현의 증진을 위한 조치 (제7조)	자국 영토 내의 개인과 사회집단 대상	소수자·원주민 등 사회집단, 여성의 특수한 상황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창조·생산·보급·배포·접근
		자국 영토 내 문화적 표현과 다른 나라의 문화적 표현에 접근	국제교류
	예술가·창작에 참여하는 사람들 및 공동체·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창작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 집단, 기관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기여와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기 위해 노력	예술가 권리보호
문화적 표현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8조)	자국 영토 내의 문화적 표현이 소멸할 위기나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거나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특수한 상황의 존재에 대하여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소멸 위기 문화의 보호
교육과 공공인식 (제10조)	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장려하고 증진하기 위한 교육 및 공공인식제고 프로그램 나) 다른 당사국 및 국제적·지역적 기구와 협력을 통한 교육 및 공공인식제고 다) 문화산업 분야의 교육, 훈련 및 교류 프로그램 실시		공공인식개선 교육
			국제교류
			전문인력 교육
시민사회의 참여 (제11조)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정하고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		시민사회 협력
국제협력의 증진 (제12조)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가) 당사국 간 문화정책에 대한 대화 촉진 나) 전문적, 국제적인 문화교류와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문화 분야 공공기관의 공공부문 전략 및 경영 능력의 강화 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강화 및 증진에 있어 시민사회, 비정부 기구, 민간부문 간의 협력 강화 라) 신기술의 활용 증진, 정보공유와 문화적 이해를 고양하기 위한 협력 촉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육성 마) 공동제작 및 공동배급에 관한 협정의 체결 장려	국제교류
지속가능한 개발에의 문화통합 (제13조)	자국의 개발정책에 문화를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측면 육성		제도 개선
개발을 위한 협력 (제14조)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감축을 위한 협력 지원	가) 개발도상국의 문화산업 강화	개발도상국 지원
		나) 개발도상국 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정보·경험·전문지식의 교류, 인적자원 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	
		다) 문화산업과 기업 분야의 기술 및 노하우 이전을 위한 유인 조치 도입	
		라) 재정지원	

자료: 유네스코(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내용 정리

■ 유네스코의 당사국의 협약 이행 파악 조치: 모니터링

- 유네스코는 당사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당사국이 제출하는 국가보고서 상의 협약 이행 현황을 분석함
- 모니터링 틀은 4개 목표 하에 11개의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4개 목표는 ①문화 다양성 정책 거버넌스, ②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균형적 공급과 예술가의 이동성 증진, ③지속가능개발 체계에 문화 통합, ④인권과 자유 증진 등을 포함함

〈표 2-4〉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모니터링 내용

목표	핵심원칙	모니터링 분야
지속가능한 문화 거버넌스 체계 지원	정보전달이 정확이 이루어지고, 참여과정이 투명하고 거버넌스 체제를 기반 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국가의 정책이 보장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정책 • 공공서비스미디어 • 디지털환경 • 시민사회와의 협력
문화 상품과 서비스를 균형적으로 공급하고 예술가와 문화 전문가들의 이동성을 증진함	문화상품과 서비스 공급의 평등적 접근, 개방, 균형, 그리고 예술인과 문화전문가의 자유로운 이동이 촉진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와 문화전문가의 이동성 •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공급 • 조약과 협정
지속가능한 개발 체제로 문화를 통합함	경제와 문화 측면의 상보성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확보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과 계획 •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그램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함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창조와 배급을 위해 표현과 정보, 소통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존중이 전제 조건으로 보장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 예술적 자유

자료: 유네스코(2018), 『문화정책의 (재)구성』 참고

■ 문화다양성법이 제시하는 정책 내용

- 문화다양성법에서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 강구,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 권장·보호·육성 및 이에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6조), 문화다양성 위원회(제7조),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제8조), 문화다양성의 날(제11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제13조),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제14조) 등 국가와 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함

제2절

국제사회의 문화다양성 정책 환경

1. 국제사회의 사회경제적 환경

1) 국제이주의 증가와 관련 이슈의 증가

■ 국제이주의 증가

- 국제이주의 증가로 도착국인 주요 선진국들의 사회 내 문화집단의 다양성이 증가하여 문화다양성 이슈가 중요 사회문제로 등장함
- 2019년 OECD 국제이주전망에 따르면, 노동인구의 OECD 국가로의 이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IOM, 2019)
 - 2018년 기준 OECD 국가로 유입되는 영구이주(permanent migration) 인구는 전년 대비 2% 증가, 2017년 기준 임시노동이주(temporary labour migration)의 규모는 전년 대비 11% 증가함
 - (이주민의 지속 증가) 유럽 지역의 거주자 중 약 2천만 명이 비유럽(EU) 출신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약 4%를 차지함
 - (저숙련 노동자 비율 증가) 이주에 따른 노동력의 이동도 함께 증가하였으며, 노동 가능 연령 이민자 중 37%가 저학력의 저숙련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남

■ 이주 증가에 따른 이슈 등장

- 유럽 국가의 이주 관련 주요 이슈는 이주민의 증가, 빈곤과 배제 위험의 증가, 저숙련 노동자 비율의 증가, 취업률 하락, 반이주 정서 강화 등임
 - (빈곤과 배제의 위험 증가) 지속적인 국제이주 증가에 따라 이주민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위험이 증가하였음. 유럽인들과 비교하여 두 배 이상의 위험도를 보임
 - (이주민 취업률 하락) 20~64세의 노동가능 이주자의 취업률이 EU 평균인 56.5% (2008~2013년)에 비해 2014년 취업률은 평균 6% 하락하였음
 - (반이주 정당 약진) 2019년 유럽의회선거에서 반(反)난민·반(反)EU를 내세우는 3개의 극우 포퓰리즘 정치세력(ID, ECR, EFDD)이 정책 형성 지위에 다수 진출함
 - (이주자에 대한 인식의 다변화) 유럽 사회에서는 이주민이 유럽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에 대해 2/3가 동의하였으나, 발틱(북동유럽) 국가, 중앙, 남동 유럽 지역의 유럽인 57%가 이주민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주민 통합정책의 경향

- 국제이주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2015년)에 업데이트된 ‘이주통합정책지수(The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MIPEX)’에 근거하여 유럽의 이주민 통합 정책 경향을 검토함
 - 이주통합정책지수는 유럽연합(EU)에서는 이주민이 국적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제도적 노력을 평가하는 지수로 2004년을 시작으로 2007년과 2011년, 2015년에 발표됨
 - 2015년 결과는 EU에 가입한 전체 국가와 호주, 캐나다, 아이슬란드, 한국,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미국 등 총 38개국을 대상으로 측정한 지수임
 - 세부적으로는 노동시장 이동성, 가족재상봉, 교육, 건강, 정치적 참여, 영구거주, 국적취득, 반차별 등 8개 정책 영역을 다루고 있음
- **(오랜 이민수용 국가 더 포용적)** 유럽 15개국의 이주통합정책지수는 평균 60점이나, 전통적인 이민 수용국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은 평균 67점으로 더 높아 오랫동안 이민을 수용해 온 국가들이 더 포용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이민 포용 의지 약화)** 독일, 프랑스 등 이민 수용이 활발한 국가에서도 반 이민 정서의 증가로 인하여 이민자 포용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음
- **(신규 중착국의 이민자 차별 큼)** 발틱연안(북동유럽) 국가들, 중앙·남동유럽지역 국가들, 일본 등이 이민자들이 원하는 새로운 중착국가들로 등장하였음. 이들 국가에서는 반 이민 정서가 매우 높아짐
- **(2010년 대비 이민자 차별 심화)** 2015년 이주통합정책지수 평균이 100점 만점에 52점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조사 결과 평균 53.1점에 비해 낮아진 것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사회적, 민주적 생활에서 이민자들의 참여를 방해하는 장벽이 더 많이 생겨난 결과임

〈표 2-5〉 이주통합정책지수 2015 (MIPEX 2015)

순위	국가명	총점	변동*	순위	국가명	총점	변동
1	스웨덴	78	0	20	오스트리아	50	+3
2	포르투갈	75	+1	21	스위스	49	+1
3	뉴질랜드	70	0	22	에스토니아	46	+1
4	핀란드	69	+2	23	체코	45	+3
4	노르웨이	69	-1	23	아이슬란드	45	0
6	캐나다	68	-1	23	헝가리	45	+1
7	벨기에	67	+2	23	루마니아	45	+1
8	호주	66	0	27	그리스	44	-2
9	미국	63	+1	27	일본	44	+1
10	독일	61	+3	27	슬로베니아	44	0

순위	국가명	총점	변동*	순위	국가명	총점	변동
11	네덜란드	60	-8	30	크로아티아	43	0
11	스페인	60	0	31	불가리아	42	+3
13	덴마크	59	+10	32	폴란드	41	+5
13	이탈리아	59	+1	33	몰타	40	+2
15	룩셈부르크	57	+2	34	리투아니아	37	+1
15	영국	57	-6	34	슬로바키아	37	0
17	프랑스	54	+1	36	사이프러스	35	0
18	한국	53	-1	37	라트비아	31	+2
19	아일랜드	52	+1	38	터키	25	+1

* 변동은 2010년과의 비교 값을 나타낸 것임

주: 총점은 100점 만점 기준임

자료: The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2015(<http://www.mipex.eu/>)

■ 이주통합정책지수에 나타난 한국 이민정책 평가

- 이주통합정책지수에 따르면 스웨덴과 포르투갈의 이주정책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한국은 중위권인 18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이민정책은 신생 이민 국가 중 통합정책에 대한 개선이 빠른 것으로 평가됨
 - 한국은 발틱연안(북동유럽) 국가들, 중앙·남동유럽지역 국가들, 일본과 같은 신규 이민 종착국 중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규제보다 기회제공에 좀 더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평가됨
 -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핀란드보다 노동시장 개방, 교육, 정치적 참여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이민자 통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편이며, 일본, 중앙유럽 국가들 보다 이민자들의 권리 보장, 기회제공과 지원 등에 있어 정책 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의 강점은 강한 선택적 취업지원과 학교지원, 투표권과 이민자그룹 지원 등의 분야이며, 약점은 문화 간 교육, 정치적 자유, 가족재상봉과 영구거주 방안, 이중국적 제한, 건강지원, 차별에 대한 시정 제도의 취약성 등으로 전체적으로 이주민의 장기 거주 환경 마련에 있어 한계를 보임

〈표 2-6〉 한국 이민정책의 세부 분야별 점수

항목	점수
노동시장 이동성	71
가족 재상봉	63
교육	57
건강	36
정치적 참여	54
영구거주	54
국적 획득	36
차별금지	52

* 100점 만점

자료: The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2015 (<http://www.mipex.eu/>)

2) 사회적 갈등과 정체성 문제 논의 증가

■ 사회 내 인구집단 구조의 변화와 갈등

- 인구구조의 변화를 수반할 정도로 사회 내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면 이는 사회의 집단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주자와 소수 문화집단에 대한 주류집단의 태도와 정책 기조를 변화시켜 갈등과 통합의 이슈가 증가하게 됨

■ 이주자 동화 문제

- 선 정착 집단과 후 이주 집단 간의 동화문제에 대한 관심도 큼. 이주 집단 간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도 쉽고, 먼저 이주한 집단의 배척으로 인하여 갈등 상황이 심화될 수도 있음. 따라서 거주 집단 간의 동화는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작용함
- 이주 대상국 내 포용과 통합정책은 상존하나 극우정당의 등장과 반이민정서의 증가로 이민자 포용을 위한 정치적 의지는 약화된 상황임

■ 소수문화 보호 증진 필요성 증가

- 지역, 전통, 젠더, 장애인, 이주민, 세대별 문화 등 소수 비주류 문화의 보호와 증진은 기술의 발달과 세계화로 인한 주류 문화의 영향력 확대 속에서 매우 중요한 문화다양성의 과제로서 인식되고 있음

■ 역이주 집단과의 통합문제

- 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역이주의 증가와 다양성을 추적하는 연구들이 많이 등장함. 이주민의 모국으로의 송금과 경제적 성공 이후 역이주는 해당 국가 내 여러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냄. 역이주민이 새로운 시각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사회 내의 긍정적 효과가 배가되기도 하고, 집단 간의 갈등이 증폭되기도 함

■ 문화다양성의 다양한 사회적 효과

- 이주로 인해 소개된 새로운 문화집단에의 참여가 정체성의 전환을 이끌어내기도 하며, 사회 내 창의성이 증진되는 등 다양한 긍정·부정 영향이 나타남
- 교육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문화 간의 교류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협력하는 태도를 키우고, 다문화주의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점차 다원사회로 이행해가는 사회변화에 맞추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사회의 준비된 시민을 양성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

학계 담론

이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한 인문·사회학적 논의

■ 사회학과 인문학에서는 ‘인간의 사회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논의

- 사회학과 인문학에서는 각각 ‘이민은 어떻게 문화적 변화와 집단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가’ (사회학), ‘이민자 통합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논제로 하며, 공통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설명함
- 역이주의 문제, 선-후 이주 집단 간 동화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크며, 특히 동화에 있어 이주민 재정착 프로그램의 효과와 분절화된 지역 공동체에서 공용어의 사용, 결혼 허용 등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연구 등이 중심이 됨

■ 심리학에서는 문화다양성의 효과, 이주로 인한 사회정체성의 변화 문제 등을 다룸

- 새로운 문화그룹의 형성과 정체성의 이동 등 이주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정체성 변화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룸. 이주민들이 새로운 문화그룹에 참여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정체성 변화를 경험한다는 연구, 또한 개인들이 새로운 문화에 동화되었을 때 원래 그룹과의 동화 정도가 더 낮아짐을 발견하기도 함

자료: Brettell, Caroline B. and James F. Hollifield eds. 2000. *Migration Theory: Talking Across Discipline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Hausmann, Ricardo & Nedelkoska, Ljubica, 2018. *Welcome home in a crisis: Effects of return migration on the non-migrants' wages and employment*, European Economic Review, Elsevier, vol. 101(C), pages 101-132 ; Cardenas, Diana and Roxane de la Sablonniere. 2020. *Participating in a new group and the identification processes: The quest for a positive social identity*,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9, 189-208; Repke, L., & Benet-Martínez, V. 2017. *Conceptualizing the dynamics between bicultural identification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Frontiers in Psychology, 8, 469.; Fleischmann, F., & Phalet, K. 2018. *Religion and national identification in Europe: comparing muslim youth in Belgium, England, Germany, the Netherlands, and Swede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9(1), 44-61.

3) 국제 경제 분야에서 문화다양성의 중요도 증가

■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담론의 등장과 문화적 다양성

- 포용적 성장은 ‘소득불평등의 확대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인식’과 함께 경제 성장에 있어서 속도(pace)뿐만 아니라 방향(pattern)이 중요하다는 인식으로부터 태동하였으며, 취약계층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모두에게 합리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개념임
 - 2008년 미국 발 글로벌 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적 대안으로서 등장하였으며, 2009년 World Bank에서 처음 제시함. 이후 IMF,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핵심 가치로 받아들여지면서 2017년 세계경제포럼의 주제가 ‘포용적 성장’으로 선정될 만큼 중요한 가치 담론으로 자리매김하게 됨
- 포용적 성장은 사회 내 인적구성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며, 소수계층이 성장의 기회와 자본의 분배에 있어 동등하게 대우받는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구성원 간 상호 이해와 존중을 위한 문화적·제도적 지원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경제 분야에서도 점차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확산됨

관련 동향

주요 국제기구의 포용적 성장 담론

■ 주요 국제기구들은 포용·평등·공정·통합 등을 통해 국가발전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함

- OECD
 - 2012년 포용적 성장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포용적 성장 측정지표’를 운용해 ‘성장 및 성장에 따른 혜택의 공평한 공유’, ‘포용적·효율적 시장’, ‘동등한 기회와 미래변영의 기반’ 등을 측정하고 있음
- UN
 -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지속가능개발의제(SDGs)를 채택하면서 포용적 성장이 중요하게 대두되었으며, ‘불평등 문제’, ‘사회개발’, ‘경제개발’, ‘환경보호’ 등 문제해결을 위한 분석 틀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EU
 - Europe2020 전략으로 포용적 성장,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지속가능성장(sustainable growth)을 제시함
- IMF
 - 기회와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하여 사회정책을 처방함
- 세계경제포럼
 - ‘포용적 성장·개발 국가 주요 성과 지표’를 개발하여 ‘성장과 개발’, ‘포용성, 세대 간 공평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함

자료: OECD 정책브리핑, 「OECD, 포용적 성장 정책실행 프레임워크 발표」 (https://overseas.mofa.go.kr/oeed-ko/brd/m_20809/view.do?seq=134277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unsdgs>);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8),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IMF(2017), 「IMF-Working Paper-Inclusive Growth Framework」;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세계경제포럼의 포용적 성장 모델」

■ 글로벌 기업의 문화적 다양성 인식 증가

- 현대사회에서 대규모 기업은 사회의 중요한 행위자 집단으로서 기업의 내부 정책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기업 내의 구성원들의 다양성 증가를 위한 노력은 사회 전반에 문화다양성에 대한 태도와 관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세계화와 이주에 따른 노동력의 국제이동은 기업 내 다양한 정체성을 지니는 구성원의 비율이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 기업 내 다양성 문제는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에 본사를 두고 활동하는 일반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침.
- 특히, 글로벌 기업에서 다양한 구성원을 고용하는 것은 다각화되고 있는 소비자의 욕구 파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영상 이익의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됨. 마이크로소프트, 델 테크놀로지, 페이스북, 우버 등 글로벌 기업들은 해마다 ‘다양성과 포용성’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기업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모니터링하며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음

〈표 2-7〉 글로벌 기업의 ‘다양성과 포용성’ 보고서

주요 기업	다양성과 포용성 관련 보고서
마이크로소프트	Diversity And Inclusion Report 2019
델 테크놀로지	Dell Technologies 2019 Diversity & Inclusion Report
페이스북	Facebook 2019 Diversity Report: Advancing Diversity and Inclusion
우버	Uber D&I Report 2019
P&G	2019 Citizenship Report
SK 하이닉스	SK hynix Sustainability Report 2019

-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한 고용정책 개선, 다양성 및 포용성 책임자 선임, 기업 내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임
 - (고용) 인적자원개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수그룹 구성원(민족/인종, 성별, 성적취향, 신체적 특징 등)에 대한 고용율을 높이고 있음. 미국 평등고용추진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는 △직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 또는 그러한 기업과 거래·소유 관계에 있는 기업, △직원이 50명 이상이며 5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등고용보고서(Equal Employment Opportunity)’를 제출하도록 권고함
 - (다양성·포용성 책임자) 글로벌 기업은 소수그룹의 구성원이 주요 의사결정권자 혹은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관리할 전문가를 따로 두기도 함(다양성·포용성 총괄 책임자(Chief Diversity and Inclusion Officer, CDO))
 - (지원) 기업 내 정체성이 다양한 구성원을 포용하기 위한 커뮤니티 그룹형성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음

관련 동향

글로벌 기업의 다양성과 포용성 문화 확산 위한 노력

■ (마이크로소프트)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직원 비율 증가

- 2018년에 비해 2019년에는 여성 29.2%, 아프리카인/흑인 4.4%, 아시안 33.3%, 히스패닉/라틴 6.2%, 다국적 인력(Multiracial) 2.1%가 증가함
 - 이 데이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LinkedIn, GitHub, Compulsion, Playground Games, Ninja Theory, InXile, Obsidian Entertainment, Undead Labs의 직원을 포함한 통합적인 수치임
-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의 관리자 직책에서는 히스패닉/라틴계 임원 수 28.6% 상승, 아시아계 임원 18.0% 증가, 여성 임원이 14.7% 증가하였으며, 다국적 인력 중 관리자 비율은 31.5%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6년 대비 약 두 배 증가한 수치임

■ (델 테크놀로지) 소수자·소수민족 대상의 교육지원 투자 등 장기 계획 실현 중

- 델 테크놀로지의 다양성과 포용성 전략은 사회적 의무의 실행인 한편, 다양한 인종, 민족, 배경, 성적 취향을 가진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
- 여성 직원의 비율을 매년 1%씩 증가시켜 2019년 현재는 30.4%의 여성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성·소수민족과 흑인 등 사회적 소수계층을 대상으로 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교육 지원, 여성 경력단절인력의 재기 지원(Dell Career ReStart)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델 테크놀로지의 다양성과 포용성 관련 지원 프로그램 사례

프로그램 사례	내용
STEM 교육 지원 (K-12 학생 대상)	• 유치원~고등학생(k-12) 대상의 STEM(Science, Technical, Engineering, Math) 교육 지원
코딩하는 소녀들 (Girls who code*)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2016년부터 여성들이 컴퓨터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비영리 운동 단체인 '코딩하는 소녀들(Girls who code)'과 협력하여 유소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18.2~2019.2 동안 유소년 교육 프로그램 수혜자는 직접적으로는 992,000명이, 간접적으로는 140만 명
태양열 교육 실험실	• 에너지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학교에 태양열을 통해 에너지 공급 • 에너지 사용의 부족은 해당 지역 학생들이 세계의 무대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임

* Girls who code: 많은 여성들이 컴퓨터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비영리 단체
 자료: 「Dell Technologies 2019 Diversity&Inclusion Report-Unlocking innovation by Celebrating Difference」

■ (페이스북) 소수그룹 구성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

- 2014년 이후 2019년까지 흑인 여성의 수는 25배, 흑인 남성의 수는 10배 증가
- 2019년 보고서에는 5년 안에 구성원 절반을 여성, 흑인, 히스패닉, 재향 군인 등 소수그룹으로 채우는 5개년 계획이 포함됨

■ (우버) 다양성과 포용성은 우버가 추진하는 사업의 핵심 이념임

- 우버는 민족·인종, 성별의 교차를 통해 트렌드에 대한 통찰이 가능하다고 봄
- Open Labs 개최, 임원 교육 등을 실시하며, '측정 가능한 다양성·포용성'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자 성과평가 및 경영진 보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함

- (Open Labs) 오픈 실험실은 우버의 기술자가 청년들을 만나 코딩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 멘토링하고 기술자의 직무를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다양성과 포용 문화 실천의 결과, 2018년과 비교했을 때 2019년에 직장 내 여성인력이 전체적으로 42.3% 증가하고,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이 44.5%, 히스패닉계/라틴 직원이 73.5% 증가함

자료: Microsoft. *Diversity And Inclusion Report 2019.*; Dell Technologies. 2019. *Dell Technologies 2019 Diversity&Inclusion Report—Unlocking innovation by Celebrating Difference.*;
Facebook(<https://diversity.fb.com/read-report/>); Uber. *Uber D&I Report 2019.*;

학계 담론

경영·경제학에서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

■ 경영학 분야에서는 기업의 다양성과 조직 내 다양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진행

- 이주의 증가가 국가 구성원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기업 내 다양성을 초래한다고 보며 기업 조직 내 다양성의 효과를 주로 연구함
- 로버슨(Roberson, 2018)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그룹/조직의 수준에서 구성원들 간의 차이가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커니즘을 밝혔으며, 조직 내 다양성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것을 주장함

■ 이주에 따른 사회문제를 경제의 논리로 해석한 연구

- 경제학 분야에서는 ‘국제이주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국제이주의 경향과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가’가 주요 논제임
- 국제이주의 원인을 ‘소득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는 현상으로 보며 ‘배출-흡입(push-pull)’ 이론으로 설명함
- 국제이주를 결정하는 단위가 개인적 차원이 아닌 가족적 차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민의 신경제학(new economics of migration)’ 이론이 있음

■ 경제학자들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른 연구

- 용(Yong, 2019)은 유럽이 어떻게 ‘문화다양성’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유럽의 난민 문제가 많은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논쟁을 가져온 측면이 있는 한편 난민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점을 강조함

자료: Quinetta M. Roberson. 2018. *Diversity in the Workplace: A Review, Synthesis, and Future Research Agenda.* Annu. Rev. Organ. Psychol. Organ. Behav. 2019. 6:69-88.; Miller, M. J., & Castles, S. 2009.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Basingstoke,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Yong, Enn Lun. 2019. *Understanding Cultural Diversity and Economic Prosperity in Europe: a Literature Review and Proposal of a Culture-Economy Framework.* Asian Journal of German and European Studies 4:5

4) 창조적 문화영역에서 문화다양성 요구

■ 국제 사회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증가

-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주류 문화 또는 영화로 이해되어온 미국에서 한국 영화인 <기생충>이 아카데미 4개 부문 수상을 한 것은 그동안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온 미국의 영화산업과 미국 영화시장의 변화를 의미함
 - 이러한 변화는 미국 시장에서 상업적 해외 영화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왔고, 아카데미상의 투표권자들의 구성이 다양화되면서 가능해졌다는 배경도 작용함
 - 또한 비주류 문화로 치부되어온 비영어권 국가들의 영화들이 주류 시장에서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케이팝을 비롯한 한류의 확산으로 그룹 BTS가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구름빵> 작가인 백희나 작가가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스웨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아시아권 콘텐츠가 주목받기 시작함

■ 문화산업의 독점과 불공정 문제 대두

- 미국은 1980년대 이후 대규모 자본이 정보산업과 문화산업으로 집중되기 시작했음. 미국 정부는 세계 문화산업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자국 문화상품의 수출을 지원하며, 우루과이 라운드 등 무역 협상에서 각 나라들에게 문화예술 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요구해왔음
- 1988년 이후 미국 영화산업은 국내 유통시장까지 장악하여 수익의 직접적 독점뿐 아니라 영화시장 자체를 종속시켰음
- 영화산업의 경우 소수의 대기업이 공급 사슬을 수직적으로 통합할 경우, 시장 내에 독과점이 형성될 수 있음
 - 상영관 및 스크린의 독과점이 진행될 경우, 독립·예술 영화는 작품성이 있더라도 유통구조의 한계로 시장규모가 점차 위축될 수 있음
- 음반산업의 경우에도 독점화를 이룬 '워너 뮤직(Warner Music Group)'이나 '소니(Sony)' 등은 세계적으로 자회사를 두어 그 나라의 뮤지션들을 영입하여 음반을 제작·판매하였음. 모든 문화산업 영역은 거대 자본 내로 통합되고 있으며, 문화에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하나의 기업에서 관리하는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였음(이동연, 1998)
- 게임산업의 경우에도 불공정 행위가 수반됨. 일본의 닌텐도(Nintendo)는 닌텐도 게임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판매하려는 특정 소프트웨어 회사에게 소프트웨어 가격의 1/4이상을 개런티로 요구하였으며, 닌텐도의 프로그램만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도록 하여 닌텐도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강화시킴

- 출판산업의 경우, 대형 글로벌 출판사의 인수·합병, 대형 유통사의 독점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문제가 대두됨
 - 2013년, 독일의 출판그룹인 베르텔스만(Bertelsmann AG) 산하의 랜덤하우스(Random House)와 영국의 미디어출판그룹 피어슨(Pearson PLC) 산하의 펭귄그룹(Penguin Group)이 합병하여 펭귄랜덤하우스가 설립된 사례와 같이 대형 글로벌 출판사의 인수합병은 유명작가를 독식할 수 있음
 - 아마존은 프랑스 출판사 아세트(Hachette Livre)를 상대로 수익배분율의 축소와 마케팅 비용의 확대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아세트 도서의 판매를 중지함. 아마존은 독점적 지위를 통하여 가격과 판매조건을 통제할 수 있고 해당 플랫폼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해 경쟁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증진 필요

- 문화생태계의 독점과 불공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미국에서는 독립서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독립 제작사들의 영화 개봉 편수가 늘어나는 등 콘텐츠의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음
 - 미국서점연합회(American Booksellers Association)에 따르면 2009년 1,651개였던 독립서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는 2,400개까지 늘어남. 지역서점으로서 독립서점의 기능 활성화는 그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되며, 독립 서점 활성화는 문화다양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임
 - 2009년부터 2018년 사이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제작사의 영화 개봉 편수가 20% 하락한데 반해 독립 제작사들의 개봉 편수는 58% 상승함. 이는 부분적으로는 메이저 제작사들이 제작보다는 투자와 배급에 주력하는 전략으로 선회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나, 한편으로는 투자/배급 경로의 다각화를 위해 꾸준히 창의적인 투자 유치 전략을 개발해 온 독립제작사들의 노력 덕분임

5) 디지털 시대, 문화다양성 관점의 새로운 대응 방안 요구

■ 플랫폼 독점 문제와 문화적 다양성

- SNS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 콘텐츠 플랫폼, 앱 스토어 등 일상생활에 다양한 플랫폼 기술이 도입되며 ‘플랫폼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음. 세계 시장에서 최근 급부상한 대형 다국적 기업은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이며, 해당 네 개 기업의 시가총액은 2조 8,000억 달러로, 이를 GDP와 비교하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 플랫폼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들 기업의 높은 시장점유율은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음
 - 2019년 현재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2%, 구글 안드로이드 OS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85%를 장악함. 미국 모바일 광고시장의 56%는 페이스북과 구글이 차지하며, 아마존은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50%, e-북 시장의 90%를 점유함
- 디지털 플랫폼이 세계 경제와 소비자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승자독식의 경향성이 강화되는 측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새로운 과학기술의 표준에 성평등적 관점 필요성 증대

- 과학기술계 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 ‘과학기술과 불평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성, 소수인종, 신진연구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등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어 옴
- 새로운 과학기술의 표준이 정해질 때, 기술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생기는 편향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논의가 증가하고 있음
 - 성별 정체성이 없는 구글 번역기의 경우 자동으로 남성명사로 번역되도록 알고리즘화 되어 있다면 성별 편견을 조장하는 것이며, 자동차의 에어백과 같은 제품의 설계 역시 남성만을 표준으로 삼는다면, 여성이나 키가 작은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제품이 됨. 즉, 실험자와 피실험자의 성적 정체성이 인간의 성별에 대한 편견을 기계에 그대로 설계하는 문제점을 낳게 된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성적 불평등 구조를 야기함

■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다양성

- 전통적인 미디어 다양성의 논의는 주요 방송에서 소수집단들을 위한 방송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해왔음. 1980년대 케이블 산업 등장, 최근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의 부상 등 방송채널의 다각화, OTT(Over-The-Top) 서비스 플랫폼 등 뉴콘텐츠 기술의 일상화로 인해 미디어 다양성을 둘러싼 논의가 변화하고 있음
- 디지털 시대에는 지상파 방송 이외에 종합편성채널, 유튜브 생태계에 등장한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OTT 서비스 플랫폼 등 다양한 형태의 신규 사업자들이 등장하여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산업의 경쟁은 매우 치열함

- 각 미디어 사업가들은 시청자, 구독자 확보를 위하여 콘텐츠 제작과 라이선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OTT 서비스 플랫폼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독점 콘텐츠/오리지널 콘텐츠의 중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OTT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은 인기 높은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넷플릭스는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 제작사 및 특정 문화권에서 전문 제작사들과의 콘텐츠 제작 투자도 점차 늘려가고 있음
 - 미국 LA 스튜디오에 콘텐츠 제작자들을 초대하여 독특한 문화콘텐츠를 글로벌 수용자들의 취향에 맞게 개발 및 제작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함
- 현재 디지털 사업자, 플랫폼 등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됨에 따라 문화다양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시장의 자율에 맡길지, 규제가 필요할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관련 동향

주요 국가의 미디어 다양성 정책 사례

- **(호주)** '특정 방송서비스에 대한 정부 펀드(the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SBS)' 운영
 - 호주의 SBS를 통해 시드니와 멜버른에 소수인종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1975년), 텔레비전·라디오·온라인 매체 등 미디어 전반에 다문화·다언어 방송인 고용
- **(벨기에)** 1997년에 프랑스어 방송 허용, 2002~2006년 동안 플랑드르 지방 방송에서 문화 다양성을 반영한 문화 프로그램 방영하였고, 2009년에는 「플랑드르 지방 공공 방송법」에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반영하여 방송을 송출하도록 규정
- **(캐나다)** 캐나다 「방송법」 제3조에는 공영방송에 '캐나다의 다문화와 다종족적 본질'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
 - 캐나다 방송위원회(The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CRTC)는 캐나다인의 다양성 반영토록 규제, 6개 소수민족 방송국과 5개 소수민족 아날로그 서비스, 25개 소수민족 라디오 방송 운영 허용
- **(핀란드)** 1993년에 핀란드 공영방송(the Finnish Broadcasting Company, YLE)은 소수자 위한 정보 제공 의무 규정, 1998년에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법(The Act on Television and Radio Operations)」에 다양성을 보호하고 발언의 자유를 촉진할 의무 규정
- **(뉴질랜드)** 1989년 「방송법」에 다양한 종교적 인종적 공동체의 가치를 반영한 프로그램 만들도록 규정
 - 독립규제기구인 뉴질랜드 방송위원회는 원주민, 여성, 어린이, 청년, 장애인, 소수인종의 이익 반영한 프로그램 방영토록 하고 있음
- **(스웨덴)** 1996년 「방송법」(The Radio and Television Act)에 모든 개인의 동등한 가치와 자유 존엄을 반영한 원칙과 민주사회의 기본개념을 반영토록 규정
 - 공영방송에 많은 다른 문화와 언어적 인종적 소수자의 특별한 요구에 대한 방송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영국)** 1982년 이후 BBC Channel 4에서 소수인종 언어 방송 시작
 - 인종평등위원회(the 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에서 「Ethnic Minority Broadcasting」(1983)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방송 매체들이 영국의 다종족 사회 반영한 콘텐츠를 좀 더 진지하게 제시해야 함을 요구

2.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국 동향

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

■ 제33차 유네스코 정기총회(2005년)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은 148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됨

- 찬성국 148개국, 반대 2개국(미국, 이스라엘), 기권 4개국(니카라과, 온두라스, 라이베리아, 호주)의 표결로 공식적으로 채택됨. 협약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30개 이상의 회원국이 협약 비준국이 된 2006년 12월 18일을 기준으로 3개월 후인 2007년 3월 18일에 정식 발효됨
 - 한국은 2010년 4월 1일 주 유네스코 한국대표부를 통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비준서 기탁했고, 협약의 110번째 비준국이 됨

■ 문화다양성 협약국의 의무

- 협약 당사국은 협약의 제9조 규정에 따라 4년을 주기로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협약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취한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하여야 함
- 한국은 2014년, 2018년 두 차례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022년 제출 예정임

■ 2019년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작성을 위해 검토하는 국가보고서는 총 10개임

- 국가보고서를 토대로 국가별 문화정책의 기초와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함
 - 필요에 따라, 국가보고서상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는 해당 국가의 문화 정책을 분석한 논문이나 기타 온라인 자료와 같이 보조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참고함
- 최신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8년~2019년에 제출된 국가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비교적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내용이 충실히 담긴 보고서를 선정함
 - 이에, 검토 대상 국가는 중국(2019), 호주(2018), 크로아티아(2018), 헝가리(2018), 체코(2018)로 총 5개국임
-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에 있어 선진적인 사례를 보이는 국가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추가로 선정함
 -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에서 선진 사례를 보여주는 캐나다(2016), 프랑스(2016), 독일(2016), 스웨덴(2016), 스페인(2016) 등 5개 국가의 국가보고서 검토하였음

2) 국가별 보고서 내용

(1) 중국(2019)

■ 전통문화 육성과 해외 보급을 문화다양성 사업으로 인식

- **(문화정책 기초)** 국내와 국제적 수준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촉진, 중국문화의 발전과 국내 문화산업 발전 촉진
 - 중국은 자국의 전통문화 보호 및 확산을 위한 노력이 비효율적이며, 문화콘텐츠의 혁신성이 부족함을 국가보고서에 명시. 수동적 문화소비와 부족한 국제문화교역 규모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경제발전과 분배의 불균형이 소수민족 문화 발전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함
 - 중국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소수 문화, 비주류 문화를 육성하여 문화 산업화를 추진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음
 - 중국은 자국문화의 보호와 육성, 그리고 자국 문화의 수출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 하고 있음
- **(담당부처)** 중국 정부 담당 부처는 문화관광부(中华人民共和国文化和旅游部)이며, 중국의 문화와 예술, 관광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소속 기관임

■ 주요 정책사례

- **(민간분야의 공공문화서비스 활용)** 2016년까지의 4년 동안 중국의 문화산업은 3조 위안을 초과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급격한 발전을 보였음. 이 성취들의 기반에는 정부에서 민간 영역의 문화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공공 문화서비스 시스템의 기여가 큼
- **(일대일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국 문화산업은 세계의 많은 지역들과 나라들에 보급 되었음. 중국이 주변국과의 경제, 무역 협작 확대를 위해 추진된 대규모 프로젝트인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정책의 일환으로 다른 국가와의 문화교류를 진행해옴
- **(문화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전통문화와 문화산업 발전을 통해 중국인들의 자긍심 고취, 문화상품과 관련 서비스들의 풍부화, 문화개방 추진, 향후 문화산업의 동서남북 지역간 균형발전 추구를 목표로 함

(2) 호주(2018)

■ 이주민에 대한 포용성과 원주민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 **(문화정책 기조)** 창작 분야의 포용성과 성장을 지원하고 호주의 문화와 콘텐츠를 보호하고 증진
 - 문화예술·문화유산 및 창조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과 자원을 지원하고, 예술가의 경제적, 도덕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함
 - 2016~2017년 호주 정부의 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은 61억 2천만 달러이며, 예술과 문화 분야에 7억 달러를 지원함
 - 호주는 문화다양성 선진국으로서 소수자의 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예술 산업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정책을 균형 있게 추구함
- **(담당부처)** 호주 정부에서는 사회기반시설, 교통, 지역발전과 커뮤니케이션 부(Department of Infrastructure, Transport, Regional Development and Communications)에서 문화유산 보호, 예술과 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호주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단위까지 문화다양성을 고려한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 정책사례

- **(미디어 다양성 지원)** 미디어 다양성을 보장하고,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공공 및 지역공동체의 방송에 13억 달러를 지원함
- **(원주민 문화 다양성 보호)** 원주민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지속 추진함. 호주에서 원주민 지원은 문화다양성, 언어다양성 모두 보장하는 정책임. 대표적으로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거주민들의 언어 다양성 및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발전시키고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정책 시행
-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다양성 지원정책 추진)** 디지털 환경에서의 혁신과 도전, 지속 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문화 정책과 프로그램,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 지원 등을 위한 정책 추진
-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풍부)** 멜버른 내 스톤닝톤(City of Stonnington) 지역임. 시 자체 「2015~2019 문화다양성 정책(CULTURAL DIVERSITY POLICY 2015- 2019)」 추진

(3) 크로아티아(2018)

■ 민족적·언어적 다양성의 보호와 발전 중심의 크로아티아 문화다양성 정책

- **(문화정책 기조)** 문화다원주의, 창조 자율성, 문화의 자원 증가와 다양화, 다중심주의 문화발전, 문화 참여 고취, 대중과 민간 분야 간의 상호 실행을 추구함
 - 크로아티아인이 인구 비율의 90% 차지, 나머지 10%의 인구는 세르비아인(4.5%), 보스니아인(0.5%), 기타민족 등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공용어는 크로아티아어이지만, 세르비아어, 보스니아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러시아어, 영어 등이 함께 사용되고 있음
 - 이에, 크로아티아의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민족적·언어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국가 문화발전의 중요 요소로 이해하는 것임
- **(담당부처)** 문화부(the Ministry of Culture)에서 크로아티아 유네스코위원회와 함께 문화다양성 관련 업무를 실행하고 있음

■ 주요 정책사례

- **(소수자 문화보호)** 소수민족의 자율적인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 지원
 - 문화적·언어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소수민족의 자율적인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 지원(Fund for Programmes of Cultural Autonomy of National Minorities) 활동임
 - 크로아티아의 「소수민족의 권리에 대한 헌법(the Constitutional Law on Rights of National Minorities)」(2002년 제정)에 기초하여 소수민족의 활동, 특히 문화 예술 프로젝트에 특별기금을 지원
 - 대부분의 지원대상은 전통적인 문화예술 활동이며, 언어보존, 민속문화 육성, 전시활동, 연기활동, 소수언어에 대한 출판 지원 등이 있음
- **(기타 사례)** 소수민족 문화에 대한 지원 외에도 예술가의 사회보장 제공, 국제문화교류 지원, 미디어·콘텐츠 다양성에 대한 정책 사업을 수행함
 - **(예술가의 사회보장)** 자유 활동 예술가들을 위한 사회보장 조치들을 제공함으로써 예술생산을 지원하고 있음
 - **(국제문화교류 지원)** 자국의 예술과 문화를 해외에 알리기 위한 인프라 구축,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후원, 유럽 문화협력 프로젝트 지원, 새로운 양자 간 문화협력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 및 협력에 적극 참여함
 - **(미디어·콘텐츠 다양성 강화)** 공공·상업·비영리 미디어를 위한 특별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미디어와 콘텐츠의 다양성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술전용관, 소규모 지역 극장의 디지털화 지원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보호함

(4) 헝가리(2018)

■ 자국 내 소수자와 해외 거주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유로운 문화생활 보장

- (문화정책 기조) 다양한 예술을 누리는 자유로운 삶의 보장, 국가문화의 진화, 전통문화 유산 및 역사적 기념물에 대한 보존과 유지
 - 헝가리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자국의 전통문화, 소수자 문화 보호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
- (담당부처) 헝가리는 국가자원부(Ministry of National Resources)에서 교육, 국제 관계, 종교, 과학 등의 업무와 함께 문화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주요 정책사례

- (국내 소수자, 해외거주 자국민 지원) 헝가리 거주 소수자 및 해외 거주 헝가리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the Csoóri Sándor Programme)을 운영하는 법안(「the Act on hungaricums」)을 2001년 제정하고 2012년 개정함
 - 소수자의 문화를 헝가리의 문화로 보호하고, 해외 헝가리인들의 헝가리 문화공연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함
- (인접 국가와의 문화외교) 인근 국가들인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비셰그라드 그룹(Visegrad Group) 국가들의 문화적 차원의 성취를 위한 활동 전개하고 있음
- (문화교류기구 운영) 문화다양성 협약과 관련된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상호교류와 이해 증진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인 국가문화펀드(the National Cultural Fund) 운영

(5) 체코(2018)

■ 문화다양성을 민주가치로 인식

- **(문화정책 기조)** 민주주의 가치로서 문화다양성, 경제와 교육시스템과의 상관성 고려, 문화부처의 타 부처와 지방정부와의 협업 강조
 - 확립된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 정책 등 경제정책의 보조와 새로운 문화 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 강조
 - 체코 헌법은 모든 시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자유롭고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있음. 국가와 지방정부의 업무로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 제공, 문화 활동 촉진, 자유롭고 창조적인 문화 창조활동 등을 규정
 - 1999년 이후 5개년 국가문화 정책 계획(National Cultural Policy 2009-2014; 2015-2020)을 수립하고 있음
 - 국가문화정책계획은 문화와 창조분야의 발전과 e-Government System의 구성요소로서 e-Culture 도입 목표 설정
- **(담당부처)** 체코의 담당부처는 문화부(Ministry of Culture)임. 예술, 문화와 교육 활동, 문화유산, 종교, 언론 및 출판, 방송규제, 저작권, 문화관련 산업과 무역 등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 주요 정책사례

- **(국가 및 문화정체성 육성 사업 집중 지원)**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육성하는 것을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함.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기념사업 진행
 - 2015년: the 600th anniversary of the death of Jan Hus
 - 2016년: the 7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Charles IV and the 150 anniversary of the Battle of Hradec Kralove
 - 2018년: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of independent Czechoslovakia
- **(민주가치로서 문화다양성 인식)** 체코 정부는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고 사회적, 경제적 결합에 기여하는 가치로 인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문화유산 보호 노력)**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분리 등 역사적 맥락에 따라 전통문화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큼. 전통문화 보호 위한 개선된 보호의 정부전략 2003년에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음

(6) 캐나다(2016)

■ 인종적 다양성 보장에서 인종적 평등으로의 전환

- **(문화정책 기조)** 인종적 평등과 문화 콘텐츠와 문화표현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도구들 폭넓게 배치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강조
 - 70년대 이후 영국과 프랑스계가 아닌 다른 인종적, 종족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의 증가로 인종적, 종족적 다양성이 매우 증가함(1998년 기준 전체인구의 11.2%; 2016년 기준 전체 인구의 20% 수준). 캐나다 전체 인구의 1/5가 비백인
 - 캐나다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다양한 소수문화의 평등 추구하고 보편적 문화다양성 증대를 목표로 함
- 정부 정책기조가 80년대까지의 다문화주의를 강조하는 정책에서 인종적 평등과 화합을 강조 하는 방향으로 전환됨. 1980년대 이후 소수인종들 스스로 인종적 평등을 위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함
- **(담당부처)** 캐나다 담당부처는 캐나다 유산부(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이며, 문화, 유산, 영화, 방송, 음악, 출판, 예술, 축제 등의 업무를 관장함

■ 주요 정책사례

- **(문화다양성 증대를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 캐나다의 다양성을 반영한 예술과 문화 콘텐츠의 창조를 고취하고, 국내외 소비자들의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파트너들과 제휴 사업 지속 추진
- **(다양한 문화콘텐츠 생산 지원)** 캐나다 창작자들의 시청각 콘텐츠와 기록 작품의 발전과 재정적 지원 돕는 “Canada Media Fund and Factor/Music action”과 같은 혁신 사업 운영
- **(문화다양성 증진 위한 국제교류)** 문화다양성 분야 전문가의 이동 보장, 외국인과의 공동 생산품에 대한 법적 문제 해결 위한 조약 체결, 수혜국들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역량구축, 정보공유, 훈련, 기술적 지원을 함. 문화기구들은 역량 개선 프로그램에 외국 예술가들을 초대하고, 해외의 예술과 문화 회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고취시키는 국제 문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 시행함
- **(문화다양성 정책과 무역정책과 연계)** 캐나다는 국제무역조약을 협상할 때 적극적으로 문화다양성 협약의 실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7) 프랑스(2016)

■ 모든 분야에서의 문화다양성 증진

- **(문화정책 기조)** 창의성, 경제발전 및 문화 간 대화 강조 등 문화다양성을 지지하는 문화정책이 활성화 추구,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다양성을 촉진하는 문화정책 추구
 - 역동적인 문화산업의 출현, 세계문화유산의 보존, 문화유산의 전파 및 창조적 기술 습득에 대한 교육, 예술가와 창작가들의 이동 지원 등을 도전과제로 보고 있음
 - 프랑스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정책 일반에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포함하려는 노력과 이민자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함
- **(담당부처)** 프랑스 담당부처는 외교부(Ministry for Europe and Foreign Affairs)와 문화부(Ministry of Culture)가 함께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함
 - 프랑스 외교부는 문화, 교육, 프랑스어 관련 문화다양성 정책을 관장함
 - 문화부는 국립 박물관, 역사적 기념물, 그리고 국내·외 공연, 음악, 댄스, 방송 등 예술 관련 업무를 관장함

■ 주요 정책사례

-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무역협상 추진)** 타 국가와의 무역협상에서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할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협상 목표 설정 노력
- **(시민사회 역할 보장)** 시민사회의 참여가 문화다양성 협약의 이행과 개발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국가와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데이터와 정보의 수집과 교환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협약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시행
- **(예술창작 분야 지원)** 영화, 무용, 음악, 서적 등 예술창작의 모든 영역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를 위해 모든 분야에서 작품 활동 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이민자를 위한 정책 적극추진)** 이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중 시민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소수 인종 그룹 조직 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음

(8) 독일(2016)

■ 문화다양성 증진이 문화정책의 기반

- **(문화정책 기초)**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의 토대에 인종적-문화적 다양성 증진과 생활에서의 다원주의 증대, 각 정부 수준별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장기적 거버넌스 구축
- **(담당부처)** 독일의 담당부는 교육문화부(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al Affairs)임. 문화 관련 기관으로 교육문화부 산하에 문화위원회(Cultural Affairs Committee)가 있음

■ 주요 정책사례

- **(동성애 포용성 증대)** 2001년부터 동성커플등록에 관한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동성애자 법적 권리를 강화해옴
- **(숙련 이주민 이주 허용)** 2020년 3월 숙련 노동 이주법 통과로 비유럽 국가의 숙련 노동자들의 이주가 더 쉬워짐
- **(무역정책에 문화다양성 정책 반영)** 다른 국가와의 무역협상에서 문화다양성 정책 반영할 수 있도록 무역정책에 대한 문화다양성 원칙 수립
- **(문화다양성 예산 지출증대)** 문화정책 수립에 문화다양성 원칙을 더욱 적극 반영하고, 문화와 예술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공공 지출 94억 유로 수준 유지, 전체 정부지출의 1.69% 수준임

(9) 스웨덴(2016)

■ 문화정책업무에 문화다양성, 젠더 평등 관점으로 통합

- **(문화정책 기조)** 모든 문화정책에서 국내·외적으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촉진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정부기구들과 문화기관들은 자신들의 업무에서 젠더 평등, 다양성, 어린이에 대한 관점을 통합하고자 함
 - 2010년대 들어 스웨덴 국민들의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증가하기는 했으나, 정책기조의 변화는 없음. 고학력자 및 이주민과의 접촉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주민에 대하여 포용적 태도를 취함
 - 스웨덴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문화정책 일반에 모두 문화다양성 가치를 투영하고, 이주민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 **(담당부처)** 스웨덴 담당부처는 문화부(Ministry of Culture)임. 스웨덴 문화부는 문화, 민주주의, 미디어, 소수자, 원주민의 언어와 문화, 스포츠, 청소년 정책, 시민사회관련 이슈, 종교와 장례문화 관련 정책을 수행함. 또한 문화부 산하에 스웨덴 예술위원회(Swedish Arts Council)가 있으며 관련 업무 진행

■ 주요 정책사례

- **(문화다양성 활동에 재정 배분)** 지역의 문화활동 중 문화다양성 증진 목적의 활동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배분하는 협력문화모델(the collaborative cultural model) 도입
 - 2011년에 도입된 스웨덴의 협력문화모델은, 이전까지 정부가 지역의 문화 관련 기구들의 기금 지원 결정을 하던 것과 달리, 각기 다른 에이전시와 기구들이 합동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실현하는 사업에 우선 자금을 배정하는 것임. 관련 문화 기구들이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는 활동 촉진하고자 함. 지역적 차원에서 서로 다른 에이전시와 기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작업들에 기금을 배정하는 계획임
- **(문화기구의 국제 교류 지원)**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국제예술교류와 협력 사업에 스웨덴 예술 보조위원회(the Swedish Arts Grants Committee), 스웨덴 공연예술 기구(the Swedish Performing Arts Agency), 스웨덴 예술위원회(The Swedish Arts Council)와 같은 기구들을 통해 지원
- **(다양한 이주민 지원정책 시행)** 스웨덴 인구의 11%가 해외 이주민으로, 이주민에 대한 인종주의적 차별에 대한 무관용 정책 강력 시행. 정부와 공공 웹사이트에 이주민을 위한 문화적 민감성을 고려한 정보 제공 실시

(10) 스페인(2016)

■ 모든 분야의 공적 계획에 문화다양성 개념 포함

- **(문화정책 기초)** 문화다양성은 보편적 개념이며, 문화를 발전에 있어 핵심요인으로 인식함
 - 스페인 헌법은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 보호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 따라서 문화 정책은 다양한 맥락에서 확립되어 있음. 자율 공동체들은 문화다양성 원칙을 기반으로 한 자신들만의 규칙과 행동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있음
 - 국가문화정책은 문화를 위한 일반 전략계획(*the General Strategic Plan of the State Secretariat for Culture*)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담당부처)** 스웨덴 업무 담당 부처는 교육문화체육부(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port)임. 전문교육, 대학교육, 역사유산 보호, 박물관, 예술, 도서, 창작물, 영화, 시청각 활동, 도서관, 문화 보급 및 확산, 외교부와의 협력 하에 국제문화 협력 사업 진행, 스포츠 업무도 관장

■ 주요 정책사례

- **(문화상호주의 개념 보편적 사용)**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법안에 문화상호주의(interculturalism) 언급되고, 실업과 사회보장부에서 준비한 “직업 환경에서의 다양성 관리를 위한 안내서(a Guide for Diversity Management in Professional Environments)”에서도 문화상호주의를 다루고 있음
- **(스페인 도시들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스페인 도시정책결정자들과 시민사회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스페인 문화도시 간 네트워크(Spanish Intercultural cities network)운영. 문화다양성 정책발전을 위해 회원 도시들 간의 경험 공유 촉진. 2011년 6월 15일 첫 모임 이후 5개월 단위로 정기 모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18번째 모임 진행함
- **(국제지방정부 네트워크에서 문화 어젠다 선정 주도)** 스페인은 전 세계 지방정부연합체의 문화위원회(the Culture Commission of the worldwide association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에 적극 참여하며 ‘문화를 위한 어젠다 21’(Agenda 21 for Culture) 채택을 위한 활동 지원
- **(지역 언어 보호 및 보급 증진)**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7개 지역이 있음. 이 지방 언어와 공용어에 대한 이중 언어 교육 시행, 언어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의무 부과 등 언어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제3절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 환경

1. 국내 사회경제적 환경

1) 체류 외국인·탈북민의 유입 등 인구구성의 다양화

■ 노동이주, 결혼이주 등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 진입

- 한국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동포 등 이주배경주민 비율이 꾸준히 증가함
 -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36만 7,601명으로 2017년 대비 8.6%가 증가하였고, 전체 국민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은 4.6%를 차지함
 - 북한이탈주민은 2000년대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03~2011년에는 연간 입국인원 2,000~3,000여 명 수준이었으나, 2012년 이후 점차 줄어 연간 평균 1,300명대로 감소함
 - 장기체류 중국동포(한국계)는 2018년 현재 70만 명에 이룸



자료: e-나라지표 홈페이지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

[그림 2-1] 한국 체류 외국인 현황



자료: e-나라지표 홈페이지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94)

[그림 2-2]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 다문화에 대한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관점으로 변화

- 1980년 후반부터 한국에 유입되는 노동이주민, 결혼이주민이 증가하며 다문화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함
-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외국인의 통제와 관리(1990년대), 한국사회 정착과 동화를 위한 지원(2000년대), 광의의 문화다양성 정책으로 확대(2010년대)로 변화해왔음
- 문화다양성 정책은 개인의 정체성에 관계없이 문화적 표현을 위한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소수계층만이 아닌 누구나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 정책과 차이를 보임

〈표 2-8〉 다문화와 문화다양성의 차이

구분	내용
다문화	다문화란 근대역사에서 프랑스, 영국, 스웨덴, 러시아, 캐나다, 미국 등 단일인종·문화 국가에 다인종·다민족이 유입되거나 처음부터 다인종·다민족 국가로 출발한 국가들이 처한 사회·역사·정치적인 문제들, 즉 ‘특정 시공간에서 다양한 인종·민족·종족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으며 공존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를 집약하고 있는 용어임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은 ‘모든 문화가 지닌 본질적이고 보편적 특징이며, 인간의 기본 권리’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다양성이 문화 창조의 자양분이고 새로운 문화의 출현은 인간의 삶의 방식과 가능성의 확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은 ‘문화 간 공존’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함의

자료: 류정아(2015),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기본계획 연구」; 류정아(2015), 「문화다양성 개념과 도시정책적 함의」참고.

- 한국에서 그간 추진되어 온 결혼이주민 및 그 가족 대상 정책을 ‘다문화 정책’으로 통칭하여 사용한 시간이 길었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문화 다양성 = 다문화’로 오해하는 경향이 형성됨
- 2010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이후, 기존의 협소한 ‘다문화’ 해석에서 벗어나 사회 내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문화다양성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시작함

〈표 2-9〉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 전개 과정

년도	내용
2005	- 외국인근로자 문화적 지원 과제탐승팀 운영 - 한미 자유무역 협상에서 시작된 스크린쿼터제 축소 논의가 문화산업계 내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불러옴
2006	-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이 발표되며 다문화 정책이 본격화
2007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 제정(법무부) - 다문화 정책팀의 신설과 「다문화 정책 추진방향」 발표(문화체육관광부)
2008	-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제정·시행(보건복지부) - 결혼이민자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개칭·확대 -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발표(보건복지부)
2010	- 글로벌 코리아를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 다국어 포털 홈페이지 구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보건복지부) - 문화다양성 협약에 110번째 비준국(문화체육관광부)
2012	-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으로 무지개다리사업 시범사업 추진(문화체육관광부)
2014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문화체육관광부)
2015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 법률에 근거한 문화다양성의 날 및 주간행사,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추진(문화체육관광부)
2016	- 문화다양성 정책포럼 지역별 개최 및 지자체 조례 제정 - 무지개다리사업 전국 24개 지역으로 확대 - 유·초등학교 대상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운영 지원
2017	- 제6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위원국으로 선출 - 제62차 UN 사회권규약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 - 문화다양성의 날 및 기념 주간행사,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무지개다리 사업,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지속 운영

2) 소수문화 등 문화주체의 다변화와 문화적 권리에 대한 요구 증가

■ 장애인, 탈북민 등 사회적 소수자로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존재

- 등록장애인은 251만 명(2016년 2월)으로 인구대비 약 4.9%이며, 10년간 인권위 진정 차별사건 중 ‘장애 차별’이 46.9%(10,993건)로 가장 많음
- 북한이탈주민은 2019년 12월 기준 약 3만 3,000여 명으로, 혈연적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생활양식과 문화의 차이로 인해 남한사회에서 이질적 존재로 취급됨

■ 고령화와 청년 세대의 고용불안 문제는 세대 간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를 가속화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19년 기준 14.9%로 전체 인구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동시에 세대갈등 또한 증가함
- 2016년 기준으로 ‘세대 갈등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은 62.2%로 ‘14년도 56.2%보다 6% 증가함. 역사적·문화적 경험, 생애주기, 가치관 등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나 소통의 단절 등 구조적 양상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은 사회 내 갈등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음

■ 양성평등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

- 유엔개발계획(UNDP)이 매년 발표하는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는 189개국 중 10위로, 여성의원비율이 17%에 불과하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52.8%)이 남성(73.3%)보다 유의미하게 낮아 여성의 정치·경제 참여 확대, 성별임금 격차 해소 등 일상생활에서의 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함
- 문화산업종사자들의 성비 불균형 역시 문제로, 작품제작에 결정권과 영향력을 가진 업종(감독·제작자·프로듀서·각본가·촬영감독 등)에 있어 여성 비율은 30%를 넘지 못함

〈표 2-10〉 2015-2019년 실질개봉작 기준 여성 헤드 스태프 참여율

(단위: 명, %)

	2015		2016		2017		2018		2019	
	빈도	비중								
감독	14 (173)	8.1	28 (171)	16.4	22 (172)	12.8	24 (174)	13.8	27 (192)	14.1
제작자	38 (242)	15.7	40 (253)	15.8	38 (229)	16.6	51 (262)	19.5	52 (227)	22.9
프로듀서	45 (240)	18.8	42 (185)	22.7	44 (222)	19.8	63 (224)	28.1	58 (216)	26.9
주연	56 (156)	35.9	66 (162)	40.7	50 (157)	31.8	62 (164)	37.8	63 (169)	37.3

	2015		2016		2017		2018		2019	
	빈도	비중								
각본가	42 (199)	21.1	67 (199)	33.7	40 (188)	21.3	47 (205)	22.9	54 (209)	25.8
촬영감독	16 (218)	7.3	17 (203)	8.4	15 (204)	7.4	8 (193)	4.1	12 (194)	6.2

- 1) 괄호 안의 수는 총인원수를 의미함
 2) '상영회수 40회 미만', '오니버스', '실황 다큐멘터리' 등을 제외함
 3) 주연 성별은 등장인물 크레딧 첫 번째 배우의 성별을 기준으로 함
 4) 해당 직종의 헤드 스태프가 불분명한 경우는 제외됨
 자료: 영화진흥위원회(2020), 2019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사례 여성문화를 대상으로 한 문화다양성 정책 사례

■ 스웨덴의 벡델 테스트의 도입

- 벡델 테스트는 여성영화 혹은 여성주의 영화를 정의할 때 적용되는 최소한의 평가 기준을 말함
- 미국의 만화가 엘리슨 벡델(Alison Bechdel)의 만화 <법칙(The Rule)>(1985년)에 등장한 여성 주인공은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한 영화를 본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향후 영화에서 여성영화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벡델 테스트'가 되었음
- 여기서 세 가지 조건이란 △ 두 명 이상의 여성 인물이 등장해야 하고, △ 두 명의 여성 인물이 서로 대화해야 하며, △ 대화의 내용은 남자에 대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임
 - 이것은 영화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이 성적 편견을 조성하거나 스테레오타입 이상의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는지, 또한 영화가 얼마나 남성 중심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임
- 국가적 차원에서 벡델 테스트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는 스웨덴임. 스웨덴 영화협회(Svenska Filminstitutet, SFI)에서는 2013년부터 벡델 테스트에 기반한 '페미니스트 등급시스템(Feminism rating for films)'을 도입하여 모든 영화에 적용시키고 있으며, 등급제 도입 후 스웨덴 문화부와 협력하여 매년 성평등 영화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 스웨덴의 벡델 테스트 통과 제작 영화는 2013년 34%에서 2018년 65%로 증가함
-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의 '한국영화 성인지 통계'를 통해 국내 영화의 '벡델 테스트 통과 비율'을 나타냄

■ F등급 영화(F-rated)

- 제24회 배스 영화제(Bath Film Festival, 2014)에서 처음으로 'F(feminine)등급 영화'가 도입됨
 - 당시 영화제의 42개 작품 중 17편이 F등급 영화로 선정되었음
-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F등급 영화로 간주되며, 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켰을 경우 트리플 F등급이 됨
 - 여성 감독이 연출했거나, 여성 작가가 각본을 썼거나, 여성 캐릭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화를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0), "국제동향: 스웨덴 영화협회, 영화분야 성평등 달성을 위한 페미니스트 등급 시스템 운영 중"(<https://www.kwdi.re.kr/research/fttrandView.do?p=1&idx=125457>)

3)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부족

■ 문화다양성 의식과 수용성은 낮은 수준

- ‘20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절반(48.6%)은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알고 있으며,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동의하는 비율은 76.1%에 달함
- 그러나,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소수자들의 권익 보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62.2%),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인식되는 사회(68.2%)라고 느끼는 비율이 높음
- 또한, 일반인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은 성소수자(62.8%), 외국인근로자(42.9%), 북한이탈주민(41.9%) 순으로 높으며, 이들을 동네이웃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아 타문화에 대한 낮은 수용성을 보여줌

■ 외국인 등 타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혐오·갈등 증가

- 우리 사회는 신뢰부족, 공동체의식 저하,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세대간·성별 간·지역간 갈등 및 인종·국적에 대한 차별 심화
 - ‘2019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이민자 및 노동자·장애인·탈북민·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전년 대비 배타적 인식이 증가하였음
 - 세대·지역·계층·국적 등 차이에 따른 사회갈등 인식 수준도 보통 이상으로 높음

4) 문화콘텐츠 분야의 공정성·다양성에 대한 요구 증대

■ 문화산업 생태계의 독과점 현상 우려

- 한국은 대기업 중심으로 미디어 문화산업 시장이 형성되어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됨. 대기업들의 미디어 채널 운영, 멀티플렉스 상영관 독과점, 웹툰·뮤지컬·게임 등으로의 영역 확장은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 패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 방송·광고 등 미디어 사업, TV·온라인 몰을 통한 커머스 사업, 영화, 음반 제작 및 유통·콘서트 등의 음악 사업을 모두 운영하는 시장 지배적 기업이 존재함
 - 인터넷에서는 대형 포털업체들이 웹툰, 게임 등 문화콘텐츠 유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출판 시장도 소수의 대형 서점이 주도하는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광고에 노출되거나 온라인 서점에서 추천하는 소수의 책들이 출판 시장을 주도하는 현상이 심화되었음. 그 결과 오프라인 중소서점들은 급격하게 몰락하였음

- 영화산업의 경우, 소수의 대기업이 공급 사슬을 수직적으로 통합할 경우, 시장 내에 독과점이 형성될 수 있음
 - 과거 미국 영화시장에서는 일부 메이저 스튜디오가 외부 금융자본을 통해 극장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공급망의 수직통합을 이룸. 1948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러한 수직 계열화가 독립영화관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보유 중인 극장의 매각을 명령함
- 상영관 및 스크린의 독과점으로 독립·예술 영화는 작품성이 있더라도 유통구조의 한계로 시장규모가 점차 위축될 수 있음

5) 국가 정책에서 문화다양성의 중요성 증가

■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

- ‘혁신적 포용국가’는 2018년 발표된 정부의 사회 정책 분야 국가 비전으로,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배제와 독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도모하는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의미함
-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본 조건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로, 이를 위한 3대 비전으로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이 제시됨

■ 포용국가와 문화적 다양성

- 포용국가는 사회적 배제로 인한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포용’을 강조하는바, 서로 다른 타인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공존하는 문화다양성의 가치는 포용의 기초 원리로 작동할 수 있음
- 또한, 창의성의 원천으로서 다양한 문화의 상생을 강조하는 문화다양성은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음

■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 3대 가치의 하나로 다양성 포함

- 2018년 문화 분야 장기비전으로 발표된 ‘사람이 있는 문화’에서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3대 가치로 하여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을 3대 방향으로 정함
 - 다양성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공존하고 협력하기 위한 사회의 기반 가치로, 이를 위해 국가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확산하고,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며, 지역 문화분권을 실현하여야 함

6) 지역문화와 전통문화 보호 노력 지속

- 지역문화와 전통문화는 도시 중심의 획일화된 주류 문화를 벗어나 한국사회의 정체성 보호와 국가 브랜드 제고, 한류의 근본으로서 그 특색을 보호하고 문화의 확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지역문화는 지역 간 차이와 특색을 반영한 문화로 발전시킴으로서 도시문화 중심으로 획일화될 수 있는 한 사회 내 문화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음. 각 지역 간 문화격차와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각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보호하고 진흥하여야 함
 - 문화재생 및 문화도시 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민의 문화 참여 확대를 위한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책 사업을 추진함
- 전통문화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전통문화 보호 및 보존뿐만 아니라 활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 한복 분야 생활화 및 국내·외 확산, 한지 분야 국내외 수요 창출, 숨어있는 한식문화 발굴 및 국내·외 확산, 전통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전통문화 융·복합 상품개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생생문화재’, ‘문화재 야행’ 등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하여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 현황

1) 문화다양성 법·제도 기반 조성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2014)

- 우리나라는 2010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의 110번째 비준국이 되었으며, 문화다양성 협약을 기초로 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
- 법률은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및 지자체, 시민의 의무와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사업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뤄짐

〈표 2-11〉 문화다양성법 구성

구분	조항	내용
목적 및 정의	제1조(목적)	법의 목적
	제2조(정의)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에 대한 정의
행정기관 및 시민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취하여야 하는 책무 명시
정책추진 기반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문화다양성보호와 증진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운영
조사·연구	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제9조(연차보고)	2015년부터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
	제10조(국가보고서의 작성)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제9조에 따라 당사국이 4년마다 유네스코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보고서의 작성
정책사업	제11조(문화다양성의 날)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기를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정함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문화다양성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에 대한 지원, 문화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구성원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
	제14조(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활동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지원

자료: 정보람, “KCTI 정책리포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 2쪽, 표를 보완하여 인용

- 법률 제정 이후, 총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문화다양성 관련 행사, 교육, 사업, 포럼, 연구 및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 조례 제정 등 교육청 및 지자체의 제도적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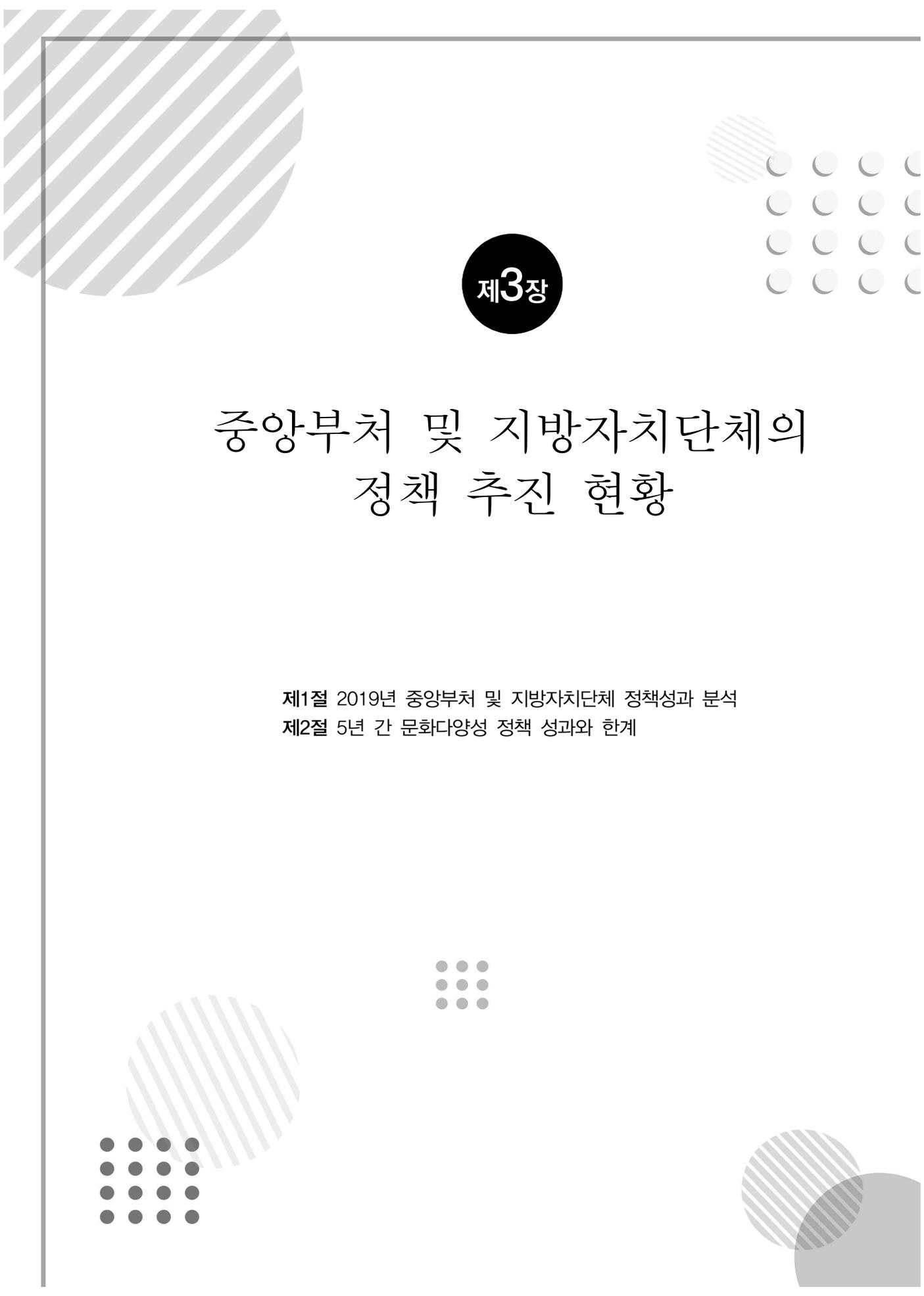
- 지자체단체에서 전라남도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2016년)한 이후, 현재 19개의 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 교육청 주관 하에 제정된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는 주로 학교 내에 문화적 차별이 없는 교육 환경의 조성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표 2-12〉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소속(개)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교육청(2개)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제5625호, 2017.6.14. 제정]
	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제4418호, 2017.12.28. 제정]
광역(10개)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4151호, 2016.12.1. 제정]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5488호, 2017.3.13. 제정]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5552호, 2017.3.22. 제정]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6495호, 2017.5.18.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1860호, 2017.6.2. 제정]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4098호, 2017.11.10. 제정]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4837호, 2017.1.1. 제정] [조례 제5111호, 2018.7.24. 일부개정]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4634호, 2019.4.5. 제정]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1432호, 2019.12.16. 제정]
	충청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4538호, 2019.7.10. 제정]

소속(개)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기초(7개)	목포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3198호, 2018.12.17. 일부개정] [조례 제3092호, 2017.2.13. 제정]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15호, 2017.11.30. 제정] [조례 제1294호, 2019.6.2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1282호, 2018.1.5. 제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1294호, 2017.11.16. 제정]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1449호, 2019.10.4. 제정]
	신안군 1004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2234호, 2019.12.19. 제정]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66호, 2020.05.19. 제정]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기준(접속일: 2020.7.30.)



제3장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현황

제1절 2019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성과 분석

제2절 5년 간 문화다양성 정책 성과와 한계

제1절

2019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성과 분석

1.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조사 개요

■ 현황조사 개요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정책사업의 현황 파악 및 성과 분석을 위해 조사를 실시함
- 연차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을 일정기간 동안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배포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취합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2019년 연차보고서를 작성함
- **(조사일정)** 2019년 4월 17일(금)~5월 25일(금)
 - 최종적으로 6월 19일(금)까지 자료를 취합함
- **(작성기관)**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사업 포함)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관할 기초 자치단체 사업 포함)에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 **(작성기준)** 7개의 정책유형을 기준으로 2019년 추진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을 포함함
- **(대상사업)**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체육, 문화산업, 학술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함
- **(조사 한계)** 자료제출은 담당자의 이해도와 협조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함

■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의 유형 분류

-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을 7개 유형으로 구분함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동안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유형을 분류함
 - 기존의 6개로 구분한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의 유형에 미디어 다양성과 관련한 내용인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 사업'을 추가하여 최종 7개의 유형으로 구분함

〈표 3-1〉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유형 및 예시

번호	유형	예시
1	일반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사업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캠페인,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홍보체계 구축, 토론회 등
2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기회확대 및 소수문화 기본권 신장 사업	소수문화 활동 지원*, 다양성 관련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대상별 맞춤형 사업 운영, 다양한 계층의 이용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 지역고유문화 사업 등
3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사업	문화예술 상호교류 방안 및 프로그램 운영, 문화 간 협력 네트워크 기반 마련 등
4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 구축 사업	법적 제정과 제도적 기반마련, 정책예산 확보, 기구 설치, 전문 인력 양성, 정책 협의체계 구축 등
5	문화다양성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사업	소수문화계층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정기적 평가제도 도입,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등
6	국제 문화교류 및 국외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국제기구와 교류협력, 민간차원의 국제 문화교류 활동 지원 등
7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 사업	미디어를 통한 문화다양성 활성화 사업, 미디어 상의 소수문화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사업, 지역 문화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업(작은영화관 설립·운영 지원 등), 영상제작 지원 및 다양성 영화 제작 지원 사업,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등

* 결혼이주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여성, 장애인, 청소년, 노인 등 소수문화 활동 및 독립 문화예술, 대안문화예술, 전통문화(예술), 지역문화 등 소수 장르 활동 지원 등

** 독립 문화예술: 상업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작품제작이 이루어지는 문화예술분야

*** 대안문화예술: 연극, 영상, 미술, 문학 등 여러 가지 예술 분야가 혼합 및 융합된 탈장르적·실험적 예술분야

2. 중앙부처의 정책 추진 현황 및 실태

1)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는 본부와 소속기관, 산하기관을 포함해 조사 진행

〈표 3-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단위: 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국제 문화교류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지원	기타	합계
23	89	29	4	5	71	18	1	240

*문화재청은 정부조직 원칙상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은 아니지만 분류를 위해 소속기관과 함께 기술함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과 소속기관의 사업은 중복될 수 있음

(1)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행사, 공모전, 교육 등의 정책 사업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에서는 9건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각각 8건, 6건의 사업을 수행함

①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다양성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교원 및 공무원 대상 문화다양성 가치 교육 사업인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과정 운영>, <교원 대상 문화다양성 직무연수 과정 운영> 등 추진

- <문화다양성 우수사례 공모전>은 2019년 신규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탈북민, 노인 등 지역사회 소수자 집단의 문화적 표현기회를 제공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소수자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조사·연수 등의 우수 활동사례를 공모, 시상하여 생활 속의 문화다양성 감수성 향상을 목적으로 함. 접수된 67건의 사례 중 11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수상하였으며, 별도의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함
-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과정>은 공공기관 및 문화기반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교육임. 2019년도에는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등 4개 권역에서 1박 2일 심화연수를 진행하였으며, 124명이 참여함 - 연수 전과 후의 참여자의 인식도는 77.6점에서 83.9점으로 상승함

- <교원 대상 문화다양성 직무연수 과정>은 유·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교원 교육을 통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및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됨. 온·오프라인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557명이 교육을 수강함
 - 참여자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면, 연수 전 74.2점에서 연수 후 84.1점으로 개선됨

■ 문화다양성 협약 관련 전문가, 학자,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국제 전문가회의(컬로퀴엄)> 개최

- 한국은 문화다양성 협약 아태지역 정부간위원국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국제 전문가회의>를 개최함 국제회의 1회, 국내회의 2회 총 3회를 진행함
 - 국제회의는 ‘아태지역에서의 문화다양성 협약’이라는 주제로 8월에 개최하였고, 국내의 1차, 2차 회의는 각각 ‘문화다양성 표현의 다양성과 도시의 역할’, ‘국내 문화적 맥락에서 본 문화다양성 협약의 이해와 이행’이라는 주제로 10월, 11월에 개최함

② 소속기관

■ 문화재청, 국립국어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문화재, 수어, 다문화 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문화적 포용성 증진을 위한 사업 진행

- 문화재청에서 추진한 <문화재지킴이 운영 및 협약기관 참여·협력 활성화> 사업은 국민 참여 문화재 보호기반을 조성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함. 문화재지킴이의 위촉·관리, 교육운영 및 활동 우수 사업 지원과 전국대회 개최,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운영,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문화재지킴이 날 제정 및 선포식 등을 운영함
- 국립국어원의 <한국수어 인식개선 홍보> 사업은 한국수어의 언어적 위상을 높이고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KTX와 유튜브에 송출하였으며, <한국수어 문화학교>는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의 맞춤형 교육, 워크숍 운영을 통한 인식개선 및 수어문화 감수성 향상에 기여함
- 국립민속박물관의 <다문화꾸러미 개발 및 운영>은 어린이, 청소년, 다문화강사 및 교사를 대상으로 문화 간 상호이해와 교감을 토대로 문화다양성 교육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수행된 사업으로 문화다양성 교구재 및 교육을 개발, 운영하였으며, 173,723명이 참여함. <문화나눔교육>은 장애인, 장기 입원 환자, 저소득층 등 문화혜택의 기회가 적은 어린이들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교육프로그램 100회를 통해 1,270명이 참여함

- 국립현대미술관의 〈어떤 시선〉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미술교육을 통한 문화적 포용성 증진 및 사회통합에 기여, 현대미술을 통한 우리사회 다양한 구성원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마르셀 뒤샹 전시연계 교육·문화 프로그램〉은 모든 관람객을 대상으로 미술관 교육을 통해 문화적 포용성 증진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진행됨

③ 산하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일반 국민의 예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 사업을 시행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지역민,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지방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전국 250여 문예회관에 수준 높은 공연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소외계층 30%를 의무 초청하도록 함. 〈신나는 예술여행〉은 전문 공연장이나 미술관 외 다양한 장소에 예술단체가 직접 찾아가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 어디서나 예술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체육 인식개선 및 홍보〉는 장애인 체육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광고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 체계를 구축하였음
 - 방송프로그램 ‘즐거운 챔피언’(KBS) 제작·방영(9. 15.)(시청률 2.8%), 라디오 공익광고(169회), 온라인 매체 운영(5개 SNS 매체/구독자: 29,298명, 게시물 912건, 웹진 운영), 오프라인 매체 운영(KPC SPORTS 사보 월 3,650부, 12회)
- 한국관광공사의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관광지 종사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 계층의 무장애 관광을 위한 인식개선을 위해 열린 관광의 개념 및 주요 사례 등을 토대로 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총 54명이 수강하였음

(2)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 소수문화 활동 지원, 다양성 관련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대상별 맞춤형 사업 운영, 다양한 계층의 이용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 및 지역고유문화 사업 등 문화적 표현 기회 제공 및 소수문화 기본권 신장 사업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에서는 12건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각각 49건, 28건의 사업을 수행함

①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 장애인, 청년, 어르신 등의 문화적 표현의 기회 제공을 위해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 <함께누리 지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추진

-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은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인문실험 방식을 접목·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일상 속 가치 있는 인문 활동을 지원함
 - ‘RipeStory(라이프스토리)—당신의 삶을 담은 요리책’은 청년이 어르신과 함께 요리를 배우고 레시피북을 제작함으로써 소통의 기회를 마련함
 - ‘도(道)착—도(道)를 아십니까?: 전복편’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의 이름과 뜻, 유래를 재미있게 풀어낸 책자를 발간하여 도로명 주소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를 실현함
 - ‘요망진 아이들—야, 너도 제주어 할 수 있어!’는 점점 소멸되는 제주어를 기억하기 위해 방언집을 제작하고, 방언집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방언 수업을 진행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그림 3-1]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 (문화체육관광부)

- <함께누리 지원>은 장애예술인 및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172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아트페어, 한·중·일 장애인 미술교류전, 점자 문화예술 정보지 발행,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함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노령층에게 문화향유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세대 간 교류 협력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 전국 258개 문화시설·단체, 총 3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0,039명이 참여함

② 소속기관

■ 국립국악원 및 국립중앙박물관 다양한 계층 대상 교육사업 운영

- 국립국악원의 <국악아카데미 일반인과정>은 국악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 국악의 인문학적 접근에 기반 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10회 교육을 실시함. <청소년 국악체험>은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유의 음악, 춤 등 다양한 체험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건전한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며 27개 학교에서 진행함
- 국립중앙박물관의 <박물관 우리들의 꿈마루> 사업은 장애인의 박물관 교육 참여를 통해 사회활동 기회 및 경험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함
-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오감표현>은 치매어르신의 적극적인 박물관 경험으로 문화·예술 향유와 사회 활동 기회 마련하고 함께 진행하는 감상·체험 교육 참여를 통해 건강한 사회적 관계의 증진을 목적으로 함. 오감을 통한 전시품 감상, 활동 표현 및 체험 활동 등을 진행함
- 국립중앙박물관의 <한국의 문화를 느끼다>는 외국인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도모 및 친근감 유도, 한국문화를 경험하는 과정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 운영됨. 한글, 서예, 한국화, 도자기, 나전, 인장 만들기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함

〈표 3-3〉 국립중앙박물관 ‘문화다양성 사업’ 교육 개요

교육명	박물관 우리들의 꿈마루	문화재 오감표현	한국의 문화를 느끼다!
기간	2019.4.19.~11.29.	2019.6.7.~11.1.	2019.1~12월
대상/인원	장애인(지적·지체·청각 등) 학교·기관 및 관련 단체/회당 20명 내외 ※ 교육 일시는 운영 및 참가 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치매어르신 관리 기관 및 관련 단체/보호자 포함 회당 20명 이내 ※ 상반기: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하반기: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연계 접수운영	외국인 단체 (외국인 그룹, 여학당 등) 141회 7,439명
장소	교육관 제3강의실·상설전시관	교육관 제3강의실·상설전시관	상설전시관, 교육관 1~2실기실
교육내용	박물관 전시품(청자·불상 등)감상, 나만의 나전 보물함 제작	상설전시관 도자실 전시품 감상, 향수 제작	상설전시 연계 체험 (한국화, 도자기, 나전, 인장, 금속공예, 한글서예 등)
횟수/인원	15회/276명	16회/298명	141회/7,439명

교육명	박물관 우리들의 꿈마루	문화재 오감표현	한국의 문화를 느끼다!
활동사진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내부자료

③ 산하기관

■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 진행,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독립예술 지원 사업 추진

-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푸드트럭>은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한 밥상, 건강한 체육활동 참여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임. 스포츠버스와 연계하여 도서산간 벽지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식 제공, 찾아가는 선수촌 식당 운영, 운동부 학생을 위한 멘토링 활동 및 수촌 식단 제공 등을 진행함. 3월부터 12월까지 총 75회 운영함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지원>은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레저스포츠 활동 지원’, ‘통합체육 보급’,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장애인 생활체육 용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함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50대 이상의 실버세대가 재능 기부자로 소정의 활동 교육을 받은 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책 읽어주기 활동을 진행하여 문화향유 기회 및 독서 환경을 제공함. 전국 10개 지역 주관처에서 202명의 문화봉사단원이 전국 200개 기관을 방문하여 책 읽어주기 활동을 전개함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교정시설 독서활동 지원>은 교정시설 수용자 및 보호소년에게 다양한 독서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복지 실현과 가족관계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독서치료 전문가를 파견하여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함. 교정시설 20곳 재소자 및 소년보호시설 5곳 보호소년 등에서 독후 감상 나누기 및 글쓰기 활동을 수행함
-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과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은 각각 예술영화와 독립영화의 상영기회를 확대하고 관객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영화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은 전국 19개 상영관,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은 전국 5개 상영관의 기획전 및 운영을 지원함
- 한국영상자료원의 <독립영화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상대적으로 아카이빙과 관람 기회가 취약한 독립영화의 안정적인 영구보존과 독립영화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됨. 서울독립영화제와 협력하여 영화제가 선정한 독립영화(필름) 작품을 디지털화하여 공개하였으며 159편의 독립영화 보상수집 계약을 통해 작품을 수집함

- 작품선정, 미 보유필름 발굴수집, 제작과정 고증, 자문 등 서울독립영화제와 협력을 통해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상인, 1991), <지리멸렬>(봉준호, 1994) 등 11편을 작업, 이 중 6편을 서울독립영화제 최초 공개함

〈표 3-4〉 국내 주요 영화제 협약 체결 현황

연번	체결일자	체결기관	체결내용 및 목적
1	2019.03.07	서울독립영화제	- 2019년 독립영화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주요 영화제 업무 협약 - 국내에서 제작된 우수 독립영화의 안전하고 올바른 보존 및 활용 확대
2	2019.03.07	인디다큐페스티벌	
3	2019.03.07	부산국제단편영화제	
4	2019.03.19	전주국제영화제	
5	2019.04.24	미장센단편영화제	



자료: 한국영상자료원 내부자료

[그림 3-2] 독립영화 아카이브 구축

- 한국영상자료원의 <독립영화전용관>은 영상문화의 다양성 확보 및 독립영화 산업 지원, 대안적인 배급 구조 제공과 배리어프리영화 상영을 통한 장애인 관객의 저변 확대를 위해 독립영화단체 및 영화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됨. 영화인 대상으로는 협업을 통한 국내·외 독립영화제 및 영화단체, 영화인 지원, 지속·안정적인 독립영화 상영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대상으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함

(3)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 해소

■ 문화예술 상호교류 및 프로그램 운영, 문화 간 협력 네트워크 기반 마련 등 문화 간 교류 및 협력 사업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에서 8건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서 각각 3건, 18건의 사업을 수행함

①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일반인의 문화예술 접근을 위한 기반 형성

- <문화가 있는 날 기획 프로그램 운영>은 국민 일상 속 문화 참여 확산을 위해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 중임. 2019년에는 30,726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함

〈표 3-5〉 지자체 참여 및 지역문화콘텐츠 특성화사업(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전북 전주 (사)꼭두 “다가사후(多佳射候)의 이야기 꽃”	서울 마포구 성미산문화협동조합 “통일로 걷다, 평화로 있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은 생활권내에 등록미술관, 대안공간, 미술전시실 등이 없거나 이들 시각예술공간이 주민의 생활권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유휴공간과 기존 전시시설을 작은미술관으로 조성·운영하여 국민의 시각예술향유기회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신규조성지원 1곳(강원 삼척시), 지속운영지원 4곳(강원 태백시·평창군, 세종시, 경기 김포시), 전시활성화지원 4곳(인천 동구, 경남 남해군, 부산 금정구, 울산북구) 등 총 9곳을 지원함
 - 신규조성지원은 시각예술 소외지역의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이 보유·운영 중인 유휴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함
 - 지속운영지원은 조성 2~3년차 작은미술관을 지원함
 - 전시활성화지원은 조성 4년차 이상 작은미술관 지원, 지역문화회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가 보유·운영 중인 전시시설을 작은미술관으로 전환해 운영하도록 지원함

〈표 3-6〉 2019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 활동 사진

작은미술관(조성연도)	소재지	작은미술관 사진
BRT 작은미술관 (2018)	세종	 
정라항 그리go 작은미술관 (2019)	강원 삼척	 
소금나루 작은미술관 (2019)	울산 북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확대〉는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의 문화격차 해소 및 지식정보 공유를 위해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관 155개를 지원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그림 3-3]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 은퇴세대와 젊은 세대의 소통을 위한 소모임 활동 지원하는 〈인생나눔교실〉 추진

- 〈인생나눔교실〉은 인생의 경험과 인문적 지혜를 매개로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은퇴세대와 새내기 세대 간 인문 멘토링 및 노년의 인생나눔 소모임 활동을 지원함. 인문멘토링 2,953회 및 인생나눔 소모임 210개 단체 1,720회 활동을 지원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그림 3-4] <인생나눔교실> (문화체육관광부)

■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 <양성평등 문화확산>은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양성평등 문화정책위 운영과 양성평등 문화확산 네트워크를 운영함. 양성평등 문화정책위 3회, 실무협의회 2회, 양성평등문화상 시상식 개최 및 양성평등 문화정책 포럼 7회 진행과 37점의 양성평등 문화콘텐츠를 제작·발굴함
 - 양성평등문화인상에 안무가 안은미,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영화부문에 김복동, 여성평등문화지원상에 한국여성독립연구소가 수상함

② 소속기관

■ 문화재청의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 <2019년 문화재 지역 주민 공감정책 사업> 추진

-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은 지역 고유문화 자원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다양한 문화간 소통·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융·복합적으로 창출하는 교육·문화·체험·관광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사업임. 세부 사업으로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전통산사 활용' 및 문화재가 집적된 지역의 야간문화 향유 및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문화재야행' 등이 있음. 생생문화재 132건, 향교서원 97건, 전통산사 34건, 문화재야행 27건 등 총 290건의 사업을 지원함
- <2019년 문화재 지역 주민 공감정책 사업>은 문화재를 둘러싼 갈등이 있는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갈등관리 프로그램임. 광주광역시 북구, 경기 파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고창군, 경남 고성군 등 5개 지자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함



▲ 문화재 보존정책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공감 정책사업 프로그램 참여 지역주민(경기 파주시, 충남 아산시)

자료: 문화재청 내부자료

[그림 3-5] 주민공감 정책사업 (문화재청)

③ 산하기관

■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역영화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지원>, 한국영상자료원의 <찾아가는 영화관> 등 운영

- <지역영화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지원>은 지역영화문화 생태계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함.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를 통한 지역 거버넌스 체계 정립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내 3개 이상 영화영상단체 컨소시엄의 지역영화문화 네트워크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9년도는 대구, 강원, 경남 지역이 선정되어 각 지역별 1억 원씩 지원함
- <찾아가는 영화관>은 지역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소외계층 대상 무료 영화 상영 및 부대행사를 진행함. 전국 시·군·면·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 지역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전국 각지를 순회하여 376개 처에서 412회 상영함

(4) 정책 추진체계 구축

■ 법·제도적 기반 마련, 기구 설치, 전문인력 양성, 정책 협의체계 구축 등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체계 구축 사업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에서 4건의 사업을 진행함

①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 <2019년 점자발전시행계획 수립>, <2019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수립>, <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한 특수언어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2019년 점자발전시행계획>은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19~2023)’에 기반하여 점자 관련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 등 추진 과제 시행 계획을 수립함
- <2019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은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18~2022)’에 기반하여 한국수어 능력 향상 및 보급, 한국수어 관련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 한국수어 정보화·연구 기반 구축 및 교류·홍보 확산 등 과제를 수립함
- <점자정책 자문위원회>는 점자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됨. 점자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한국 점자규정의 재·개정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그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훈령)’을 제정함
-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는 한국수어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하의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임.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그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훈령)’을 제정함

(5)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 장애인, 지역민 등 소수문화계층 대상의 실태조사 진행

- 산하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에서 관련 조사를 5건 수행함

① 산하기관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영화진흥위원회의 <2019년 지역 영화 문화 실태조사>, 한국관광공사의 <2019 열린 관광지 조성>, <열린관광 도시연구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8 문화예술정책백서> 등 수행

- <장애인 생활체육조사>는 정책수립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10~69세 재가 장애인 대상 체육활동 실태 및 참여율을 조사함
- <2019년 지역 영화문화 실태조사>는 지역 영화문화 실태파악을 통한 영화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6개 광역의 행정기관, 영화제, 상영시설, 협회 및 단체, 동호회 등 영화자원 현황과 창작자, 지원기관, 지자체, 동호인 대상의 인식 조사를 실시함
- <2019 열린 관광지 조성>은 열린 관광지 조성을 위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무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열린 관광도시연구조사>는 열린 관광도시 사업 추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후속사업을 위한 예산규모 및 선정대상, 사업수행 방안 등 제시함
- <2018 문화예술정책백서>는 문화예술관련 법령을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추진한 문화·예술·지역문화의 정책과 성과들을 포함하고 있음

(6) 국제문화교류

■ 국가 간 문화교류 및 개도국 문화역량 강화, 예술가의 이동성 증진을 위한 국제 교류사업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16건, 소속기관 26건, 산하기관 29건을 진행함

①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 한·아세안 문화장관이 모여 문화예술 협력 방안 논의

- ‘2019 한·아세안 특별문화 장관회의’를 10월 23일~24일 양일 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하여, 각국 문화장관들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상생번영의 미래공동체 실현’을 위한 한·아세안 문화협력의 비전을 논의함
 - 상호문화이해, 공동창작, 문화예술 기관 간 협력 강화, 문화산업 교류, 문화유산 보존·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함
 - 또한, 이번 회의에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아시아 태평양 그룹 위원국으로서 2020년 한국에서 개최될 ‘유네스코 한·아세안 문화정책 담당자 워크숍’에 아세안 회원국을 초청함

■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해 <문화동반자 사업>, <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사업>,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지원 사업>, <민간협업 문화교류지원>, <언론인 국제교류 프로그램>,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등 진행

- <문화동반자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문화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동창작 및 연수를 통한 교류 증진, 쌍방향 문화교류에 기반 한 동반자 관계·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시행함
 - 문화, 예술, 문화산업 분야의 실무연수 및 공동창작, 문화체험 등을 실시함
 - 2019년도 문화동반자 연수에 14기관, 27개국 60여명이 참여함

〈표 3-7〉 2019년 문화동반자 연수 참여 현황

번호	참여기관(참여인원)(명)	국가(참여인원)(명)
1	트러스트무용단(4)	몽골(2), 캄보디아(2)
2	국제무용협회(5)	베트남(1), 르완다(1), 탄자니아(1), 멕시코(2)
3	한국문화재단(6)	몽골(1), 미얀마(1), 라오스(1), 파키스탄(1), 에티오피아(1), 페루(1)
4	세종대 산학협력단 다문화연구소(3)	베트남(3)
5	배우공동체 자투리(4)	필리핀(2), 베트남(2)
6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6)	네팔(1), 인도네시아(1), 베트남(2), 동티모르(1), 카자흐스탄(1)
7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6)	몽골(2), 인도네시아(1), 인도(1), 베트남(2),

번호	참여기관(참여인원)(명)	국가(참여인원)(명)
8	충남문화재단(3)	몽골(3)
9	안동축제관광재단(4)	베트남(1), 부탄(1), 우즈베키스탄(1), 인도(1)
10	충북민예총(6)	볼리비아(1), 아제르바이잔(2), 베트남(2), 몽골(1)
11	국립민속박물관(1)	베트남(1)
12	국립중앙도서관(4)	필리핀(1), 부탄(1), 캄보디아(1), 미얀마(1)
13	국립현대미술관(3)	조지아(1), 파라과이(1), 아르헨티나(1)
14	한국예술종합학교(5)	태국(1), 인도네시아(1), 터키(1), 아르헨티나(1), 브라질(1)
계	14기관, 27개국 60명 참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 <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사업>은 공연 및 시각예술 등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재외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해외 순회를 지원하고, 전문가 초청을 통한 후속 사업 기획 등 한국의 문화파급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15개 예술단체, 16개국 160명에게 순회 지원을 하였으며, 10개국 24명을 초청, 10개국 대상의 문화파급력 조사를 수행함

〈표 3-8〉 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사업

번호	국가	수행단체	인원(명)
1	벨기에	아트프로젝트보라	10
		시나브로가슴에	9
2	미국	속대박물관	10
3	폴란드	이드	6
4	스페인	극단 하땅세	15
5	리투아니아		
6	호주	김김갤러리	8
7	브라질	봉앤줄	6
(7)	브라질	리얼디엠지프로젝트	10
8	일본	OCI미술관	13
9	중국		
10	태국	난장앤판	10
(2)	미국	코리아나화장박물관	7
11	영국	리얼디엠지프로젝트	10
12	아르헨티나	타고	12
13	우루과이		
14	베트남	한미사진미술관	15
15	캐나다	사비나미술관	12
16	터키	잠비나이	7
계	16개국, 15개 단체 160명 참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지원 사업>은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한·중·일 도시 간 상호 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됨. 한·중·일 3국 동아시아 문화도시 공동 개·폐막식 및 문화행사 개최, 문화·예술·학술단체 간 교류 행사를 진행함

〈표 3-9〉 역대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현황

연도	한국	중국	일본
2014	광주	취안저우	요코하마
2015	청주	칭다오	니카타
2016	제주	닝보	나라
2017	대구	창사	교토
2018	부산	하얼빈	가나자와
2019	인천	시안	도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 <민간협업 문화교류지원>은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및 우수 지역문화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우수 문화교류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임. 9개국의 10개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대한 문화교류를 지원함
 - 전국 기초 자치단체 소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항공료, 임차료, 운송비 등 사업예산과 전문가 자문, 홍보 등을 지원함

〈표 3-10〉 기초지자체 국제교류사업 추진 지원

지자체(수행단체)	교류지역
경기 이천(이천나드리)	프랑스 파리
강원 영월(영월문화재단)	중국 위해
경기 광명(광명문화재단)	독일 라이프치히
경남 창원(발해 1300호 기념사업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경북 고령(고령문화원)	이탈리아 크레모나
전남 순천(두루미과학예술센터)	프랑스 낭트
충남 공주(웅진문화회)	베트남 후에
충남 서천(서천군립예술단)	몽골 울란바타르
충북 옥천(옥천문화원)	일본 후쿠오카, 교토, 오사카
충북 충주(택견보존회)	폴란드 그단스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 <언론인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주요국 언론인 및 전문가 집단 간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국내 언론인의 상대국 방문 및 상대국 언론인의 한국 초청 취재를 지원함. ‘한-미 언론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기자 6인, 미국 기자 6인이 상대국을

방문 취재한 후 종합 토론회를 진행함. ‘한-러 언론교류 재개’를 통해 러시아 기자단 8인이 방한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함. 외교부, 국회, 제주도 등 방문함

- <해외 작은도서관>은 교육·문화 인프라가 열악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지원하여 어린이, 청소년의 교육을 통한 사회발전 원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임. 2019년도에는 몽골 3개관, 베트남 3개관, 탄자니아 3개관 등 총 9개관의 해외 작은도서관을 조성함



▲ 몽골 121번 학교의 조성 전/후 모습

▲ 탄자니아 미나지 미레푸 초등학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그림 3-6]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② 소속기관

■ 문화재청의 <협력국 유네스코유산 역량강화 사업>, 국립국악원의 <해외국악문화학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전통음악 커뮤니티 구축사업>, <아시아스토리 커뮤니티 사업>, 국립중앙박물관의 <한국 속 세계문화> 등 진행

- 문화재청의 <협력국 유네스코유산 역량강화 사업>은 협력국의 가치 있는 문화기록유산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수원국의 유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 및 국제기구 내 한국 기여도 증대를 위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협력국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역량을 강화함
- 국립국악원의 <해외국악문화학교>는 한국문화원, 현지 대학과 함께 현지인을 대상으로 국악워크숍 개설지원 및 악기지원을 통한 현지 국악애호가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함. 프랑스, 벨기에 등 13개국 13개 기관에 국악강사 파견교육 및 터키, 인도 등 11개국 11개 기관에 국악기 및 교구재 237점 지원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전통음악 커뮤니티 구축사업>은 정기적인 한·아세안 전통 음악인 간의 교류 및 화합, 아시아전통음악 관련 공동 콘텐츠 협력 개발을 위해 추진함. 한·아세안 11개국 대표 전통 음악인으로 구성된 세계 최초 아시아전통 오케스트라를 운영함
- 또한, <아시아스토리 커뮤니티 구축사업>은 상호문화의 이해를 위해 이야기 자원을 기반으로 이야기 그림책 및 공연 등 아시아문화콘텐츠 공동제작 및 유통하는 사업으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공동 제작한 이야기그림책을 출판하고, 북 콘서트 및 중앙아시아 이야기 기반 공연을 개최함



▲아시아전통음악 커뮤니티 구축 사업



▲아시아스토리 커뮤니티 사업

자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부자료

[그림 3-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 문화교류 관련 사업

- 국립중앙박물관의 <한국 속 세계문화>는 아시아권 국가 교사들이 운영하는 국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상호 문화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사업으로 유네스코 아태 국제교육원과 협업하여 추진함.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초청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소개 프로그램과 필리핀 문화체험을 희망하는 내국인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함



▲티볼리 부족 타날락 직조 체험



▲한국의 문화를 느끼다-인장체험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내부자료

[그림 3-8] 국립중앙박물관 <한국 속 세계문화>

③ 산하기관

■ 세종학당재단의 <우수 학습자 초청 한국어·한국문화 연수>, 영화진흥위원회의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추진> 등 진행

- 세종학당재단의 <우수학습자 초청 한국어·한국문화 연수>는 세종학당 수강생 중 우수 학습자를 대상으로 국내 문화연수 및 체험 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문화 교류, 한류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됨
 - 학습형 연수: 사물놀이, K-pop 춤·노래, 태권도, 한국무용 등
 - 체험형 연수: 전주시 전통문화체험(전통문화전당, 한옥마을, 경기전, 소리문화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경복궁, 통인시장, 광화문 광장 등
 - 특별 연수: 한국어 말하기 대회 결선, 세종학당 선배와의 만남 등



▲한국어 말하기 대회 수상자 기념사진



▲학습형 연수(한국무용) 모습

자료: 세종학당재단 내부자료

[그림 3-9] 세종학당재단 <우수학습자 초청 한국어·한국문화 연수>

- 영화진흥위원회의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추진>은 아시아 영화산업 동반성장 기반 마련 및 한국 주도 아시아 영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됨.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 간 영화 협력기구 설립을 통한 교육·복원·연구조사·공동제작 등의 협력 사업을 실시함

(7)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 지원

■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 및 문화산업 분야 육성 지원 사업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6건, 소속기관 4건, 산하기관 8건을 진행함

①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 <미디어교육 교사 학습 공동체 운영>, <다문화 주제 뉴스제작 지원> 진행

- <미디어교육 교사 학습 공동체 운영>은 교육 대상별 미디어 교육 모델 및 콘텐츠를 개발·확산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연구회별 자율 주제 또는 지정 주제를 선택하여 연구수업·연구회의·관련 조사 등 활동을 수행함. 활동을 통해 탈북민과 다문화 학생을 위한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개발함
- <다문화 주제 뉴스 제작 지원>은 한·아세안 국가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내 이주노동자·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계층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행됨. 한국 언론사와 아세안 국가 언론사 공동기획 취재는 ‘사회(이주민), 문화(밀레니얼세대, 한류)’를 주제로 84건 보도되었으며, 주제별 심층 기획 취재는 ‘농촌 이주노동자, 탈북민’ 등을 주제로 19건 보도됨

기자협회보

2019 이주민 리포트 : 코리아드림의 배신

2019년 11월 19일
여론 (종합)

이하영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 /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지난해 말 한 미안마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취재했던 적이 있다. 기사에는 사명찬 이주노동자의 아버지가 ‘내 아들이 왜 죽었나?’를 묻고자 한국을 찾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맺글 정연 욕설뿐 아니라 날카로운 반응이 넘쳤다.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말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때 결심한 게일었다. 국내 이주민 혐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무차별적이라는 것을.



이주민 인권을 말하는 기사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운이 좋게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낀 부장과 팀장, 동료들 만났다. 한국으로 자식을 보냈다가 영영 되찾지 못한 가족들, 결혼이주여성으로 실패 정서적·물리적 해탈을 겪고는 고향으로 돌아간 여성들, 그리고 영문모

른 제 ‘아웃사이더’가 된 아이들까지. 사회부 시건담-법조팀 5명의 기사가 이미 한국에 상재받은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읊소하며 수개월을 보냈다.

호기롭게 시작했으나 힘에 부쳤다. 버닝썬-평가리 점사-조국 사태 등 일이 터져 나온 사건·사고 현장을 쫓기며 없는 시간과 체력을 써내야만 했다. 모든 취재에 함께한 팀워크가 있어 취재와 보도가 가능했다. 특히 기획 시작부터 끝까지 취재팀의 정신적 지지이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준 유대근 팀이 없었다면 보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후배들의 열정에 가까이 힘을 실어 준 편집국장님과 사회부 부장과 차

장, 지면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 편집부, 애정을 담아 영상을 만들어 준 소셜미디어팀, 그리고 해외취재 등 팀원의 공백 속 애써 준 시건담 동료 중 누구 하나라도 없었다면 전하지 못했을 이야기들이었다.

기사에 미처 담아내지 못했지만, 더 많은 이주민과 그 가족들이 취재팀을 믿고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가감 없이 보여줬다. 다 못 전한 그들의 이야기는 마음속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여전히 묵직하게 남아 있다. ‘2019년 이주민 리포트’는 마쳤으나, 이주민 인권이 더는 ‘기삿거리’가 되지 않는 날까지 기자로서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보도 이후, 정치권과 부처에서 쏟아져 나온 반응이 실제 변화 이어지는지 지켜보는 것부터 시작이다.

(17.8*11.7cm)

<한·아세안 공동기획취재>

- 개요: 한국 및 아세안 언론사 간 공동 기획 취재 지원을 통한 국내 문화다양성 증진을 도모
- 취재: Vietnam News Agency-서울신문 등 10개 언론사(총 84건 보도)
- 수상: 제349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한국기자협회 주관, 「2019 이주민 리포트: 코리아드림의 배신(서울신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그림 3-10] 언론인 국제교류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

② 소속기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민주인권평화 가치 나눔 프로그램 ‘어머니의 노래’>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청각·시각 장애인 작품 감상 지원 프로그램>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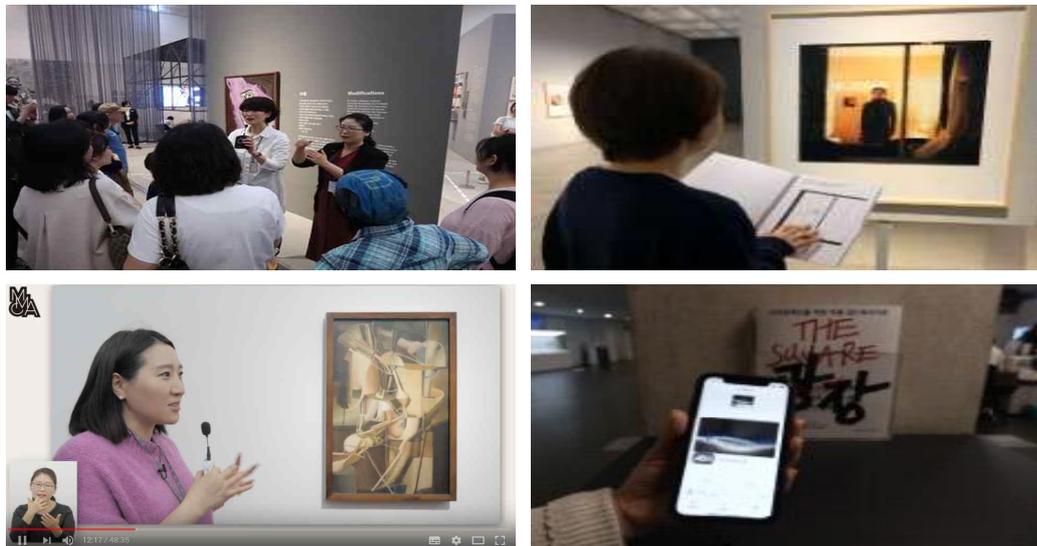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민주인권평화 가치 나눔 프로그램 ‘어머니의 노래’>는 민주·인권·평화 가치 확산을 위한 5·18민주화운동 이야기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유통 사업임. 오월가족 지역 작가와 협업하여 시·에세이를 창작하고 도서를 발간함



자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부자료

[그림 3-11] 민주인권평화 가치나눔 프로그램 ‘어머니의 노래’

- 국립현대미술관의 <청각·시각 장애인 작품 감상 지원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미술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됨.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서울관 및 덕수궁에 시각장애인용 작품 감상 촉각 자료, 음성해설을 개발하였고, 서울관 전시해설에 수어통역 정기운영 및 수어통역 영상을 제작함



▲ 큐레이터 토크 수어통역 영상

▲ 시각장애인 작품 감상 보조자료

자료: 국립현대미술관 내부자료

[그림 3-12] 청각·시각 장애인 작품 감상 지원 프로그램

③ 산하기관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체육 인터넷TV 중계 운영>,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 지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책 체험버스 운영> 등 진행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체육 인터넷TV 중계 운영>은 장애인 스포츠 대회 중계를 통해 장애인스포츠 정보 제공 및 인식개선,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전 국민

대상의 중계 전문 홈페이지(KPC TV) 구축을 통한 인터넷TV 중계 사업임. 전 경기 수어통역을 배치함



자료: 대한장애인체육회 내부자료

[그림 3-13] 장애인체육 인터넷TV 중계 운영

-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 지원>은 지역의 영상생태계 형성을 통한 한국 영화산업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됨. 위탁수행자를 통한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 등 사업비 지원, 지역 창작자 및 제작자가 소속된 지자체의 지원금 이상의 예산 매칭 확보 후 지원함, 장편 7편에 대한 지역영화 기획개발 지원, 단편 13편 및 장편·다큐 9편의 지역영화 제작 지원함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책 체험버스 운영>은 서점이 없는 지역에 전자책 및 오디오 북 체험 기회를 마련하여 위해 시행됨. 공모를 통해 책 체험버스의 이름을 ‘책이음버스’로 정하고 25인승 미니버스를 리모델링했으며, 전국 70회 등 신청한 지역을 운영함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부자료

[그림 3-14] 2019 책 체험버스 운영

2) 고용노동부

〈표 3-11〉 고용노동부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단위: 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국제 문화교류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지원	기타	합계
-	1	-	-	-	-	-	-	1

■ 근로자 대상 종합문화예술 행사인 제40회 〈근로자 문화예술제〉 개최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정서 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건전한 노동문화 창출로 창의적 여가활동 유도 및 근로 의욕 증대를 위해 1980년부터 〈근로자 문화예술제〉를 개최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 제9항에 근거하여 추진된 사업이며, 근로복지공단과 KBS 한국방송이 공동주최함

〈표 3-12〉 〈근로자 문화예술제〉 근거 법령인 「근로복지법」 제91조

제91조 (근로복지진흥금의 용도)

근로복지진흥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등에 대한 융자
2.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3. 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및 학자금의 융자
4. 제14조에 따른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5.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6. 우리사주제도 관련 지원
7.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및 공동기금제도 관련 지원
8. 근로복지시설 설치·운영자금 지원
9. 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10.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지원
11.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관련 지원
12.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3. 근로복지사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비
14.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5. 근로복지진흥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16. 근로복지진흥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7.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지원 및 참여 대상은 일용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산재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가요, 연극, 영상, 문학, 미술 분야의 경연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수상자에게 해외 봉사·문화체험의 기회를 마련함
 - 부문별 지원시기에 맞춰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가능

〈표 3-13〉 제40회 근로자 문화예술제 선정 기준 및 기간

경연분야	선정 기준	지원 시기
가요	독창, 중창, 합창(가요, 민요, 가곡, 팝송 등)	1월~4월
연극	단막극(기성극, 창작극, 뮤지컬)	1월~6월
영상	UCC,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6월~10월
문학	시, 단편소설, 단편동화, 극작, 수필	7월~10월
미술	회화, 서예, 캘리그래피, 사진, 디자인, 공예	7월~10월

자료: 정부24(<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49000100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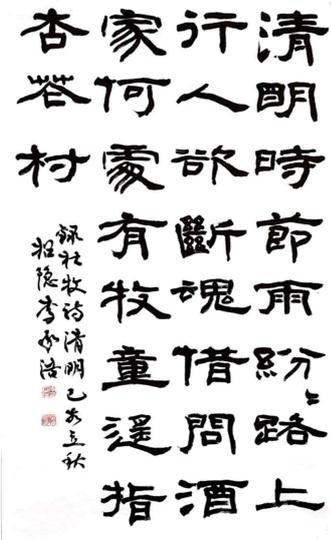
- 2019년도 참여자는 4,260명이며, 누적 참가자는 157,822명임



▲ 회화부문 고용노동부장관상
(작품명: Blind Episode)



▲ 사진부문 금상
(작품명: 포즈)



▲ 서예부문 금상
(작품명: 두목의 시 청명)

자료: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그림 3-15] 제40회 근로자 문화예술제-미술 분야 수상작

3) 교육부

〈표 3-14〉 교육부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단위: 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국제 문화교류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지원	기타	합계
5	-	-	-	-	-	-	-	5

■ 교육부에서는 〈세계시민교육 확산 사업〉,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 제고〉 등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사업과 〈범교과 학습 주제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교과용 도서 개발진 및 심의진 연수〉 등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다문화 및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교재 개발 사업 진행

- 〈세계시민교육 확산 사업〉을 통해 교원, 학생 및 국내·외 세계시민 교육 관련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 세계 시민교육 훈련 워크숍 및 세미나 운영, 교육자료 및 그밖에 출판물의 제작과 보급 등을 진행함
 - 2019년도 세계시민교육 중앙 선도 교사 66명, 시·도 선도 교사 606명을 위촉하고,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하였음
 - 세계시민·국제기구 체험관 활용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에 47개교, 총 1,198명이 참여하였으며, 75개국, 1,392명의 국내·외 교육관계자가 세계시민교육 체험관 대외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세계시민 교육의 강좌는 10개교에서 개설되었으며 총 434명이 참여함
 - 2019년 9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서울에서 세계시민교육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7월 16일~18일 동안 뉴욕에서 UN HLPF와 연계하여 세계시민교육 부대행사를 개최함
-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 제고〉는 초·중·고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 현장 안에서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수임.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진로진학·전문상담교사, 한국어(KSL) 교육과정 담당 교원, 한국어학습 담당자 및 관리자 대상별 연수를 지원하였으며, 학생 대상으로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통해 교과와 연계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함. 교육의 효과성 측정을 위해 진행한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 일반학교 대비 다문화교육 정책 학교의 다문화 감수성 향상도가 더 높게 나타남
 - 정책학교는 75.92점에서 78.13점으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일반학교는 75.70점에서 76.76점으로 소폭 증가함

- <범교과 학습 주제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범교과 학습주제(10개)의 하나로 ‘다문화 교육’ 관련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임. 자료의 보급을 통해 초·중·고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함
 - 다문화 교육 관련 내용은 다양성의 존중, 다문화 이해 및 상호 존중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관련 자료를 1권씩 배포 및 에듀넷 티클리어에 탑재하여 접근성을 높임
- <교과용 도서 개발진 및 심의진 연수>는 검정도서심의위원을 대상으로 교과용 도서 개발진 및 심의위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한 사업으로, 개발진과 심의위원의 문화다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과용 도서에 ‘문화상대주의’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안내함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제11회 전국 장애공감 사진 및 홍보 영상 공모전> 개최

- 사진, 영상 등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장애이해 관련 콘텐츠 제작을 통해 범국민 장애 공감 문화 조성 및 장애인식 제고, 사회적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사진,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모든 성인과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공모전임
 - 사진 101편, 영상 53편이 접수되었으며, 선정된 작품에 한해서 오프라인 전시를 개최함

〈표 3-15〉 <전국 장애공감 사진 및 홍보 영상 공모전> 오프라인 전시 개요

차시	일정	장소	참여인원
1차	2019.4.15.(월)~4.19.(금)	천안 아산역(KTX)	약 1,000명
2차	2019.9.3.(화)~9.4.(수)	THE K 호텔	약 1,500명
3차	2019.9.23.(월)~9.27.(금)	오송역(KTX)	약 1,000명
4차	2019.10.14.(월)~10.18.(금)	교육부 1층 로비	약 350명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4) 국방부

〈표 3-16〉 국방부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단위: 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국제 문화교류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지원	기타	합계
-	1	-	-	-	-	-	-	1

■ 국방부는 장병의 복무 의지 제고 및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장애인 예술단체 부대방문 공연>을 진행

- <장애인 예술단체 부대방문 공연>은 장애인 단체의 예술 공연을 통해 장병의 복무 의지를 제고하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우며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진행한 사업임. 장애인 예술 단체가 군부대를 방문하여 군 장병을 대상으로 공연을 시행함
- 전국의 육·해·공 사·여단 급 부대를 방문하여 클래식, 오케스트라, 팝, 뮤지컬 등의 공연을 12회 실시하였으며, 약 5,200여명의 군 장병이 관람함

5) 농림축산식품부

〈표 3-17〉 농림축산식품부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단위: 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국제 문화교류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지원	기타	합계
1	-	-	-	-	-	-	-	1

■ 2019년 <농촌축제 지원사업>을 통해 65개 지역의 마을단위 축제 지원

- <농촌축제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임
- 농촌지역의 주민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기획·실행하는 마을·권역 단위 농촌축제를 대상으로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기자재, 컨설팅 등 축제 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
- 2019년, 65개 지역의 마을단위 축제를 지원하였으며 참여인원은 10,120명임
 - 2016년 54개소, 2017년 57개소, 2018년 60개소, 2019년 65개소로 매해 지원 대상이 확대하고 있음

6) 방송통신위원회

〈표 3-18〉 방송통신위원회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단위: 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국제 문화교류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지원	기타	합계
-	-	-	-	-	1	-	-	1

■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시청자를 대상으로 상호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 사업 실행

-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은 국내·외 시청자의 한국문화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며, 해외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과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진행함
- 해외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방송을 통해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 및 ‘한국을 알리는 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도록 7개 외국어로 4,049편의 TV프로그램을 제작 및 방송함
 -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아랍어 등 7개의 외국어로 제작함
- 국내에 거주하거나 방한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영어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한국문화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교통, 관광, 기상 정보 등 생활정보 및 현장정보뿐만 아니라 ‘K-Pop·K-Culture’ ‘시사·경제’ ‘한국 바로 알리기’ 등의 프로그램 4,805편을 제작 및 방송함

7) 법무부

〈표 3-19〉 법무부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단위: 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국제 문화교류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지원	기타	합계
2	-	-	-	-	-	-	-	2

■ 법무부는 내·외국인의 타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및 공직자의 이민정책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이민정책 이해과정> 추진

- 2019년 제12회를 맞이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는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재외법)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매해 개최하는 기념행사임
 - 재외법 제18조에는 매년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일주일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하여 행사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는 재한외국인과 국민을 대상으로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 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함
- 2019년 세계인의 날 기념 수기·사진·동영상 공모전에 657건이 응모하여 우수작품 24건을 선정하였으며, 행사에 약 900여명이 참여함



▲ 세계인의 날 기념식



▲ 세계인의 날 수기·사진·동영상 공모전

자료: 법무부 내부자료

〈그림 3-16〉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 <이민정책 이해과정>은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이민정책 전문성 함양 및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임. '외국문화의 이해', '이민통합정책' 등의 교육을 진행하여 외국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5명이 수강함

8) 보건복지부

〈표 3-20〉 보건복지부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단위: 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국제 문화교류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지원	기타	합계
-	-	-	-	-	-	-	1	1

■ 보건복지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 사업> 시행

-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 사업>은 2006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담당하고 있는 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이동진료 지원, 건강정보 제공, 예방접종 백신 지원 및 사업담당자 교육 지원 등이 있음
 - 해당 사업은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지원 이동진료차량 운영'(2007년~현재), '다국어 건강자료제작, 배포'(2010년~현재), '파상풍,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2011년~현재), '외국인근로자 보건관리 실무역량 강화 교육'(2011년~현재)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함
- 무료진료소 진료기능 강화사업은 외국인근로자 무료지원을 하는 기관과 단체에게 이동진료(산부인과,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X-Ray) 차량 및 의약품, 소모품을 무상지원 함



▲ 치과진료



▲ 이동검진차량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그림 3-17]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 지원사업

- 사업담당자 교육을 통해 담당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다국어 건강정보 자료 배포 및 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정보접근성을 향상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함
- 2019년 기준, 9,564명이 참여하였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https://www.kofih.org>)의 사업 소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9) 여성가족부

〈표 3-21〉 여성가족부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단위: 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국제 문화교류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지원	기타	합계
1	2	-	-	-	1	-	-	4

■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제고〉 사업 추진

- 〈국민 다문화 수용성 제고〉 사업은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인식개선 홍보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증진을 위해 진행함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여 총 107,918명이 이수하였고, 다문화 이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시스템을 운영함(www.danurischool.kr)
- 다문화 인식개선 홍보를 위해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웹툰 공모전’ 개최 및 ‘EBS 지식채널 ②’ 등 맞춤형 콘텐츠를 14건 제작하여 배포함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통한 다문화가족의 기본권 신장 및 표현 기회 마련 사업 진행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교육 및 양육 등 단계적 성장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세부 사업으로 언어발달지도사 배치,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 방문교육 서비스 등이 있음
 - ‘언어발달지도사 배치’는 초등학생 이하 언어발달 지체 아동에 대한 언어발달 진단 및 집중적인 언어교육 실시 등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으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및 학교 수업 이해력 증진 등에 기여함
 -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은 다문화가족 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행됨. 이중 언어 코치 150명을 배치하여 총 9,434명의 다문화가족에게 지원함. 부모-자녀의 이중 언어 상호작용 프로그램 제공 및 자조모임 운영 지원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 내 이중 언어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함
 - ‘방문교육 서비스’는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지도 등 방문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임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는 결혼이민자, 배우자, 자녀 등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가족교육, 상담, 취업교육 및 직업훈련 전문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였으며, 6월과 11월에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를 구성·운영하여 다문화가족 건의사항 및 의견 등을 정책에 반영함
 - 맞춤형 서비스의 내용은 초기적응(한국어교육, 통번역 서비스, 가족통합교육 등), 위기관리(사례관리, 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 위기가족긴급지원 연계), 자립 및 사회참여(정착단계별 자립지원 패키지, 자조모임, 나눔봉사단, 취업 및 직업훈련 연계 등)임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와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각각 2018년 152개소에서 2019년 183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함
 - 한국어교육 운영을 통한 결혼이민자 초기적응에 기여함. 231개소를 지원하여 연인원 849,781명이 이용함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다가온' 개소(왼쪽), 제7차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개최(오른쪽)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그림 3-18] 다문화 가족 자녀의 글로벌 인재육성/다문화가족의 맞춤형 서비스

■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지원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청소년 국제교류> 시행

- <청소년 국제교류>는 국가간 청소년 교류, 한·중 청소년교류, 국제청소년 리더교류 지원, 해외자원봉사 지원, 국제회의 참가 등을 추진함

<표 3-22> 청소년 국제교류 세부 사업 내용

세부사업명	내용	성과
국가간 청소년 교류	협정 약정국과 청소년 간 교류프로그램 운영 (기관방문, 문화체험 등)	11개국 319명 (초청 170명, 파견 149명)
한중 청소년 교류	양국 인적교류를 통한 청소년 상호이해 증진과 협력관계 기반 구축	초청 98, 파견 99명
국제청소년리더 교류 지원	국내 체류 유학생과 한국 대학생 간 교류사업 추진	총 15개 대학, 1,344명
해외자원봉사 지원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자아실현과 글로벌 역량 강화	국제회의·행사파견 10명, 해외자원봉사 5개국,
국제회의 참가	다자간 교류참여로 세계시민 의식 함양	7개 팀, 139명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10) 외교부

〈표 3-23〉 외교부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단위: 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국제 문화교류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지원	기타	합계
-	-	-	-	-	1	-	-	1

■ 외교부의 <전략적 문화교류 증진사업>은 문화교류가 적은 국가·지역과의 교류를 통한 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도모

- 문화예술 등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양국 관계 증진이 필요한 국가·지역 및 상대적으로 문화교류가 적은 국가·지역의 문화를 국내 대중에게 소개함으로써 해당 국가와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됨
- 2019년에는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하여 동남아 국가의 문학과 일러스트를 우리 국민에게 소개하는 사업을 진행함. 서울 코엑스몰 별마당도서관에서 ‘동남아도서전’을 개최하여 동남아 국가의 현지어로 된 소설, 에세이, 그림동화 등 장르별 도서(관련 초록 별도 제작·배치) 및 해당국에서 번역 출간된 한국 저자의 현지어본 도서를 전시함
 - 도서전 개최를 기념하여 ‘화담(畵談)-그림으로 읽고 문학으로 잇다’라는 부제의 문화 행사, 워크숍, 비즈니스 매칭 및 도서 기증식을 진행함
 -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동남아 6개국 17개 출판사 관계자 및 작가, 국내 주요 출판업계 관계자, 주한아세안 외교단 및 한-아세안센터 파견 공무원, 국내 일반 대중 및 다문화가정, 한국 거주 동남아 국적자 등이 참여함
- 사업을 통해 상대국 문화예술 콘텐츠를 국내에 소개하고 관련 분야 비즈니스 매칭 및 인적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쌍방향 문화교류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신남방정책 3P(People, Peace, Prosperity)를 가시적으로 구현함. 또한, 인니 일러스트 에세이 작가 도서 국내 번역 출간 및 비즈니스 매칭시 23권의 우리 도서 판권을 수출하고, 전시 도서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 언어로 출판된 1,390여권을 다문화 작은도서관, 다문화가족센터 등에 기증함

11) 행정안전부

〈표 3-24〉 행정안전부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단위: 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국제 문화교류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지원	기타	합계
-	5	-	-	-	-	-	-	5

■ 행정안전부에서는 외국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외국인주민 화합한마당〉, 〈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 〈북한이탈주민지원〉 등의 사업 시행

- 〈외국인주민 화합한마당〉은 국내에 거주하는 유학생,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 다양한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및 주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해 개최됨. 시·도 외국인주민 공연단의 전통 무용, 합창, 뮤지컬 등의 경연을 추진하여 외국인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국 문화 홍보의 기회를 제공함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그림 3-19] 외국인주민 화합한마당

- 〈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은 장애인과 지역사회 간 문화적 소통 및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시·도 장애인 공연단의 합창, 오케스트라, 밴드 등의 경연 행사임.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장애인과 일반 관객 간 소통 계기가 되었으며, 장애인 생산품 전시, 장애체험 등의 부대시설 운영을 통해 장애인식개선에 기여함

- <북한이탈주민지원>은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정서적,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임. 남북이음 교육과정, 가족결연 사업, 기업체 연수 교육, 이북도민 행사 참가 지원, 탈북학생 후계세대 양성과정, 한마음 축제 등을 진행함

〈표 3-25〉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내용

세부사업명	내용 및 성과
남북이음 교육과정	총 30개 과정 운영, 593명 수료
가족결연사업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누적 1,827쌍 결연
기업체 연수 운영	5개 업체에서 24명 연수, 연수 종료 후 18명 취업 연계
이북도민행사 참가 지원	도민의 날(5월), 청소년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6월), 이북도민 체육대회(10월)에 1,500여명 참석 지원
탈북학생 후계세대 양성 과정	청소년 27명 대상, 통일 리더 육성 단기 프로그램 운영
한마음축제	이북고향음식 나눔한마당 개최, 1,000여명 참석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 <이북5도 청사시설 개보수> 사업은 1993년 준공된 서울 종로구 소재의 이북5도 청사에 대한 보수 및 보강을 통해 이북도민 관련 15개 입주단체 및 이북도민, 북한이탈북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지하주차장 바닥 보수, 옥상 계단실 내·외벽 보수 등 건축 분야 구조물 보수와 사회의실 방수음향 장비 교체, 노후 냉난방 배관 교체 등 기계전기 분야 노후 장비 정비 및 교체를 진행함
- <이북도민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 사업은 한국전쟁을 통해 고향, 삶의 터전을 잃은 이북도민(실향민)의 아픔과 애환을 위로하고, 월남 이북7도민과 후세대 육성·지원을 통해 남북사회의 통합과 한반도 평화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됨. 멸실 위기에 처한 이북지역 향토문화를 발굴, 계승·보존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함
 - ‘제37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2019.10.20.)에 15,6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제12회 청소년 글짓기·그림그리기’(2019.6.15.)에는 100여명이 참여함. ‘제12회 통일미술 대전’은 12월 4일~10일 동안 115점의 전시를 지원하였고, 그밖에 ‘7도민회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과 ‘이북5도 무형문화재 단체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을 통해 19개 단체를 지원함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 3-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단위: 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국제 문화교류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지원	기타	합계
-	2	-	-	-	-	1	-	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격차해소 지원>, <방송콘텐츠 진흥>,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등 다양한 계층의 문화기본권 신장을 위한 사업 시행

- <정보격차해소 지원>은 장애인, 고령층,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격차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해당 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을 비롯하여 평등한 정보이용환경 조성, 정보역량 제고 지원 등을 통한 디지털 불평등 해소 및 사회통합을 목표로 함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1조에서 35조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추진된 사업임
- <방송콘텐츠 진흥>은 방송사업자, 일반 국민, 중소 방송사, 방송프로그램 제작사, 1인 창작자를 대상으로 방송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부터 진행되고 있음
 -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은 세계 시장에 있어 국내 방송콘텐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를 위해 방송콘텐츠에 대한 기획·제작·유통을 지원함
 - ‘1인 미디어 산업기반 조성’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발굴과 창업 및 해외 진출 등의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디어 신산업을 육성함
 - ‘차세대방송 성장기반 조성’은 초고화질(UHD), 5G 기반 신 유형 콘텐츠에 대한 제작·유통 지원을 통해 차세대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 ‘방송통신 전문 인력 양성’은 방송 종사자의 글로벌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와 특성화고 및 대학생 등 방송 예비인력에 대한 준비교육을 마련하여 핵심인재를 양성함
 -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은 재외동포의 우리말·문화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해외 한국어 방송사에 국내 우수프로그램 방영권을 보급하고 프로그램 제작과 현지 연수 교육을 지원함
-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 상위계층,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일부 등 저소득층을 비롯하여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수신환경 개선 및 시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경제적 부담 혹은 다채널 불필요 등의 이유로 지상파 직접수신을 원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상파 수신 안테나 설치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송시청 요금의 경감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수신환경 개선’은 전국 디지털 TV방송 수신환경을 조사 및 분석하여 대국민 수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고 있는 난시청지역(약 58만 가구)을 도출하고 난시청 유형별 해소방안을 마련 및 송신시설 구축 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시청지원센터 운영’은 디지털방송시청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과 같은 방송 소외 취약계층이 디지털방송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3.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현황 및 실태

1) 서울특별시

〈표 3-27〉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단위: 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국제 문화교류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지원	기타	합계
98	142	22	7	8	19	2	1	299

■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서울문화포털 운영〉,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과 시민의 문화예술 표현 기회 제공 사업 및 교육 사업 등 추진

- 〈서울문화포털 운영〉은 일반 시민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고품질의 서울문화 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함. 문화포털을 통해 서울시의 문화정책을 소개하고 월 1,500여 건 이상의 서울시 문화행사 및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예술인과 일반 시민에게 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문화 관련 콘텐츠의 효용가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함
-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양천구와 은평구, 강동구에서 각각 진행함
 - 양천구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촉진하고 양성평등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음악콘서트, 여성 취업박람회, 강연, 성매매 예방 캠페인, 주민 표창, 건강증진체험관 운영, 성희롱·성폭력 예방 사진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 예년에 비해 많은 양성평등기금 지원 단체 및 여성 단체들이 참여함
 - 은평구와 강동구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구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 공유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목적 행사를 추진함. 은평구에서는 기념식, 특별강연, 은평 교육콘텐츠 작품 전시회, 홍보체험부스 운영 등 구민이 참여하여 이뤄낸 작품들을 전시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 강동구는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식전 공연, 양성평등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전시, 유인경 강사 특별강연, 홍보 체험부스 운영, 성매매 인식개선 캠페인, 암사 초록길 서명 운동 등의 사업을 진행함.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평등 주관을 홍보하고 강연과 공연을 통한 정서적 힐링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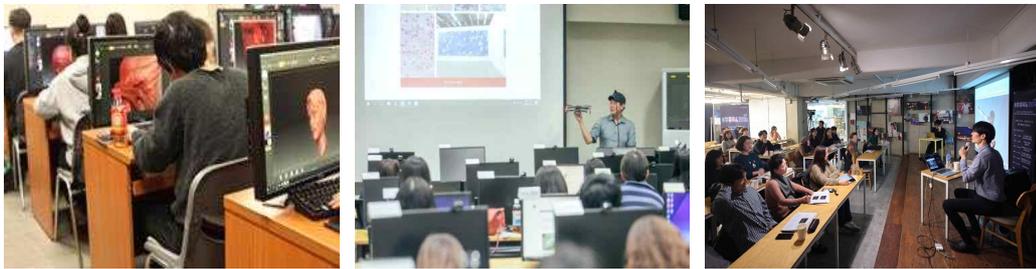
〈표 3-28〉 서울특별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 개요

정책사업명	참여 구	내용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강동구*신규 (여성가족과)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식전공연 (남성 4인조 팝페라) 양성평등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전시 유인경 강사 특별강연 홍보 체험부스 운영 성매매인식개선 캠페인 암사 초록길 서명 운동
	양천구 (여성가족과)	음악콘서트, 대규모 여성 취업박람회 가족의 멋진 역사를 만드는 3요소 강연 성매매 예방 캠페인 실시 양성평등주간 주민 표창(10명) 건강증진체험관 운영(대사증후군 상담 등) 다양한 체험부스 운영, 성희롱·성폭력 예방사진전 등
	은평구 (가족정책과)	기념식 특별강연 은평교육 콘텐츠 작품 전시회 홍보체험부스 운영

자료: 서울특별시 내부자료

-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다정한 박물관 교육 운영〉 등 교육 사업을 진행함
 -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은 아동·청소년, 동반가족 및 성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발현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임. 서울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꿈다락 토요문화 학교 및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을 진행함. ‘2019 예술놀이 축제-예술로 놀장’에는 22개 단체의 26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꿈다락토요문화학교’는 28개 교육단체의 28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20개 교육단체의 28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
 - 〈다정한 박물관 교육 운영〉은 문화다양성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초등학교 학급 단체 및 다문화 학교,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도시 서울 및 세계의 수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인 ‘다정한 박물관, 서울’, ‘다정한 박물관, 내 친구 하노이 이야기’, ‘다정한 박물관, 서울 속 세계’를 총 34회 운영함
- 〈국제 다양성 영화·음악제〉, 〈마을예술 창작소 운영〉, 〈융합예술아카데미〉 등 시민이 직접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표현하고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함
 - 〈국제 다양성 영화·음악제〉는 일반시민에게 세계도시와 서울을 주제로 한 국내·외 영화 상영과 연계 음악 공연으로 다양한 융·복합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아날로그 감성영화제, 대륙별 세계문화 영화제, 국제 다큐멘터리,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 등의 사업을 진행함. 영화 상영회 55회, 연계 공연 9회를 개최함

- 〈마을예술 창작소 운영〉은 마을을 기반으로 한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경력단절 여성, 청소년, 장애인 대상의 공예 및 음악강좌, 마을축제 등을 개최하여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기여함
- 〈융합예술아카데미〉는 4차 산업시대 대비 융합예술 관련 예술현장 전문인력 양성 및 시민대상 인식개선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시민 대상의 일반과정과 예술전공자 및 관련 분야 종사자 대상의 전문가과정을 운영함. ‘일반과정’은 융합예술 지식, 정보 관련 강연 및 흥대 앞 문화생태계 주체 대상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총 30회 차 운영하여 245명이 참여하였으며, ‘전문가과정’은 융합예술 분야 연구기관과 협력기반 전문가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2개 기관(연세대, 중앙대)과의 협업 하에 총 64회 차 운영을 통해 44명을 교육하고 15명 취업·창업·진학의 성과에 기여함



▲ 3D 마스터클래스
(전문가과정)

▲ 예술가를 위한 콘텐츠 라이팅
(전문가과정)

▲ 융합창작소
(일반과정)

자료: 서울특별시 내부자료

[그림 3-20] 지역연계형 예술교육 융합예술 아카데미 (서울특별시)

■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노인, 장애인, 생활예술동아리, 사회적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표현 기회를 제공하는 〈청춘극장 운영〉, 〈배리어프리 영화관〉, 〈잠실창작 스튜디오 운영〉, 〈서울 여성합창 페스티벌〉, 〈예술놀이 LAB〉 등 추진

- 〈청춘극장 운영〉은 고령화 시대 어르신 전용 극장 운영을 통해 어르신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5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영화 상영 661회, 공연 213회, 악기교실 51회, 찾아가는 청춘극장 253회를 진행함
- 〈배리어프리 영화관〉은 장애인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소통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됨. 일반영화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자막을 넣은 형태의 영화 상영을 9회 개최하였으며, 점자 리플릿을 제작 및 배포함
- 〈잠실창작 스튜디오 운영〉은 장애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망장애 예술가 발굴 및 인큐베이팅,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발표 지원을 통해 장애인 예술 저변 확대, 사회적 소통 및 인식개선에 기여함. 세부적으로 입주 작가 간담회,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및 기획 전시, 오픈스튜디오 등을 운영함

- 〈서울 여성합창 페스티벌〉은 자치구 대표 여성 합창단 공연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장 형성을 목적으로 23개 구립여성 합창단의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공연을 지원함
- 〈예술놀이 LAB〉은 어린이·청소년의 ‘예술적 놀 권리’를 위한 예술교육 전용 거점형 센터로서, 공간과 예술가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예술놀이 콘텐츠를 개발 및 확산하는 동시에 예술교육을 매개로 한 지역주민 예술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초·중·고급 대상 학교 참여 프로그램과 인근 지역 주민대상 커뮤니티 프로그램, 융합프로그램 및 결과공유 전시 등을 추진하였으며, 24개 프로그램을 447회 진행함



자료: 서울특별시 내부자료

[그림 3-21] 예술놀이 LAB (서울특별시)

■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자치단체 간 문화교류 사업〉, 〈문화예술오픈포럼 같이 있는 가치〉, 〈문화예술통합네트워크 문화채널 마포 수요예술포럼〉 등 개최

- 〈자치단체 간 문화교류 사업〉은 예술단 교류 공연을 통한 서울과 지역 간 문화교류를 증진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서울시 예술단의 지역방문 공연 9회, 자치단체 예술단의 서울 초청 공연 13회를 진행함
- 〈문화예술오픈포럼 같이 있는 가치〉는 장애·비장애인의 공존 담론 형성과 장애예술의 창작 및 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진행된 포럼임. 장애예술교육 및 창작을 매개로 활동하는 사례 공유 및 장애예술 창작 확산을 위한 논의를 하였으며, 주제 선정·기획·진행 전반에서 장애 당사자의 공감대 형성에 큰 역할을 함
- 〈문화예술통합네트워크 문화채널 마포 수요예술포럼〉을 통해 마포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기획자, 언론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트렌드 특강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지역단체 사업 소개 및 웹레터 제작·발송 등 문화예술 협력 플랫폼을 구축함. 2019년에는 대중문화 트렌드 분석, 남북문화예술 교류, 문화예술저작권, 예술인 복지, 예술지원 사업 활용방법 등 5개 주제의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8개 단체 사업 소개 및 20개 단체 웹 레터를 발송함

■ **(정책 추진체계 구축)**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 <잠실창작스튜디오 운영위원회>,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운영 및 <서울 청년예술인 회의> 진행

-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은 「장애인 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근거해 설치되었으며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장애인 복지 시책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통해 현실에 맞는 장애인 정책을 수립함
- <잠실창작스튜디오 운영위원회>는 장애예술인 전문 창작공간인 잠실창작스튜디오의 운영위원회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주요 의사결정과 운영 관련 자문을 진행함
-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시민의 문화기본권, 문화영향평가, 문화다양성 등의 증진을 위해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이행과제 점검 및 자문 등을 진행함
- <서울 청년예술인 회의(구 청년예술인 캠프)>는 청년예술인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청년예술인 예술생태, 생활과 인권, 창작과 사회적 권리 등 정책의제의 탐색·논의·결정을 주도하는 기구로, 준비위원회의 8회와 정기회의 1회를 개최함

■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실행방안 연구>, <청년예술인 실태 및 지원 사업 혁신방안 연구> 진행

- <청년예술인 실태 및 지원 사업 혁신방안 연구>는 청년예술인의 실태를 조사하여, 청년 예술인의 여건과 요구에 맞는 지원 사업 및 정책 구성을 위해 진행한 연구 사업으로, 서울시 청년예술인 실태 파악을 통한 향후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산출하고, 청년예술정책의 주요한 과제와 방향 제안을 통해 향후 정책 결정을 위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함. 연구과정에 다양한 청년예술인 참여를 통해 청년예술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형성함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실행방안 연구>는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서울시 문화다양성 실행방안 구축을 위해 2019년 1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20년 6월 30일에 종료되는 연구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임

■ **(국제 문화교류)**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총회 참석>,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등 해외 도시와의 우호 증진을 위한 사업 및 해외 안무가 교환 프로그램 재단 사례 발표), <금천예술공장 작가 교환 프로젝트> 등 예술가의 이동성 증진을 위한 교류 사업 추진

-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총회 참석>은 2013년부터 세계도시문화포럼 총회의 회원 도시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가 참여하여 서울시 문화정책 및 사례 발표, 토의 등을 통해 총회에 참여한 도시들과의 네트워킹을 형성함. 2019년도 총회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되었으며 37개 회원 도시에서 96명이 참여함



자료: 서울특별시 내부자료

[그림 3-22]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서울특별시)

-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은 해외 도시와의 우호 교류협력 관계 조성을 위하여 주한 외국 문화기관 교류사업 및 아시아도시문화포럼 개최, 민간 국제문화교류 지원, 예술단체 교류사업 등을 추진함
- <해외 안무가 교환 프로그램 재단 사례 발표>는 해외 3개 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상호 호혜를 통한 1:1 안무가 교환 사업으로 서울, 교토, 뉴욕의 3개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함
- <금천예술공장 작가 교환 프로젝트>는 해외 교류기관과 예술가 입주교환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외 예술가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시,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 서울시 금천예술공장과 대만 관두미술관에서 공동 진행함

■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지원) 미디어와 관련한 전시 및 제작 지원인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청년 크리에이터 사업> 추진

- <다빈치 크리에이티브>는 첨단기술 기반 예술가의 창의적 실험이 우리의 환경과 시대를 어떻게 성찰하는가를 제시하기 위하여 예술가, 전문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시, 공연, 강의 등을 진행함. 국내·외 13개의 예술가 및 단체가 전시에 참여하였으며, 약 1,700여명의 관객이 참여함
- <청년 크리에이터 사업>은 청년문화 크리에이터의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유통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제작 및 학습 지원을 통해 337건의 청년문화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유통함

2) 부산광역시

〈표 3-29〉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단위: 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국제 문화교류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지원	기타	합계
27	162	49	1	2	39	2	1	283

■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페스티벌〉, 〈문화다양성 flagship 워크숍〉 등의 행사와 〈문화다양성 교육〉 등 다양한 사업 진행

- 홍보 및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9 문화다양성 페스티벌〉, 〈문화다양성 flagship 워크숍〉을 운영함
 - 〈2019 문화다양성 페스티벌〉은 ‘빛이 모이다’라는 주제로 5월 25일 부산의 서면 1번가 일대에서 진행함. 문화다양성 한 가지 약속 캠페인과 함께 커뮤니티 부스 운영, 런웨이 운영을 통해 세대·장애·젠더 등 주제가 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25개 팀 1,5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부산시민 5,000여명이 행사에 참여함
 - 〈문화다양성 flagship 워크숍〉은 예술가 및 문화다양성 활동가를 대상으로 주제별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2019년도에는 총 9회의 워크숍을 통해 이음영화제, 국제교류, 도시·마을 관련 공동 프로젝트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였으며 협업 가능한 프로젝트의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함



자료: 부산광역시 내부자료

[그림 3-23] 2019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페스티벌 (부산광역시)

- <문화다양성 교육>은 문화다양성 강사진 양성 및 피교육자와의 협업을 통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무용, 연극, 시각미술을 중심으로 문화다양성 통합 예술교육 교안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개발된 교안으로 오픈 수업을 진행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활동가 및 예술가와의 협업 프로젝트, 문화다양성 시범교육 수업을 실시함
-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은 관내 청소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진행함. 국가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수용성을 제고함
- <다문화 강사단 파견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출신국 문화를 강의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발굴 및 양성하여 어린이집 등에 강사로 파견하는 사업이며, 2019년에는 8명의 강사를 파견하여 32개소에서 737회의 교육을 실시함
- <다문화강사 양성과정> 역시 결혼이주여성을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의 강사로 양성하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파견시켜 다양한 문화 간 소통과 교류를 이끄는 촉진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 총 99회의 교육을 진행함

■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적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과 노인, 장애인, 청년 및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맞춤형 정책 사업을 운영

- <문화다양성 ‘공존을 위한 변화’>는 사회적 소수자의 문화적 표현 기회를 정착 및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음영화제, 북한문화살롱, 세대가 만나는 문화 예술 프로젝트, 젠더와 로컬리티 기록 전시 등의 사업을 참여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함
- 노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실버문화복지>, <부산 실버영상제 지원>, <실버영화관 운영> 등의 사업이 진행됨
 - <맞춤형 실버문화복지>는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여, 정서적으로 외로움, 우울증과 같은 문제를 지닌 이들을 대상으로 자택에 예술가가 방문하여 일대일, 소규모 그룹형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정서적 치유를 목적으로 진행함
 - <부산 실버영상제 지원>은 영상작품을 통한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소통의 기회 마련을 목적으로 실버영상제 멘토교육, 영상제 공모전 등을 추진함
 - <실버영화관 운영>은 지역 노인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운영함
-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무형문화재교실>, <부산청소년예술제> 등을 추진함

- <어린이 무형문화재교실>은 초등학생에게 부산의 무형문화재에 대해 교육하는 내용으로 15개교에 30명의 강사를 파견하여 진행함. 교육을 통해 전통문화 및 지역무형문화재에 대한 명백 보존과 전승기반 강화에 기여함
- <부산청소년예술제>는 부산예술회관, 문화회관, 시민회관 등에서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한 축제로 청소년의 문화예술 재능 발표 기회를 제공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함. 12개 단체가 공연 2건, 경연 6건, 전시 4건 등의 활동을 함
- 다문화가정 및 결혼이주여성에게는 <다문화가정 원어민 어학교실 운영>, <다문화가정 생활요리 교실 운영>, <다문화여성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운영>, <다문화가족 직업체험 즐기기>,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 <이중언어 교육-함께 하는 다언어 다사랑>과 같은 사업을 통해 한국사회의 정착에 필요한 언어교육, 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함
- 그밖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다문화 이주민과 장애인의 공공문화시설 사용 지원, 일반시민 대상의 <거리로 나온 예술 지원>, <이동형 무대 지원>, 장애인 대상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 <부산 가치봄 영화제> 등을 진행함

■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축제와 교류를 통한 문화 간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축제 ‘우리는 하나데이(DAY)’>는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상생해 갈 수 있도록 다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공연, 퍼포먼스, 전시, 체험 먹거리, 바자회 등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축제임.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려 사회통합에 기여함
- <1.3세대 통합프로그램-Be Together>는 노인과 아동 등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유대감 형성을 위해 요리체험활동 및 문화탐방을 통해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공유하도록 지원함
- <거주외국인 어울 한마당>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지역주민의 상호간 이해와 및 화합을 통한 지역통합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우리가족 사진 전시회, 퀴즈대회, 레크리에이션, 다문화체험관 운영 등으로 구성된 행사로, 국적과 국경을 뛰어넘은 모두의 축제의 장을 마련함
-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설맞이 명절음식 만들기>, <다문화가족 한국전통문화 체험>, <다문화가족 돌잔치 행사>, <다문화부부 전통혼례식>, <어서오이소! 부산은 처음이지예>, <결혼이주여성 김장담그기 멘토·멘티 행사>, <다문화가족 고국방문사업>, <다문화 자국음식 요리 경연대회> 등의 사업을 추진함

■ (정책 추진체계 구축) <부산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정책 포럼> 진행

- 부산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당면과제와 후속조치를 위하여 정책 포럼을 개최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의 문화다양성 인식 및 현재 문화다양성 정책의 흐름과 지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당면과제 및 후속조치 제안을 바탕으로 2020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함
 - 2018년 12월, 부산시민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수준 파악 및 부산시의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여건 파악을 위한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을 통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음

〈표 3-30〉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정책 포럼 개요

개요	내용
일시/장소	2019.7.25.(목) 14:00 /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주최/주관	부산광역시 / 부산문화재단
세부프로그램	[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1: 부산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을 통한 실태조사 결과 장현선(장애프터너스그룹 대표) - 발제2: 현 문화다양성 정책 흐름과 지역의 문화다양성 역할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상호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이지훈(필로아트랩 대표) - 지정토론1: 김부민(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 - 지정토론2: 변정희(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 지정토론3: 윤지영(부산연구원 연구위원) - 지정토론4: 이광혁(노동예술지원센터 흥 대표) - 지정토론5: 이재정(부산복지개발원 책임연구위원)
	[자유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자유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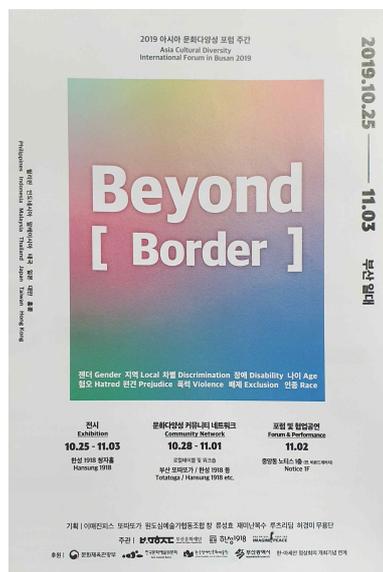
자료: 부산광역시·부산문화재단, 「부산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포럼 자료집」

■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정 현황조사」와 「북한이탈 주민 정착 도모 설문조사」 진행

- 「다문화가정 현황조사」는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안정적인 생활지원 등 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구축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845세대를 대상으로 체류지(동별) 현황조사, 국적 현황조사, 가족 현황 및 복지 현황에 대해 조사함
- 「북한이탈주민 정착 도모 설문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현황,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및 복지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지를 우편 발송하여 우편, 메일, 팩스 등으로 회신하는 방법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함

■ (국제 문화교류) 아시아 국가와의 문화다양성 교류 사업으로 <아시아 문화다양성 포럼 주간 및 커뮤니티 아트 교류 프로젝트>, 청년예술가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청년문화 육성지원 사업>, 그 외 한-일, 한-중, 한-베트남 문화예술교류를 위한 사업 추진

- <아시아 문화다양성 포럼 주간 및 커뮤니티 아트 교류 프로젝트>는 아시아권의 문화적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대만, 홍콩 등 아시아 7개국의 문화다양성 관련 예술가 및 활동가를 초청하여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한 사업임. 단일 포럼 형태가 아닌 개별 교류 형태로 구성된 프로그램이었으며, 'Beyond [Boreder] 아시아, 경계를 넘는 문화다양성'이라는 주제로 부산 원도심 일대에서 진행함



자료: 부산광역시 내부자료

[그림 3-24] 아시아 문화다양성포럼 주간 및 커뮤니티 아트 교류 프로젝트 (부산광역시)

- <청년문화 육성지원사업>은 지역 청년예술가의 작품 및 활동을 해외에 소개 및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캄보디아 ARTUK'과 '태국 BBartist'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함. '캄보디아 ARTUK'은 캄보디아의 부산예술가의 홍보 채널로서 교통수단인 TukTuk을 디자인하여 양코르와트 일대에 운행하도록 하였으며 총 7명의 작가가 참여함. '태국 BBartist'은 부산과 태국의 청년 작가가 레지던시를 통해 작품을 공동제작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4명의 작가가 참여
- <한-일 문화예술교류>, <한-중 문화예술교류>, <한-베트남 문화예술교류>는 각각 일본 사카시와 우호 교류합의서 체결, 중국 상해 황포구와 우호 양해각서 체결, 베트남 호치민 시와 우호 교류합의서 체결을 통해 추진된 사업임
- 그 외에도 <부산국제합창제>, <부산국제무용제>, <부산국제연극제>, <부산국제문학제>, <부산국제건축대전>, <부산국제사진전> 등 개최함

■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 지원)** 언론미디어의 문화다양성 가치 반영을 위한 <문화다양성 리터러시> 사업과 국내·외 청년예술가 주도의 영화상영제인 <부산국제유학생 영화제> 개최

- <문화다양성 리터러시>는 부산 지역 언론미디어의 문화다양성 관점 실태를 발표하고, 시민들의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언론매체 및 콘텐츠 제작에 문화다양성 가치의 반영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 모니터링으로 모니터 대상 및 의제 선정 후 그룹 구성 및 학습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현황을 공유함. 문화다양성 리터러시 의제 확산 차원의 대중강좌 교육을 진행하고, 리터러시 가이드라인 적용을 제안함
- <부산국제유학생 영화제>는 국내·외 청년예술가 및 대학생 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유학생과 대학생이 협업하여 만든 주민참여형 영화상영제임. 지역 대학생 및 유학생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였으며, 영화 상영 및 현장 토크를 통해 각국의 문화를 소개함

3) 대구광역시

〈표 3-31〉 대구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단위: 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국제 문화교류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지원	기타	합계
27	40	15	2	-	17	1	26	128

■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대구 국제 오페라축제〉,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도심 속 작은 음악회〉 등 축제와 다수의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문화공간 조성 사업 및 생활 문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

- 〈대구 국제 오페라축제〉는 시민들에게 고품격의 오페라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6회의 오페라 공연 및 19회 콘서트, 제1회 대구 오페라 어워즈 등을 2개월에 걸쳐 진행함. 대구 국제오페라 어워즈에는 15개국 92명의 예술가가 참여함
-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국내·외 우수 뮤지컬 작품 공연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권을 제고하고 뮤지컬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함. 23개의 뮤지컬을 98회 공연함



자료: 대구광역시 제출자료

[그림 3-25]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 (대구광역시)

- 〈도심 속 작은 음악회〉는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심의 유휴 공간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다양한 장소에서 소규모로 여러 차례 개최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함
-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해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목적으로 한 교육사업인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공무원 대상 다문화교육〉, 〈지자체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진행함
 -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은 일반 시민, 공무원,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각각 추진되었으며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수용성 제고를 도모함

- <작은 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사업>은 대구 수성구 지역 내에 보유·운영 혹은 유휴 중인 공간을 '작은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개방·공유하도록 지원하며,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도모함

- 2019년도에 6개소의 작은 문화공간을 조성·운영하였으며, 인문학, 코딩강의, 동네 합주, 목공예, 뮤지컬·연극 강의 및 공연, 금속공예 및 플리마켓, 독서토론회, 캘리그래피 수업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함. 3,5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함

■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 및 문화적 표현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순회공연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진행**

- <찾아가는 문화마당 사업>을 통해 장애인, 노인 등 문화향유 취약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문화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복지시설과 병원에 전문예술단체가 찾아가 공연을 진행함

- 2019년도에는 20개의 전문예술단체가 선정되어 49개 시설에서 42회의 공연을 추진 하였음. 대구카톨릭대학교 병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약 8,340여명이 관람하였음

- 대구 서구문화회관은 <난타로 여는 세상>과 <나도 악극 배우이다>를 통해 20~60대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

- <난타로 여는 세상>은 2019년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 되었으며, 서구 주민 50~60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자아실현 및 노년의 행복감 증진을 목적으로 난타북, 장구, 쥘벨 등을 활용한 트로트 리듬 교육을 받고 발표회 공연 기회를 제공함

- <나도 악극 배우이다>는 2019년 상주단체의 퍼블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60대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됨. 연극에 대한 기초 교육과 작품 제작 과정 교육, 발표회 등의 기회를 통한 예술적 자아실현에 기여함

- 장애인 대상의 문화예술 활동 및 체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문화 활동 지원>, <장애인 문화교류활동 지원>, <문화 인재육성 지원 사업>, <장애인 미술활동 지원>, <장애 아동 문화예술교육>,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등이 진행됨

- <장애인 문화 활동 지원>, <장애인 문화교류활동 지원>, <문화 인재육성 지원 사업>, <장애인 미술활동 지원>은 문화소외계층인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자신감 부여 및 예술적 소질과 역량의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가요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교육, 미술 및 음악 경연대회, 예술발표회 등을 개최함

-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을 통해 장애인 전국 체전 참가, 가맹단체 지원, 각종 대회 개최(9개 대회), 스포츠클럽 운영(10종목), 장애인 스포츠단 육성, 탁구 실업팀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은 생활체육교실 및 클럽 지원,

동호인·어울림 대회 개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특장버스 운영, 장애인 종합생활 체육대회 개최 등을 지원함



자료: 대구광역시 제출자료

[그림 3-26] 장애인 전문체육·생활체육 육성 (대구광역시)

- 대구 지역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예술아카데미: 외국인 사물놀이>와 <외국인주민 화합 한마당> 등을 개최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대상의 <다문화가족 봉사단 운영>, <다문화가족 나눔 봉사단 '해피코러스 합창단'> 사업을 추진함
 - <예술아카데미: 외국인 사물놀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사물놀이를 체험하게 하여 한국문화 이해를 도모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대상의 <외국인주민 화합 한마당>을 통해 문화예술 공연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수성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지역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기여를 도모하기 위해 음악, 연극, 미술 3개 분야의 예술 활동을 지원함. 음악 분야는 청년 예술가 131명에게 4개소 공연장의 공연 기회를 지원하였고, 연극 분야는 관내 중고생 대상의 고전연극 공연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미술 분야는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28개소에 42점의 미술작품을 전시하도록 지원함



자료: 대구광역시 제출자료

[그림 3-27] 수성 르네상스 프로젝트 (대구광역시)

■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연극을 통한 결혼이주민의 문화적 표현 장려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만세 연극단> 사업, 결혼이주여성 남편으로 구성된 <사회적 공감대 굿파더>, 지역마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우리마을교육 나눔사업 지원> 등 진행

- <다함께 만드는 세상 '다만세 연극단'>은 결혼이주민으로 구성된 다문화 연극단을 구성하여 참여자들의 자기효능감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촉진을 도모하고, 연극 관람자에게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삶 in 여행> 공연을 기획, 제작, 공연함
- <사회적 공감대 굿파더>는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외국인 주민의 준법정신 함양 및 지역사회 치안유지를 위해 활동하도록 하였으며, 분기별 1회씩 정기적으로 치안유지를 위한 도보 점검 활동을 함
- <우리마을교육 나눔사업지원>은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 네트워킹 형성을 통해 청소년의 창의성과 인성 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진로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9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함

■ **(정책 추진체계 구축)**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규칙」 개정과 <대구광역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운영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규칙」에 △ 시민문화권 보장 및 문화복지 증진 근거 마련, △ 문화예술자료 아카이브 및 심의위원회 구성 △ 문화예술인문 현장사업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함
- <대구광역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자문을 얻기 위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 **(국제 문화교류)** 국가 간 문화예술의 국제교류 지원을 위한 <다베(DaBe) 네트워크 사업>, <한·형 수교 30주년 기념 교류공연> 등 개최

- <한·형 수교 30주년 기념 교류공연>은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과 헝가리 양국의 문화·예술 교류 사업으로,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창작 오페라인 <능소화 하늘꽃>의 헝가리 공연을 지원하고, 헝가리 국민 오페라인 <반크 반>의 오페라하우스 공연으로 초청함. 각 1회 공연을 통해 한국 공연 관람객 1,364명, 헝가리 공연 관람객 1,819명이 참여함
- <다베(DaBe) 네트워크 사업>은 만 50세 이하의 시각·무용분야 예술가를 대상으로 국제 활동 데뷔를 위한 집중 매니지먼트 사업으로, 독일 베를린 레지던스 파견을 지원함. 1년 간 시각 분야 예술가 파견 지원, 3개월 간 무용 분야 예술가 파견 지원함

- 그 외 지역예술단체 및 개인예술가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화/해외활동 지원>과 청소년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자매 우호 협력도시 간의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한 <해외 자매우호협력 도시 청소년 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통해 국제 문화교류를 도모함
-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 지원)** 미디어 소외계층인 중장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지원하는 <수성 영상미디어센터 시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 중장년층 및 청소년 등 미디어 소외계층의 미디어 활용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 강좌와 미디어 영상 기술 교육 등을 진행함

4) 인천광역시

〈표 3-32〉 인천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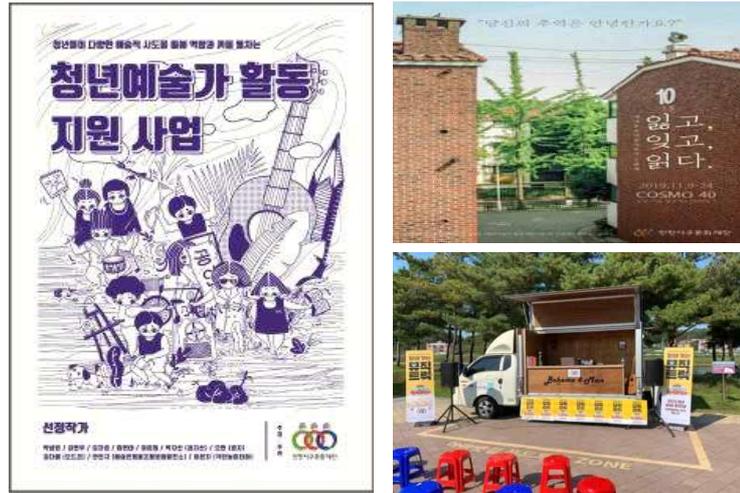
(단위: 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국제 문화교류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지원	기타	합계
48	83	25	11	-	13	5	-	185

■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문화다양성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포럼〉, 〈디아스포라 영화제〉 및 문화적 도시재생 관련 사업 진행

- 〈문화다양성 포럼〉은 4명의 문화다양성 협의회 위원들이 한부모, 이주여성, 다문화, 다양성 마을 전문가들의 사례를 발표하고, 결혼이주민, 성소수자, 세대갈등 등의 사회적 이슈를 토론자와 참여자가 겪은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함
-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한국 최초 이민이 시작된 인천의 역사를 반영하여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를 5월 24일부터 28일 동안 5일간, 인천아트플랫폼 일대에서 진행함.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영화상영 및 토크, 강연, 대담, 교육 등 관련 주제 아카데미 진행, 전시·마켓·공연 등 부대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30개국 66편의 영화를 상영함
 - 2019년도 무지개다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됨
-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산책 ‘소확행 음악회’〉는 문화소의 시설에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을 통해 일관된 문화서비스 제공 및 문화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며, 인천 서구 내 교육복지 우선 초등학교 7곳과 복지시설 1곳에 아티스트가 직접 찾아가는 공연을 추진함
- 〈인천 서구 문화적 도시재생 ‘문화더하기+’〉는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를 통해 지역의 쇠퇴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적 가치 발굴을 통해 타 지역과 구분되는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임.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하드웨어 사업 10건과 세부 프로그램 177건을 추진함
- 〈아트큐브 프로젝트〉는 인천 서구의 원 도심을 중심으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커뮤니티의 긍정적 변화를 모색하고, 문화예술로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어 정주의식을 높이고자 추진한 사업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예술가 참여 전시, 문화예술 원데이 클래스, 인형극 등 지역 아동 대상 공연을 진행함
- 〈청년예술가 활동지원 사업〉은 서구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젊고 유능한 청년 예술가를 발굴 및 양성하여 지역 내 청년예술가의 창작기반 조성 계기 마련을 목적으로

시행됨.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개 청년예술가 및 단체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서구를 중심으로 청년예술가들의 네트워크 및 교류의 장 마련에 기여함



자료: 인천광역시 제출자료

[그림 3-28] 청년예술가 활동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 <소확행 프로젝트>는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 체험과 창작을 통한 삶의 만족도 증대를 목적으로 생활 공예 프로그램, 심화형 프로그램을 진행함. 참가자의 수준 및 요구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함
 - <가족극장 소풍>은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음악영화와 공연실황을 제공함. 영상 및 공연 등의 콘텐츠를 통해 문화다양성 확보에 기여함
-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일반시민, 청년예술가, 원로예술가,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청소년 및 문화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진행
- <다양성영화 공공상영관 '별별씨네마'>는 시민들의 영상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다양성 영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9개 상영관에서 109회의 다양성 영화를 상영함. 매 상영 후 전문 큐레이터의 영화 해설 및 감독과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과 관객 소모임 등을 운영함
 - <신진예술가 발굴 기획지원>은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역량 강화 및 참여자들 간 네트워크를 통한 신진예술가들의 자생력 강화를 목적으로 신진 예술가 공모 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결과 발표회 등을 진행함. 기회와 경험이 필요한 신진예술가들에게 인천에서 먼저 활동했던 청년예술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획자들과의 만남을 연결하고 전문가 리뷰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신진예술가들의 등용문과 같은 지원 사업으로 자리 잡음

- <원로예술인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인천 원로예술인의 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문학, 시각, 공연예술 분야의 만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 활동비를 지원함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체험 및 교육 지원을 통해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인천의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에게 창작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함. 장애인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장애인 예술가의 삶의 질 향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에 기여함
 - <세계음식 체험교실 ‘하나되는 행복레시피’>는 세계 각국의 요리교실을 통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세계음식체험 교실 8회 진행 및 국가의 날 3회 진행함. 국가의 날은 각 나라의 전통 및 놀이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다양성 인식개선과 문화수용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세계음식 체험교실은 ‘하나되는 행복레시피북’ 발간을 통해 선주민과 이주민의 조화를 시도하고, 결과보고 형식의 ‘하나되는 행복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에 기여함
 - <청소년 뮤지컬스쿨>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장르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 복지를 실현하고자 추진됨. 서구 지역의 중·고등학생(만 14세 이상~19세 이하)에게 보컬, 연기 등 뮤지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뮤지컬 전공 교수진의 지도를 통한 연말 쇼케이스를 개최함
 - <섬마을밴드 음악축제>는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음악교육을 진행하고 지역주민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는 음악축제를 개최하여 문화 활동 및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함. 또한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축제 기획 및 수행 기반을 구축하고 관광과 문화가 함께하는 축제 개최에 기여함
 - <예술영화 전용관>은 예술영화, 독립영화, 극장전용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영화를 제공함으로써 열악한 영상문화 발전을 선도하고자 운영함. 예술영화의 연중 상시 상연, 시네마차이나 인천, 시네마토크 등을 개최함
 - <마을박물관>은 미추홀구의 도시마을 역사문화 등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마을 큐레이터인 주민들이 직접 기획·전시·교육함으로써 주민주도형 마을박물관을 육성·운영하는 사업으로 ‘토지금고 마을박물관’, ‘쑥골 마을박물관’, ‘독정이 마을박물관’ 등을 운영함
-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지역 내 문화적 교류를 위한 <만국시장 파라다이스>, <주섬주섬 음악회>, <지방문화원 특성화 사업 ‘라떼는 말이야’> 운영
- <만국시장 파라다이스>는 지역의 베희시장을 시민들과 문화다양성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문화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획하고 달마다 테마가 있는 장터와 공연 등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함. 5월~10월 간 매달 프리마켓인 ‘별난마켓’과 공연 프로그램인 ‘만국뮤직클럽’을 5회 진행하였으며 각각 여행, 반려동물, 친환경, 여성,

책을 주제로 하여 다양성의 의미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함

- <주섬주섬 음악회>는 인천만의 특색 있는 섬 여행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특화하여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된 축제로 선상콘서트, 음악회,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지방문화원 특성화사업 ‘라떼는 말이야’>는 문화예술을 향유함에 있어 이주 여부, 국적 및 나이에 제한이 없음을 경험하고 세대별 차이를 공유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재개발로 인해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이 많은 가정의 1970~2019년의 기억을 공유하고 특정계층이 아닌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다문화가정,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연령과 이주경험을 가진 구민이 모여 집단의 표현방식을 이해 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소통형 교육을 추진함

■ (정책 추진체계 구축) 인천 지역의 <문화다양성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

- <문화다양성 협의회>는 인천 지역의 문화다양성 담론 발굴, 인천문화재단 사업의 문화 다양성 관점에서의 점검 및 문화다양성 포럼 의제 발굴을 위해 한부모, 이주여성, 희망 마을, 다문화 관련 전문가를 섭외하여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함

■ (국제 문화교류) 인천 지역 예술가의 국제적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예술표현 활동지원 국제교류 공모>, <인천 아트플랫폼 국제교류>, <한중 문화예술교류>, <2019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사업> 등 진행

- <예술표현 활동지원 국제교류 공모>는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예술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창작역량 강화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공모를 통해 9건을 지원함
- <인천 아트플랫폼 국제교류>는 국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인천 아트플랫폼의 인지도 제고 및 국제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됨. 신규 교류기관(대만의 피어 투 아트센터)과의 업무협약 체결(MOU), 작가 교환 프로그램, 10주년 기념사업 연계 국제 심포지엄 ‘예술가 레지던시와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미래형 공동체 예술’을 개최함
 - 작가 교환 프로그램을 통한 국내 작가 1인의 대만 활동 지원, 대만 작가 1인의 국내 창작활동 및 생활 지원을 하였으며, 국제 심포지엄에는 5개국의 관련 전문가 9명을 포함해 총 101명이 참석함
- <한·중 문화예술교류>는 미추홀구와 아시아권 문화예술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도되었으며 전통의상, 미용, 공연, 미디어축제 부문에서 한·중 문화예술교류를 지원함

- <2019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사업>은 한·중·일 간의 문화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살리고 인천만의 문화예술 매력을 동아시아에 발산하여 지역예술가들에게는 문화교류 역량 강화, 시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됨. 참여국에게는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국가 간 소통에 기여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들에게는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
 -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 인천 일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중국의 시안 일본의 도시 마구에서 각각 개최됨



자료: 인천광역시 제출자료

[그림 3-29] 2019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사업 (인천광역시)

■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 지원)** 미디어를 주제로 한 지역주민 축제인 <주안미디어 문화축제> 개최

- <주안미디어 문화축제>는 연령 및 계층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주민들이 미디어를 주제로 기획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지역축제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됨. 미디어 퍼포먼스, 주민제작 영상 상영회, 미디어 아트 체험 전시, 주민 참여 공모전 등을 진행함.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미디어 및 예술 분야와 융합한 새로운 지역문화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기여함

5) 광주광역시

〈표 3-33〉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단위: 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국제 문화교류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지원	기타	합계
30	79	9	9	3	8	2	4	144

■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캠페인 제작·송출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럼 개최, 일반인의 예술 활동 지원 사업 진행

- 〈문화다양성 캠페인 송출〉 사업은 광주와 전남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정체성을 지닌 사람들과 공존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법을 제시한 캠페인을 제작하여 송출함
- 〈이주여성이 말하는 성평등과 광주에 바라는 성평등 포럼〉은 광주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이주관련 시설 종사자 포함)을 통해 다양한 나라의 성평등 사례를 공유하고, 광주에 바라는 성평등에 대한 요구 등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됨. 포럼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도 한국여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요구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다문화 정책 및 행정, 교육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요구함
- 〈장애인 정책포럼〉은 무장애 남구BF(배리어프리) 여행 플랫폼 앱을 활성화하고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된 정책세미나로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관계자가 참여함
- 〈무장애남구 we편한세상만들기〉는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인권교육 및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장애와 인권에 대한 관심 제고와 환경 개선을 통한 장애친환경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함. 장애공감 캠페인 13회, 찾아가는 장애인권 감수성교육 12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공감 나눔 행사 등을 운영하였으며, 장애인 인권대회 편의시설(경사로) 실태조사를 진행함
- 〈무장애광산 만들기〉는 장애인권 감수성 증진을 목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됨. 시설에 장애물 제거 및 경사로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기 설치, 보행환경 실태조사 및 캠페인 개최, 편의시설 설치 결과 정보화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함
 - 그 결과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을 확대하고, 193개소에 경사로를 설치하였으며, 28대의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기를 설치함. 보행환경 실태조사의 결과를 통해 광주시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편의시설 설치결과를 정보화하였음



자료: 광주광역시 제출자료

[그림 3-30] 무장애광산 만들기 (광주광역시)

- <제4회 전국 아마추어예술경연대회>는 2019년 제4회를 맞이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등 전문인의 문화예술 축제의 장 마련하기 위해 개최됨. 노래, 악기연주, 무용 등 분야별 경연대회를 진행하였으며, 총 90팀의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가 참여하여 15팀이 최종 본선에서 경연하였음

■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일반인을 위한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지원>, 전문예술인 및 청년예술인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지원>은 지역 생활문화예술인의 기초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여가생활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통해 단체 간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함. 16회의 간담회 개최 및 55개 활동 단체와 102개의 동아리를 지원함



자료: 광주광역시 제출자료

[그림 3-31] 생활문화예술활동단체 및 동아리 지원 (광주광역시)

- <도심 속의 작은 음악회 개최>는 일반주민의 다양한 공연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집 주변에서 가요, 악기연주, 동아리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주민의 문화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함
- <북구 시니어 합창단 운영>은 노년층의 음악활동을 지원하고 음악을 통한 구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60여명으로 구성된 시니어 합창단 활동을 지원함
-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은 지역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창작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문화생태계 회복을 위해 지역특화 기획프로그램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 문화거점 발굴을 지원함. 42회의 워크숍 및 간담회를 운영하고 184건의 문화예술을 지원함



자료: 광주광역시 제출자료

[그림 3-32]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광주광역시)

- <광산무대나누기_화요문화산책>은 창작활동을 펼칠 공간 확보가 어렵거나 홍보·마케팅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청년 공연예술인에게 공연장 무료 대관, 출연료 지급, 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 등 활동 공간과 컨설팅 등을 지원함. 8개 단체를 지원함

■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지역민과 외국인의 교류를 위한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축제>, <한국문화 퀴즈대회>, <세계음식 문화축제> 개최

-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축제>는 이주민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한 축제임
- <한국문화 퀴즈대회>는 베트남 교민을 대상으로 개최한 한국문화 퀴즈대회로 광주·전남의 다문화가정에 광주영어방송을 홍보하고 지역민과 베트남 이민자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함
- <세계음식 문화축제>는 다양한 음식·문화체험 행사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과 지역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축제로, 매년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 기간 동안 외국인 주민과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나누는

행사를 진행함. 기념행사 및 세계음식 문화체험, 문화공연, 세계 전통의상 퍼레이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 **(정책 추진체계 구축)** 「북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및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 <청년참여위원회> 등 운영

- 광주광역시 북구의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의 기반 마련을 위해 2019년 9월 25일 「북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
-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 운영>은 선주민과 이주민 간 상호 협력의 다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효율적인 시책 수립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 추진 성과 보고 및 외국인주민 지원 기본 계획 심의를 진행함
- 광주광역시 동구의 <청년참여위원회>는 청년정책 의제 발굴을 목적으로 만 19세~39세의 청년으로 이뤄진 청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자료: 광주광역시 제출자료

[그림 3-33] 청년참여위원회 운영 (광주광역시)

- 그밖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광주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다문화가족 실무자 협의회>,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 <학교-행정기관 업무협약> 등을 통해 정책추진 체계를 마련함

■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광주문화재단의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 진행과 광주 동구 및 서구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 수립

- 광주문화재단에서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지역 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운영,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을 위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협의체인 라운드 테이블 구성, 문화다양성 교육 가이드북 등을 제작함
- 광주 동구와 서구에서 각각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을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도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나이가 들어도 불편하지 않은 도시,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건강한 노년을 위하여 모든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수립 및 추진함

- 동구에서는 ‘동구형 신(新) 지역사회 돌봄안전망 구축 사업’, ‘책읽는 마을 고령친화 도시 만들기 사업’, ‘고령친화 모니터단 활동’ 등을 운영하였으며, 서구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고령친화도 설문 및 대면 조사’ 실시, ‘고령친화 모니터단’ 운영 및 8대 영역별(외부공간, 교통, 주거, 사회참여, 사회통합, 고용, 정보, 보건) 3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11월에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승인받음

■ (국제 문화교류) <아시아 문화포럼>, <전통문화교류>,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포럼>, <문화예술교육 ODA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국제적 문화 교류 추진

- <아시아 문화포럼>은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아시아의 문화,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진행한 포럼임.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등 7개국에서 참여함



자료: 광주광역시 제출자료

[그림 3-34] 아시아 문화포럼 (광주광역시)

- <전통문화교류>는 아시아 거점별 문화예술기관과의 프로젝트 공동개최를 통한 교류 협력 사업으로 국가(도시) 간 교류 공연을 통한 상호 시너지 효과와 문화교류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함



자료: 광주광역시 제출자료

[그림 3-35] 전통문화교류 (광주광역시)

-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정책포럼>은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문화기반의 미래 지향적 도시 발전 전략을 공동수립하고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8개국이 참석함



자료: 광주광역시 제출자료

[그림 3-36]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정책포럼 (광주광역시)

- <문화예술교육 ODA 프로젝트>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지향점인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담은 문화예술콘텐츠를 개발하여, 미얀마 국가를 대상으로 ODA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타진함.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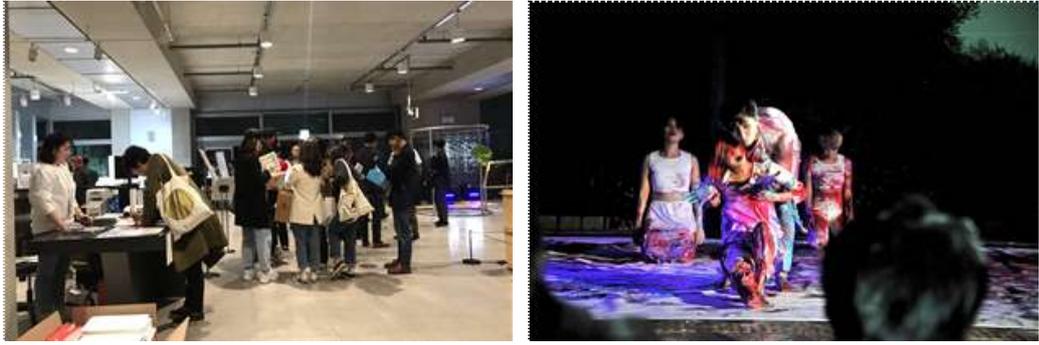


자료: 광주광역시 제출자료

[그림 3-37] 문화예술교육 ODA 프로젝트 (광주광역시)

■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 지원)** 미디어아트 전시 및 아카이브의 <미디어338 및 미디어아트 아카이브>, 미디어아트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운영

- <미디어 338 및 미디어아트 아카이브> 사업의 '미디어 338'은 융·복합 장르인 미디어아트 이외의 설치, 평면, 퍼포먼스, 조형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과 시민 참여형 전시장을 운영하였으며, '미디어아트 아카이브'는 미디어아트 자료를 수집·보존하여 예술가, 기획자 등 관계자와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843건의 자료를 보관함



자료: 광주광역시 제출자료

[그림 3-38] 미디어338 및 미디어아트 아카이브 (광주광역시)

- <미디어아트 레지던스>는 지역의 미디어아트 활성화와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5개의 스튜디오 운영을 통해 기획전시, 비평가 매칭, 미디어아트 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입주 작가 5명의 18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4,750명의 관람객이 참여함

6) 대전광역시

〈표 3-34〉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단위: 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국제 문화교류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지원	기타	합계
30	15	9	2	2	2	-	-	60

■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지역사회 내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 향상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 다드림, 다문화 토크>과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 조성사업> 및 일반인 대상의 전통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 <다문화 이해교육 다드림(Dream), 다문화 토크(Talk Talk)>은 다문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다문화를 포용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글로벌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 34회 진행함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 조성사업>은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에게 일상생활 속 이중언어 사용을 통한 소통증진 및 다양한 정체성 함양을 목적으로 부모교육, 부모자녀 상호작용 교육, 자조모임 등을 지원함
- <전수회관 무형문화 전수학교>와 <전수회관 무형문화 놀이학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 활동 지원 및 전통문화 인식 확산을 위한 대전시 무형문화재 예능 종목 체험을 사업임. 전수학교는 일반인 대상으로 진행되며 120회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놀이학교는 어린이·청소년 및 가족 단위 대상으로 총 19회 진행함
- 그 외에도 <방방곡곡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상설전시>, <전수회관 해설이 있는 무형문화교실>, <웃다리농악 무형문화 전수학교>, <웃다리농악 하계 전수마당>, <웃다리농악 북치고 장구치고> 등을 추진함

■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다문화가족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우리多 문화인 알리미 프로젝트>, <다문화 소식지>, <다문화어린이를 위한 동화 속 상상놀이터>, <외국인과 함께 하는 세시체험>과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아티언스 캠프> 운영

- <무지개다리사업 우리多 문화인 알리미 프로젝트>는 소수문화계층인 다문화가족의 문화 표현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주체로서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문화다양성 주제의 시와 그림 제작 및 나눔 활동을 지원함. 다문화가족 10명과 예술강사 6명이 참여하여 스토리텔링과 작품 활동 등 3회 활동을 통해 총 23개의 작품과 6,000부의 엽서를 제작함

- <다문화 소식지>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하여 소식지를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국내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및 센터 사업 안내, 다문화가족 모범 사례 등을 소개함
- <다문화어린이를 위한 동화 속 상상놀이터>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긍정적인 독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책읽기, 독후 활동 등을 통해 독서환경을 제공함. 참여자의 독서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고 도서관 문화 활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함
-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시체험>은 '2019 대전 방문의 해'와 연계해 외국인 및 다문화 관련 단체에게 세시풍속과 연계한 대전 무형문화재 기능 다섯 종목에 대한 체험형 교육을 5회 진행함
- <아티언스 캠프>는 예술·과학 융합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상상력 및 창의력 함양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브랜딩을 목적으로 함. 해커톤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총 5회 운영함

■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지역문화예술 정책 활성화를 위한 포럼과 세대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진행

- <대전 문화예술 담론 나들목(구. 문화포럼 잇슈)>은 지역문화예술 분야의 정책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문화정책 및 담론 발굴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관계자 및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 포럼임. 간담회, 시민포럼, 세미나 등을 진행함
- <효 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체험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효행 실천 및 가족사랑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인성교육 등 상시 프로그램 및 방학과 계절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함. 총 294회를 운영하였으며 참여자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93.4점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족 초기정착 지원>은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으로 문화체험 및 명절 음식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총 93명이 참여함.
- <지역특화사업(서구엔톡)>은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 간 교류와 지역 공동체의 단결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이며, <글로벌 푸드 페스티벌>은 세계 음식체험을 통한 다문화 인식개선 및 주민들 간 소통 프로그램임

■ **(정책 추진체계 구축)**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다문화가족 대표자회> 등 운영

-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는 위촉직 13명과 당연직 1명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문화가족의 정착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시행계획 심의 등을 담당함
- <다문화가족 대표자회>는 다문화가족 대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문화가족 의견 정취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 개진 등에 참여함

■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국제문화예술 교류지원>과 <세계 각국의 효문화> 2건 진행

- <국제문화예술 교류지원>은 지역 예술가 및 단체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하고 국제 교류 네트워크 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포르투갈, 러시아, 일본, 헝가리, 스페인, 등에서 음악, 전통, 시각예술 등 교류 공연 및 전시를 운영함
- <세계 각국의 효 문화>는 효 문화를 공유하는 세계 각국의 효 문화 연구를 위해 한국, 중국, 베트남, 몽골, 영미권 및 다문화의 효 문화다양성 연구를 진행하여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세계 각국의 효 문화> 책자를 발간함

■ **(국제 문화교류)** 우호 도시 울란바토르와의 교류를 위한 <기획공연> 및 효문화를 주제로 한 <효 문화 국제 학술대회 개최> 진행

- <기획공연>은 대전과 울란바토르의 우호 도시 체결 5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공연으로 몽골국립예술단 초청 공연을 진행함
- <효 문화 국제 학술대회 개최>는 나라별 효에 관련한 실상을 주제로 효 문화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관련 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함

7) 울산광역시

〈표 3-35〉 울산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단위: 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국제 문화교류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지원	기타	합계
8	37	26	7	1	3	-	2	84

■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북한이탈주민·장애인·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다문화에 대한 청소년 교육 등 운영

-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캠페인>은 북한이탈주민이 북에서 겪은 생활 모습을 주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변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캠페인으로 북한 음식 시식 및 체험행사, 홍보물 배부 등을 진행함
- <장애인식 개선사업>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돕기 위해 진행한 교육과 홍보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교육은 관내 5개 중학교 59개 학급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교육은 총 2회를 실시함. 교육과 함께 장바구니 및 리플릿 등 홍보 물품을 제작함
- <다문화 사회 바로알기 공무원 직장교육>은 울산 남구청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 사업이며,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역 주민 이해증진 교육>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주민과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임
- <다문화 인식개선 강사 파견사업 ‘둥글게 둥글게’>는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 및 건강한 다문화 사회 건설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방문하여 미취학 아동에게 각 국가의 문화, 생활, 풍습 등을 강의하는 교육사업 임



자료: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그림 3-39] 다문화 인식개선 강사 파견 사업 ‘둥글게 둥글게’

-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조기 정착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상담 및 미래설계 프로그램, 사법통역사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을 통해 자격증 취득을 지원함

■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실버 세대의 문화향유 및 표현 활동 지원과 청소년, 장애인의 문화표현 장으로서의 예술제 개최**

- <어르신 영화보러 가는 날>은 노인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영화관을 대관하여 영화를 단독 상영하는 사업으로 959명이 참석함
- <위풍당당 실버트롯가요제>는 실버세대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자신감을 부여하여 건강한 노년,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임
- <청소년 진로 페스티벌>은 청소년이 직접 진로축제를 기획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또래 청소년들에게 소개하는 축제로 강연, 버스킹 등 참여와 교류 활동, 창작품 만들기 경연 대회, 상담 및 기념행사 등으로 구성됨. 청소년, 교직원,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함
- <청소년 예술제>는 지역 내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래, 댄스, 밴드 등의 경연대회로 이뤄진 축제행사로 관내 중·고등학생 17개 팀이 참가하였으며 4개의 우수팀이 선정됨.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 발산의 장을 마련함
- <장애인사랑예술제>는 장애인 악기 연주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협연 공연 등 다양한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행사임

■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다문화가정, 장애인의 문화적 교류를 지원하여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소통과 교감, 만남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프로그램 체험, 북한 예술공연 관람 및 만찬을 제공하는 사업임. 생계유지로 바쁜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힐링의 시간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함
- <울산 글로벌 페스티벌>은 외국인 주민과 울산 시민의 화합의 장 마련 및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공연과 경연프로그램, 세계문화 홍보 및 전시 체험관, 세계음식관 등을 운영함. 다문화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조성에 기여함
- <다문화 작은도서관 운영>은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장기 정착 도모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한국문화탐방, 문화특강, 부모교육 등의 세부 사업을 추진함
- <동구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 재활 서비스 제공 등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추진함. 상담지도, 사례관리, 장애인식개선, 후원개발관리, 기능향상 지원, 직업 재활, 스포츠여가 활동, 가족문화 지원, 홍보계몽, 권익옹호 사업 등을 진행 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재활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내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정책 추진체계 구축)**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등 운영

-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과 자립 및 자활 지원 협의, 기관 간 지원 사업 정보 공유를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울산시와 울산 남구·북구·동구·울주군이 함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방안에 대하여 토의함
-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는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담기구임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전담기구로, 2019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하여 심의함

■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진행

-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는 울산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516명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사와의 상담을 추진함. 지역사회 교류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기관 간 상호 정보교류 등 긴밀한 협력 체계 유지 및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등에 기여함

■ **(국제 문화교류)** 청소년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제 생활체육 교류> 진행

- <청소년 국제교류(베트남)>은 지역 내 청소년의 타국 청소년과의 교류를 통한 국제적 마인드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소통능력 향상을 목표로 추진함. 울산 청소년 15명 및 인솔지도자 2명의 타국 역사문화와 청소년 시설 탐방을 통해 한국 K-pop 문화에 대한 홍보 및 교류 활동, 울산 알리미 활동을 함
- <국제 생활체육 교류>는 우호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 국제교류를 지원함. 중국과는 수영 국제 생활체육 교류를, 일본과는 검도 국제 생활체육 교류 및 시모노세키 마라톤 국제 생활체육 교류 등을 추진함. 한·중·일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함

8) 세종특별자치시

〈표 3-36〉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단위: 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국제 문화교류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지원	기타	합계
-	14	2	1	-	3	-	-	20

■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지역민의 문화향유 지원과 장애인 및 사회문화적 취약계층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 〈문화향유 활동 지원 사업〉은 읍면지역 주민 및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예술인 및 예술단체가 상대적으로 문화 접근성이 낮은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주민에게 찾아감으로써 문화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함. 23개 예술단체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을 하였으며, 12개의 단체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
- 〈찾아가는 아트트럭 '2019 세종 컬처로드'〉는 관내 문화소의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를 위해 방문형 공연을 제공하여 공연 관람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마을로 찾아가는 문화·여가서비스 운영(문화인프라와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읍면 지역), 문화취약계층 시설 정기적 방문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찾아가는 아트트럭을 운영함. 금남, 장군, 전의, 조치원읍 등 7개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행사를 진행함
- 〈수어문화제〉는 수어 사용에 대한 저변 확대 및 농아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해 수어체험마당, 수어경연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농아인의 공연 문화 활성화 및 농아인의 언어인 수어를 사용한 공연문화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통합을 유도하는데 기여함
- 〈시각장애인 복지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사회참여 증진을 위하여 노래 교실, 영화관람, 문화체험, 점자교육 등 다양한 정보 전달 및 습득으로 사회활동의 자립에 기여함
- 〈청각·언어장애인 프로그램〉은 수어 사용 확대와 재가 농아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농아노인지원사업, 마술교실, 사물교실, 문화체험 등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재활 의지를 고취시키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함
- 그 외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노인대학 운영〉, 〈노인문화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각종대회 개최 참가지원〉 등을 추진함

■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협력 체육대회인 <세종시 어울림 거북이 대회>와 <무지개다리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세부 프로그램 진행

- <세종시 어울림 거북이 대회>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활동을 함으로써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상호 이해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느려도 괜찮아 함께 이니까’라는 슬로건 하에 세종호수공원에서 어울림 거북이대회를 개최함. 슌런, 디스크골프 등 11개 장애인 스포츠 종목에 450여 명이 참여함
- <무지개다리사업>은 지역 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및 시민의 관심 제고를 목적으로 문화다양성 매개기관의 협력을 통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함. 문화다양성 라운드 테이블, 조례제정 시민 연구모임, 정책포럼, 문화다양성 북콘서트, 공공예술프로젝트 ‘多화만사성 BUS’ 진행,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운영, 문화다양성 사진 공모전 등을 추진함

■ **(정책 추진체계 구축)**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정책 추진체계 마련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2019.12.16.).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함

■ **(국제 문화교류)** 청소년 대상의 문화교류 및 문화예술 교류사업 진행

- <청소년 해외 봉사단 문화교류>는 해외 봉사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글로벌 리더십 향상을 목적으로 노력봉사, 현지인과 프로그램 운영,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세종시 청소년 10명의 일본 우토로 마을 및 오사카 코리아타운 방문을 지원함
- <문화예술 분야 국제교류 사업>은 문화예술 분야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 3인이 터키 앙카라 시청에 방문하여 두 도시 간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네트워크 구성, 양 도시 우수 예술단체 상호 교류 및 협력 지원,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함

9) 경기도

〈표 3-37〉 경기도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단위: 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국제 문화교류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지원	기타	합계
84	137	46	6	5	27	17	1	323

■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문화다양성 주제의 행사와 함께 노인, 장애인, 북한영화, 여성 등의 테마로 한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해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인식 제고

- 〈부천다양성다다〉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인식제고 및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함

〈표 3-38〉 부천다양성다다 세부 프로그램 및 정책 유형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정책유형
미디어 다다	웹툰 콘텐츠 제작을 통한 시민 인식개선 프로젝트	①
부천문화축제 다·多·Da (세계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행사)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공연 및 체험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축제를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①
한 가지 약속	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①
학교 안 다양성 교육	학교 내 구성원들 간 다양성 존중의 문화 조성을 위해, 자유학년제를 통한 민주시민 교육 및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②
별별 네트워크 (공간 프로젝트)	다양성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간거점 발굴 및 활성화	③
부천문화다양성 협의회	문화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협의테이블 구성을 통해 권역별/분야별 협력체계 구축	④
다행포럼/라운드테이블	1차, 2차 라운드테이블 및 한 차례의 다행포럼을 통해 '부천다양성다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⑤
지속가능한 <송내동 마을 축제>	지역의 선주민과 이주민의 교류를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다가치놀자 워크숍', '우리동네 생일파티', '어울나래 축제' 등을 통한 소통의 기회 마련	⑥

자료: 경기도 제출자료

- '부천다양성다다-부천문화축제 다·多·Da(세계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행사)'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별별문화 공간과 함께하는 다양성 체험'과 같은 주간프로그램 운영 및 공연(나라별 전통공연, 캠페인, 만장 행렬 등)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개최된 축제임
- '부천다양성다다-미디어 다다'는 웹툰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웹툰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인식개선 프로젝트로 5개의 콘텐츠를 제작함

〈표 3-39〉 ‘미디어다다’ 제작 콘텐츠 목록

구분	콘텐츠 제목
1	스텝무역
2	애인있어요
3	무명예술가는 배고파
4	냉장고는 있어?
5	여자라서, 남자라서

자료: 경기도 제출자료

- ‘부천다양성다다-한 가지 약속’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캠페인 활동을 13회 진행했으며 총 2,867명이 참여하였음
- 그 외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노인문화축제>는 노인을 대상으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흰지팡이의 날 및 점자의 날 기념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복지 증진, 자활 의지 제고를 목적으로, <수원평화통일영화제>는 이념편향성이 적은 북한 관련 영화 상영 및 관객과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한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함



자료: 경기도 제출자료

[그림 3-40] 수원평화통일영화제 (경기도)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로비 콘서트>, <숲속 콘서트>, <라면 콘서트>가 진행됨. <로비 콘서트>는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직접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숲속 콘서트>는 세대 간 통합을 위해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문화여가 기회 제공 및 무료공연 제공 등을 하였으며, <라면 콘서트>는 문화생활의 참여와 동시에 지역사회를 위한 라면의 나눔 및 후원을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함

-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을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 및 교육한 사례로는 <무대예술연수생 교육>, <전문 인력 양성과정 운영 지원>, <만화창조 인력양성>,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재개발> 등이 진행됨
 - <무대예술연수생 교육>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 인력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한 공연 인프라 확대를 목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생 및 동등한 학력 소지자를 대상으로 무대 예술에 대한 이론과 실무교육을 진행함. 2019년도에는 11명의 인원이 수료하였으며, 2명의 수료자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취득, 1명의 수료자가 공연예술분야에 취업, 8명이 관련 학과에 재학하는 성과를 보임
 - 성남시의 <전문 인력 양성과정 운영 지원>은 ‘장애인축구 전문 지도자’,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장애인 수영 전문 지도자’, ‘재활 운동 지도자’ 등 4개 분야에서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였으며, ‘장애인 축구 심화반’, ‘장애인 수영 심화반’ 등 관련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였음
 - <만화창조 인력양성>은 만화가, 예비만화가, 만화기획자를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 멘토링을 통한 다각적 경험 및 노하우를 통해 만화창조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예비만화가 26명 발굴 및 순수창작만화 52개 작품 제작함
 -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재개발> 사업은 만화가와 예비창작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화 산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화교육 프로그램 운영(디지털 신기술 등 총 29개 과정 80개 강좌 운영),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K-Comics 아카데미 온라인 사이트 개편), 교재 및 교육모델 개발(3종의 만화교재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함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교육 사업으로는 <문화다양성 감수성 개발연수>,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교육>, <공무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다문화 사회 이해교육>, <외국인지원 업무종사자 및 활동가 교육> 등 진행됨
 - <문화다양성 감수성 개발연수>는 문화시설 및 사회시민단체 종사자의 문화다양성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사는 세계, 그 곳에서 기획하기’를 통해 다양성 관련 전문가들의 분야별 강의를 진행함
 - <공무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강사 초빙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의 시민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함.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교육> 역시 장애인 담당 공무원과 장애인복지 시설·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됨

■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소외계층 및 외국인, 장애인, 노인, 청소년, 일반시민 등 대상에 따른 문화표현 기회 및 문화향유·체험을 위한 정책 사업 실행

- <감성충전버스>, <뷰티플 신갈>은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및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임
 - <감성충전버스>는 문화소외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뮤지컬, 연극, 전시회 등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5개 기관과 연계하여 연 1회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며, 참여자의 만족도사 97%인 것으로 나타남

- 〈뷰티플 신갈〉은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및 문화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뮤지컬 관람, 난타 체험, 마리모 만들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해당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와 협력·연계하여 추진되었으며, 참여자의 만족도가 100%인 것으로 나타남

- 노인, 아동, 장애인, 군인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을 진행함

〈표 3-40〉 경기도 내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 개요

사업명	담당기관	내용	성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경기도 예술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내 문화소외지역, 다중집합 장소, 복지시설(요양원·보육원·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지역의 우수 공연예술단체가 찾아가 공연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612개 예술단체 선정 120,738명에게 공연예술 관람 기회 제공 예산: 2,500백만 원
	용인시 문화예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소외지역에 공연자가 직접 찾아가 다양한 장르의 공연 제공 *장르: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무용, 연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37개 공연단체 참여 3,860명에게 공연예술 향유 기회 제공 예산: 108백만 원

자료: 경기도 제출자료



▲ 북수원효자노치원(수원화성소리사랑)



▲ 보금자리요양원(전통소리국악단)



▲ 꿈나눔지역아동센터 (극단 모시는 사람들)



▲ 와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노니퍼니)

자료: 경기도 제출자료

[그림 3-41] 찾아가는 문화활동 (경기도)

- <외국인주민 한국어 말하기 대회>,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등 외국인에게 한국어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과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주민 간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베트남 전통무용 자조모임>, <중국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등이 실행됨
 - 수원시의 <외국인주민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더불어 한국생활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나의 수원’, ‘나는 여행 길잡이’, ‘세계 속의 K-pop’을 주제로 한 경연대회임.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중도입국자녀 등이 참여함



자료: 경기도 제출자료

[그림 3-42] 외국인주민 한국어 말하기 대회 (경기도)

-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은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 자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정규 한국어교육과 한국어 심화과정 등 235강좌를 운영함
-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자조모임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지원은 공통의 관심사를 주제로 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얻고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표적으로 <베트남 전통무용 자조모임>은 베트남 결혼이민자들이 베트남 전통춤 배우기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였으며, 지역축제와 행사 등에 참여하였음
- <2019 청소년의 멘토 KB! 다문화 미술학교>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 미술교육으로, 여름방학특강과 가을 정규학기 중 학부모 이해교실, 찾아가는 다문화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총 107회 진행함
- 장애인의 문화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배리어프리 영화상영>, <장애인과 함께 책 읽기>, <찾아가는 휴(休) 독서치료> 등을 진행함
 -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배리어프리 영화상영>은 시·청각 장애인 및 노인 등 영상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었으며, 화면해설 영화의 제작 및 상영 등 장애인 영화 관람 환경 개선을 통한 영상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 배리어프리 상영작 2편을 제작, 상영함

- <장애인과 함께 책 읽기>는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 및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임. 지적장애인의 의사표현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림책 기반의 찾아가는 독서 치료 프로그램을 30회 제공함. 이를 통해 정보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에 기여함
- <찾아가는 휴(休) 독서치료>는 지역 내 기관과의 교류 네트워크 구축 및 소외계층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과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함. 다양한 독후 활동을 통해 수강생의 자존감 형성 및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함
-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는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찾아가는 상영회>,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함
 -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찾아가는 상영회>는 문화적 소외계층의 다큐멘터리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진행되었으며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우수다큐멘터리 상영회를 개최함
 -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은 화성시 남부권 내 복지 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함. 문화프로그램, 주민교육, 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여가와 생활 편의를 제공함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체험>, <용수네 앞마당>, <청소년 웹툰작가 직업체험>을 운영함
 -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체험>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긍정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축제 참여, 여행 기획 활동, 놀이문화체험, 공연 관람 등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 향상 및 문화적 인식 제고에 기여함
 - <용수네 앞마당>은 문화소외지역인 처인구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을 거점으로 청소년에게 벚꽃축제, 더靑잔치, 과학축제, 시네마, 사이언스, 문화의 날,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주제의 공연과 체험 부스 등을 운영하여 지원함
 - <청소년 웹툰작가 직업체험>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에게 웹툰작가라는 직업을 소개하고 전용 장비를 통한 웹툰그리기 체험 기회를 제공함.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강연을 통해 웹툰작가에 대한 직업체험을 경험하도록 하는데 기여함
- <북한이탈주민 가을 음악회>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과정에서 겪은 심리적·정서적 불안을 문화예술적 감성으로 치유하기 위해 진행된 행사로 장기자랑, 레크리에이션, 예술단체의 공연 관람 등을 통해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기여함
- 그 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영화 상영 사업인 <여울림 시네마>,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의 장을 마련한 <은근 행복한 동네 테마축제> 등이 개최됨

■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내외국인 및 다양한 세대의 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 <부천 다문화 축제>는 지역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를 개최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통해 더불어 사는 다문화 공동체 구현을 위해 개최한 축제로, 세계인의 날 기념식, 12개국의 다양한 문화체험, 장기자랑, 무료 진료소 등을 운영함
-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다양한 세대의 계층이 모여 서로에 대한 이해, 편견해소, 화합을 위해 세대통합 밴드를 형성하여 밴드음악을 연습 및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함. 다양한 세대가 소외되지 않고 계층과 문화권을 넘어 통합될 수 있는 공동체성을 함양함
- <우리는 다 다르지요>는 '다양한 문화존중'이라는 공동 주제의 축제를 통한 마을 변화와 통합 문화정책을 목적으로 다문화 학부모 재능나눔 카페 운영, 다문화 청소년 기초학력 코칭, 다양한 인식 교육 부스 운영 등을 추진함
- <다문화 동아리 활성화 지원>은 관내 다문화가족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문화 가족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연활동을 함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자국의 전통음식 및 문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몽골 전통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 140여 회 진행함
- <다.다.다.(다른문화.다른생활.다른얼굴)>는 다문화가족의 한국문화체험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가족 간 응집성 강화를 위해 진행됨. 문화이해를 돕는 공연 관람 및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을 제공함
- <행복한 만화나눔>은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에게 만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만화박물관, 문화소외계층 초청 행사, 만화도서 기증 등의 사업을 추진함. 만화나눔 및 초청 행사 10회 개최와 파주 DMZ 대성초등학교 등 5개 기관에 만화도서 923권을 기증함
- <라온누리 합창단>은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 상호 간의 편견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한 통합 합창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공연을 진행함. 합창단과 지역주민의 장애인식개선에 긍정적인 효과 및 공동체성 향상에 기여함

■ **(정책 추진체계 구축) 부천시의 <부천 문화다양성 협의회>, 안양시와 시흥시의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등 운영**

- <부천다양성다다-부천 문화다양성 협의회>는 지역의 여러 단체 및 기관과 문화다양성에 대해 통합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할 협의 테이블을 구성하여 권역별, 분야별로 세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치됨

〈표 3-41〉 부천 문화다양성 협의회 내용

구분	일자	내용
조례 제정	3월 25일	조례제정 공청회
	3월~11월	부천다양성다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11월~12월	조례제정 시민발의를 위한 '수작질' 운영
통합	10월	부천다양성다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축제	2월~6월	부천문화축제 다·多·Da 기획, 진행, 평가회의
학교	3월~11월	학교안다양성 교안개발 및 운영을 위한 회의
마을	5월~11월	송내동마을축제 '어울나래' 추진 평가회의
공간	3월~11월	별별공간 프로젝트 상·하반기 운영방안 회의
미디어다다	3월~11월	'숨은차별이야기' 웹툰(5회) 제작을 위한 기획회의
전문가	12월 10일	부천다양성다다 발전방안수립 자문
	12월 23일	부천다양성다다 발전방안수립 자문

자료: 경기도 제출자료

- 안양시와 시흥시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운영함. 안양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여 연 2회 협의회 개최를 통해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협의함. 시흥시에서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사업에 관한 협의 및 조정,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 중에 있음

■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수원시 문화다양성 발전방안 연구〉, 〈부천다양성다다-다행포럼/라운드테이블〉 등 진행

- 〈수원시 문화다양성 발전방안 연구〉는 문화다양성 시책의 필요성 증가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파악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정책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식조사 진행, 수원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함
- 〈부천다양성다다-다행포럼/라운드테이블〉은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 총 3회를 운영함. 통합 협의회 모임 및 라운드테이블 1회와 부천 다양성다다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및 다행포럼을 각 1회씩 개최함

■ (국제 문화교류) 문학, 웹툰 부문의 국제교류를 추진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상시 문학교류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활용한 38개 해외 문학 창의 도시와의 국제 문화교류를 통해 한국문학을 전파하고 도시 및 국가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함 6개의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함

- <웹툰 해외 프로모션>은 웹툰 IP 수출 촉진 및 해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만화 작품 및 기획사, 출판사, 플랫폼을 대상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수출상담회, 피칭쇼, 세미나 등을 추진함. 인도네시아, 중국, 홍콩, 한국(부천) 등 국내·외 비즈니스 행사를 4회, 전시 프로모션 2회 및 국제포럼 1회 개최를 통해 국내 82개 기업, 해외 257개 기업 등 총 339개 기업이 참여함
 - ‘2019 한·중 애니메이션·웹툰 비즈니스 상담회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KOTRA SBA GCA, 2019)’, ‘한국, 중국, 일본 간 만화 협력에 관한 합의서(Summer Zoo 기타큐슈시만화뮤지엄, 2019)’, ‘2019 인도네시아 K-콘텐츠 엑스포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KOCCA, 2019)’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 지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청소년·장애인·다문화 가족의 인터넷 방송 제작 지원 및 다양한 만화 콘텐츠 제작 지원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지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제고를 위하여 생애주기별 교육과 체험, 위탁 교육, 미디어스쿨, 정규강좌 등 수준별 교육 과정을 총 106개 개설하여 운영함
- <내가 만드는 방송 꿈틀꿈틀>은 청소년에게 미디어 교육 및 1인 방송 활동 지원을 통해 미디어의 올바른 의미와 활용법,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함. 미디어 교육과 청소년들이 직접 방송을 기획, 진행, 송출, 편집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콘텐츠 제작 능력을 향상시키고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활용한 라이브방송을 송출하여 지역주민과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미디어 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
-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을 양성하는 교육을 지원하고 스튜디오를 설치 및 대관,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공모전 개최를 통해 다양한 활동 경로를 제공함
- <다문화가족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젝트>는 다문화가족에게 영상미디어 제작 교육을 지원하여 정보 격차의 해소 및 경쟁력 있는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임. 영상제작 프로그램 및 유튜브 사용방법 교육과 텀별 제작 영상 발표회 등을 가짐으로써 다문화가족이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는 기회를 갖고 이에 대한 의견 나눔을 통해 자부심과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움
- <다양성만화 제작 지원사업>은 다양한 장르의 우수 기획 만화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지원을 통한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만화가와 만화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임. 비활성 장르 및 어린이 만화 등 다양성 만화 신규 작품 제작과 서비스를 지원하여 총 34종의 다양성 만화가 제작·출판되었으며 8개 관련 기업과 26명의 작가를 지원함

10) 강원도

〈표 3-42〉 강원도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단위: 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국제 문화교류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지원	기타	합계
29	82	24	3	1	25	2	1	167

■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강원도에서는 <평창 대관령 음악축제>, <강원국제예술제>, <춘천 유니버설디자인 페어> 등 화합을 위한 다수의 축제 개최

- <제16회 평창 대관령 음악제>는 고부가가치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문화분권화를 실현하고 강원도민의 고급화된 문화수요 및 문화향유권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개최되는 세계적 명품 음악제임. 알펜시아 및 강원도 일원에서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공연, 강원도의 사계, 국내·외 유망 음악전공자들의 음악학교 프로그램 등을 개최함



자료: 강원도 제출자료

[그림 3-43] 제16회 평창 대관령 음악제 (강원도)

- <강원국제예술제 2019>는 문화올림픽 유산으로 남은 강원도 유일의 국제 시각예술축제 및 예술 공원화 사업으로 강원도 문화의 국제적인 브랜드화, 국내외 작가가 참여하는 국제 어린이 시각예술행사 및 트리엔날레를 개최함. 이를 통해 강원도의 글로벌화 및 도내 어린이 행사 저변 확대, 강원도의 유희 공간 활용을 통한 문화적 도시재생 및 지역침체 현상 완화를 도모함. 강원도 홍천군 일원에서 강원도 연고 작가들의 주제전·특별전 등 전시와 주민협업 프로젝트, 체험 프로그램, 어린이 사생대회 등의 부대행사를 진행함
- <2019 춘천 유니버설디자인 페어>는 디자인 행사를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의 이해와 인식개선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활성화 및 착한 도시 조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개최됨. ‘세상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City, Design for All)’이라는

주제 하에 전시회, 국제포럼, 공모전이 진행되었으며 시민, 학생, 관련 업계 및 단체 종사자, 공무원 등이 참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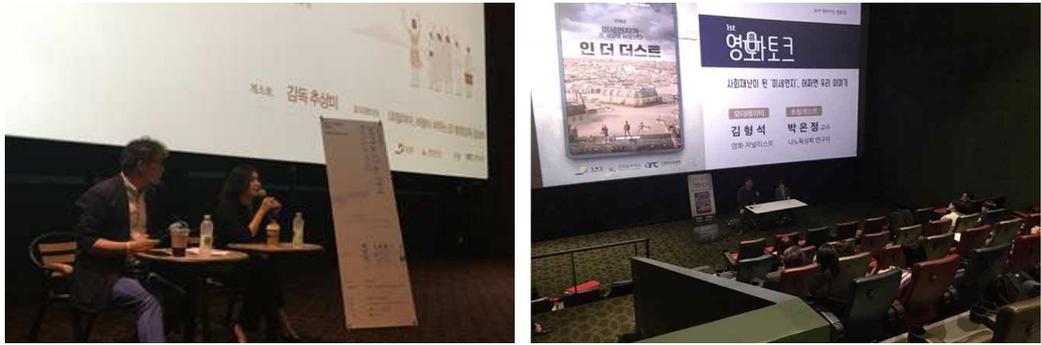
〈표 3-43〉 유니버설디자인 페어 세부 사업

세부사업	개요	내용
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0.18.(금)~10.24.(목) • 장소: 춘천시청 및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UD for YOU/당신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 주요내용: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여 및 체험형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및 7원칙 설명 /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전시 및 체험 * 고령자, 장애인, 여성, 어린이, 임산부 등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 관람인원: 총 8,676명
국제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0.24.(목) • 장소: 춘천시청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모두를 위한 도시 춘천 / Global Chuncheon, City for All • 주요내용: 각 도시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적용 사례 및 효과, 전략 등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강연, 토론 및 질의응답 / 공모전 시상식 등 • 참석인원: 총 308명
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 8월 • 접수: 9~10월 • 심사 및 전시, 시상: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세상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 주요내용: 공공을 위한 모든 디자인 분야 대상 유니버설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자료: 강원도 제출자료

■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소외계층 대상의 방문형 문화향유 활동 지원, 전문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

- <소외지역 문화예술 반상회>는 도내 지역 간 문화격차를 최소화하고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공연+예술 체험’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임. 패키지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18개 시군 전역의 수혜 및 신규 수혜처 발굴을 통해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함. 또한 모니터링 요원, 경로당 지회 담당자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관리 및 모니터링을 진행함
- <찾아가는 영화관>은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의 영상문화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한국영상 자료원과 협력하여 다양한 영화 상영 및 관객과의 대화 등 영화토크, 특강 등을 제공한 사업임.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였으며 찾아가는 영화관 39회, 찾아가는 영화토크 7회, 찾아가는 아카데미(특강) 1회를 개최함



자료: 강원도 제출자료

[그림 3-44] 찾아가는 영화관 (강원도)

- <마을영화관 운영사업>은 농어촌지역민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마을회관을 찾아가 주 1~2회 영화를 상영하는 사업임. 관내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200여 명이 참여함
-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공연예술 활동 지원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4개 지역공연예술단체의 6회 공연을 진행함
- <춘천시립예술단 음악나들이 작은 소풍>은 춘천시립예술단이 학교, 병원, 읍면 지역 등을 찾아가 청소년 및 문화소의 지역주민에게 공연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의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된 사업임. 총 24회 공연을 통해 3,895명이 참여함
- <평화 청춘 프린지 페스티벌 '피스타치오 청춘 버스킹'>은 만 19세~39세인 청년예술인의 공연 활동 지원을 통해 차세대 인적자원 육성으로서의 발판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진행됨.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평화지역 5개 군의 전통시장 주변에 173회의 공연을 개최하여 31개 청년예술단체와 99명의 청년예술가를 지원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



자료: 강원도 제출자료

[그림 3-45] 평화 청춘 프린지 페스티벌 (강원도)

- <2019 춘천 예술인 복지센터>는 지역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사회적 권리보장 및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운영함. 춘천 예술인 실태조사와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 룰, 저작권, 성인지 감수성 등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함
- <독립예술극장 신영 지원>은 우수한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소개하고 강릉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해 국내 독립영화, 해외 예술영화, 강릉지역 관련 영화 등의 상연을 지원하는 사업임. 독립·예술영화 150편 개봉, 단편 상시 상영 영화 11편, 22회 상영, 특별전 및 기획전 10회 상영을 지원하였으며, 감독과 배우를 초청한 씨네토크 10회, 관객의 영화감상 모임 2회, 영화비평 교육 2회를 진행함

■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결혼이민자 예술 활동 지원>, <세계를 다(多) 담다 페스티벌>, <저소득층 해외 문화체험 연수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 결혼이주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업 추진

- <결혼이민자 예술 활동 지원>은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진행되는 예술 활동 지원 사업으로 세계전통무용단 지원, 지역 내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축하공연 등을 개최함. ‘외국인주민 화합 한마당’(행안부) 화합상 2위, ‘전국 결혼이민자 모국춤 페스티벌’(영광군) 금상의 성과를 거둠
- <세계를 다(多) 담다 페스티벌>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을 위해 추진된 행사로 2019년 제13회를 맞이함. 시민, 외국인, 다문화가족이 참여하여 프리마켓, 체험, 요리마당 등을 진행함
- <저소득층 해외 문화체험 연수 지원>은 교육적, 문화적 혜택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및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문화체험 연수 기회를 제공함.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중국 속 한민족사 탐방이라는 주제로 시행한 연수를 통해 단순 여행이 아닌 학습과 병행한 진로탐색 및 미래지향적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기여함



자료: 강원도 제출자료

[그림 3-46] 저소득층 해외문화체험 연수지원 (강원도)

■ (정책 추진체계 구축) <강릉시 양성평등위원회>, <강릉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및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등 구성·운영

- <강릉시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기금 운용 및 강릉시 양성평등 정책 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됨. 2019년도에는 전년도 양성평등기금 결산 및 당해연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세부계획 승인, 공모사업자 선정 등을 진행함
- <강릉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2019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 사업을 선정함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사업 협의,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설치, 운영됨

■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실시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서비스의 다양성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결혼이민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 및 환경 등을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반영할 근거자료를 획득함

■ (국제 문화교류) 국제 문화교류를 통한 공동창작 및 레지던시 프로그램 진행

- <‘The Song of Andes’ 한-페루 국제 공동창작 프로젝트>는 한국의 극단 노플과 페루의 공연예술단체 Komilfo teatro가 리서치, 워크숍, 쇼케이스 등 작품 창작을 위한 협업을 통해 공동창작을 추진함
- <이정인 덴마크 블랙박스 댄스컴퍼니 공동제작 프로젝트 ‘에디션’>은 ‘중독’을 주제로 한 공동창작 공연으로 국내 무용가 이정인과 덴마크의 블랙박스댄스 컴퍼니가 협업하여 추진함. 2017년부터 진행된 장기 공동창작 프로그램으로 2018년에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2019년에 한국과 덴마크에서 공연을 진행함
- 강원도에서는 <문화예술교류지원-국제 레지던시> 사업을 자율형, 지정형, 비지정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함. ‘자율형’은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적인 아트페어가 개최되는 기간에 ‘한·불 Soul Garden’을 주제로 여성 작가의 지역성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고자 프랑스 레지던시에 참여를 지원하였으며, 시각 분야의 김명숙이 참여함. ‘비지정형’은 일본 오사카의 타카미야 아티스트(Takamiya Artists) 레지던시 공간에 머무르며 전 세계 작가들과의 워크숍, 전시회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였으며 시각 분야 양순영이 참가함. ‘지정형’은 강원문화재단과 협약을 맺는 독일 베를린의 레지던시 기관의 비평, 공동 전시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개인 창작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각 분야의 권남희가 참여함



▲ 국제 레지던시 비지정형
 * 사업명: 2019 Takamiya Artists Residenc
 - AT ART EXHIBITION
 * 예술인: 양순영



▲ 국제 레지던시 지정형
 * 사업명: BAI 레지던시 참여
 * 예술인: 권남희

자료: 강원도 제출자료

[그림 3-47] 문화예술교류지원-국제 레지던시 (강원도)

■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 지원)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사업>과 <장애인 인권 영화 제작지원> 사업 2건 진행

-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사업>은 태백시의 설화 애니메이션을 통한 교육자료 제작 및 태백시 홍보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총 2편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함
- <장애인 인권영화 제작지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및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 제작 영상 및 장애인 인권 관련 영화를 상영하고 사회적 소통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임. 장애인 인권영화제 1회 개최, 장애인 인권영화 9편 상영 및 공연, 체험, 나눔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 소통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함

<표 3-44> 제13회 장애인인권영화제 with 이지가지 FESTA 행사개요

구분	내용
행사명	제13회 장애인인권영화제 with 이지가지 FESTA
일시/장소	2019.10.05.(토) 13:00~20:30 /강릉대호도부 內
주최	강릉시
주관	강릉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장인선), 강릉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강현희)
주요행사	장애인 인권영화 무료 상영 및 공연, 체험 및 나눔 부스 운영

자료: 강원도 제출자료

11) 충청북도

〈표 3-45〉 충청북도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단위: 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국제 문화교류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지원	기타	합계
30	78	22	2	1	19	2	-	154

■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노인의 날, 장애인의 날, 세계인의 날, 어린이날 등 문화다양성과 관련 있는 행사와 〈찾아가는 힐링 콘서트〉 등 개최 및 〈충북 문화예술 아카데미〉, 〈학교 안 다양성 사업〉 등 추진

- 〈문화다양성 주간행사〉는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을 위해 꿈나무오케스트라 단원과 학부모에게 문화다양성 인식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사임. 〈노인의 날〉 사업은 노인의 날을 기념하는 노인대회를 개최하여 유공자 표창, 민속놀이 등을 통해 노인의 위상과 자부심을 고취시킨 행사임.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유공자 표창 및 체육대회를 통해 장애인의 자존감 향상 및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됨. 〈세계인의 날〉은 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세계음식문화체험, 다문화 공연, 체험부스 운영 등의 프로그램 진행으로 정보제공 및 문화교류의 장을 제공함. 〈어린이날 기념 행사〉는 어린이 인권 보장의 정신을 계승하고,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함
- 〈찾아가는 힐링 콘서트〉는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창의적인 공연문화 창출을 목적으로 지역예술인과 인기가수 초청을 통한 총 10회의 힐링 콘서트를 개최함
- 〈충북 문화예술 아카데미〉는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인문학적 접근을 확대시켜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진행됨. 연 10회 강좌 및 1회 특강을 개설하여 운영함
- 〈학교 안 다양성 사업〉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공교육 내에 수용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초등학생에게 그림동화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함
- 〈예술가족 문화공연 SMS 서비스〉는 일반시민의 문화활동 증진을 위하여 문화가족 가입자에게 공연 SMS 서비스를 지원하는 중원문화재단의 사업임. 시민 900여명이 가입함



자료: 충청북도 제출자료

[그림 3-48] 학교 안 다양성 사업 (충청북도)

■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독립영화·예술영화 향유를 위한 <다양성 영화 초대전 '다채' > 및 지역예술가 작품의 매입·전시 지원 및 지역특성화 작품 개발 추진

- <다양성 영화 초대전 '다채' >는 상업영화 위주의 획일화된 영화 상영에서 벗어나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3개 시·군 순회를 통해 청소년, 장애인, 일반 도민에게 5편의 영화를 상영함
- <지역작가 예술작품 구입>은 관내 지역작가의 예술작품 9점 매입 및 전시를 통해 관공서를 찾는 지역주민에게 예술작품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작가의 창작활동 활성화에 기여함
- <향토작가 작품매입>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향토작가들의 작품을 구입 및 전시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향토작가의 작품 20점을 매입하여 전시함
- <충북미술가 서울전시회 지원>은 도내 미술가의 서울 전시회 지원으로 창작의욕 고취 및 충북 미술에 대한 전국적 인지도 제고와 전업 미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됨. 도내 작가 8명의 서울 소재 갤러리 전시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
- <시군 특화 공연 작품 개발>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특화된 공연작품을 개발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됨. 옥천군에서는 극단 시민극장이 옥천 출신 작곡가 정순철을 소재로 한 작품을 제작하였고, 음성군에서는 극단 [해를보는마음]이 음성 꽃동네를 설립한 최귀동 할아버지를 주제로 한 공연을 개최함
-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은 지역 문화예술계의 노령화 현상이 심화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을 이끌어갈 차세대 신진예술가를 발굴 및 육성한 사업으로 청년예술가 13명을 지원하고, 2회의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총 158개의 작품이 창작됨
- <다문화가족 재능활동지원>은 결혼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재능을 발굴하고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나라별 특성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전통춤 및 동아리를 지원함. 군내 각종 행사 시 식전 공연 등의 참여 기회를 얻어 총 7회의 공연을 진행함

-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들이 겪고 있는 언어·교육·문화적인 문제점 및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됨. 다문화 이주민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세계문화 체험 프로그램 5개 강좌를 8회 개최함

■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한 공동체 형성, 다문화 가정 구성원 및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실 사업과 더불어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행복학교> 등 진행

- <마을 공동체 사업>은 가족단위, 마을단위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확립 및 가치 발굴을 위해 책수다, 마을놀이, 키즈드림, 마을원정대 등의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28회 실시함



자료: 충청북도 제출자료

[그림 3-49] 마을공동체 사업 (충청북도)

-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은 지역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에서 타 국가 전통의상 및 전통놀이를 체험을 통해 다양한 나라의 언어와 놀이체험 등을 통해 다문화 이해 기회 및 감수성 향상을 도모함
-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은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의 인권의식 향상,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진행된 전문강의와 상호 토론 교육 사업임
- <다문화행복학교>는 다문화가정 내 구성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가정의 해체위기 예방 및 가족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가족 캠프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다문화가정 간의 유대감 형성과 이해를 도모함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역민에게 클래식 악기 배움의 기회 및 연주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소나무 유스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클래식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관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클래식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임. 각각 정기연주회 1회를 개최함

■ **(정책 추진체계 구축)**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과 <문화다양성 협의체 구성 및 라운드 테이블 운영> 2건 진행

-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은 청주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추진한 연구 용역으로, 연구를 통한 조례제정(안)을 도출함
- <문화다양성 협의체 구성 및 라운드 테이블 운영>은 5회 라운드테이블과 1회 공청회를 통해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논의 및 사업 협의를 진행함



자료: 충청북도 제출자료

[그림 3-50] 문화다양성 협의체 구성 (충청북도)

■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제2회 충청권 정책포럼 개최>를 진행

- <제2회 충청권 정책포럼 개최>는 ‘충청권의 문화다양성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광역-기초 문화재단 관계자 및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150여 명이 참여하여 충청권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을 위한 협약 등의 내용을 다룸

■ **(국제 문화교류)** <한·베트남 문화예술 교류>, <해외자매결연국 방문 및 국제문화 교류 사업>,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등 아시아 국가와의 문화교류 진행

- <한·베트남 문화예술 교류>는 충북과 베트남의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화 시대에 맞는 문화예술 전망, 양국 간 공연, 전시 등 예술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과 문화다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됨. 양국 개별 공연, 합동 공연, 문화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미술, 서예, 사진 등 전시 교류, 공동 창작 작품 제작 워크숍 등을 진행하였으며 충북민예총 30명이 베트남 푸옌성을 방문함
- <해외자매결연국 방문 및 국제문화 교류사업>은 중국 평저우시, 베트남 난빈시, 대만 화련현 등 자매결연국 청소년 간 교류를 통한 양국의 우호증진 및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목적으로 추진됨. 청소년 국제교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정기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 전통문화체험 등의 친교 활동을 함

- 업무협약 체결은 2018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2019년 중국, 베트남, 대만 3개국으로 확대됨

-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는 일본 나가타, 중국 칭다오와의 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진행됨. 청소년 문화교류, 축제교류, 예술교류 등이 추진됨

■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 지원)** 지역의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드라마 제작지원> 추진

- <드라마 제작지원>은 채널A 드라마 ‘유별나! 문셰프’ 제작 지원을 통해 단양군의 농·특산물 및 지역 명소 등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데 기여함

12) 충청남도

〈표 3-46〉 충청남도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단위: 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국제 문화교류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지원	기타	합계
44	89	22	2	2	20	7	3	189

■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 ‘알리오 올리오’〉, 〈문화다양성 정책 세미나 ‘정책데스크: 충남 문화다양성의 미래’〉, 〈다문화신문 발간〉 등 캠페인 사업 추진

-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 ‘알리오 올리오’〉는 여성, 인권 등을 주제로 지역 내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도모를 위해 추진됨. 지역 관공서 및 공공기관 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선정하여, 현수막 등 팝업 게시를 진행함
- 〈문화다양성 정책 세미나 ‘정책데스크: 충남 문화다양성의 미래’〉는 도내 문화다양성 가치 증진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발전 방안을 토론했기 위해 진행됨. 문화다양성 활동 지속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개정 기반 및 향후 도정 확장 반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중앙 및 지역 내 전문인과의 심도 있는 토론 진행을 통해 조례 및 정책, 무지개다리 사업 관련 신규 이슈 등을 발굴함



자료: 충청남도 제출자료

〈그림 3-51〉 문화다양성 정책 세미나 〈정책데스크〉 (충남문화재단)

- 〈문화다양성 칼럼 ‘Focus Story’〉는 전문가의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칼럼을 월 1~2회 기고하여 지역 내 문화다양성 이슈를 쟁점화하고 정보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됨. 전문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새로운 문화다양성 이슈 발굴 및 개념 이해 등에 기여함
- 충남에서는 아산시, 태안군, 부여군, 논산시에서 지역 내 결혼이주여성의 명예기자단 활동을 지원하는 〈다문화신문 발간〉 사업을 추진함

- 아산시의 <대국민 인식개선 다문화신문 발간사업>은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 이민자 및 외국인에게 신문 보급을 통해 생활 정보를 제공함. 4개국 8명의 다문화 명예기자단을 선발하여 신문사에 취재 내용을 제공함
 - 태안군의 <다문화신문 발간> 사업은 지역신문의 정기적 발행을 통해 대국민 대상 다문화 인식개선을 시도함. 결혼이주여성의 명예기자단 활동 지원을 통해 나라별 문화 소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문을 제작함. 12회 26,880부를 발행함
 - 부여군의 <다문화신문 발간> 사업은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명예 기자 7명의 신문 기사를 게재하고 112개 가정에 다문화신문 구독료를 지원함
 - 논산시의 <대국민 인식개선 다문화신문 발간사업>은 다문화신문 제작 및 배포를 통해 결혼이주지역 내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성의 자긍심 향상 및 긍정적 인식 확산에 기여함. 다문화 명예기자단을 구축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지역신문을 정기발행 함
- 그 외 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및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세계 시민교육> 사업을 실시함

〈표 3-47〉 충청남도의 <세계시민교육> 추진 현황

교육명	담당부서	내용
세계시민교육 (상호문화이해교육)	아산시 여성가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의 이해를 높이는 교육 실시 • 내용: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에 각 나라별 인식개선 강사파견 • 세계시민교육 강사파견 152회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 73곳 파견 • 3,290명 참여
세계시민교육	서산시 여성가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다문화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기여 • 내용: 상호문화이해교육 실시추진성과 • 이해교육 201회 • 4,343명 참여
세계시민교육 (다른 뜻 같은 우리)	논산시 사회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다문화 사회에서 적절히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태도와 의식 제고 및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개선 • 대상: 논산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생, 군인, 어르신 • 내용: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세계 시민교육 강사 기관 파견 • 128회 운영, 다문화강사 5명 참여 • 총 2,638명 교육 참여
세계시민교육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부여군 가족행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세계시민교육 강사를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등에 파견 교육 실시 • 대상: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생, 군인, 어르신 • 내용: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인식개선으로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도모 • 교육 90회 실시, 2,000여명 참여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세계시민교육	서천군 사회복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한 지역주민의 다문화 감수성 향상 및 인식개선 • 대상: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 및 관내 경로당 이용 노인 • 내용: 결혼 이주여성들이 관내 교육기관 및 경로당에 찾아가 다문화이해 교육 실시 • 경로당 42곳(124회) 초·중·고15곳(39회) • 중국, 일본, 베트남의 문화 다양성교육 및 체험 • 연 2,339명 참여

교육명	담당부서	내용
세계시민교육	청양군 복지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군민 대상 다문화 사회 이해 교육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이해도 제고 • 대상: 관내 학생, 유관 기관 직원, 교사 등 • 내용: 강사를 파견하여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교육 제공 • 920명 참여
세계시민교육	태안군 가족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개선 • 대상: 관내 교육기관, 공공기관 • 내용: 결혼이주여성을 강사로 파견하여 자국문화 소개 및 문화체험 • 77회 실시, 1,799명 참여

자료: 충청남도 제출자료

■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장애인,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개선을 위한 사업 진행 및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한 도서 및 영화 향유 기회 제공과 소외계층의 다양한 예술 활동 지원

- <정신장애 편견 극복 캠페인 ‘가능성의 예술, 아름다움을 꽃피우다’>는 정신장애인 대상 편견 극복 및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도내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함. 조현병 등 일부 범죄자 이슈 발생으로 인해 악화된 이미지 순화를 목표로 향후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조현병은 곧 범죄 유발’이라는 편견 타파를 도모함
- <문화다양성 렉처 콘서트 ‘Life 溫 music; 그녀에게’>는 근현대사 속 여성상 및 여성의 인식 변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대중음악사 속 여성 예술인의 이야기와 결합하여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함. 시대별 대중음악 속 여성 관련 키워드를 인문학적 해석을 통해 라이브 연주와 함께 풀어내는 강의를 진행함



자료: 충청남도 제출자료

[그림 3-52] 문화다양성 렉처 콘서트 ‘Life 溫 music; 그녀에게’ (충남문화재단)

- <문화다양성 도서 캠페인 '사이책방'>은 도서 캠페인을 통한 문화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편견 및 거부감 해소를 위해 지역 내 도서관 및 시민 공간에 문화다양성 도서를 배포하여 책을 통한 일상 속 문화다양성 개념 확산을 도모함. 도서 선정 시 고전작품 뿐만 아니라 당대 이슈가 된 서적을 포함해 참여자의 관심을 유발함



자료: 충청남도 제출자료

[그림 3-53] 사이책방 (충남문화재단)

- <문화다양성 공공 영화상영회 '영화방 수다방'>은 문화다양성 영화 관람 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관심을 제고함. 지역의 공공·민간 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출함과 동시에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소통의 장으로 활용함. 일반인들이 흥미를 갖고 문화다양성 이슈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이벤트와 연계하여 지역 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옴
- <다양한 多문화>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과 가치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들의 자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한국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됨. 다문화가족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공연과 강연을 실시하여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가족의 문화적 다양성 인지, 다문화 인식개선의 계기를 마련함. 또한 성공 사례 공유를 통해 외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자부심 향상에 기여함
- <주민과 함께하는 마실 음악회>는 문화예술 활동이 미흡하고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제공하여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실현을 목적으로 함. 읍·면·동 마을경로당 등을 찾아가 마술, 해학극, 서커스 등으로 구성된 '마실음악회'를 175회 개최함
- <한마음 예술공연>은 당진 북한이탈주민 주민센터와 공동주최·주관으로 진행하여,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의 취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문화갈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됨. 당진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들과 지역 예술인들이 음악을 통해 서로 문화 정서를 공유하고 또 배워나가면서 다양한 예술장르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민들과

탈북민들의 이질감을 없애기 위한 공연을 진행함. 지역 문화예술계의 장르별 편중화를 지양하고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

- <하비 프로젝트>는 지역 내 균등한 문화 활동 커뮤니티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천안시 지역별 시민 커뮤니티의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문화 활성화를 꾀함
- <공유스쿨>은 시민의 문화적 지식과 재능의 공유·교육을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공동체 의식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됨. 전문가 교육을 통해 시민이 전문가가 되고, 다시 교육을 수료한 시민이 일반 시민에게 교육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정착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참여자를 확대하여 공유문화를 확산함

■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소외지역주민의 문화 접근성 향상 및 도서관을 거점으로 외국인과 지역민의 문화적 교류 도모

-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한마당>을 통해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민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여 지역민들의 소통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문화욕구 갈등을 해소함
- 아산시는 <도서관다문화 서비스>를 통해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한 외국인인과 내국인의 상호문화 존중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문화적 격차 해소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에서 떠나는 세계 여행>은 이웃나라의 역사 및 문화를 배움으로서 상호문화의 이해를 도모하고, 아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인형극>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다 같이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다는 내용의 인형극을 상영하여 다양한 문화적 표현 증진 및 문화를 주제로 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함



자료: 충청남도 제출자료

[그림 3-54] 도서관다문화 서비스

■ **(정책 추진체계 구축)**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과 <결혼이주여성 사회적 자립을 위한 다문화 상설장터 설치 '아시안 쿡'> 2건 진행

-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은 충청남도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및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 및 관련 위원회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함
- <결혼이주여성 사회적 자립을 위한 다문화 상설장터 설치 '아시안 쿡'>은 결혼이민자의 취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문화음식판매, 다문화 체험 공간 운영 등을 지원함

■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천안시 취약계층 문화향유 실태조사 연구 용역>, <국내·외 산·학·연·관 연계 문화 CSR 사례조사 및 문화도시 사업과의 연계방안 연구> 2건 진행

- <천안시 취약계층 문화향유 실태조사 연구 용역>은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실태를 파악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향유의 질적 확대 및 향유 수준 제고 등 천안 문화도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국내·외 산·학·연·관 연계 문화 CSR 사례조사 및 문화도시 사업과의 연계방안 연구>는 천안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천안 관내 문화 CSR 활동 촉진을 위한 향토기업 및 청년기업 현황, 역량 파악을 위해 진행됨. 연구를 문화 메세나 사업 진행 과정에 활용할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국제 문화교류)** 합창·무용·전통예술 분야의 전문예술단체의 국제교류 추진

- 아산시립합창단과 아산시무용단의 <문화예술국제교류>가 진행됨. 아산시립합창단은 자매도시인 헝가리 미슈콜츠 시 초청에 따른 '바르톡 플러스 오페라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함. 헝가리 민요 연주를 통한 청중의 만족도를 높이고, 한국 민요를 헝가리어로 공연하여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소개하고, 자매도시와의 문화예술분야 교류활성화 및 우호 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함. 아산시무용단은 자매도시 중국 동관시 초청에 따라 동관 시내 공연장 및 대학 등에서 공연을 개최함. 한국 정서를 표현한 공연을 통해 한류문화 전파에 기여하고 도시 간 협력 관계 및 우호 증진을 도모함
- <지역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 지원(노마드 예술로 만나다)>은 한국과 몽골 전통예술의 해외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서천과 몽골의 지역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공동창작을 통한 문화콘텐츠 제작 및 공연 교류를 추진함. 몽골국립예술단과 몽골국립극장에서 각국 지역문화유산을 소재로 합동공연 개최, 몽골국립예술단 감사장 수여, 몽골전문예술가 협회와 서천군립전통무용단의 협약 체결 등을 진행함

- <국제 춤 대회>는 지구촌 문화와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관람객과 참여자가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민속춤, 발레, 모던댄스, 창작 등 다양한 장르의 세계 무용단을 초청하여 공연함. 해외 15개국의 16개 팀을 초청하여 진행함



자료: 충청남도 제작자료

[그림 3-55] 국제 춤 대회 (충청남도)

■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 지원) 지역 향토·청년기업의 소외계층 대상 문화활동 지원 사업 및 청소년의 미디어 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 추진

- <문화메세나>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다문화 어린이, 장애 청소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천안 향토·청년기업들과 사회공헌적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 연고 기업들과 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한 메세나 활동임. 지역의 청년 기업이 천안 인애학교, 다문화어린이, 장애 청소년 대상, 노인 대상으로 3D 프린팅, 드론, VR 체험 교육, 뮤직비디오 제작 등을 시행하여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를 창출함
- <청소년 콘텐츠 상상이룸 지원 사업>은 청소년의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실제 창작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소년 크리에이터의 창의적 역량 강화 및 창작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됨. 시제품 제작 지원금 지원, 창작교육 및 개별 멘토링 지원을 통해 20품목의 시제품을 제작하였으며 제작물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시함

13) 전라북도

〈표 3-48〉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단위: 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국제 문화교류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지원	기타	합계
51	162	49	14	5	24	17	1	323

■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포럼, 교육, 공연 등 추진

- 〈호남권 문화다양성 정책 포럼〉은 호남권의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교류 확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진행됨. 포럼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도시,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논의함
- 〈완주 문화다양성 발굴단 ‘소수다’〉는 완주군의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해 추진됨. 문화다양성 이해 강의 및 사례 탐방, 완주 문화다양성 사례 조사, 기록, 공유 등의 활동을 진행함
- 〈글로벌 이웃나라 옛보기〉는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이해 강사로 양성 및 임명하여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문화이해 교육 및 체험활동을 통해 다문화인식개선을 제고함
- 전라북도의 〈다문화 인형극 공연〉은 김제시와 완주군에서 유아 및 아동의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추진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인형극 강사의 다문화인형극 공연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 향상에 기여함
- 〈장애 인권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건전한 사회인식개선과 상호관계를 향상시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지향함. 장애인식개선 TF팀 운영,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캠페인 및 장애 인권행사(도전골든벨) 등을 진행함

■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내외국인의 교류를 위한 축제 및 청년예술인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사업,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를 위한 사업 진행

- 〈제12회 다문화 어울림 축제〉는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문화 인식개선에 기여함. 기념식, 어울림예술제, 체험행사, 부대행사, 다문화인식개선 인형극 공연 등을 추진하였으며 캄보디아, 일본, 러시아 등 다문화가족이 참여함
- 〈청년문화예술대학〉은 교육을 통한 청년문화예술인의 창작 활성화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추진함. 청년문화예술인 대상의 무용, 서예, 문예창작 등 예술창작형 프로그램과 비평, 문화기획 등 연구개발형 프로그램을 운영함. 총 5개 강좌를 81회 운영함

- <문화파출소 조성 및 운영사업>은 유희파출소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민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 독거노인, 경력단절여성, 발달장애인, 취준생, 사회초년생 등 참여대상을 세분화하여 치유, 안전망, 지역거점, 주민자율 프로그램 등 운영함. 또한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 공동프로그램인 ‘문화파출소에서 놀자’, ‘경찰직업체험교실’, ‘문파워크’ 등을 운영함
- <무장애 여행상품 개발·운영>은 노약자, 장애인 등 관광 약자를 위한 전라북도 내 여행 상품 개발 및 시범운영을 통한 신규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진행됨. 무장애 여행코스를 발굴하여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무장애 관광 활성화 세미나를 통한 무장애 관광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 및 공감대 형성에 기여함
-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은 지역 내 다양한 지원 자원 발굴 및 기관 간 공유·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착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치·운영됨. 취업, 생활지원, 교육 등 북한이탈주민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기능을 가지며, 연 1회 이상 운영함

■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이주민과 선주민의 화합과 교류를 위한 사업 및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시설 활성화 사업 운영

-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 대상의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상호 소통하고 융합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함. 가족이 함께 하는 음악단, 드론축구단 활동을 통한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자녀들의 공감대 형성 및 특기 개발을 하였으며,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소통과 융합의 기회를 제공함
- <마을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무지개다리사업>은 이주민과 선주민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완주 농촌마을의 경로당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한 중국, 필리핀, 몽골, 베트남, 일본 수공예품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함
- <전수 교육관 활성화 지원>은 무형문화재 전승의 핵심 공간인 전수교육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 역량을 강화함. 시설을 활용해 교육, 공연, 전시 및 농악, 운도, 소목장 등 15개 무형문화재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함

■ **(정책 추진체계 구축)** <문화정책 기반강화 사업>, <완주 문화다양성 정책 TFT>, <청년 정책 네트워크단 구성·운영>을 통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문화정책 기반강화 사업>은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는 문화예술 토대 구축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추진함. 도내·외 관련 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도민과 함께 풀뿌리 문화정책 간담회, 문화정책포럼 ‘담론과

담화', 전북권 문화재단 원탁회의, 도민문화정책발굴단 운영, 전라북도 문화정책 콘서트 등을 추진함

- <완주 문화다양성 정책 TFT>는 문화다양성 현장 이슈 및 쟁점을 중심으로 완주군 문화다양성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구성함. TFT팀은 완주군의 문화다양성 관련 이슈·쟁점·과제를 논의하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방안을 논의함
- <청년정책 네트워크단 구성·운영>은 청년이 제안한 청년정책 의견을 수렴 및 전달하여 효과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됨. 3개 권역의 청년들로 네트워크단을 구성하여 문화, 농업, 창업 분야의 정책을 발굴 및 제안함

■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정책 개발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포럼, 교육, 조사를 진행

- <2019년 완주 사회적 경제 한마당>은 완주군 내 사회경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적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됨. 문화예술, 교육, 장애인, 사회적 농업, 돌봄, 공유경제 등의 주제로 한 사회적 경제 포럼을 통해 정책 개발함
- <성인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교육>은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별영향 평가 대상 사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함
- <귀농·귀촌 실태조사>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 및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민과의 화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실시함

■ (국제 문화교류) 예술가의 이동성 증진을 위한 해외전시 지원, 청소년의 국제교류 활동 등을 추진

- <해외전시 지원사업>은 해외 미술시장의 흐름에 대응하여 작가들의 역량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됨. 잠재력 있는 도내 미술작가를 발굴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등 5개국의 해외전시를 지원함
- <한·러 청소년 국제문화교류>는 농어촌 청소년의 국제교류 활동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배양을 위해 추진됨. 관내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러시아 학교 방문, 역사 유적 탐방 활동, 현지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지원함
- <재외동포 한국 전통문화 체험 연수 사업>은 재외동포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해 추진됨. 재외동포 아동·청소년에게 한국어 교육 및 사물놀이, 부채춤, 탈춤 등 한국전통문화체험, 문화유적지 탐방 등을 진행함

■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 지원) 지역의 생활환경 및 문화·관광 정보 공유를 위한 콘텐츠 제작·배포

- <다문화가족 정보공유 프로그램 제작>은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에게 알권리를 충족

시키고, 한국생활의 안정성 확보 및 다문화인식개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인 ‘다정다감’ 제작을 지원함. 총 24회를 제작 및 방송하였으며 결혼이민자가 직접 제작에 참여함

- <소식지 ‘마중’>은 전라북도 지역문화·관광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장년층의 관심 유도를 위해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E-Book 제작을 통해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전 세대의 관심을 유도함. 반연간지인 소식지에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동학농민혁명 국가 기념일, 전라북도 가야문화 관련 원고가 수록됨



자료: 전라북도 제출자료

[그림 3-56] 소식지 ‘마중’

- <온라인 소식지 ‘마중 뉴스레터’>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문화, 관광, 공연, 교육, 행사 등 유용한 정보를 담은 온라인 뉴스레터를 매월 발간 및 배포하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이용자 증대 및 인지도 향상을 도모함. 전문가 칼럼 등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문화·예술·관광 콘텐츠를 아카이빙하고, 18~29호의 뉴스레터를 제작·배포하여 4,962 명이 구독함



자료: 전라북도 제출자료

[그림 3-57] 온라인소식지 ‘마중 뉴스레터’

- <‘들어라 전라북도 산천은 노래다’ 시선집 발간> 사업은 전라북도를 소재로 한 시 아카이빙을 위해 추진함.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소재로 한 시를 수집하여 시집을 발간하였으며 기획전시인 ‘시화전’ 등을 개최함



▲ 시집



▲ 시화전

자료: 전라북도 제출자료

[그림 3-58] ‘들어라 전라북도 산천은 노래다’ 시선집 발간

14) 전라남도

〈표 3-49〉 전라남도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단위: 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국제 문화교류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지원	기타	합계
34	117	36	12	-	21	-	2	222

■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 행사 등 개최

- <청소년 국제시민교육>은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 및 평화교육을 29회 실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함.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차이와 차별, 다름과 틀림에 대한 사고력 및 공감능력 향상에 기여함
- 강진군의 <다문화가정 한마당 축제>는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의 소통 및 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추진한 행사임. 2012년부터 개최하여 2019년 제8회 행사를 맞이함
 - 보성군의 <다문화가족 한마음 행사> 역시 다문화가족 간 친목 도모 및 정보교류의 시간 마련을 위해 기념식, 어울림마당, 체험 및 홍보부스 등을 운영함



자료: 전라남도 제출자료

[그림 3-59] 다문화가정 한마당 축제

- <해양문학 심포지엄 및 문학행사 개최>를 통해 전국 문인들에게 완도를 알리고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지역 문학 및 지역 문인의 저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노인 등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문화기본권 신장을 위한 사업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전라남도의 <시니어 합창단 경연대회>는 심리적 소외와 고독감을 겪기 쉬운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전한 노후 생활 보장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됨. 22개 시·군의 27개 팀 1,200명을 대상으로 시니어합창단 경연대회를 개최함
 - 보성군은 노인여가문화 증진 및 문화향유기회 제공을 위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시니어 합창단 경연대회> 참가를 지원함
 - 장흥군은 어르신의 음악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니어합창단 정기 발표회 및 각종 지역행사 참여 지원을 함



자료: 전라남도 제출자료

[그림 3-60] 시니어 합창단 경연대회

- <문화학교 운영지원>은 노인, 다문화 지역주민 등 함평군민의 계층 간, 세대 간 문화 불균형의 해소를 통한 지역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됨. 사진강좌, 인문학강좌, 일본어 강좌, 문인화 강좌 등을 통해 군민의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에 기여함



자료: 전라남도 제출자료

[그림 3-61] 문화학교 운영지원

-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회 개최>는 잠재력을 가진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한 인재로 성장시키고, 청소년 여가문화 증진 및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됨
- <하서 전국휘호대회>는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문, 한글, 문인화 분야의 전국휘호대회를 개최함. 전국적인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에 기여함
- <제22회 함평나비대축제 미술대회>는 나비와 함께 하는 봄날의 여행을 주제로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그림그리기 활동을 통한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 개최됨. 총 1,006명이 참여함



자료: 전라남도 제출자료

[그림 3-62] 제22회 함평나비대축제 미술대회

- 나주시 문화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목공예술꽃학교>, <시민밴드>, <문화놀이터>, <수공예체험교실>, <미디어생각> 등이 진행됨
 - <목공예술꽃학교>는 청소년들의 목공을 소재로 한 특별한 생활소품 및 가구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인과 협력하여 만들면서 공감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잠재된 창의력 표출 및 자아 성취감 향상에 기여함
 - <시민밴드>는 청소년 대상의 사업으로 특화된 동아리와 특색있는 밴드팀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시민밴드로 양성함. 문화인력뱅크 연계로 나주시가 주최하는 문화행사 및 지역축제에 참가함
 - <문화놀이터>는 여성의 전통공예품 제작을 통한 문화적 교류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전통을 응용한 현대적 문화상품 교육 및 제작을 지원함. 전통생활문화를 계승하고 문화동아리로 발전함
 - <수공예체험교실>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장 마련을 위해 페이퍼 플러워를 활용한 LED 생활소품 만들기 활동을 지원함. 다양한 만들기 활동으로 오감만족을 느끼고 정서적 교감과 안정감을 조성함
 - <미디어생각>은 청소년의 건강한 미디어 활용 및 소통·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사진과 영상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미디어 영상 제작을 지원함. 시나리오와 콘티에 맞춰 영상물을 제작·편집하여 영화를 상영함

■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문화예술 예술축제를 통한 소통·교류의 장 마련하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사업 진행

- <다문화가족 문화예술 경연대회>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하고 참여 다양성이 확보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소통과 교류를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함. 성악, 중창, 합창, 무용, 악기연주 분야의 경연대회를 개최함
- <전국 다문화 모국춤 페스티벌>은 결혼이민자들의 모국춤 경연을 통한 자긍심 고취 및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됨. 전국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23개 팀이 참여함
- <목포-청주 예술교류전 개최>는 자매결연도시인 청주시 예총과 예술교류 및 공연을 통한 예향 목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됨. 목포 및 청주 예총단체의 국악, 무용, 음악, 연예 공연 분야의 예술교류를 진행하여 예술문화발전 방향을 모색함
- <다문화 아버지모임>은 다문화가족 아버지의 자조모임을 지원하여 모임을 통한 가정의 역할과 인식 변화를 꾀함. 아버지 역할 교육 및 밑반찬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함
- <다문화이해 현지투어>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센터(장흥군) 직원이 함께 이주 여성 모국을 방문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생활실태 공유를 통한 인식 개선을 함으로써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킴



자료: 전라남도 제출자료

[그림 3-63] 시니어 합창단 경연대회

■ **(정책 추진체계 구축)** <다문화교육지원 네트워크 협의회>, <문화다양성위원회 운영> 및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화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다문화교육지원 네트워크 협의회>는 교육을 통한 종사자 역량강화 및 종사자 간 네트워크 강화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추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함. 당해 연도 전라남도 다문화가족지원 주요사업 추진계획 설명 및 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 설명 및 사업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협력방안 토의 등을 진행함
- <문화다양성위원회 운영>은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에 관한 협의·조성 및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구축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함.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다룸
-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는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 12월 11일 제정함
- 「화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화순 예술인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창작예술인들의 건실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2019년 7월 2일 제정함

■ **(국제 문화교류)** 국내에서 추진한 문화교류 축제 개최 및 청소년 대상의 국제교류 지원

- <목포 세계마당 페스티벌 개최>는 국내·외 거리예술팀 초청공연, 기획이슈, 프리마켓 등으로 구성된 거리예술축제임.남도 문화예술 콘텐츠의 글로벌화 전략으로 원도심 일원에서 다양한 길거리 공연을 통한 시민 공연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함
- <문순득 국제페스티벌>은 해양문화를 예술화하는 국제공연예술축제를 개최하여新安군의 국제적 위상 정립 및 문순득의 해양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킴. 국내 공연 10팀, 해외공연 5팀이 참가함
- <구례군-지주시 청소년 국제교류>, <구례군-운젠시 청소년 국제교류>는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하여 다양한 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기 위해 자매도시의 문화유적지 탐방, 홈스테이 등을 지원함. 자매도시 청소년과의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함
- <노르웨이 대학생 우도농악 전수교육>은 노르웨이 대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우도농악 전수교육 및 전통문화 교육, 지역 문화관광 체험을 실시해 상호문화 이해 증진을 도모함

15) 경상북도

〈표 3-50〉 경상북도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단위: 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국제 문화교류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지원	기타	합계
24	77	36	4	-	16	2	1	160

■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경상북도에서는 다문화 감수성 개발을 위한 교육과 지역민을 위한 축제, 문화예술 교육 등을 진행

- 경상북도의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감수성 개발을 위한 <다문화이해 교육> 실시함
 - 경주시와 고령군의 <다문화이해 교육>은 관내 어린이집 원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체험, 놀이 등의 활동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향상하고 인식을 개선함
 - 상주시의 <다문화이해 교육>은 결혼이주여성 출신 다문화 강사가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 자국 문화 소개 및 체험활동 지도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유연한 사고 함양 및 문화다양성을 인지시킴
 - 영양군의 <다문화이해 교육>은 문화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편견과 차별 의식을 완화시켜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베트남·일본·중국 문화에 대한 교육과 전시, 체험 등을 제공함
 - 예천군의 <다문화이해 교육>은 다양한 국가의 강사가 어린이집, 초등학교, 경로당, 공동거주의 집 등에 방문하여 자국문화 소개 및 문화체험 등을 통해 다문화 이해의 장을 마련함



자료: 경상북도 제출자료

[그림 3-64] 다문화이해교육 (상주시)

- <2019 세계민속 음악 페스티벌>은 국내·외 아티스트의 다양한 장르의 종합음악 축제임. 한국, 미국, 중국 등 7개국의 18개 팀 아티스트의 클래식, 국악, 포크, 재즈, 무용 등 다양한 음악을 통해 수준 높은 공연문화를 정착함
- <어울누리 문화 한마당>은 23개 지역문화원 회원들의 한마당 축제로 지역문화 융성에 이바지하고 경북도민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문화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함. 회원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축제로서 단순히 문화교실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능동적인 문화 활동 주체로 참여해 문화원 회원 상호 간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
- <청송문화원 교양교실 운영>은 문인화, 서예, 민요 등 12개 교양강좌를 운영하여 군민의 문화복지를 실현하였으며, 강좌의 성과물로 정기 전시회 개최 및 송년 음악회 공연 활동에 참여함

■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경주시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경주시 합창단 오케스트라 운영> 등 청소년의 문화적 표현 기회 제공 사업 및 지역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제,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에 대한 활동 지원 사업 추진

- <경주시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과 <경주시 합창단 오케스트라 운영>은 문화예술 분야 역량 강화를 통한 관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 단원 선발, 정기 연습 및 공연 활동, 연주 캠프 및 정기연주회 등을 개최함
- <다문화가족 문화 활동 지원>은 다문화가족에게 합창단 연습 및 공연 등 문화 활동을 통해 정서를 함양시키고 사회통합을 도모함
- <다문화가족 문화예술단 운영사업>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잠재적 역량 개발 및 편견 해소, 지역민들과의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라인댄스 정기연습 및 공연 참가 기회를 제공함



자료: 경상북도 제출자료

[그림 3-65] 다문화가족 문화예술단 운영사업 (상주시)

- <제25회 서화예술전시회>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서예 동호인 저변 확대 및 지역민 문화 예술 향유권 신장을 위해 관내 동호인 및 초대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사업임

- <청송예술제>는 미술·국악·문인협회 합동예술제 개최를 통해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청송의 예술문화를 지역 및 타 지역에 알리는 계기가 됨
- <지역 문화 사랑방 운영>은 문화소외주민에 대한 여가문화 정착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 종교시설을 활용해 다도, 서예, 요리, 한글, 한자 및 취미교실 등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

■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예술인의 교류 활동 지원 및 축제를 통한 사회적 소외계층의 화합을 도모

- <영호남 예술교류전 지원>은 영호남 지역예술인의 예술교류를 위해 미술, 사진, 음악, 무용, 연극 등 예술분야 상호 교류행사 개최를 지원함
- <문화원 영호남교류사업>은 전남 보성문화원 방문 및 다향제, 소리축제 참석, 유적지 답사 등을 통한 지역감정 해소와 문화교류를 통한 지역문화의 상호발전을 위해 시행함
- 경주시의 <외국인근로자 축제>와 구미시의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는 지역민과 외국인 근로자의 상호 문화 이해 및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함



자료: 경상북도 제출자료

[그림 3-66] 외국인근로자 축제 (경주시)

- <농인을 위한 무지개 아카데미>는 정보소외계층인 농인의 알권리와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강, 법률, 농축산업 및 인권 관련 교육을 통한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정책 추진체계 구축)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여성대학 운영> 등 4건 추진

-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지원과 관련한 회의, 인식개선 사업, 문화체험 등을 진행함

-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과 <청소년 참여기구운영>은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자문, 평가를 위해 설치하였으며 청소년 권리, 인권 모니터링 및 정책 제안 등을 제시함
- <여성대학 운영>은 지역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전문자격증 교육을 제공함

■ (국제 문화교류) <지역우수문화 교류 이탈리아 방문공연 '대가야의 소리 가야금, 마당놀이 풍동전'>, <2019년 국제미술교류전> 등 운영

- <지역우수문화 교류 이탈리아 방문공연 '대가야의 소리 가야금, 마당놀이 풍동전'>은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관한 지역 우수문화콘텐츠 발굴 및 지원 사업 공모에 지원·당선되어 고령 군립가야금연주단과 고령문화원 연극반 '고령토'로 구성된 공연팀이 이탈리아를 방문하여 공연함



자료: 경상북도 제출자료

[그림 3-67] 지역우수문화교류 이탈리아 방문공연 (고령군)

- <2019년 국제미술교류전>은 필리핀 미술인과 한국미술협회 안동지부 회원의 작품을 필리핀 종합예술전문대학 전시관에 전시하여, 양군 간의 우의 증진 및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예술 발전 계기 마련, 지역미술 발전을 도모함

■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 지원) <창작문화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달빛의 소리 가얏고’>, <다문화가정 모국 위성방송 수신장치 설치사업> 등 지원

- <창작문화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달빛의 소리 가얏고’>는 고령군의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 및 확산하여 지역문화 융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고양함. 창작뮤지컬인 ‘달빛의 소리 가얏고’ 공연을 통해 주민 및 관광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융성에 이바지함



자료: 경상북도 제출자료

[그림 3-68] 창작문화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고령군)

- <다문화가정 모국 위성방송 수신장치 설치사업>은 문화적 이질감 해소 및 다문화 이해 증진,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이중언어 습득 기회 제공을 위해 다문화가정 내 위성방송 안테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임

16) 경상남도

〈표 3-51〉 경상남도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단위: 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국제 문화교류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지원	기타	합계
39	99	39	4	5	18	2	5	211

■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역민과 외국인 주민의 화합을 위한 〈창원아시아미술제〉, 〈다문화 토크콘서트〉 등 추진

- 〈제2회 김해시 문화다양성 토론회〉는 의원, 공무원, 연구자, 언론인, 지역전문가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단비’〉는 지역 구성원들이 문화다양성 증진 방안을 고민·연구·모니터링을 진행하며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 개발 및 김해·경남·영월 지역의 문화다양성 전문가 연수를 진행함
-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구 ‘공감 스케치’〉는 버스 등 대중교통 종사자들에게 문화다양성 관련 민원 사례를 상황극으로 각색하여 친절 교육을 진행함. 서비스 영역으로서의 문화다양성 교육 연수 범위를 확대함
-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은 김해시, 통영시, 산청군, 합천군 등에서 일반인, 다문화 가족, 초등학생, 지역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체험을 실시하여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기여함
- 〈2019 창원아시아미술제〉는 ‘상상피크닉’이라는 주제로 12일 간 개최된 전시임. 140명의 국내·외 작가가 출품한 조소, 설치, 회화, 영상 등 15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함. 청년 작가들과의 다양한 작품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교류와 소통하고,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해 세대를 불문하고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기여, 동시대의 각 지역과 각 나라의 시각예술 동향 파악에 기여함

■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지역민과 이주민의 화합 축제인 〈레인보우 댄스세상〉, 〈문화공존 페스티벌〉 및 비장애인·장애인·북한이탈주민 대상의 문화표현 기회 제공 사업 추진

- 〈레인보우 댄스세상〉은 다문화가족들이 함께하는 댄스 활동을 통해 가족관계 및 이웃 간 친밀감 증진, 정서 교류를 하고 문화 활동을 통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기회를 제공함

- <문화공존 페스티벌>은 김해의 이주민 커뮤니티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다양성 축제로,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함
- <문화다양성 ‘창작시 음악축제’>는 시각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이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문예창작 활동을 지원함. 음악과 토크라는 매개를 통해 문화다양성 가치 공감 및 인식개선, 문예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함
- <어린이 문화다양성 ‘짜꿍’>은 어린이의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됨. 창작곡을 활용한 합창 수업을 진행하고,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초청공연, 글로벳 합창제, 창작시 음악축제 등에 참여함

〈표 3-52〉 어린이 문화다양성 ‘짜꿍’ 세부행사

행사명	일시	참석대상
문화다양성 어린이 합창축제 글로벳 합창제	2019.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합성초등학교 • 김해동광초등학교 • 무지개합창단(영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뉴드림합창단(부천여성청소년센터)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초청 연합 공연 (문화다양성 공연)	2019.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화(미얀마 카렌족 난민 소녀) • 김성은 바이올리니스트 • 안산문화재단 안녕?오케스트라 • 김해문화재단 글로벳 합창단(김해합성초등학교, 김해동광초등학교, 김해지역아동센터)
문화다양성 창작시 음악축제	2019.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합성초등학교 • 김해동광초등학교

자료: 경상남도 제출자료



자료: 경상남도 제출자료

〔그림 3-69〕 어린이 문화다양성 ‘짜꿍’ (경상남도)

■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내국인과 이주민의 소통 및 교류를 위한 축제 개최 및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 추진

- <2019 이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다양성 축제 MAMF>는 ‘이주민(Migrants)·아리랑(Arirang)·다문화(Multicultural)·축제(Festival)’라는 뜻으로 한국 국민과 이주민에게 소통 및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됨. 프린지 공연, 프리마켓, 길거리 음식 축제 등 여러 나라의 이주민이 직접 기획·참여하여 지역, 종교, 계층을 아우르고 서로를 이해하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남

- <문화다양성 마을축제 '종로난장'>은 선주민과 이주민 및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지역축제를 만들기 위해 개최됨.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문화다양성 퍼레이드, 프리마켓, 차별금지 Zone 운영, 공연 등을 진행함
- <문화다양성&도시재생 '잇다'>는 도시재생 사업과 협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다양성 가치 기반 교육 및 워크숍 실시 및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함. 김해 동상동 다어울림 광장 바닥에 설치미술 문구를 작성함

■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김해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용역>, <김해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지표개발을 위한 FGI> 등 진행

- <김해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지표개발을 위한 FGI>는 실태조사 및 지표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로, 실태조사 설문 개발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진행함. <김해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문화다양성 정책 수립 기반 마련을 위해 김해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실시함
- 합천군과 하동군에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함. 합천군은 지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에 필요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다문화가정 전수조사를 실시함. 하동군은 결혼이민자의 복지 욕구 파악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구별 인적사항, 경제 상황, 애로사항, 희망 서비스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함

■ **(국제 문화교류)** 지역민에게 다양한 세계문화 소개 및 지역예술인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행사와 청소년의 국제 문화교류 지원 사업 진행

- <세계 민속예술 비엔날레>는 세계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역예술인들의 예술적 교류 기회 제공을 위해 세계 민속예술 공연팀을 초청해 공연을 개최함. 지역민들에게 국제문화의 다양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인과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지원함
- <가나자와 청소년 음악공연단 방문>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상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됨. 2018년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일본 가나자와 방문에 따른 통영시의 초청으로 가나자와의 OEK 엔젤 코러스와 유와쿠 일본전통북 청소년 앙상블이 통영국제음악제 기간 중 방문하여 공연을 개최함. 도시 간 국제협력 및 음악 교류를 증진하고 가나자와 학생들에게 국제무대의 경험을 제공함

■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 지원) <융·복합 민속예술 공연 지원사업> 운영 및 <문화다양성 서포터즈 ‘말모이’> 제작

- <융·복합 민속예술 공연 지원사업>은 민속예술 분야 문화자산을 소재로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공연 콘텐츠 제작을 지원함. 문화산업 창작기반을 활성화 및 창의관광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
- <문화다양성 서포터즈 ‘말모이’>는 차별 및 문화다양성을 해치는 말을 발굴하여 모음집 ‘말모이’를 제작함. 연령, 성, 장애, 신체·육설, 인종·국가, 지역·기타, 우리말 속 일본어 7가지 분류 150개의 단어 수집 및 대체언어 추천 내용을 포함함



자료: 경상남도 제출자료

[그림 3-70] 문화다양성 서포터즈 ‘말모이’ (경상남도)

17) 제주특별자치도

〈표 3-53〉 제주도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단위: 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국제 문화교류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지원	기타	합계
-	9	11	-	-	5	-	-	25

■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유아·청소년, 장애인, 노인, 청년 등 대상별 맞춤 지원을 통한 문화적 표현 기회 확대를 위해 <메세나 교류 예술영재양성 캠프 사업>, <유아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 <제주 장애인문화예술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청년문화 매개 특성화 사업> 추진

- <메세나 교류 예술영재양성 캠프 사업>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등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여 예술영재 발굴 및 인재개발을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공모를 통해 15명의 청소년을 선정하여 지원함. 제주대학교와의 MOU 체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
- <유아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은 영유아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사업으로, 2019년도에 29개소를 지원함
- <제주장애인문화예술제>는 도내 장애인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장려 및 발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6월 장애인예술제 개최를 시작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문화엑스포(8월)와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12월)에 참가하였으며 활동 책자 <날개>를 발간함
-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만 56세~70세의 여성 어르신 24명을 이야기할머니로 양성하여 유아교육기관 67개소에 파견하여 옛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어르신과 유아 간 정서적 소통을 도모함
- <청년문화 매개 특성화사업>은 제주도 내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예술가 및 예술단체 중 처음 발표하는 예술작품에 대해 지원하며, 7개 분야 23건의 예술작품을 지원함

■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11건의 문화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은 모두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Together Jeju 다문화페스티벌>, <제12회 제주 다민족문화제> 등 진행

- <Together Jeju 다문화페스티벌>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다양한 문화체험과 교육활동 및 에코힐링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제12회 제주 다민족문화제>는

이주민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추진한 문화제임. 다문화 거리 운영, 길거리 공연, 이주민 문화경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 그 외, 제주도 내 이주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도내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한가위 한마당>, <다문화가정 제주 바로 알기> 등 한국문화 이해를 증진시키는 사업과 한국어 교육 및 취업 지원 등이 있음

〈표 3-54〉 제주도 정책유형 3번 사업 목록

사업명	대상	내용
외국인주민과 함께 하는 한가위 한마당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족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이주민을 위한 부대행사 (무료진료, 이미용 등), 한가위 음식 나눔 등
다문화가족한국어교육사업 (신규)	결혼이주여성, 거주외국인	한국어 능력시험 TOPIK 대비반 개설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결혼이민자	관광통역사 자격취득 대비반운영, 다문화창의·인성강사 영성과정, 생활요리지도사 자격취득교육, 다문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양성 교육 실시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운영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고향 방문, 가족만남 등 다큐멘터리 제작방송, 결혼이주여성 제주역사·문화탐방, 다문화가족 한국어 및 제주문화 이해 교육, 환경 교육 및 가족캠프, 설맞이 전통 문화체험 등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통합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자녀	글로벌다문화학교, 청소년 글로벌 리더과정, 기획 기사, 연중캠페인 실시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지도사(제주국제대 언어치료학 전공자) 언어 평가·교육, 부모교육 등
다문화가정 제주 바로 알기	다문화가족, 거주외국인	한국문화학교 운영 및 한국어 강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
다문화가족역량강화사업	다문화가족	필리핀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다문화가정 한마음 대회, '갱년기 맘과 사춘기 자녀가 통하는 세상' - 자녀갈등해소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의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
중도입국자녀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도입국자녀	한국어 교육(22회), 자기 및 진로탐색(4회), 인성·진로 가족 캠프(1박2일)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

■ (국제 문화교류) 청년예술인의 국제교류를 위한 <UCLG 글로벌 청년문화 포럼>과 <제주문화 국제교류 네트워크 사업>, 그 외 한·중·일 문화예술 교류사업 진행

- <UCLG 글로벌 청년문화포럼>은 제주도 내 청년예술인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된 사업임. 2019년도는 'Having Fun, 문화와 예술을 통한 현대의 레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음

- 국내·외 청년예술인들이 문화예술전문들과 함께 예술 활동을 기획, 연구, 제작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문화의 달> 행사, 국제 캐리커처 작가들과의 문화 교류, 제주 신화 전문가 강의, 제주 원도심 역사 문화 답사 등 세부 연계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함
- 유럽·남미 등 UCLG 문화 선도도시의 문화예술전문가 및 청년예술가, UCLG ASPAC (아시아·태평양) 지역 청년예술가,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함



자료: 제주도 제출자료

[그림 3-71] 제2회 UCLG 글로벌 청년문화포럼 (제주특별자치도)



▲ 어린이 문화향유 공간 Halla-San 개소식

자료: 제주도 제출자료

[그림 3-72] UCLG ASPAC 제주-수라카르타 공동예술합작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문화 국제교류 네트워크 사업>은 제주문화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적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됨

〈표 3-55〉 <제주문화 국제교류 네트워크 사업> 추진 일정

일정	내용
4월	제3회 UCLG 문화정상회의 참가, '제주 국제문화정책' 홍보 및 소개
6월	UCLG ASPAC(아시아·태평양) 도시 정부 관계자 국제문화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7월~10월	국제 해양예술프로젝트 진행
11월	UCLG 세계 총회 참가 공공주도의 국제문화 세션 '글로벌 청년문화포럼' 발표
12월	UCLG ASPAC 제주-수라카르타 공동 예술 합작 프로젝트 참가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

- 한·중·일 국제 문화교류 사업은 문화예술인 및 관계자 대상의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사업>, 공연단 대상의 <탐라문화제 연계 국제문화교류 축제>, 청소년 대상의 <한·중·일 청소년문화캠프> 등이 추진됨
 -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사업>은 제주 문화예술인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한·중·일 17개 도시 간 문화예술교류를 추진함
 - <탐라문화제 연계 국제문화교류 축제>는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국제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중·일 공연단 12개 팀을 지원하여 축제를 개최함
 - <한·중·일 청소년문화캠프>는 한·중·일 청소년의 상호 간 문화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주문화자원 답사, 중국 닝보, 일본 나라 등에서의 캠프를 추진함

4. 2019년 문화다양성 정책성과 분석

1) 중앙부처의 문화다양성 정책

〈표 3-56〉 2019년 중앙부처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현황

연번	정부 부처	분류별 사업 수(개)									문화 다양성 사업 예산 (백만 원)	중앙부처 예산규모 (백만 원)	전체예산 대비 문화 다양성 사업예산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			
		인식 개선 및 가치 확산	문화 기본권 신장	공감대 형성 및 갈등 해소	정책추진 체계 구축	실태 파악 및 정책 개발	국제 문화 교류	미디어 활용 및 문화 산업 육성	기타				
1	고용노동부	-	1	-	-	-	-	-	-	1	504	26,716,303	0.002
2	교육부	5	-	-	-	-	-	-	-	5	9,326	74,916,313	0.01
3	국방부	-	1	-	-	-	-	-	-	1	200	33,108,386	0.001
4	농림축산식품부	1	-	-	-	-	-	-	-	1	500	14,659,582	0.003
5	법무부	2	-	-	-	-	-	-	-	2	314	3,880,025	0.01
6	보건복지부	-	-	-	-	-	-	-	1	1	363	72,514,773	0.001
7	방송통신위원회	-	-	-	-	-	1	-	-	1	37,156	62,772	59.19
8	여성가족부	1	2	-	-	-	1	-	-	4	72,323	1,047,475	6.90
9	외교부	-	-	-	-	-	1	-	-	1	200	2,450,032	0.01
10	행정안전부	-	5	-	-	-	-	-	-	5	2,198	55,681,700	0.004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	-	-	-	-	1	-	3	46,057	14,946,103	0.31
소계		9	11	0	0	0	3	1	1	25	169,141	299,983,464	0.06
12	문화체육관광부	23	89	29	4	5	71	18	1	240	403,912	6,824,095	5.92
계		32	100	29	4	5	74	19	2	265	573,053	306,807,559	0.19

주1) 표에 제시된 사업 수 및 사업예산은 제출자료 기준

주2) 각 부처 총예산 규모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세출예산 참고(본예산 기준/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제외)

주3)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액에는 문화재청 예산액 포함

■ 2019년도 중앙부처의 문화다양성 정책 자료를 요청한 결과, 총 11개의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10개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문화재청 포함), 12개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에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자료를 제출

- 문화다양성 정책 자료를 제출한 중앙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11개의 부처임
 - 문화재청의 경우, 정부조직 상 중앙행정기관에 속하지만 분류의 편의상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에 포함하여 기술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사업 수와 예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포함하여 집계하였으며, 일부 정책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추진되므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수 및 예산 집계 시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해당부처의 업무계획서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을 추출함
- 중앙부처의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한 해 동안 8개의 사업 영역에서 총 265개의 정책 사업이 진행됨
 - 가장 많이 진행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은 ‘문화표현 기회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100개; 37.7%)이었으며 ‘국제 문화교류(74개; 27.9%)’,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32개; 12.1%)’,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29개; 10.9%)’, ‘미디어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 사업(19개; 7.2%)’,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5개; 1.9%)’, ‘정책추진체계 구축(4개; 1.5%)’, ‘기타(2개; 0.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정책추진체계 구축’과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의 경우 다른 정책 사업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240개(90.6%)의 사업을 진행하여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을 진행함. 그 다음으로는 교육부·행정안전부(5개; 1.9%), 여성가족부(4개;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3개; 1.1%), 법무부(2개; 0.8%), 고용노동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외교부(1개; 0.4%)의 순으로 나타남

■ 중앙부처가 진행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의 예산은 총 5,496억 원으로 나타남

-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의 예산이 가장 많았던 중앙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4,039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가족부(723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460억 원), 방송통신위원회(138억 원), 교육부(932억 원), 행정안전부(22억 원),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5억 원), 보건복지부·법무부(3억 원), 국방부·외교부(2억 원) 순으로 사업비가 높게 나타남

■ 중앙부처 전체예산 대비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예산의 비중은 평균 0.19%로 나타남

- 부처 전체예산 대비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의 예산이 가장 높은 곳은 방송통신위원회 (59.19%)로 나타났으며, 여성가족부(6.90%), 문화체육관광부(5.92%), 과학기술정보통신부(0.31%), 교육부(0.01%), 외교부(0.01%), 법무부(0.01%), 행정안전부 (0.004%), 농림축산식품부(0.003%), 고용노동부(0.002%), 국방부(0.001%), 보건복지부(0.001%)순으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예산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

〈표 3-57〉 2019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현황

연 번	지방자치 단체	분류별 사업 수(개)									문화 다양성 사업 예산 (백만 원)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 (백만 원)	전체예산 대비 문화 다양성 사업예산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			
		인식 개선 및 가치 확산	문화 기본권 신장	공감 대 형성 및 갈등 해소	정책 추진 체계 구축	실태 파악 및 정책 개발	국제 문화 교류	미디 어 활용 및 문화 산업 육성	기타				
1	서울특별시	98	142	22	7	8	19	2	1	299	185,176	36,427,604	0.51
2	부산광역시	27	162	49	1	2	39	1	2	283	32,310	12,543,135	0.26
3	대구광역시	27	40	15	2	0	17	1	26	128	28,489	8,991,962	0.32
4	인천광역시	48	83	25	11	0	13	5	0	185	57,055	11,539,820	0.49
5	광주광역시	30	79	9	9	3	8	2	4	144	6,132	5,328,382	0.12
6	대전광역시	30	15	9	2	2	2	0	0	60	3,367	5,043,640	0.07
7	울산광역시	8	37	26	7	1	3	0	2	84	6,429	4,457,310	0.14
8	세종특별 자치시	0	14	2	1	0	3	0	0	20	1,997	1,468,578	0.14
9	경기도	84	137	46	6	5	27	17	1	323	49,528	46,970,041	0.11
10	강원도	29	82	24	3	1	25	2	1	167	18,873	11,146,371	0.17
11	충청북도	30	78	22	2	1	19	2	0	154	18,629	8,731,174	0.21
12	충청남도	44	89	22	2	2	20	7	3	189	11,384	12,225,713	0.09
13	전라북도	51	162	49	14	5	24	17	1	323	43,949	11,891,404	0.37
14	전라남도	34	117	36	12	0	21	0	2	222	17,820	14,541,430	0.12
15	경상북도	24	77	36	4	0	16	2	1	160	38,615	17,575,619	0.22
16	경상남도	39	99	39	4	5	18	2	5	211	12,195	17,016,015	0.07
17	제주특별 자치도	0	9	11	0	0	5	0	0	25	2,756	5,116,992	0.05
	계	603	1,422	442	87	35	279	60	49	2,977	534,704	231,015,190	0.23

주1) 표에 제시된 사업 수 및 사업예산은 제출자료 기준

주2)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는 예산 순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참고함

■ 2019년도 광역자치단체 문화다양성 정책 자료를 요청한 결과, 총 17개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자료를 제출

- 자료수집의 단위는 광역단위이며 기초단위로 제출된 자료의 경우, 광역단위로 통합하여 분석을 진행함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한 해 동안 8개의 사업영역에서 총 2,977개의 정책 사업이 진행됨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문화표현 기회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1,422개; 47.8%)’으로 나타났으며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603개; 20.3%)’,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442개; 14.8%)’, ‘국제문화교류(279개; 9.4%)’, ‘정책 추진체계 구축(87개; 2.9%)’, ‘미디어 활용 및 문화산업 육성 사업(60개; 2.0%)’, ‘기타(49개; 1.6%)’,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35개; 1.2%)’ 순으로 정책 사업이 시행됨
 -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전라북도(323개; 10.8%)였으며 서울특별시(299개; 10.0%), 부산광역시(283개; 9.5%), 전라남도(222개; 7.5%), 경상남도(211개; 7.1%), 충청남도(189개; 6.3%), 인천광역시(185개; 6.2%), 강원도(167개; 5.6%), 경상북도(160개; 5.4%), 충청북도(154개; 5.2%), 광주광역시(144개; 4.8%), 대구광역시(128개; 4.3%), 울산광역시(84개; 2.8%), 대전광역시(60개; 2.0%), 제주특별자치도(25개; 0.8%), 세종특별자치시(20개; 0.7%) 순으로 정책 사업이 시행됨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의 예산은 총 5,347억 원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 중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예산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1,851억 원)이며, 인천광역시(570억 원), 경기도(495억 원), 전라북도(439억 원), 경상북도(386억 원), 부산광역시(323억 원), 대구광역시(284억 원), 강원도(188억 원), 충청북도(186억 원), 전라남도(178억 원), 경상남도(121억 원), 충청남도(114억 원), 울산광역시(64억 원), 광주광역시(61억 원), 대전광역시(33억 원), 제주특별자치도(28억 원), 세종특별자치시(20억 원) 순으로 사업예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 대비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예산의 비중은 평균 0.23%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 대비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예산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0.51%)였으며, 인천광역시(0.49%), 전라북도(0.37%), 대구광역시(0.32%), 부산광역시(0.26%), 경상북도(0.22%), 충청북도(0.21%), 강원도(0.17%), 울산광역시(0.14%), 세종특별자치시(0.14%), 전라남도(0.12%), 광주광역시(0.12%), 경기도(0.11%), 충청남도(0.09%), 경상남도(0.07%), 대전광역시(0.07%), 제주특별자치도(0.05%) 순으로 높게 나타남

제2절

5년 간 문화다양성 정책 성과와 한계

1. 중앙부처의 문화다양성 정책성과 종합분석

〈표 3-58〉 2015~2019년 중앙부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수 추이

(단위: 개, %)

연번	정부 부처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감률
1	고용노동부	1	1	1	1	1	0.0
2	교육부	6	7	5	5	5	△4.5
3	국방부	-	-	1	1	1	0.0
4	농림축산식품부	2	1	1	1	1	△15.9
5	법무부	2	2	2	2	2	0.0
6	보건복지부	-	1	1	1	1	0.0
7	방송통신위원회	-	1	1	1	1	0.0
8	여성가족부	2	4	4	4	4	18.9
9	외교부	-	2	2	1	1	△20.6
10	행정안전부	-	3	6	5	5	18.6
소계		13	22	24	23	22	14.1
11	문화체육관광부	121	158	169	228	240	18.7
계		134	180	193	250	262	18.2

주1) 표에 제시된 사업 수는 제출자료 기준

■ 중앙부처의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수를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8.2%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121개의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연평균 18.7%씩 사업수가 증가하여 2019년에는 240개의 사업이 진행됨
-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는 초기 자료제출년도 대비 각각 18.9%, 18.6%씩 증가하였으나 사업 수 자체의 변화는 크지 않음
- 고용노동부, 국방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사업수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부(-4.5%), 농림축산식품부(-15.9%), 외교부(-20.6%)의 경우 연평균 증감률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기초년도 대비 1개의 사업만이 감소함

〈표 3-59〉 2015-2019 중앙부처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예산 추이

(단위: 백만 원, %)

중앙부처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감률	사업예산 추세선
고용노동부	A		595	504	504	504	504	-△4.1	
	B		15,511,037	17,291,982	18,261,428	23,803,271	26,716,303	14.6	
	A/B(%)		0.004	0.003	0.001	0.002	0.002	△16.3	
교육부	A		22,694	17,114	4,133	3,141	9,326	△19.9	
	B		54,899,757	55,745,917	61,631,650	68,232,237	74,916,313	8.1	
	A/B(%)		0.04	0.03	0.01	0.004	0.01	△25.9	
국방부	A		-	-	200	200	200	0.0	
	B		-	-	29,685,757	31,302,937	33,108,386	5.6	
	A/B(%)		-	-	0.001	0.001	0.001	△5.3	
농림축산 식품부	A		2,666	500	500	500	500	△34.2	
	B		14,043,059	14,368,135	14,488,706	14,499,577	14,659,582	1.1	
	A/B(%)		0.02	0.003	0.003	0.003	0.003	△34.9	
법무부	A		413	337	335	333	314	△6.6	
	B		2,929,291	3,090,613	3,298,371	3,629,150	3,880,025	7.3	
	A/B(%)		0.01	0.01	0.01	0.01	0.01	△13.0	
보건복지부	A		-	348	348	558	363	1.4	
	B		-	55,843,619	57,662,773	63,155,430	72,514,773	9.1	
	A/B(%)		-	0.001	0.001	0.001	0.001	△7.0	
방송통신 위원회	A		-	34,650	36,950	36,956	37,156	2.4	
	B		-	55,619	54,528	55,450	62,772	4.1	
	A/B(%)		-	62.30	67.76	66.65	59.19	△1.7	
여성가족부	A		5,619	45,425	61,753	61,178	72,323	89.4	
	B		619,330	611,558	683,263	737,056	1,047,475	14.0	
	A/B(%)		0.91	7.43	9.04	8.30	6.90	66.1	
외교부	A		-	400	793	388	200	△20.6	
	B		-	2,170,708	2,305,599	2,357,621	2,450,032	4.1	
	A/B(%)		-	0.02	0.03	0.02	0.01	△23.8	
행정안전부	A		-	1,657	1,497	1,597	2,198	9.9	
	B		-	36,883,422	41,483,217	48,656,668	55,681,700	14.7	
	A/B(%)		-	0.004	0.004	0.003	0.004	△4.2	
소계	A		31,987	100,935	107,031	105,355	123,084	40.1	
	B		88,002,474	186,061,573	229,555,292	256,429,397	285,037,361	34.2	
	A/B(%)		0.04	0.05	0.05	0.04	0.04	4.4	

중앙부처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감률	사업예산 추세선
		A	B	A/B(%)					
문화체육관광부	A	544,537	527,282	363,968	356,628	403,912	△7.2		
	B	5,684,600	6,225,908	6,486,237	6,059,565	6,824,095	4.7		
	A/B(%)	9.58	8.47	5.61	5.89	5.92	△11.3		
합계	A	576,524	628,217	470,999	461,983	526,996	△2.2		
	B	93,687,074	192,287,481	236,041,529	262,488,962	291,861,456	32.9		
	A/B(%)	0.62	0.33	0.20	0.18	0.18	△26.4		

주1) 표에 제시된 사업예산은 제출자료 기준임

주2) 각 부처 총예산 규모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세출예산을 참고함(본예산 기준/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제외)

주3)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액에는 문화재청 예산액을 포함함

주4) A=문화다양성 사업예산, B=전체예산, A/B=전체예산 대비 문화다양성 사업예산 비율임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부처의 전체예산은 연평균 32.9%씩 증가하였으며 문화 다양성 정책 사업에 대한 예산은 연평균 2.2%씩 감소하여 전체예산대비 정책사업의 비중은 연평균 26.4%씩 감소함

-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외교부의 경우 부처 전체예산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전체예산 대비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예산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의 경우 부처 전체예산과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예산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처 전체예산의 증가폭이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예산의 증가폭보다 크게 나타나 전체예산 대비 사업예산의 비중은 감소함
- 여성가족부의 경우 부처 전체예산과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예산 모두 증가추세이며 사업예산의 증가폭이 전체예산의 증가폭 보다 크게 나타나 전체예산 대비 사업예산 또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그러나 이와 같은 추세는 기초년도의 사업예산과 다음해의 사업예산의 증가폭이 큰 것에 기인하며, 기초년도가 2016년일 때에는 2019년까지 연평균 12.6%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방부의 경우 2017년부터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의 예산에 변동이 없으며 부처전체 예산은 연평균 5.6%씩 증가하였기 때문에 문화다양성 정책 예산의 비중은 감소함
- 2015년과 2016년에는 문화다양성 사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처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연평균 증감률의 기초년도를 2017년으로 할 경우, 전체예산은 연평균 11.2%씩 증가하였으며,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에 대한 예산은 연평균 5.8%씩 증가하여 전체예산대비 정책사업의 비중은 연평균 4.9%씩 감소함

- 중앙부처의 사업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외 타 부처에서는 문화다양성 사업을 인식하는 수준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통합적 시각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은 2015년 한 차례 자료가 제출된 이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제출된 바 없음. 그러나 해당 사업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임. 문화다양성 사업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통일부의 경우 2015년에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으로 8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2016년부터 현재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인식의 변화를 보여줌
 - <탈북민 정착 우수사례 발굴 및 매체 확산 사업>, <탈북민 정착사례집 및 소식지 발간>, <남북하나 서포터즈 운영 및 프로모션 캠페인>, <탈북민 봉사단 운영>, <남북한주민 어울림 한마당 개최> 사업의 경우 통일부 산하의 남북하나재단에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2.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성과 종합분석

〈표 3-60〉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수 추이

(단위: 개, %)

연번	지방자치단체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감률
1	서울특별시	51	166	294	349	299	55.6
2	부산광역시	7	371	447	389	283	152.2
3	대구광역시	42	125	130	117	128	32.1
4	인천광역시	31	140	188	192	185	56.3
5	광주광역시	-	75	71	52	144	24.3
6	대전광역시	9	38	56	64	60	60.7
7	울산광역시	4	111	150	81	84	114.1
8	세종특별자치시	-	15	16	16	20	10.1
9	경기도	50	113	195	365	323	59.4
10	강원도	-	22	34	81	167	96.5
11	충청북도	25	102	156	162	154	57.5
12	충청남도	34	111	99	154	189	53.5
13	전라북도	35	68	60	198	323	74.3
14	전라남도	33	71	165	202	222	61.0
15	경상북도	43	47	71	191	160	38.9
16	경상남도	49	39	153	175	211	44.1
17	제주특별자치도	-	3	11	24	25	102.7
계		413	1,617	2,296	2,812	2,977	63.9

주1) 표에 제시된 사업 수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실제 추진된 사업 수와 상이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수를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연평균 63.9%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전라북도이며 2015년 35개에서 2019년 323개로 약 9.2배(288개) 증가함
- 사업수가 가장 적게 증가한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나타났으며 2016년 15개에서 2019년에는 20개로 약 1.3배(5개)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구수를 비롯한 지역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2015년의 경우,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이를 고려하여 2016년부터 연평균 증감율을 계산할 경우, 연간 약 22.6%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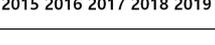
■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수가 조금씩 증가하기보다 한 번에 증가하는 시기가 존재함

- 이는 해당년도에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의 중요성이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부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의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수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함: 서울특별시(51개→166개, 3.3배), 부산광역시(7개→371개, 53.0배), 대구광역시(42→125개, 3.0배), 인천광역시(31개→140개, 4.5배), 대전광역시(9개→38개, 4.2배), 울산광역시(4개→111개, 27.8배), 경기도(50개→113개, 2.3배), 충청북도(25개→102개, 4.1배), 전라북도(35개→68개, 1.9배), 전라남도(33개→71개, 2.2배) 등

〈표 3-61〉 2015-2019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예산 추이

(단위: 백만 원, %)

광역자치단체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감률	사업예산 추세선
서울 특별시	A		133,632	223,268	207,289	206,761	185,176	8.5	
	B		25,798,961	27,534,501	29,961,329	31,985,643	36,427,604	9.0	
	A/B(%)		0.52	0.81	0.69	0.65	0.51	△0.5	
부산 광역시	A		1,484	59,747	61,327	37,283	32,310	116.0	
	B		9,898,773	10,573,186	10,791,669	11,717,637	12,543,135	6.1	
	A/B(%)		0.02	0.57	0.57	0.32	0.26	103.6	
대구 광역시	A		10,293	25,691	20,324	23,442	28,489	29.0	
	B		6,606,912	7,213,154	7,510,293	8,258,854	8,991,962	8.0	
	A/B(%)		0.16	0.36	0.27	0.28	0.32	19.4	
인천 광역시	A		2,131	58,140	40,905	55,817	57,055	127.5	
	B		8,731,780	8,960,220	9,324,193	10,316,113	11,539,820	7.2	
	A/B(%)		0.02	0.65	0.44	0.541	0.49	122.5	
광주 광역시	A		-	6,455	1,240	7,999	6,132	△1.7	
	B		-	4,106,117	4,236,417	4,731,653	5,328,382	9.1	
	A/B(%)		-	0.16	0.03	0.17	0.12	△9.9	
대전 광역시	A		215	5,678	2,557	4,623	3,367	98.9	
	B		3,734,184	4,016,883	4,032,992	4,596,154	5,043,640	7.8	
	A/B(%)		0.01	0.14	0.06	0.10	0.07	84.5	

광역자치단체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감률	사업예산 추세선
울산광역시	A	190	3,429	1,376	2,875	6,429	141.2	
	B	3,377,215	3,723,981	4,199,823	4,361,542	4,457,310	7.2	
	A/B(%)	0.01	0.09	0.03	0.07	0.14	125.0	
세종특별자치시	A	-	1,188	1,326	1,460	1,997	18.9	
	B	-	1,048,828	1,195,710	1,423,055	1,468,578	11.9	
	A/B(%)	-	0.11	0.11	0.10	0.14	6.3	
경기도	A	11,010	35,247	9,661	76,290	49,528	45.6	
	B	33,120,549	36,249,468	38,770,101	43,263,495	46,970,041	9.1	
	A/B(%)	0.03	0.10	0.025	0.18	0.11	33.5	
강원도	A	-	5,889	1,265	23,884	18,873	47.4	
	B	-	9,415,973	9,521,901	10,154,992	11,146,371	5.8	
	A/B(%)	-	0.06	0.01	0.24	0.17	39.4	
충청북도	A	6,013	16,836	18,287	23,334	18,629	32.7	
	B	7,049,243	7,126,733	7,426,389	8,016,426	8,731,174	5.5	
	A/B(%)	0.09	0.23	0.25	0.29	0.21	25.8	
충청남도	A	2,722	5,601	4,540	9,634	11,384	43.0	
	B	9,355,885	10,288,195	10,253,515	11,213,849	12,225,713	6.9	
	A/B(%)	0.03	0.05	0.04	0.09	0.09	33.8	
전라북도	A	10,633	7,677	7,762	41,361	43,949	42.6	
	B	9,200,528	9,478,473	9,784,205	10,738,754	11,891,404	6.6	
	A/B(%)	0.12	0.08	0.08	0.39	0.37	33.7	
전라남도	A	1,918	6,782	9,409	41,346	17,820	74.6	
	B	11,376,347	11,703,885	12,035,928	13,185,409	14,541,430	6.3	
	A/B(%)	0.02	0.06	0.08	0.31	0.12	64.2	
경상북도	A	28,935	5,831	16,764	22,529	38,615	7.5	
	B	14,177,723	15,225,641	15,604,747	16,565,209	17,575,619	5.5	
	A/B(%)	0.20	0.03	0.11	0.14	0.2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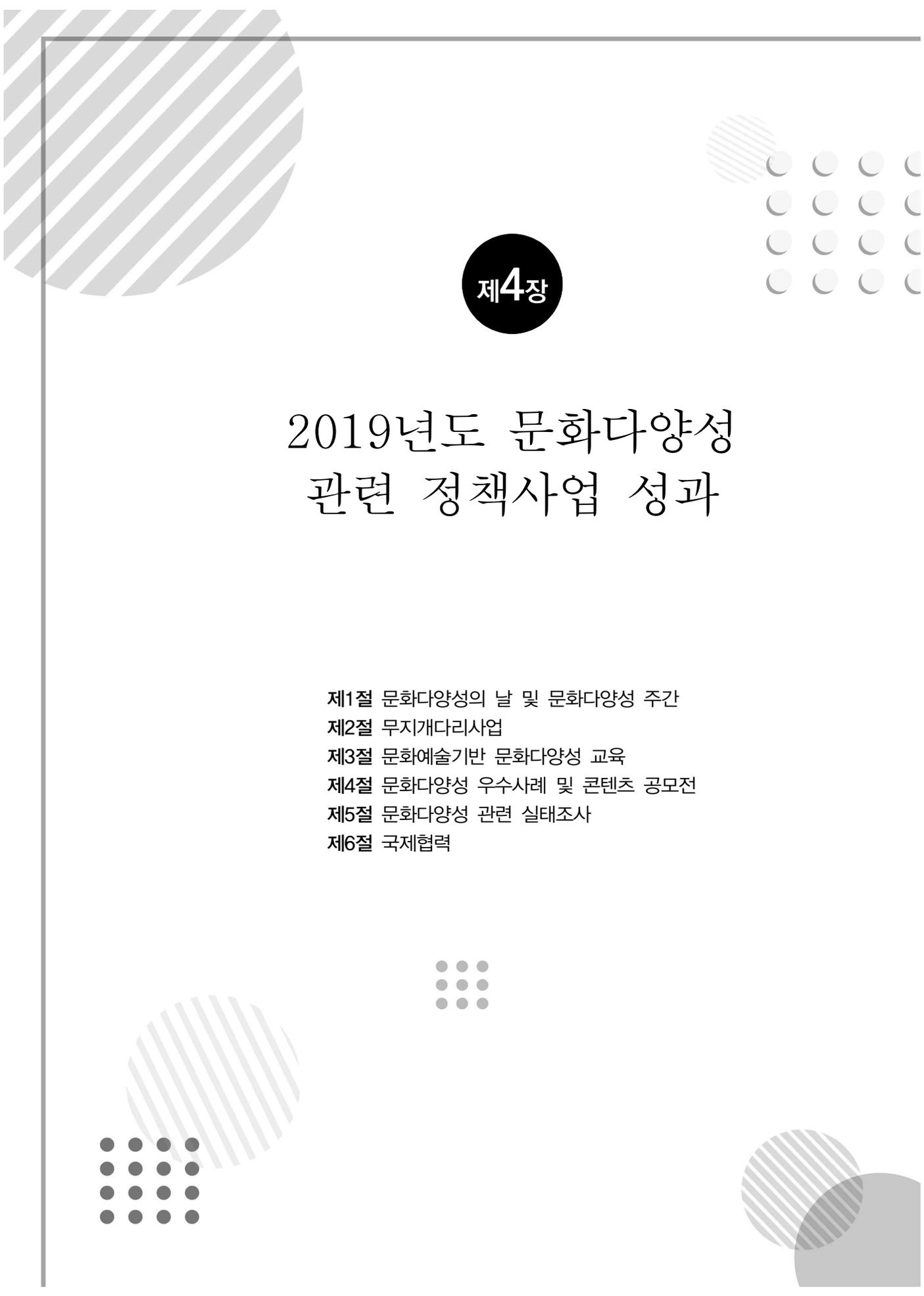
광역자치단체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감률	사업예산 추세선
경상남도	A	3,413	2,121	8,234	13,879	12,195	37.5	
	B	13,493,000	14,026,791	14,218,185	15,365,527	17,016,015	6.0	
	A/B(%)	0.03	0.02	0.06	0.09	0.07	29.7	
제주특별자치도	A	-	2,127	1,215	1,887	2,756	9.0	
	B	-	3,890,499	4,285,850	4,784,074	5,116,992	9.6	
	A/B(%)	-	0.05	0.03	0.04	0.05	△0.5	
합계	A	212,589	471,707	413,479	594,403	534,704	25.9	
	B	155,921,100	184,582,528	193,153,247	210,678,386	231,015,190	10.3	
	A/B(%)	0.14	0.26	0.21	0.28	0.23	14.1	

주1) 표에 제시된 사업예산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음
 주2)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는 예산 순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참고함
 주3) A=문화다양성 사업예산, B=전체예산, A/B=전체예산 대비 문화다양성 사업예산 비율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전체예산은 연평균 10.3%씩 증가하고 있었으며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에 대한 예산은 연평균 25.9%씩 증가하였고 전체예산대비 정책사업의 비중은 연평균 14.1%씩 증가함

- 부산광역시를 비롯하여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경우 부처 전체예산과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예산 모두 증가추세이며 사업예산의 증가폭이 전체예산의 증가폭 보다 크게 나타나 전체예산 대비 사업예산 또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 광주광역시의 경우 문화다양성 사업의 예산은 감소하면서 전체예산은 증가하여 문화다양성 사업예산의 비중은 감소함
-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문화다양성 사업예산과 전체예산 모두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문화다양성 사업예산의 증가비율보다 전체예산의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문화다양성 사업예산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15년의 경우,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고려하여 2016년부터의 증감률을 계산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전체예산은 연평균 7.8%씩 증가하고 있었으며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에 대한 예산은 연평균 4.3%씩 증가하였고 전체예산대비 정책사업의 비중은 연평균 3.2%씩 감소함

-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 사업예산이 크게 변화하는 구간들이 존재함
 -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6년에 75개의 사업을 진행하며 64억 원의 예산을 운용하였으나 2017년에는 71개의 사업을 진행하며 12억 원의 예산만을 사용함
 - 2017년에 예산이 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16년, 33억 원, '18년, 48억 원)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담당자의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이해도에 따라 자료제출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경기도의 경우 2016년에 352억 원의 예산으로 113개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17년에는 예산 96억 원으로 195개 사업을 진행함
 - 2016년 '일상 속 실천 캠페인 <한 가지 약속>' 등의 사업이 25억 원에서 2017년 2,300만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사업대상이 일반시민을 비롯하여 독립출판사 및 문화기관을 포함하고 있던 2016년과 다르게 2017년에는 일반시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 기인함
 - 2016년에 진행되었던 '수원화성문화제(15억)', '대학연계 청년실천 프로젝트(11억 원)', '다른 문화 같은 취미<취미공동체>', '전문인력 역량강화<별별 플레이숍>(12억 원)', '문화예술적 관점의 <상호문화 이해활동>' 등의 사업들이 2017년에는 진행되지 않아 사업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2018년에는 '다문화 인식개선(64억 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61억 원)',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400억 원)' 등의 사업이 추가되어 사업예산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제4장

2019년도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사업 성과

제1절 문화다양성의 날 및 문화다양성 주간

제2절 무지개다리사업

제3절 문화예술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제4절 문화다양성 우수사례 및 콘텐츠 공모전

제5절 문화다양성 관련 실태조사

제6절 국제협력

제1절

문화다양성의 날 및 문화다양성 주간

- 매년 5월 21일은 UN총회에서 지정한 ‘세계문화다양성의 날’이며, 해당일로부터 일주일의 기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지정
 - 우리나라는 2014년 문화다양성법 제정 이후 국민들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일로부터 일주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정해 문화다양성 관련 행사를 진행 중임(문화다양성법 제11조)
 - 문화다양성의 날 및 주간행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차이를 즐기자’라는 주제로 추진되고 있음
 - ‘차이를 즐기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즐기는 과정이 문화다양성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 2019년 문화다양성 주간은 5월 21일(화)부터 27일(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전국 26개 지역의 기관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 서울, 부산, 경남, 전남, 충북, 충남, 인천, 광주, 대전, 부천, 김포, 김해, 익산 등 25개 지역문화재단과 인천영상위원회에서 지역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2019년도 문화다양성의 날 및 기념 주간행사는 전국 26개 지역기관 참여
 - 문화 및 관광재단을 비롯한 문화기관 등 전국 26개의 기관이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소수자·전통 및 세계문화·세대 간 차이·이주민·장애인·독립예술 등을 주제로 포럼·체험·공연·전시·교육 등 56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됨
 - 포럼(12개), 공연(10개), 복합(9개), 축제(8개), 영상상영(8개), 체험(4개), 캠페인(4개), 전시(1개) 등
 - 전국 26개 지역에 11만여 명이 참여하여 우리 사회 속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공존과 존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였음
 - 전국 16개의 광역문화재단 중 8개의 광역문화재단이 참여하였으며 기초문화재단의 경우 전체 92개 중 16개의 기초문화재단이 참여함. 진흥원과 위원회는 각각 1개의 기관이 참여함

〈표 4-1〉 2019년 문화다양성 주간 프로그램

기관		영역	포럼	축제	체험	전시	공연	영상 상영	캠페인	복합		
광역 문화 재단	부산문화재단									○ (축제·캠페인)		
	인천문화재단			○								
	광주문화재단	○	○									
	대전문화재단	○								○ (홍보·캠페인)		
	세종시문화재단	○		○			○	○	○			
	충북문화재단	○								○ (체험·교육)		
	충남문화재단	○					○	○	○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					○		○			
기초 문화 재단	서울	구로문화재단			○		●	○		○ (체험·전시)		
		도봉문화재단								◎ (체험·캠페인) (이벤트·캠페인)		
		성동문화재단		○								
		성북문화재단		◎								
		영등포문화재단	○					○				
		은평문화재단					○	○				
	경기	종로문화재단							○			
		김포문화재단		○	○			○	○			
		부천문화재단		○							○ (체험·공연·전시)	
		강원	영월문화재단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								○ (교육·캠페인)
		충북	충주중원문화재단							○		
			전북	완주문화재단	○					○		
		익산문화재단		○	○							
		경북	영주문화관광재단					○			○ (전시·체험)	
		경남	김해문화재단	○	○							
진흥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위원회	인천영상위원회						○					

* 지역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중 세부 프로그램의 수는 ○ 1개, ◎ 2개, ● 3개 이상을 의미함
 * 각 프로그램의 영역 구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2019.5.16.배포)를 참고
 ※ 지역기관에서 추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내용은 부록을 참고
 자료: 2019 문화다양성 주간백서의 내용을 재정리함

■ 오프라인과 함께 온라인에서도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캠페인 진행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다양성 캠페인으로 ‘네이버 해피빈 캠페인’과 ‘521한가지약속’을 진행함
- 네이버 해피빈 캠페인은 5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문화다양성 개념을 전달하고 다름의 가치를 응원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기부금은 소외이웃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사용됨
 - 5월 21일부터 6월 21일 약 한달 간 155,850회의 조회 수를 기록함
- 521한가지약속은 5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월별 SNS 캠페인과 문화다양성 주간행사에서 진행되는 무지개다리사업 주관기관의 개별 프로그램을 홍보함
 - 521한가지약속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각각 813회와 12,070회의 조회수를 달성함



[그림 4-1] 문화다양성 캠페인

제2절

무지개다리사업

1. 무지개다리사업 주요 내용 및 성과

- 무지개다리사업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2012년 시범 운영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
 - 무지개다리사업은 각계각층 문화 주체들 간의 상호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상호 간의 이해 및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음
 - 각 지역 내의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다문화와 소수문화·세대문화·하위문화·지역문화 등 다양한 문화 및 문화주체들 간의 문화교류를 제공함
 - 각 지역의 공공문화기관을 거점으로 지역 내 이주민 단체와 문화단체 등과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표 4-2〉 무지개다리사업 주요 내용

구분	내 용
개요	지역 내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다문화, 소수문화, 세대문화, 하위문화, 지역문화 등 다양한 문화 및 문화주체들 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공공문화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이주민 단체, 문화단체 등과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화다양성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
사업 목적	1. 국민 제반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 2. 문화 간 교류, 소통을 통한 능동적 문화 주체로서의 문화적 소수자의 역할 확대 3. 지역 내 자생적인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주요 특성	1. 이주민 등 지역사회 문화적 소수자들의 주체적 문화표현 활동 2. 다양한 문화주체들 간 소통 및 교류 활동 3.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체계 구축 4. 사업기획 및 관리, 컨설팅, 네트워크 체계 구축 5. 지역사회와 단체 및 개인 간의 문화다양성 기반 네트워크 구축

자료: 문화다양성아카이브 홈페이지(<http://www.cda.or.kr/rainbow>)

〈표 4-3〉 문화간 상호교류 및 소통활성화(무지개다리사업) 추진 내용

구분	2012년 (시범사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산 (백만 원)	시범사업	2,270	2,470	2,430	2,430	2,309	2,584	2,200
참여기관	6개	12개 광역시 문화재단 (4개), 광역시 문화재단 (5개), 기초문화재단 (3개)	17개 광역시 문화재단 (4개), 광역시 문화재단 (5개), 기초문화재단 (8개)	23개 광역시 문화재단 (6개), 광역시 문화재단 (3개), 기초문화재단 (11개), 기타 (3개)	24개 광역시 문화재단 (5개), 광역시 문화재단 (3개), 기초문화재단 (11개), 기타 (5개)	25개 광역시 문화재단 (6개), 광역시 문화재단 (4개), 기초문화재단 (12개), 기타 (3개)	27개 광역시 문화재단 (4개), 광역시 문화재단 (4개), 기초문화재단 (16개), 기타 (3개)	26개 광역시 문화재단 (4개), 광역시 문화재단(5개), 기초문화재단 (16개), 기타 (1)
프로그램 수	-	138개	124개	183개	233개	242개	258개	224개
참여자 수	-	124,812명	36,369명	108,830명	187,012명	226,321명	249,918명	183,261명
비고	단년도 지원	단년도 지원	단년도 지원	단년도·다년도 지원	다년도 지원	3년 지원	3년 지원	단년 지원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9). 「2019년 무지개다리사업 컨설팅·평가 연구」

■ 2019년 무지개다리사업에는 총 26개 기관이 선정되어 시행

- 총 45개 기관이 지원하였고 최종 26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23개 기관은 2018년도에 참여한 기관이며 3개 기관은 신규 선정기관임

〈표 4-4〉 2019년도 무지개다리사업 주관기관

연번	주관기관명	사업명	연번	주관기관명	사업명
1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따로 또 함께_문화다양촌(村) 경남	14	완주문화재단	다름의 가치
2	광주문화재단	우리누리(URI-N-URI)	15	은평문화재단	은평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뚝뚝"
3	구로문화재단	구로채운_사이의 공동체를 이어내는 문화자주성	16	익산문화재단	문화도 소통하는 다다익산(多多익산)
4	김포문화재단	多幸-다양한 행복	17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	디아스포라영화제
5	김해문화재단	문화공존 김해:다양성을 그리다	18	인천문화재단	천 개의 마을, 천 개의 문화
6	도봉문화재단	다양성 연구소	19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남도 오작교 가장자리를 잇다 II
7	부산문화재단	공감 메이커	20	종로문화재단	종로문화다양성연극제
8	부천문화재단	부천다양성 다다(多多)	21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다양성에 스미다
9	성동문화재단	문화다양성마을-다양성洞	22	충남문화재단	서로, 소리
10	성북문화재단	문화다양성, 동네가 우주다!	23	충북문화재단	오색빛깔 조약돌
11	세종시문화재단	多화만사성	24	대전문화재단*	우리다문화사
12	영월문화재단	영월 문화 다방	25	영등포문화재단*	우정과 확대의 영등포
13	영주문화관광재단	있다, 그리고 있다. 연결하다, 그리고 이미 共存한다.	26	충주중원문화재단*	무지개다리 리어카

자료: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접속일: 2020.4.28.)

*는 2019년도 신규 선정된 기관임

■ 무지개다리사업의 정량적 성과

● 무지개다리사업 주관기관 수

- 무지개다리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27개 주관기관이 참여하였으며, 2019년에는 예산 축소에 의해 26개 주관기관이 참여함

〈표 4-5〉 연도별 주관기관의 변화

년도	광역시문화재단	광역시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기타	합계
2012	1	3	1	1	6
2013	4	5	3	-	12
2014	4	5	8	-	17
2015	6	3	11	3	23
2016	5	3	11	5	24
2017	6	3	13	3	25
2018	4	4	16	3	27
2019	4	5	16	1	26

● 무지개다리사업의 프로그램 수

- 2012년 무지개다리사업의 시범사업 이후 각 주관기관마다 사업을 구성하는 개별 프로그램 수는 7개에서 12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9년 26개 주관기관이 진행한 프로그램 수는 224개로, 2018년에 비해 축소되었지만, 각 주관기관 당 투여 예산의 차이에서 사업이 다소 축소된 측면이 있기 때문임
- 그러나 각 주관기관에서 평균 8.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활동을 구성하고 있음

〈표 4-6〉 무지개다리사업 프로그램 수 연도별 변화

년도	무지개다리 예산 (백만 원)	주관기관(개)	프로그램 수(개)	평균 프로그램 수(개)
2013	2,270	12	138	11.5
2014	2,470	17	124	7.3
2015	2,430	23	183	12.3
2016	2,430	24	233	9.7
2017	2,309	25	242	10.0
2018	2,584	27	258	9.5
2019	2,200	26	224	8.6

● 무지개다리사업의 참여자 수

- 무지개다리사업이 시작된 이후 참여자는 2015년 10만여 명, 2016년에 19만 명, 2017년 23만 명, 2018년 2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9년에는 18만 명이 참여하였고 주관기관 당 평균 7,048명이 참여함

〈표 4-7〉 무지개다리사업 협력단체 수 연도별 변화

(단위: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참여자수	124,812	36,369	108,830	187,012	226,321	249,918	183,261

● 무지개다리사업 협력단체 수

- 2019년 무지개다리사업 주관기관이 협력을 통해 참여를 유도한 기관 및 단체는 1,333개에 이르며 한 기관 당 평균 52개 단체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표 4-8〉 무지개다리사업 협력단체 수 연도별 변화

(단위: 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협력단체 수	-	-	-	-	-	1,522	1,333
평균 협력단체	-	-	-	-	-	57	52

■ 무지개다리사업의 정성적 성과

● 무지개다리사업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 만족도, 재참여 의향 및 주변인들에게 해당 프로그램 추천 의향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는 85.9점으로 나타남
- 만족도의 내용별 점수로는 직접 만족도가 88.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참여 의향 85.8점, 추천의향 83.6점으로 나타남
- 연령 구분별로는 어린이는 직접만족도 92.5점, 청소년/성인 86.1점으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9〉 무지개다리사업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직접만족도	재참여의향	추천의향
어린이	92.5	89.2	81.6
성인/청소년	86.1	83.7	84.8

- 무지개다리사업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지점
 - 청소년/성인만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도움이 되는 지점을 조사함
 - ‘다른 문화의 사람 또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8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의 생활’ 82.7점, ‘관련 정보의 취득’이 82.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0〉 무지개다리사업 프로그램 만족 지점별 점수

(단위: 점)

항목	점수
표현	80.6
자신의 생활	82.7
타문화/사람의 이해	84.1
관련 정보	82.3
의견개선 및 참여	82.2

-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향상
 - 참여자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여건’, ‘인식’ 및 ‘실천’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함
 - 참여자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은 프로그램 참여 전 69.6점에서 이후 76.6점으로 10.1% 증가됨
 - 구체적으로 여건은 65.0점에서 69.0점으로 6.2% 증가하였고 인식은 69.0점에서 80.7점으로 16.9% 증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실천은 70.7점에서 79.3점으로 12.1% 증가함
 - 참여자 구분별로는 어린이의 경우 사전 66.2점이었던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이 사후 86.4점으로 30.5% 크게 향상되었으며, 청소년/성인의 경우 70.5점에서 74.8점으로 6.1%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설문 지표별로는 어린이의 경우 특히 “인식”이 34.0%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성인의 경우 “실천”과 관련하여 6.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표 4-11〉 각 구분별 문화다양성 관련 인식 변화

(단위: 점)

설문 지표	어린이			청소년/성인		
	사전	사후	변화율(%)	사전	사후	변화율(%)
문화다양성 인식 변화	66.2	86.4	△30.5%	70.5	74.8	△6.1%
여건	-	-	-	65.0	69.0	△6.2%
인식	64.7	86.7	△34.0%	72.8	77.2	△6.0%
실천	70.2	85.6	△21.9%	71.2	75.6	△6.2%

2. 무지개다리사업 우수 사례

1) 문화다양성 기반 형성 영역

■ 주제 기반 프로그램 사례

- 주제 기반 프로그램은 사업의 초기에 강조되는 내용으로 주로 라운드테이블 및 정책 포럼을 통해 문화다양성 정체성의 담론 확산이나 문화다양성 정책 법제화의 필요성 공론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무지개다리사업을 하는 주관기관 내 비전, 전략과제, 경영평가 지표 등에 문화다양성 관점을 도입하거나 지역 현장 의제 발굴과 제안을 설계하고 그 결과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의미함
- 구로문화재단은 동포사회에 대한 관심자 확산과 교류협력을 위해 다(多)가치 포럼을 진행함
 - 서울시 구로구는 중국 동포의 거주가 많은 지역으로 우리사회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과 이질적인 부분이 동시에 작동하는 지역임

〈표 4-12〉 주제 기반 프로그램 사례: 구로문화재단

사업명: 다(多)가치 포럼	
계획	- 지속적인 조사·연구 및 포럼 등을 통한 동포사회 자주적 문화그룹 양성 및 관심자 확산 - 동포사회의 의제를 동포 스스로 발굴하고, 당사자 간 교류 협력 강화 계기 마련
진행	- 동포사회 지역이슈 발굴 및 관련 이슈의 관심자 확산을 위해 포럼 진행 - 다(多)가치 포럼 운영 주제 선정 및 동포사회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 진행
결과	- 동포사회, 동포사회를 바라보는 한국사회 문제점 살피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하여, 향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논의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다가치포럼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 확보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 협의 중 - 관내 공공기관과 동포들이 많이 찾는 포럼으로 자리매김하여 관심자 증가 - 동포의 이야기를 동포 스스로가 하게 하는 인식 확산, 이를 지지하는 여러 주변 기관들의 협력으로 자연스러운 매개자 양성 및 자주성 강화

■ 협력 기반 프로그램 사례

- 협력 기반 프로그램은 주관기관과 세부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강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의미함
 - 무지개다리사업에 참여할 워킹그룹의 구성이나 협력 단체가 사업의 주체로 성장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과 워크숍, 초기 붙업 활동 등이 이에 해당됨
 - 무지개다리사업이 단일 프로그램 공모가 아닌, 여러 사업 균을 지역에 맞게 설계하여 지원받는 형태로 운영된다는 의미에서 협력단체의 존재가 중요함

- 김해문화재단과 세종시문화재단은 시내 교통버스를 이용하여 문화다양성 인식확산을 위한 콘텐츠를 확산하고 있음
 - 세종시는 지역의 도시교통공사와, 김해시는 시내운수조합과의 MOU를 추진하고, 종사자 교육, 시내버스 내 광고물 게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김해문화재단은 교육적 활동으로, 세종시문화재단은 문화교류 사업으로 분류하였음

<표 4-13> 협력 기반 프로그램 사례: 김해문화재단

사업명: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공감 스케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 지역 서비스직 직원들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및 친절에 대한 교육 실시 - 향후 고유 업무영역에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되기를 기대 - 본 프로그램 진행 결과 통해 추후 다른 영역에서 문화다양성 교육 진행의 교두보 마련하고자 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부족으로 대중교통(버스) 종사자만 대상으로 사업 축소 진행 - 김해시 대중교통과의 협력 사업으로 '문화다양성'을 가치로 두는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실제로 발생한 민원 사례 바탕으로 한 사례극 형식 교육 프로그램 구성, 이를 통해 사례의 재발 방지와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실시 - 다소 유머러스, 코믹한 구성, 참여자의 직접 참여 역할극 형식 통해 다소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 - 교육 참여자 수가 많고 업무 특성상 전 직원이 같은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없어 이들에 나눠 교육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전 직원 대상 이들에 걸쳐 문화다양성 교육 진행 - 시와 협력하여 문화다양성 교육 대상 영역 확대 - 문화다양성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민원 등을 사례극으로 재해석, 교육 참여자와의 공감대 형성해 참여자 흥미 유발, 이해도 향상

<표 4-14> 협력 기반 프로그램 사례: 세종시문화재단

사업명: 공공예술프로젝트 '多화만사성 BUS'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세종도시교통공사 BRT 900번 버스 2대 시작으로 BRT 990 및 300번 총 4대 선정하여 진행 -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 관련 기획자문을 전문가 2명에게 받고, 버스 내·외부 홍보물 부착 위치 및 크기 관련 협의 진행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제작, 디자인 및 홍보, 전시 등 진행 - 버스 내·외부 사용 및 공공예술프로젝트 협력과 관련, 도시교통공사와 업무협약 체결하여 프로젝트 버스 오픈식 진행 - SNS에 버스 관람 인증샷과 함께 '多화만사성BUS'를 해시태그하면 추첨 통해 상품 증정 등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징적 교통수단인 BRT 버스 활용, 시민 참여형 공공예술 프로젝트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 지역특화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으로 차별화 - 지역주민과 문화다양성 매개기관, 세종도시교통공사와의 프로젝트 협업 통해 지역 내 문화다양성 협력네트워크 확대

■ 인력 기반 프로그램 사례

- 인력 기반 프로그램은 문화다양성 활동을 확장할 인력을 양성하고 문화다양성 교육 활동의 매개자 혹은 도시재생이나 문화도시 등의 활동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을 포함함
 - 인력 기반 프로그램은 교육 혹은 강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대상에 맞는 비정형, 무정형의 접근방식을 활성화하여 프로그램화하는 영역을 포함함
 - 인력 기반 프로그램에서는 문화다양성을 확장하는 매개인력의 양성,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해 다문화감수성을 지닌 시민(주민) 지원 등 어떤 경우에도 계몽의 대상이 아닌 문화주체를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사유가 요구됨
- 부산문화재단은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이에 참여할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을 진행함
 - 미디어 감시활동, 사회적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활동 등을 진행함

〈표 4-15〉 인력 기반 프로그램 사례: 부산문화재단

사업명: 문화다양성 리터러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지역 내 대표적 문화행사 및 언론 미디어를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읽고 점검, 시민 사회단체의 모니터링 역량 강화와 리터러시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독려하고자 함 - 모니터링 통해 부산 지역 언론·미디어 문화다양성 관점 실태 발표하여 시민들이 문제의식 공유하고 언론사들이 보도와 콘텐츠 제작에 반영하도록 유도 - 부산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문화다양성 활동가 및 시민 참여 모니터링 비평 그룹단 구성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리터러시 추진 위해 모니터 대상(매체) 및 의제 선정, 모니터링 그룹 구성 및 학습, 결과 도출 및 콘텐츠 제작, 문화다양성 리터러시 대중강좌 실시 - 각 의제는 젠더, 장애, 이주민으로 3개의 의제로 지역 언론 프로그램, 미디어, 문화행사 등을 모니터링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학습단 내용 결과 정리 및 보고서 발간 - 〈부산지역 언론은 정신장애를 어떻게 보도했나〉 집담회 개최 - 젠더 및 이주민 모니터링 결과 집담회 개최 - 향후 보고서 및 집담회에 도출된 내용으로 언론 기사 제작 및 미디어 제작에 문화다양성 관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

2) 문화다양성 가치 발굴 영역

■ 소수문화 중점 프로그램

- 소수문화 중점 프로그램은 소수 문화 주체를 발굴하여 소수집단의 자유로운 표현을 지지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소수 문화에 대한 편견 극복을 위해 다수자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확산하는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음
 - 소수자 스스로 자기 표현의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때 활성화되는 영역임
- 광주문화재단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의제인 난민이라는 소수자를 문화의 주체로 이해하고 난민영화제를 개최함
 - 난민영화제는 전쟁과 기아가 여전히 만연한 세계를 읽는 잣대로서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함께 사는 가치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임

〈표 4-16〉 소수문화 중점 프로그램 사례: 광주문화재단

사업명: 광주 난민영화제	
계획	- 이주민 내에서도 소외받는 난민의 현황을 알리는 프로그램 - 지역에서 난민의 존재 여부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난민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이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림
진행	- 난민 시각 촬영한 영화 선정 - 지역 내 거주하는 난민 초청하여 난민 관련 이야기 직접 전할 토크쇼 기획 - 성공적 영화제 추진 위해 지역 영화인들과 주기적인 간담회 진행
결과	- 지역 내 난민 직접 참여한 영화제로 평가 - 국내 미상영한 중동영화 4편 상영 - 리플릿 제작 시 영어와 아랍어 동시 제작으로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 - 국내 주요 포털 지역 카테고리에 메인으로 등재(교육청, 다문화센터 등)

■ 문화교류 중점 프로그램 사례

- 문화교류 중점 프로그램은 주로 문화감수성 증진 및 소통 프로그램, 일상, 마을, 골목 샵터에서의 일상 속 문화다양성을 실천하고 확산하는 프로그램 영역임
 - 다수자·소수자 간의 문화교류 및 협력을 증대하고 소통과 교류의 장을 구축하는 프로그램, 커뮤니티아트 등 새로운 예술을 매개로 관계를 재구성하는 문화 활동으로 구성됨
- 성북문화재단은 음식과 문화다양성을 해석하는 사업을 다양한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음

〈표 4-17〉 문화교류 중점 프로그램 사례: 성북문화재단

사업명: 상호문화 청년 교류 콘텐츠 확대와 네트워크 ‘문화다양성 식문화 포럼 SEOUL FOOD’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 서울이 품은 다양한 모습을 일상과 밀접한 음식이라는 소재 통해 재조망 - 민족, 인종, 세대 등이 가진 다양한 모습들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 주고, 그 영향이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지 식문화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체를 발굴 - 도시 농촌 간의 교류를 도모하여 차세대 식문화 만드는 혁신활동가 초대, 그들의 활동 공유하며 네트워킹 진행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크세션1, 2: 아시아 3국(한국, 중국, 일본) 중심 국제적 식문화 차이와 교류에 대한 연구자, 작가 초대해 토론, 서로 다른 세대의 두 주체가 식문화를 주제로 시각의 차이를 공유함과 동시에 공통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 토론 - 워크숍: 다양한 지역 출신의 이주민의 문화 공유하며 초국적 음식 레시피 개발 - 포럼: 식문화 중심 도시와 농촌 잇는 혁신활동가들의 발표, 토론, 네트워킹 진행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신지, 세대, 활동 지역 등 불가항력적 배경으로 문화를 구분 짓는 기존 문화 관념에서 벗어나, 동시대 통합된 개인의 문화로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의 배양과 확산 - 도시 농촌 간 교류 도모하여 차세대 식문화 만드는 혁신활동가 발굴과 네트워킹 확대, 지속

3)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영역

■ 공유 중점 프로그램

- 공유 중점 프로그램은 문화다양성 축제 및 행사로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 이슈를 문화 다양성 시각으로 해석하여 확장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문화다양성 시각을 통해 스스로 살고 있는 지역을 새롭게 해석하는 접근이나,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직·간접적 활동이 요구되며, 활동의 다양화가 필요한 영역임
- 인천영상위원회는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7회째 개최하고 있음
 - 전통적 의미의 디아스포라에서 현대적 디아스포라까지, 디아스포라는 정체성의 혼란, 관계성의 상실, 문화적 충돌 등의 현대사회의 모순을 안고 있음.
 - 인천영상위원회의 사업은 기존의 문화재단에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과 다르게, 인천영상위원회만의 영화제를 통한 시민(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 영화제 전과 후에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매개로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표 4-18〉 공유 중점 프로그램 사례: 인천영상위원회

사업명: 사이를 잇는 제7회 디아스포라영화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이주, 다양한 형태의 움직임 통해 새로운 문화 만들어내고 있는 디아스포라의 삶, 세계를 영화로 소개하고 소외받는 이들과 함께 차별과 편견을 넘어 다양성과 관용의 가치를 나누고자 함 - 영화뿐 아니라 주제와 연계된 전시, 미디어 교육, 대담, 포럼 등 다채로운 부대 프로그램 통해 이주민에게 지역과 사회 내 주제적 표현·발언할 기회 제공, 선주민에게는 이주민과 함께 교류하는 자리 제공 - 이주민, 선주민, 어린이, 청소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고 즐기며 대화하는 축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영프로그램: 개·폐막, 특별작 포함 총 66편 / 89회 상영 및 사이트크 16회 / 30개국 - 아카데미 프로그램: 주제 연계 강연, 대담, 토크, 포럼 등 총 7회 진행 - 부대 프로그램: 전시 프로그램 2개, 야외 체험 프로그램 등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아스포라’ 주제로 한 아시아 유일 영화제, 인천을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매김, 지자체의 적극적 지지와 단체의 협업 제안, 중앙 매체 및 영화 전문 매체의 관심도 집중 등 - 역대 최고 프로그램·역대 최고 관람객 방문 등, 영화제의 전문성 강화하는 6개의 아카데미 프로그램과 기획전시, 단순 수치로서의 증가뿐 아닌 전반을 아우르는 탄탄한 프로그래밍에 대한 스태프와 관객의 만족도 확인 - 영화관 없는 영화제, 부족함을 참신함으로 꺾은 관람 환경, 극장이 없는 핸디캡 보완 위해 끊임없이 관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얻어낸 참신함에 긍정적인 평가 이어짐 - 지역사회 선주민·이주민 교류의 장 마련과 대중과의 점점 확장한 교류 프로그램 운영 - 하반기 프로그램 신설 및 강화로 인한 연속성 확보, 행사성 사업의 한계 넘어 연속성을 가진 사업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함

■ 콘텐츠 중점 프로그램 사례

- 콘텐츠 중점 프로그램은 홍보와 아카이브를 동시에 충족하는 매체 제작이나 배포, 대중적 재생산, 확산 등의 프로그램을 의미함
 - 주로 영상, 문학, 방송(팟캐스트), 웹툰 등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지역의 전통문화를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해석하고 세대 간 공감의 폭을 확장함
- 완주문화재단의 문화다양성 카툰 카드 역시 문화다양성 콘텐츠 개발과 확산을 위한 활동 중의 하나임. 많은 주관기관에서 책자, 포스터, 동영상, 현수막 등 사업관련 혹은 사업결과물을 만들고 있는데, 문화다양성 관점은 참여자(예술인)의 구성뿐 아니라, 제작에서 콘텐츠 창작 및 확산 등 모든 과정에 적용되어야 함

〈표 4-19〉 콘텐츠 중점 프로그램 사례: 완주문화재단

사업명: 영주FM과 함께하는 문화다양성 마이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확산 위한 문화예술콘텐츠(카툰카드) 제작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 - 2019 문화다양성 카툰 카드의 주제로 장애인, 다양한 문화 취향과 비주류 예술 종류, 노숙인,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 이주민 등등 총 20개 작품 - 소수자들의 긍정적 표현 중심으로 그림 작업 - 활용 프로그램 진행 시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확산되거나 정형화되는 부정적 가능성 인지 필요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툰 카드 주제 세부 내용 자문(1회) 기반 그림 작업 진행(최은우 작가) - 카툰 그림 자문(2회) 기반 그림 수정 진행 - 카툰 카드 기반 카드놀이 제작(총 30종) - 카드놀이 자문(3회)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을 주민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활용자료 확보 - 향후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위한 교육자료 제작 - 무지개다리사업 홍보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 자료 확보

제3절

문화예술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1. 유치원 및 초등 교원 대상 문화다양성교육

■ 사업목적

- 유·초등 교육 현장 내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인식을 확산하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함
- 유·초등학생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현장에서의 맞춤형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지원함

■ 사업내용

- 온·오프라인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의 개념과 문화다양성, 문화적 기본권과 민주주의, 상호 문화교육 등 관련 개념과 핵심적 가치에 대한 이론 교육을 진행함
- 유·초등 정규 교과과정에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접목할 수 있도록 교안 개발 방법과 다양한 교수학습법에 대한 강의 및 실습을 지원함

■ 사업성과

-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원 507명이 참가하여 전원이 수료함
 - 유치원 교원 53명과 초등학교 교원 454명이 수료함



[그림 4-2] 문화다양성 교육 교원 연수

2. 문화다양성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 사업목적

-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문화다양성 인프라 구축을 도모함
- 다양한 지역별·직무 분야별 인력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통해 사회 각층에 문화다양성 인식확산을 도모함

■ 추진방향

- 사회 전반에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한 매개인력 양성을 지원함
-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교육’ 과 ‘전문인력 양성 심화 교육’ 전개로 국민들의 문화다양성에 관한 인식수준 제고 및 공존·조화의 가치를 함양함
- 무지개다리사업 주관기관 및 연구학교 등 문화다양성 사업 담당자와 관계자의 교육 참여기회 확대로 사업 간 연계성·전문성 강화를 기대함

■ 사업내용

- 전국 권역별·주제별·교육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 수요 파악
- 권역별 현장밀착형 집합연수(반일 과정, 1박 2일 과정) 운영

■ 세부 추진 내용

-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 및 커리큘럼 개발
-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연수 및 인적 자원 확보
- 문화다양성 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수요 파악 및 심의



[그림 4-3]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프로그램

3.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 학교를 중심으로 문화다양성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 문화다양성 연구학교는 학교 내 문화다양성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임
 - 문화다양성 연구학교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포용적·창의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세대·지역·성별·장애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개인별·집단별 문화적 특성과 차이점을 배우고 존중하는 자세를 누리과정 및 초등교육과정과 연계해 가르침
 - 연구학교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공모로 선정되며, 연구학교로 선정될 경우, 2년간 국고와 함께 연구학교 자문단의 상담, 문화다양성 교수 직무 연수, 찾아가는 연수 등의 지원을 받음
- 2016년~2017년(1기)에는 문화다양성 연구학교로 군자초등학교병설유치원(서울), 덕천유치원(부산), 성서초등학교(대구), 합성초등학교(경남)의 4개 학교가 지정되어 완료하였음
- 2018년~2019년(2기)에는 금왕유치원(충북), 현곡초등학교(부산), 능원초등학교(경기), 광주교대부설초등학교(광주)가 문화다양성 연구학교로 선정됨

〈표 4-20〉 2기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현황

연구학교	연구과제
충북 음성 금왕유치원	다름-이해-나눔-소통의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유아의 감수성 신장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학생 삶 플러스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더불어 행복한 감성 키우기
경기 용인 능원초등학교	세방화(글로벌)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공동체 역량 신장
부산 현곡초등학교	문화공감 프로젝트를 통한 문화다양성 역량 함양

■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사례

〈표 4-21〉 충북 음성 금왕유치원 연구학교 사례

연구학교: 충북 음성 금왕유치원

연구과제

- 다름-이해-나눔-소통의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유아의 감수성 신장

추진방향

- 교육공동체(학교, 가족, 지역)가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
- 문화다양성 주제 반영 누리과정 재구성

활동사례

□ 놀이 속 문화다양성

- 다양한 피부색 미술자료·다양한 직업군 피규어 등을 활용한 영역별 자유놀이를 통해 인종·직업·성역할 등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름에 대해 생각하기



다양한 피부색 미술자료



다양한 피부색·직업군 피규어



영역별 자유놀이

□ 어울림 활동

- 통합학급과 특수학급 유아들의 주 1회 공동활동(역통합교육)을 통해 일반유아와 장애유아가 협동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어울림 활동 구상
-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배려와 존중하는 태도 내면화



봄꽃을 표현해요



친구와 함께 배달을 해요



친구와 훌라후프 놀이해요

제4절

문화다양성 우수사례 및 콘텐츠 공모전

1. 문화다양성 증진과 가치 확산 문화콘텐츠 공모전 개요

- 문화다양성 증진과 가치확산을 위한 콘텐츠 공모전은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지역 문화자원을 새롭게 발굴하기 위하여 진행된 사업임
 - 해당 공모전은 문화콘텐츠를 통해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다양한 문화와 삶의 방식에 대한 국민 수용도 제고를 목표로 함
 - 새로운 문화다양성 콘텐츠 발굴 및 다양한 문화 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사회통합 지원을 도모함

- 영상, 웹툰, 음악 등 제작 및 배포가 가능한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모집함
 - 국내외 전통적·역사적·상징적 문화 소재를 활용하여 문화 간 상호이해, 편견 해소 등의 가치를 담은 이야기를 전개하는 콘텐츠를 모집함
 - 인종, 성별, 나이, 직업, 계층, 언어, 거주환경, 소속집단, 지향하는 가치 등의 차이로 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여 서로의 문화 기본권을 존중하고 소통을 통한 화합과 편견해소 등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으로 2점(영상 ‘청춘 크리에이터’, 웹툰 ‘튀기’), 위원장상으로 6점(영상 2점, 웹툰 2점, 음악 2점) 총 8점을 선정함



[그림 4-4]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및 수상자 간담회

2. 문화다양성 우수사례 공모전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다양성 증진과 가치 확산을 위해 ‘문화다양성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0년 1월 14일부터 2월 9일까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문화다양성 증진과 가치 확산 프로그램 등의 활동사례를 공모함
 - 전국 총 67개의 문화예술기관을 비롯하여 예술단체, 문화예술 종사자, 예술가 등이 참여함
 - 공모 사업 유형은 ‘가치확산형’, ‘기반구축형’, ‘가치발굴형’ 등으로 구성됨
- 해당 공모전은 지역 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문화적 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 간 소통과 이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임
 - 인종, 성별, 나이, 계층, 언어, 지역, 지향하는 가치 등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 소통의 사례를 발굴하고자 함

■ 총 67건의 문화다양성 사례 중에서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8건이 선정됨

- 대상으로는 김해문화재단의 ‘(가치확산형) 문화다양성 서포터즈 [말모이]’가 선정됨
 - 무의식적으로 문화다양성을 해치는 혐오단어 등을 발굴하고 시민 스스로가 차별 행위를 검열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함
- 최우수상으로는 현곡초등학교의 ‘(기반구축형) 달달한 마주대화 문화다양성 프로젝트’와 미디토리협동조합의 ‘(가치발굴형) 팽명도 감독의 깐깐한 부산 리뷰 - 명도가 간다’이 선정됨
 - 현곡초등학교는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소식 및 수업 결과물을 전시하여 학생들에게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문화다양성 학교 홈페이지 및 지역 네트워크를 운영함
 - 미디토리협동조합은 부산 내의 관광지를 소개함으로 장애인의 이동성을 증진시켰고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높은 파급력을 보임

〈표 4-22〉 문화다양성 우수사례 공모전: 김해문화재단

기관: 김해문화재단	
사업명	문화다양성 서포터즈 [말모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을 해치는 일상 속 혐오단어 발굴·모음집 「말모이」 제작 및 배포함 - 캠페인 관련 기사 배포 및 온라인 홍보를 통한 '문화공존 김해' 인식을 제고함
	

〈표 4-23〉 문화다양성 우수사례 공모전: 현곡초등학교

기관: 현곡초등학교	
사업명	문화다양성 교육 달달한 마주대화 프로젝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달한 마주대화(교사연수), 인생기록단(학부모동아리), 다모임·공감마당(학생), 시민학교(지역문화재단 연계)를 통한 문화다양성 교육으로 인식 제고 가치 확산 활동을 전개함
	

〈표 4-24〉 문화다양성 우수사례 공모전: 미디토리협동조합

기관: 미디토리협동조합	
사업명	팽명도 감독의 간간한 부산 리뷰 '명도가 간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브채널 '명도가 간다'는 비장애인의 장애인 이해 프로그램 「휠체어타고 부산 여행」을 통해 부산시 관광지 소개 및 장애인 이동성 증진에 기여하며 사회통합 도모함
	

제5절

문화다양성 관련 실태조사

1. 문화다양성 지자체 실태조사*

1)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 고양시정연구원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고양시의 인식 제고 및 원활한 정책 수립을 위해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실시

- 고양시는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위해 유입된 새로운 문화와 기존의 문화 간의 갈등 충돌을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함

■ 조사방법

- 고양시는 문화다양성 지표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구축함
- 문화다양성 실태파악을 위해 ①고양시 문화다양성 정책 진단, ②‘소수자’에서 ‘소수성’으로 확대된 문화다양성 개념 반영, ③시민인식 분석, ④과제별 실천로드맵 등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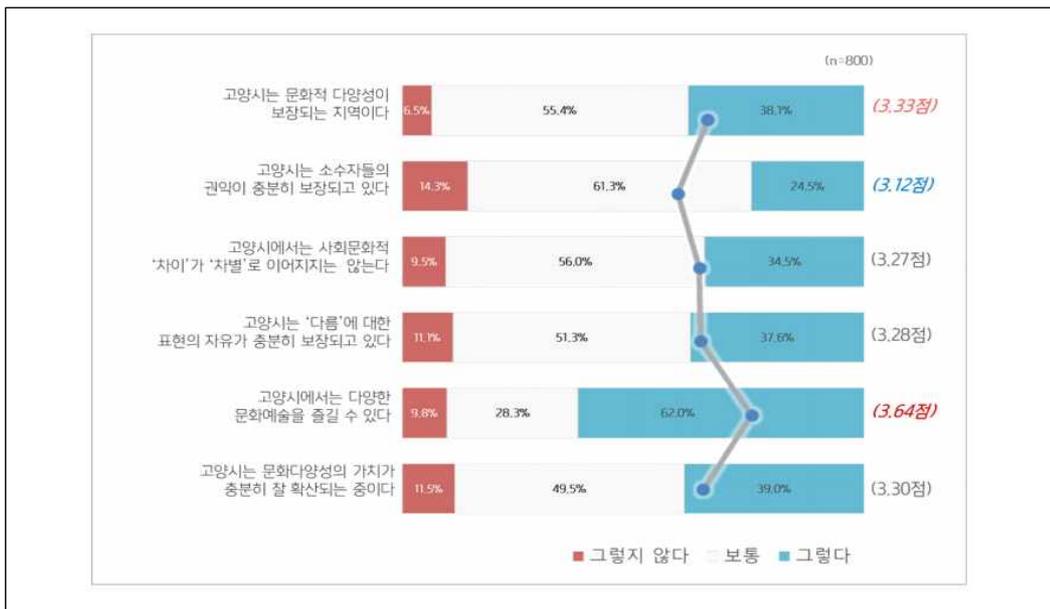
〈표 4-25〉 2019 고양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분류체계

구분	내용
1.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 인지여부 •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필요성 • 고양시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
2. 고양시 내의 차별과 소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자로서 차별 경험 • 각 구성원들에 대한 거리감 • 소수자 인식 여부 • 사회적 현상 발현 정도 • 사회적 현상에 대한 고양시의 대책 충분성
3. 문화예술적 참여와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활동 참여 정도 • 참여 중인 문화예술 활동과 방식 • 문화예술 활동 향유의 걸림돌 • 문화예술 활동 참여 및 표현에 대한 고양시의 지원 • 문화적 현상 발현 정도 • 문화적 현상에 대한 고양시의 대책 충분성
4. 사회 문화적 현상에 대한 수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수용 정도

* 중앙부처(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2017년 한 차례 진행된 후, 2020년 진행 중임

■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분석 결과

- 지원정책 분석 결과
 - 고양시 내에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는 없으나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는 정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 기반여건 분석 결과
 - 고양시의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은 다양한 부서 및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각 부서 및 기관 간에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산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시민인식 분석 결과
 -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통근 혹은 통학하고 있는 19세 이상 일반 국민을 800명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인식 조사를 진행함
 - 고양시민들은 문화다양성에 대해 인지(84.0%)하고 있으나 그 의미에 대해 잘 모르거나 (45.1%) 약간 알고 있는 정도(32.0%)로 나타남
 - 고양시민들의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와 지역 내 문화다양성의 필요성 정도에 대해 설문한 결과, 5점 환산 점수 기준으로 각각 4.01점, 3.72점으로 나타나,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대해 높은 비율로 동의하나 일상생활에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음



[그림 4-5] 고양시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2) 김해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 김해시는 김해의 문화다양성 지표를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화다양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진행

- 김해는 2018년 기준 2.5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 중이며 다른 도시에 비해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 높은 외국인 주민의 비율로 인해 문화다양성이 사회적 담론으로 대두됨
- 문화도시 선정에 있어 다양한 문화공동체가 김해 내에 자리 잡아야 하며 현황 파악을 위해 문화다양성 실태조사가 필요함

■ 조사 방법

- 중앙부처 및 광역단체가 진행해 온 국내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분류체계 및 조사범위를 정립함
- 김해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15세~79세 주민 총 420명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인식 조사를 진행함

〈표 4-26〉 2019 김해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분류체계

조사영역	세부 영역
문화다양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	우리나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김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소수집단에 대한 경험 및 인식	김해시민이 인식하는 김해지역 내 소수집단
	소수집단 접촉 경험
	소수집단 활동 경험
	소수집단 수용 의향
사회갈등 현상에 대한 인식	사회갈등 현상 종합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인식
	인종 갈등에 대한 인식
	지역 갈등에 대한 인식
	지방 차별에 대한 인식
	종교 갈등에 대한 인식
	1인 가구 차별에 대한 인식
사회갈등 현상 개선 필요도	

■ 김해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분석 결과

- 문화다양성 인식
 - 전국 및 부산에 비해 문화적 차별이 적고 문화다양성이 긍정적인 편이라 인식하고 있음
- 소수집단 인지 및 접촉
 -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성소수자 등은 차별받는 소수집단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난민·이주동포 등에 대해서는 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남
 - 소수집단 접촉 경험은 장애인(41%)가 가장 높았으며 외국인 근로자(18%)가 그 뒤를 이었음
- 소수집단 수용도
 - ‘동네이웃’으로서의 수용도는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가족’으로서의 수용도는 다른 도시보다 낮거나 비슷함
-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 김해시민들은 가장 큰 사회갈등은 ‘지방 차별(66%)’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세대 간 갈등(49%)’과 ‘이주민에 의한 갈등(45%)’ 순으로 나타남

2. 2019년 미디어다양성 조사

1) 조사개요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2016년부터 매년 미디어 다양성 조사를 실시함

- 콘텐츠는 유통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에게 전달되며 플랫폼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함
- 국내 방송의 다양성 정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향후 미디어 다양성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함

■ 방송채널 구성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조사함

- IPTV, 케이블TV, 위성 방송의 디지털 상품과 지상파·종편·민간기업 채널에서 방영된 드라마 및 뉴스를 대상으로 분석이 진행됨
- 유료방송·채널 영역에서는 상품과 소유주체, 주제, 채널배치의 다양성을 분석함
 - (상품/채널구성) '19년 10월 기준의 사업자 채널 상품구성표 및 서비스 이용약관
 - (소유주체) '18년 12월 기준의 PP사업자 복수채널 운영현황
-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주체(제작사), 형식(포맷/장르), 내용 등의 다양성을 분석함
 - (프로그램 리스트) 2019년 1월~9월 기준의 채널별 편성표

〈표 4-27〉 2019 미디어다양성 조사 항목

구분		내용	
유료방송채널	상품	상품의 종류(개수)	
	소유주체	상품별 소유주체에 따른 채널 비율(개수)	
	주제	상품별 주제에 따른 채널 비율(개수)	
	채널배치	번호대별 소유주체/주제에 따른 채널 비율(개수)	
프로그램	주체	제작사	주요 채널별 제작주체에 따른 프로그램(드라마) 비율(개수)
	형식	포맷/장르	채널별 편성된 포맷/장르 비율(개수)
	내용	드라마	(등장인물)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현실 반영(재현) 정도
		뉴스	(정보원)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현실 반영(재현) 정도
		탐사보도	(정보원)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현실 반영(재현) 정도
예능		(등장인물)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현실 반영(재현) 정도	

■ 시청자 인식조사

- 2019년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드라마 및 뉴스의 등장인물(혹은 정보원)의 다양성 인식을 조사함
 - 5점에 가까울수록 현실과 달리 과소재현 되고 있는 것이며, 1점에 가까울수록 그렇지 않다고 인식

2) 조사결과

■ 유료방송·채널 영역 조사결과

- 소유주체에 있어서는 전체 채널 개수 중 사업자별 채널 개수 및 시청률의 경우 집중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남. 상품별 소유주체에 따른 채널 비율(개수)의 경우 하위 티어가 상위 티어에 비해 높은 집중도를 보임
- 주제에 있어서는 전체 채널 개수 중 주제별 채널개수 비율은 집중도가 낮았으나 시청률에 있어서는 높은 집중도를 보임. 상품별 주제에 따른 채널 비율(개수)의 경우 전체적으로 집중도가 높지 않음
- 채널 배치의 경우, 주제에 따른 집중도가 상위대역은 낮지 않았으나 하위대역은 높다고 할 수 없음. 소유주체에 따른 집중도는 전체적으로 낮은 집중도를 보임

■ 프로그램 영역 조사결과

- 공급 측면의 경우, 제작사별 개수 기준으로 집중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측면에 있어서는 제작사별 프로그램의 시청률 합 기준으로 집중도는 높지 않음
- 장르에 있어서는 모든 채널에서 공급측면보다 이용측면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남
- 내용에 있어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성별) 현실의 남성인구비율인 49.9% 대비 드라마(60%), 뉴스(74.8%), 예능(56.7%), 탐사보도(71.4%)에 남성이 등장·재현되고 있음
 - (연령) 드라마의 경우 현실에 비해 30~49세, 15~29세의 비율이 더 많이 등장하며 뉴스에서는 50~69세(56.0%)의 비율이 높게 재현(현실 28.7%)되고 나머지 연령대는 과소 재현됨. 예능의 경우 30~49세(55.0%)가 현실보다 많이 등장하며, 나머지 연령은 과소 재현됨. 마지막으로 탐사보도의 경우 30~49세(40.8%)와 50~69세(40.0%)가 현실보다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나머지 연령대는 과소 재현됨
 - (직업) 드라마의 경우 현실대비 전문가·관리자·서비스종사자가 과다 재현(현실 20.4%, 드라마 67.0%)되고 있음. 뉴스와 예능, 탐사보도 역시 해당 직업이 현실보다 과다 재현되고 있음

- (장애) 드라마의 경우 현실에 비해 장애인의 재현이 낮음(현실 4.9%, 드라마 0.7%).
뉴스 역시 장애인의 재현은 0.2%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예능과 탐사보도 역시 매우 낮거나 출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시청자 인식 조사결과

- 드라마 등장인물과 관련하여 현실에 비해 적게 등장했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장애인(4.01점), 농어민(3.82점), 생산직/실업자(3.74점), 단순노무직(3.48점), 노인(3.11점)이 현실보다 과소 재현되고 있다는 인식이 많았으며, 여성(2.35점)의 경우 과소 재현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높았음
- 뉴스의 경우 장애인(3.53점), 농업인(3.43점), 실업자(3.32점), 단순노무직(3.29점), 생산직(3.23점), 노인(3.03점)이 현실보다 과소 재현되고 있다는 인식이 많았으며 여성(2.70점)의 경우 과소 재현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더 많았음

제6절 국제협력

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 한국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아태지역 위원국(임기: 2017년~2021년)으로서 제7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여 위원국으로서의 역할이행 및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함
 -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제7차 총회는 2019년 6월 4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됨
 - 협약 당사국 145개국과 EU, 옵저버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은 주유네스코대표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담당자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였음
 - 한국은 제6차 총회(2017년 6월 12일~6월 15일 개최)에서 정부간위원회 아태지역 위원국으로 선출되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인도네시아와 함께 아태지역에서의 문화다양성 협약의 이행을 견인하는 선도적 역할을 맡고 있음
- 제7차 총회에서는 △사무국 및 정부간위원회 활동 현황, △문화다양성 기금(IFCD) 현황, △4년 주기 정기보고서 검토내용,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 이행 로드맵 등이 논의됨
 - 개회사에서 Ernesto Ottone Ramirez 문화 사무총장보는 한국, 일본, 스페인 등이 자발적 신탁기금 지원으로 협약이행에 기여하는 점에 사의를 표함
 - 한국 대표단은 △2010년 협약 비준 이래 문화다양성 법 제정(2014년) 및 지자체 조례 조정 등 법적 기반 수립, △2018년 글로벌리포트의 한국어판 발간, △2014년에 이어 2018년에 두 번째로 국가보고서 제출, △2019년 협약 관련 국제·국내 콜로키엄 개최 등 협약이행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소개함
 - 유네스코 본부에서 추진 중인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의 진화’ 연구와 관련하여 주요 당사국의 의견 청취를 위해 유네스코 연구진이 한국 정부대표단과 인터뷰를 진행함
 - 대표단은 변화한 국제 환경 하에서 협약의 유효성, 협약에 대한 국내 인식, 한국 내 문화다양성 논의의 발전 양상과 정책 연계성, 협약이행과 관련한 한국의 관심 사항과 우려, 한국의 문화 ODA 사업에 관해 입장을 전달함

2. 유네스코 협력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 유네스코와 신탁기금 지원 MOU를 체결(2008년 수정 체결)하여 문화다양성 협약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문화 창의산업 개발을 지원해 오고 있음
 - 개발도상국 문화창의산업 육성을 위한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총 14개국에서 21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한국의 문화발전 경험을 토대로 문화창의산업 기반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임
 - '19년도에는 아세안 지역 창의성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 사업으로 신탁기금 4.81억 원을 유네스코에 출연, ▲아세안 문화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태국 문화 창조산업 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 협력 강화, ▲인도네시아 문화다양성 정책을 지원함

- 유네스코 문화섹터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파견하여 신탁기금 사업을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근무자 파견을 통해 개발도상국 문화창의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 사업 추진,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정책수립 및 연구 지원, 한국과 유네스코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있음
 - 이를 통해 한국정부의 유네스코 신탁기금 사업 성과를 제고하고, 유네스코 정책 형성에 공헌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 및 국제협력을 강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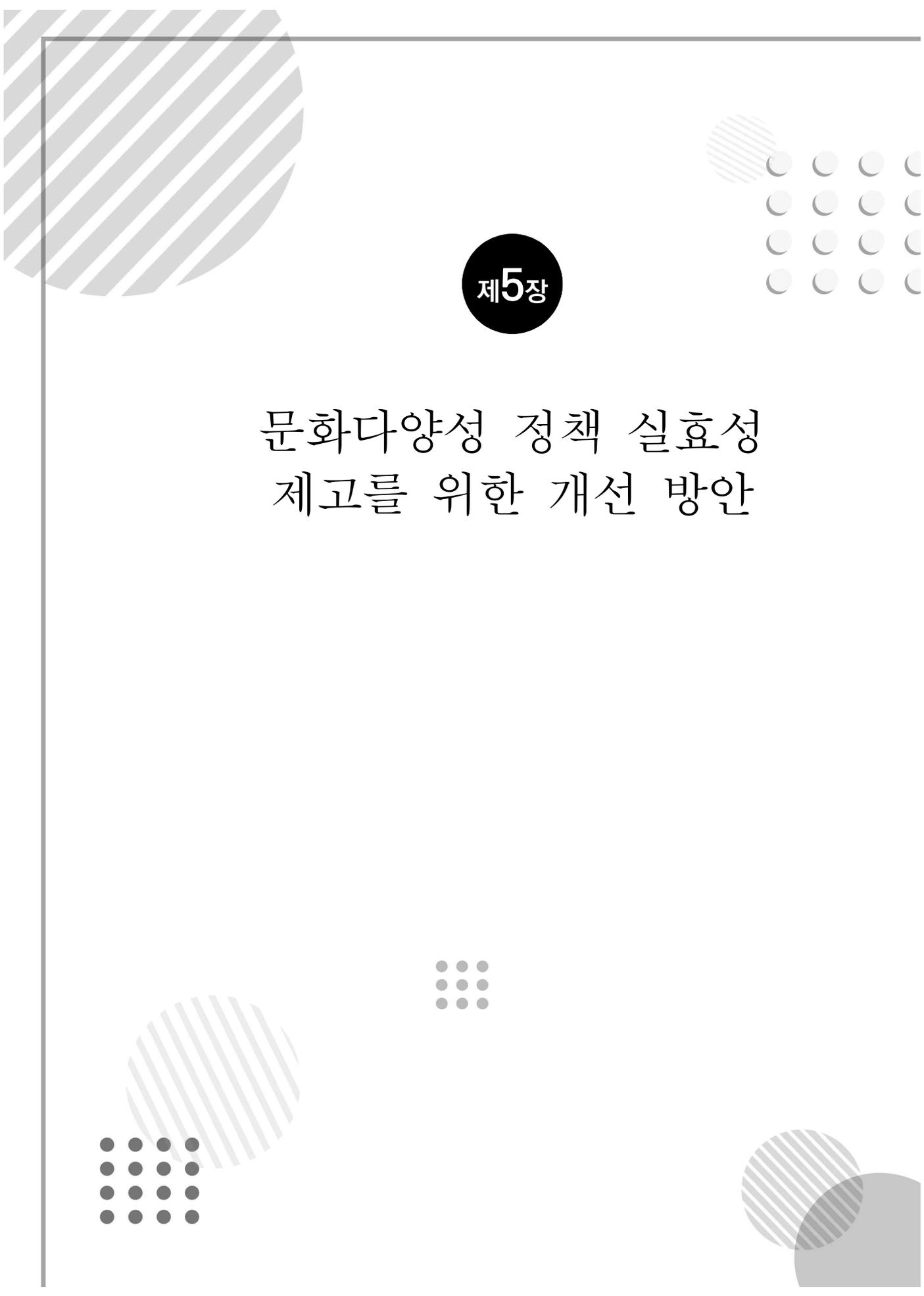
3. 유네스코 협약 관련 국제 포럼 및 전문가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네스코 ‘2018 글로벌리포트-문화정책의 재구성’ 한국어판 발간 홍보 및 협약 정부간위원국으로서 국제적 역할 강화를 위한 국제 포럼을 개최함

- 유네스코는 2015년, 2018년 총 2회에 걸쳐 협약 당사국들이 4년 주기로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협약이행을 위한 장기 목표별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하는 글로벌리포트를 발간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함께 ‘2018 글로벌리포트’의 한국어판을 발간하였으며, 이를 기념하고 홍보하기 위해 2019년 4월 18일 현대미술관에서 국내외 학자·관계자·활동가 200여 명이 참여한 국제 포럼을 개최함
 - 포럼에서는 ‘2018 글로벌리포트’ 집필진들의 발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문화거버넌스와 시민사회의 참여,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예술가의 권리 등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관련 주요의제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짐

■ 문화다양성 협약에 대한 국내 이해를 제고하고 유관 분야 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국내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함

- 2019년 8월 27일 개최된 국제 토론회는 Himalchuli Gurung 유네스코 베이징 사무소 문화담당관, Salman Asif 전 UN 자문, 중국·인도네시아·싱가폴 등 관계국 학자 및 활동가를 포함한 국내외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태지역 맥락에서 2005년 협약의 이해와 이행 현황 및 과제, 위원국의 역할과 책임 등이 논의되었음
- 또한, 10월과 11월에는 2회의 토론회를 통해 국내 학자와 활동가, 관계자들이 모여 한국적 맥락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과제를 문체부의 새로운 문화전략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2005년 협약이행을 위한 정책사업들의 확장성과 지속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사업 우수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함



제5장

문화다양성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1. 문화다양성 보호·증진 기본계획 수립

■ 문화다양성 보호·증진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은 문화다양성법 제6조에 의거해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표 5-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p>[법률] 제6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p>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의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 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발굴 및 보급 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보자료의 제작 및 보급 라.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 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력 양성 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협력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여야 한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연구 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시행령]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p>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기본계획의 부재로 인해 문화다양성 정책의 연계성·일관성 부족

-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부처의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건수와 내용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임
 - 2019년 기준, 중앙부처에서 추진한 265개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240개를 진행하여 90.5%로 가장 높음. 그 다음으로 교육부·행정안전부(5개), 여성가족부 4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개, 법무부 2개, 고용노동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외교부 각 1개를 진행함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일반시민, 예술인 및 예술작품과 문화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반면,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에서는 여전히 다문화주의적인 관점에서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실정임
 - 사업 추진 상의 차이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통합된 관점과 명확한 정책 대상의 부재로 인해 담당자의 정책 이해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임
- 기본계획을 통해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국내 환경에 적합한 정책 대상 설정·제시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문화주의 관점에서의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대상의 사업 및 차별과 배제 금지의 관점에서 사회적·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함.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함

■ 문화다양성 보호·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필요

- 법률에 의거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은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와 조정을 통해 수립이 가능함
- 기본계획은 정책의 방향과 목표, 세부과제를 명시하고 있어 정책의 실행주체가 관련 사업을 이행하거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 준거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의 이행현황 및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할 때 역시 판단의 근거가 되기에 중요함
-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야 할 방향과 목표를 총괄적으로 제시할 것이 필요함

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기반 조성

■ 문화다양성위원회를 통한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역할은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 관계 부처 간 협조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와 조정을 담당함(문화다양성법 제7조)
 - 2020년 6월 개정법에 의거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문화다양성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의 내용 확대 및 실효성 증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문화다양성위원회는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문화다양성이 모든 인간의 문화적 표현 증진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타 부처의 정책 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상호 간 협력·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표준조례안을 마련·배포하여 지자체 조례 제정을 활성화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함
 - 문화다양성 조례는 예산 확보 및 전문기구 설치 등 지자체 내 사업 추진의 법적 장치 이기에 중요함. 이에, 표준조례안을 통해 아직 조례가 부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민의 책무,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문화다양성센터 설치, 문화예술·학술·체육·문화산업 분야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사무 위탁 및 권고 등이 포함됨
- 지방정부는 자체적인 기준과 판단, 해석에 근거해 사업을 운용하기 때문에 시의회 및 시정부의 이해 수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며 지역별 차이가 나타남. 이에 지역의 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특성화된 정책 추진 및 사업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함
 -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문화다양성 항목을 추가하여 시의원 및 시정부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업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는 방안, 혹은 문화다양성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문화영향평가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중앙 및 지역 환경에 맞는 정기적인 실태조사 수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의식수준,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 실태파악을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수시조사를 시행해야 함 (문화다양성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2017년에 수행한 바 있으며, 2020년 조사 진행 중임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수행 중이며, 2019년에는 고양시와 김해시가 조사를 진행함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적인 실태조사 수행을 통해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의 성과와 방향을 설계하고, 연도별·지역별 문화다양성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문화다양성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의 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지표 개발을 통해 정기적인 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의장국으로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

- 한국은 제13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2021년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으며 우수 문화정책 사례를 공유 및 의제 발굴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3. 문화다양성 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 및 추진 체계 마련

■ 중앙 및 지방 공무원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시행

- 공공부문 문화다양성 인식개선을 위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해야 함
 - 현재 문화다양성 교육은 다문화·외국인·장애인 등 사회 소수자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교육 내용 확대 등 개선 필요성 있음
 - 또한,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교육은 전 부처·부서 소속 공무원에게 필요하므로 문화다양성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문화다양성 사업 담당자들 간의 사례 공유 및 정기 성과점검회의 개최

- 문화다양성 사업 담당자들 간의 개인적 역량 차이를 해소하고 지역 간 사업 사례 공유를 통해 관련 담당자와 실무자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통합 워크숍을 개최해야 함
 - 워크숍의 성격에 따라 정기 성과점검 회의, 권역별 성과점검 회의, 실무자 중심의 공유회의, 대표자·관리자 대상 공유회의 등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함

■ 문화다양성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성적 평가지표 개발 필요

- 참여자 및 표현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은 수행 기관별로 다양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현재 정책 성과평가는 사업의 수와 예산, 참여자 수 등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한 실적보고로 이뤄져 있어 사업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므로, 문화다양성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성지표 개발이 필요함

■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마련

- 민간 중심의 문화다양성 추진 협력체를 구성하여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
 - 많은 문화다양성 조례에서 제시된 지역 문화다양성센터는 민간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됨. 즉, 문화다양성센터는 민간 중심의 사업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장려함

4. 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 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 모색

- 지금까지 국민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개선과 수용성 증진을 위해 추진한 사업은 대체로 축제 등 행사와 이벤트 사업인 경우가 많아 사업의 단기적·일시적 운영이라는 문제를 지님
-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양질의 사업 개발이 필요하며, 일반 국민 대상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공동체 대상의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사업 개발이 필요함

■ 특색 있는 정책사업 개발을 위한 노력 요구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색을 갖춘 사업보다는 다문화이해 교육, 노인·장애인·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찾아가는 문화향유 사업 등 유사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한계를 지님
- 이에, 사업 운영의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특색을 갖춘 사업 개발이 필요함

■ 문화적 표현의 독특성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정책 대상 확대

- 한국 문화다양성 정책은 기존의 다문화주의 정책의 연장선으로 이해되어 민족·세대·성별·신체적 특징 등 개인의 정체성 보호 관점에서 실행된 측면이 있음
- 반면,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순수예술, 독립문화예술, 하위예술, 비주류예술 및 향토 문화와 민속 문화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함
- 따라서 문화예술 장르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원 방향이 필요함

■ 문화다양성 관련 자료 공유를 위한 DB 구축

-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사이트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관련 통계자료 및 실태자료, 연구자료, 사업성과를 통합적으로 아카이빙하고 공유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해야 함

| 참고문헌 |

■ 연구보고서

- 고양시정연구원. 2019.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구책임: 권선영).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과학기술과 공정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2011-15).
- 김해시. 2019. 『김해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구』, (연구책임: 장현선).
- 류정아. 2015. 「문화다양성 개념과 도시 정책적 함의」, 『세계와 도시』 제11호. 서울연구원.
- 부산광역시·부산문화재단. 2019. 「부산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포럼 자료집」.
- 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 (연구책임: 이동연).
-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연구책임: 류정아).
- 문화체육관광부. 2015a.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 (연구책임: 류정아).
- 문화체육관광부. 2015b.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연구』, (연구책임: 류정아).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연구책임: 류정아).
- 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6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연구책임: 김면).
- 문화체육관광부. 2018a. 『2017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연구책임: 김면).
- 문화체육관광부. 2018b. 「제2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연구」, (연구책임: 김면).
-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8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연구책임: 김면).
- 영화진흥위원회. 2020. 『2019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 유네스코. 2015. 『문화정책의 재구성』.
- 유네스코. 2018. 『문화정책의 (재)구성』.
- 이동연(1998). 「문화의 독점강화와 다국적 문화산업의 지형」 『한국언론정보학보』 10권.
- 정보람. 2019. 「KCTI 정책리포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2019년 미디어다양성 조사』, (연구책임: 성욱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0. 『디지털 플랫폼의 경제학 II: 빅데이터·AI 시대 디지털 시장의 규제이슈』, (연구책임: 최계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개선방안』, (연구책임: 정보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2019년 무지개다리사업 컨설팅·평가 연구』.
- Dell Technologies. 2019. *Dell Technologies 2019 Diversity&Inclusion Report-Unlocking innovation by Celebrating Difference.*
- Microsoft. *Diversity And Inclusion Report 2019.*

P&G. 2019 *Citizenship Report*.

SK 하이닉스. 2019. 『SK hynix Sustainability Report 2019』

The Ministry of Culture of the Czech Republic. 2015. *National Cultural policy of the Czech Republic 2015~2020*.

Uber. *Uber D&I Report 2019*.

■ 학술논문

Bazzi, Samuel, Arya Gaduh, Alexander D. Rothenberg, and Maisy Wong. 2019. *Unity in Diversity? How Intergroup Contact Can Foster Nation Building*. *American Economic Review*, 109 (11): 3978-4025.

Brettell, Caroline B. and James F. Hollifield eds. 2000. *Migration Theory: Talking Across Discipline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Cardenas, Diana and Roxane de la Sablonniere. 2020. *Participating in a new group and the identification processes: The quest for a positive social identity*.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9, 189-208

Cárdenas, D., & de la Sablonnière, R. 2017. *Understanding the relation between participating in the new culture and identification: Two studies with Latin American immigra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8(6), 854-873.

Cárdenas, D., De la Sablonnière, R., Gorborukova, G. L., Mageau, G. A., Amiot, C. E., & Sadykova, N. 2019. *Participation in a new cultural group and patterns of identification in a globalized world: The moderating role of similarity*. *Self and Identity*, 18(6), 709-738.

Crémer, Jacques., Yves-Alexandre de Montjoye., Heike Schweitzer. 2019. *Competition Policy for the Digital Era*, European Commission's Special Advisors' Report

Fereshteh Ahmadi, Mehrdad Darvishpour, Nader Ahmadi & Irving Palm. 2020. *Diversity barometer: attitude changes in Sweden*. *Nordic Social Work Research*, 10:1, 21-38.

Fleischmann, F., & Phalet, K. 2018. *Religion and national identification in Europe: comparing muslim youth in Belgium, England, Germany, the Netherlands, and Swede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9(1), 44-61.

Grabowska, I., & Jastrzebowska, A. 2019. *The impact of migration on human capacities of two generations of Poles: the interplay of the individual and the social in human capital approache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1-19.

Hagan, Jacqueline Maria, and Joshua Thomas Wassink, 2020. *Return Migration Around the World: An Integrated Agenda for Future Research*. *Annu. Rev. Sociol.* 2020. 46:7.1-7.20.

- Hausmann, Ricardo & Nedelkoska, Ljubica. 2018. *Welcome home in a crisis: Effects of return migration on the non-migrants' wages and employment*, European Economic Review, Elsevier, vol. 101(C), pages 101-132.
- Janta, H., Jephcote, C., Williams, A. M., & Li, G. 2019. *Returned migrants acquisition of competences: the contingencies of space and time*.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1-18.
- Miller, M. J., & Castles, S. 2009.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Basingstoke,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 Repke, L., & Benet-Martínez, V. 2017. *Conceptualizing the dynamics between bicultural identification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Frontiers in Psychology, 8, 469.
- Patel, Nilay. 2018. *The Court's Decision to Let AT&T And Time Warner Merge is Ridiculously Bad*. The Verge.
- Perez, Caroline Criado. 2019. *Invisible Women: Data Bias in a World Designed for Men*. Harry N. Abrams.
- Quinetta M. Roberson. 2018. *Diversity in the Workplace: A Review, Synthesis, and Future Research Agenda*. Annu. Rev. Organ. Psychol. Organ. Behav. 2019. 6:69-88.
- Wassink, J. T., & Hagan, J. M. 2018. *A dynamic model of self-employment and socioeconomic mobility among return migrants: The case of urban Mexico*. Social Forces, 96(3), 1069-1096.
- Yong, Enn Lun. 2019. *Understanding Cultural Diversity and Economic Prosperity in Europe: a Literature Review and Proposal of a Culture-Economy Framework*. Asian Journal of German and European Studies 4:5.

■ 웹사이트 및 신문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 라오스 문화정책 소개 자료(<http://www.wgcd.org/policy/clink/Laos.html#GEN>)
- 문화다양성아카이브(<http://www.cda.or.kr/rainbow>)
- 유럽의회 홈페이지(<https://www.coe.int/en/web/interculturalcities/spain>)
- 위키피디아 “크로아티아”(<https://ko.wikipedia.org/wiki/크로아티아>)
- 헝가리 정부 문화부(<http://www.okm.gov.hu>)
- 호주 문화부(<https://www.arts.gov.au/>)
- 호주 정부 조직도(<https://www.infrastructure.gov.au/departments/about/structure.aspx>)
- 정부24(<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49000100036>)

- 캐나다 법무부 보고서. Government of Canada. *Cultural Diversity in Canada: The Social Construction of Racial Difference*
(https://www.justice.gc.ca/eng/rp-pr/csj-sjc/jsp-sjp/rp02_8-dr02_8/p7.html)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https://www.kofih.org>)
- Bechdeltes(<http://bechdeltest.com/>)
-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
- Facebook(<https://diversity.fb.com/read-report/>)
-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https://www.eeoc.go>)
- UNESCO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https://en.unesco.org/creativity/>)
- The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2015(<http://www.mipex.eu/>)
- The 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 Trends(2019.8.12.), “Spain 2.5.4”
(https://www.culturalpolicies.net/country_profile/spain-2-5-4/)
- Queen’s University(<https://www.queensu.ca/mcp/>)
- 여시재(2019.11.20.), “[디지털과 미래 / 07 / 플랫폼 경제의 명암] 기업가치 최상위권 점령한 플랫폼 기업들, 혁신과 독점의 기로에 서다.” (<https://www.yeosijae.org/posts/775>)
- 슬로우뉴스(2017.3.8.), “F Rated, 여성 영화를 분류하는 새로운 기준.”
(<https://slownews.kr/62274>)

■ 유네스코 국가보고서

- UNESCO. 2019. 『중국 국가보고서』
- UNESCO. 2019. 『라오스 국가보고서』
- UNESCO. 2018. 『호주 국가보고서』
- UNESCO. 2018. 『크로아티아 국가보고서』
- UNESCO. 2018. 『헝가리 국가보고서』
- UNESCO. 2018. 『체코 국가보고서』
- UNESCO. 2018. 『라오스 국가보고서』
- UNESCO. 2016. 『캐나다 국가보고서』
- UNESCO. 2016. 『프랑스 국가보고서』
- UNESCO. 2016. 『스페인 국가보고서』
- UNESCO. 2016. 『독일 국가보고서』
- UNESCO. 2016. 『스웨덴 국가보고서』



부 록

1. 2019년 문화다양성 사업 목록
2. 2019년 문화다양성 주간 프로그램 소개
3. 「2019년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작성지침
4. 문화다양성 정책 관련 연구 연혁

부록 목차

1. 2019년 문화다양성 사업 목록	249
1) 정부부처 문화다양성 사업 목록	249
①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249
②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253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소속 공공기관)	259
④ 기타 중앙부처	267
2)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사업 목록	270
① 서울특별시	270
② 부산광역시	281
③ 대구광역시	290
④ 인천광역시	295
⑤ 광주광역시	301
⑥ 대전광역시	306
⑦ 울산광역시	308
⑧ 세종특별자치시	311
⑨ 경기도	312
⑩ 강원도	323
⑪ 충청북도	329
⑫ 충청남도	334
⑬ 전라북도	340
⑭ 전라남도	350
⑮ 경상북도	357
⑯ 경상남도	362
⑰ 제주특별자치도	369
2. 2019년 문화다양성 주간 프로그램 소개	370
3. 「2019년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작성지침	374
4. 문화다양성 정책 관련 연구 연혁	382

연구진

연구책임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학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연구진	황아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연구자문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 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보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한건수 (강원대학교 교수)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영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권선영 (고양시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용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부 팀장) 임혜진 (부천문화재단 문화진흥부장) 고은호 (종로문화재단 문화기획팀 주임)

2019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발행일	2020년 8월 5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044-203-2000 팩스 044-203-3447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인쇄처	더크리홍보(주)

2019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